

儒州春秋

二〇一九年版通卷 第二十二輯



柳陵全景 黃海道 九月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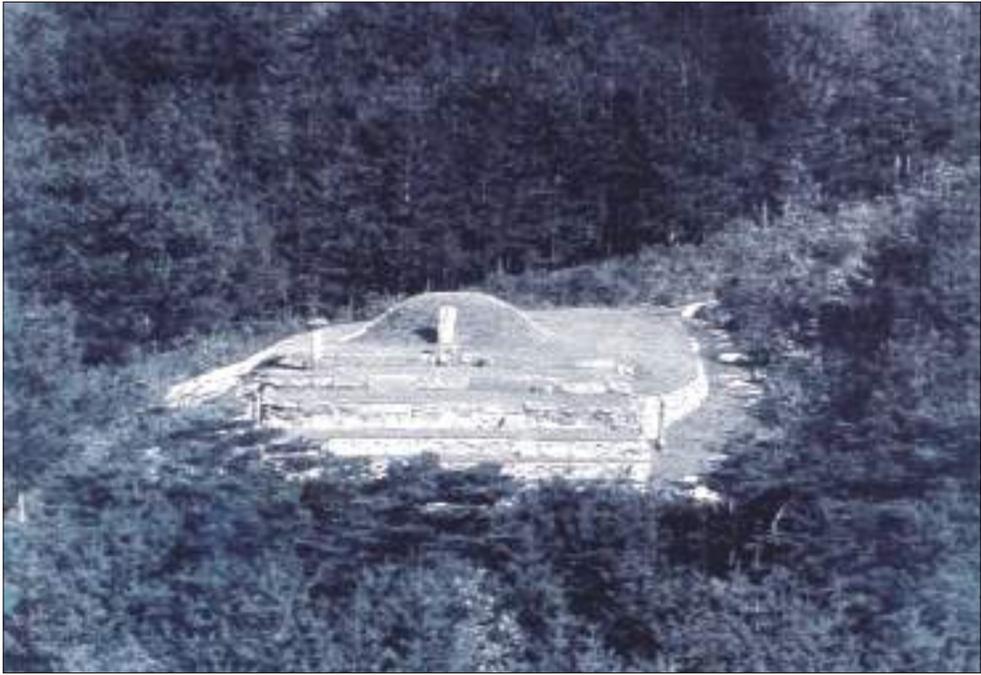
文化柳氏大宗會

儒州春秋

二〇一九年版通卷 第二十二輯



文化柳氏大宗會



始祖 大丞公 墓所
1943年 당시의 柳陵, 黃海道 九月山



燒失되기 전의 始祖 大丞公 齋室
敬思樓, 黃海道 九月山 墓下



柳陵 全景
黃海道 九月山



柳陵 앞의 保存遺蹟標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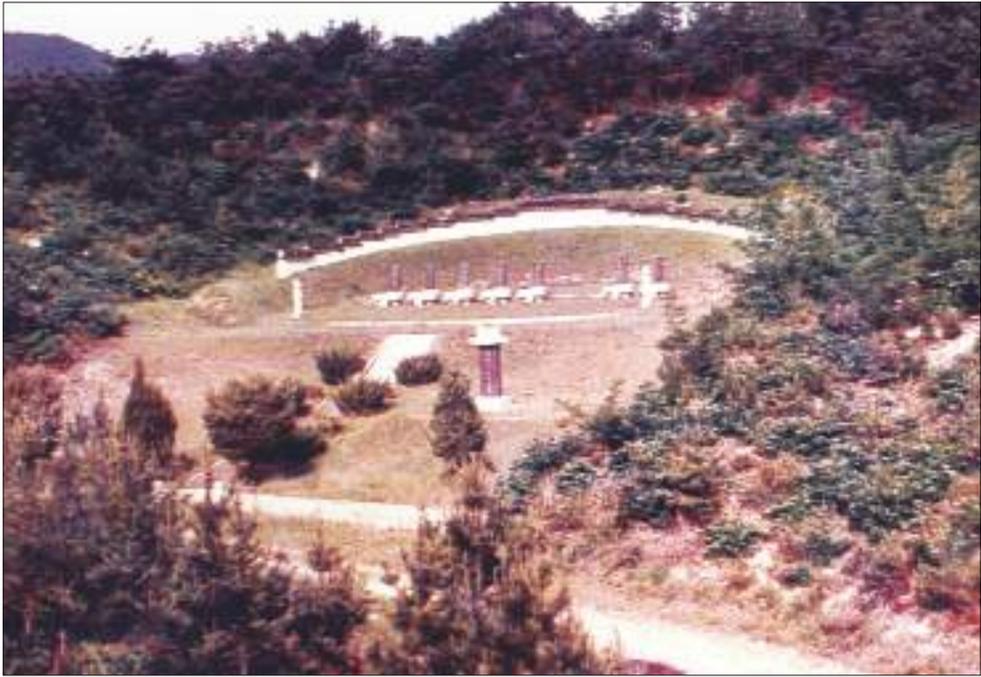
大東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길 21-1(동호동 614)



東雞祠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462(학봉리 789)



五代壇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6



慕省祠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계류리)



大 宗 會 旗



大 宗 會 館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6번길24(유천동)



文化柳氏由來碑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침산동 산34)



2019 己亥年 文化柳氏大宗會 新年賀禮式
(2019. 1. 10)

2019己亥年 文化柳氏大宗會新年賀禮式



2019 己亥年 新年賀禮芳名
(2019. 1. 10)



大東祠 享祀亭 記念撮影
(2019. 3. 21)



2019年度 大宗會春季理事會
(2019. 4. 4)



死六臣殉節 563週忌 春享祭
(2019. 4. 14)



2019年度 大宗會定期總會
(2019. 4. 18)



大宗會定期總會 受賞者
(2019. 4. 18)



東雞祠 大丞公享祀 參祀亭 記念撮影
(2019. 4. 19)



文柳大宗會 獎學證書 授與式
(2019.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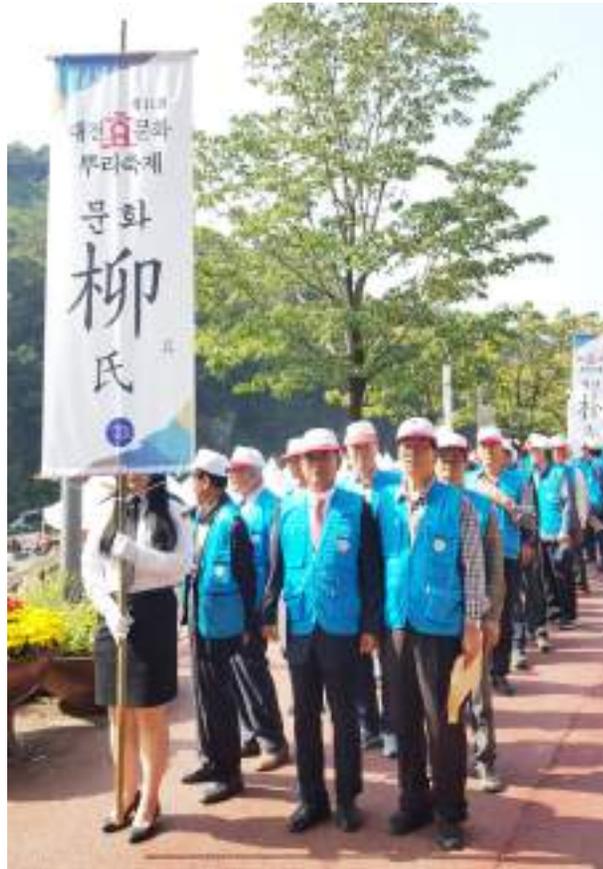


獎學生代表 答辭
(2019. 7. 23 柳叡智)



顧問·副會長·監事 등 懇談會
(2019. 8. 30)

제11회 뿌리公園
孝文化祝祭
文化柳氏入場式
(2019. 9. 28)



제11회 뿌리公園 孝文化祝祭
(2019. 9. 28)



慕省祠 享祀후 祭官 등 記念撮影
(2019. 10. 13)



晋州柳氏大宗會長 柳朝浩
(2019. 10. 13)

大宗會 任員團



顧問 大賢



顧問 興洙



顧問 暎烈



顧問 瑑鎮



顧問 來鉉



顧問 三男



顧問 浩燾



顧問 濟求



諮問委員 景植



諮問委員 在振



名譽會長 箕桓



會長 三絃



副會長 在殷



副會長 在英



副會長 秀澤



副會長 秉鉉



副會長 秦春



副會長 台紀



副會長 石鉉



副會長 金烈

大宗會 任員團



副會長 台烈



副會長 濟求



副會長 昌鉉



副會長 在萬



副會長 在寬



副會長 志瓚



副會長 在廣



副會長 在仲



副會長 愚翔



副會長 民城



副會長 周永



副會長 金丸



副會長 志誠



副會長 獎烈



副會長 益鉉



副會長 柱善



副會長 濟奉



弘報理事 朱桓



監事 志燕



監事 在休



事務總長 承鉉

卷 頭 辭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鉉

해의 부분 劃들을 속으로 갈무리하는 초겨울 立冬이 지난 節侯입니다.

流水와 같이 빠른 歲月은 벌써 己亥년도 年末이 얼마 남지 않았습
니다. 국내외 여러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宗親 여러분의 家庭에 항상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훌륭한 先祖가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구한 歷史와 名門巨族의 後孫으로서 명예로운 歷史와 傳統
을 먼 훗날 後孫들에게 傳承하여야 할 使命과 강렬한 愛宗心を 함께
간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大宗會 發展을 위해서 지대한 關心과 情을 베풀어 주
시는 宗親 여러분께도 새삼 敬意를 표합니다.

우리 大宗會가 宗親들의 아늑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안처럼 포근한
마음의 故鄉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微力하나마 熱과 誠을 다하여
努力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世의 훌륭한 遺德을 찬양하고 宗族간의 敦睦 진작을 위하여 매년 宗親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先世의 遺文과 遺筆, 狀碣 그리고 각 宗中の 크고 작은 行事와 紀行, 隨筆, 提言 등 다양한 記錄 등이 게재된 宗報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宗親 여러분과 함께 儒州春秋 제22집 발간을 祝賀하면서 그동안 玉稿를 보내주신 有志宗親 여러분의 남다른 崇祖孝親 精神에도 재삼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앞으로도 보다 次元 높은 宗報 발간을 위해 더욱 더 心血을 기울여 나가도록 가일층 努力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宗報 발간을 위해 誠力を 기울여 주신 관계 宗親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天地(自然)는 우리에게 한 없이 恩惠를 베풀면서도 베풀었다는 痕迹이 없는 것처럼 應用無念하는 자세로 文化柳氏大宗會가 日就月將 발전할 수 있도록 묵묵히 努力함은 물론 우리 大宗會가 항상 萬祥必臻하는 날을 祈願하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宗親 여러분! 항상 健康하시고 家庭에 幸福이 충만하시길 祝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

儒州春秋 第二十二輯 目次

卷頭辭	柳三鉉	17
目次	大宗會	19
特緝 始祖 大丞公(諱 車達) 享祀奉行	柳三鉉	23
公示 大宗會 表彰	大宗會	27
大宗會 獎學金 授與式	大宗會	29
獎學生代表 答辭	柳叡智	30
新年賀禮式	柳承鉉	31
2019 己亥年 大東書院享祀後記	柳金丸	33
하늘을 움직이는 大丞公의 威力	柳金丸	45
追慕辭	柳成葉	46
先蹟探究 公州鄉校 柳大丞公 東鷄祠 追配	柳大杰	47
戊子譜의 大丞公 探究	柳在均	49
漢城府判尹 柳公 諱 京生	柳在成	58
振威縣令 盤谷柳公(諱 績) 行狀	柳在成	61
光海主와 文城郡夫人(中殿) 文化柳氏忌辰祭 奉行	柳志世	66
貞慎公 諱 陞의 事蹟	柳重鎬	69
아~ 하늘이여	柳清烈	74
忠景公 墓下에 設壇한 3代壇 先祖의 事蹟	柳在仲	77
狀碣譯註 贈職·壽職·守職·行職 탐구	柳在均	84
文肅公 諱 思訥의 墓碑銘	柳在英	94
宗簿寺少尹柳公諱漢生墓道碑 謹豎	柳愚翔	99

	龍西公(諱 基一) 115年만의 歸鄉	柳三鉉	106
	龍西 柳基一先生	柳在金	116
宗中紹介	‘千年의 뿌리’始祖 祠宇 聖域化事業 提案	柳濶烈	118
	文化柳氏 夏亭公派 夏亭빌딩 懸板式 행사	柳浩燮	134
	2019년 春季大宗會 참석과 遺蹟地 탐방	柳昌鉉	140
	六臣祠 秋享大祭 參拜	柳昌鉉	142
人物紹介	朝鮮의 功臣	柳在萬	146
	忠景公 柳亮과 武將 柳文植	柳淸烈	152
	名公 柳希亮의 生涯	柳志世	154
	判事公(諱 廷懋)의 事蹟과 祭享	柳世鉉	161
	贊成公(諱 淙)의 一代記	柳三鉉	164
	壬辰倭亂과 柳仲龍의 義兵活動	柳瑢鎭	174
	吉孫 後裔	柳承鉉	180
	金川 柳世泓先生 行狀	柳瑩奭	183
	孝子 忠義衛 柳 檀 旌閭	柳瑩奭	186
	三一運動과 居仁 柳震玉	柳在澍	188
	獨立有功者 柳子明	柳在均	191
	서경 柳瑩奭 약사	柳采垠	199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을 이기는 나라는 없죠	柳濟求	205
	王仁賞 류부열 선정	柳在均	208
漢 詩	思鄉○癸未嘉月 外	柳淙鉉	210
	武夷山 天遊峰 外	柳暎烈	214
	追慕 王仁 博士	柳在豐	227
	忠景公派 扶安進士公宗中 會長	柳永熙	230
	柳鳳九 붓글씨	柳鳳九	232

散文詩	그리운 내고향	柳在珪	238
	추동마을 外	柳濟福	240
	30W 전등을 켜다	황혜리	241
	고향길 外	柳鳳九	242
	저녁 놀 外	柳相議	244
漫筆	韓國人 姓氏의 由來	柳濟成	246
	祭祀의 의미	柳熹烈	252
	朝鮮王朝의 官職과 品階 (文·武)	柳在寬	256
	大東祠 享祀를 精誠으로 奉行합시다	柳晏重	261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外	柳志卓	264
	先祖의 祭享日을 잃고 살아가는 後裔들!	柳金丸	266
	DNA와 해프로그룹 遺傳子族譜의 分析	柳光烈	270
紀行文	日本 후지산행과 배낭 여행	柳景化	278
	피오르드와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柳柱善	285
年例報告	大宗會任員錄	柳承鉉	288
	主要宗務報告	大宗會	295
	僞書 汙濫에 대한 警告	”	296
	沿革	”	297
	2019년도 春季總會誠金錄	”	299
	2019년도 貞愼公壇祀誠金錄	”	302
	2019년도 慕省祠享祀誠金錄	”	303
編輯後記	柳承鉉	307

【特輯】

始祖 大丞公(諱 車達) 享祀奉行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鉉

우리 文化柳氏의 聖地라고도 말 할 수 있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慕省祠에서 남북분단 이후 70여년만에 처음으로 후손들이 직접 祭需를 차려 始祖 大丞公(휘 車達)께 享祀를 올리는 그 첫 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慕省祠 全景

慕省祠는 山勢와 樹林이 茂盛할 뿐만 아니라 境內가 넓은 방축골 山麓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좋은 곳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곳은 先祖의 事蹟을 기록한 柳氏五代壇事蹟碑를 갖추고, 五代壇 上位에는 九月山의 영험한 터 정기 서린 곳에 鵝沙계서 柳門의 근원 재산 기울여 나라를 도우시고 자자 손손 도모하셨네. 북쪽을 향해 향을 올린다는 글이 뒷면에 새겨진 大丞文化柳公車達崇慕碑가 있고, 壇 입구 左측에는 文化柳氏五代追慕碑가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大丞文化柳公車達崇慕碑



文化柳氏五代追慕碑

그동안 大東祠와 東雞祠에서도 매년 始祖 大丞公의 享祀를 儒林주관으로 奉行해 오고 있다.

우리 後孫들은 남북분단으로 70여년전부터 黃海道 九月山 남쪽 寅坐原에 안장되어 계신 始祖 大丞公의 幽宅 省墓조차도 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 2018년 慕省會 理事會와 總會에서 慕省會定款 第2條의 규정에 의거 2019년부터 이곳 慕省祠에서 始祖 大丞公(휘 車達)의 享祀를 올리는 것을 만장일치로 議決한 바 있다.

慕省祠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곳 포천이 나온 巨儒이시고 萬人의 존경을 받는 碩學이신 大丞公의 후손으로서 朝鮮朝의 開國功臣으로 左議政을 역임하신 휘曼殊 先祖님의 17代孫 龍西公(휘 基一)께서 爲先의 精誠이 독실하여 墳墓를 실전한 先祖의 紙榜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매년 9월 그믐날 享祀하기를 24년만인 1899년에 지금의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방축동에 있는 그의 先塋 곁에 設壇을 하였는 바, 이것이 바로 오늘날 文化柳氏五代壇 始初의 계기가 되었다.

지난 1993년 8代 5位를 慕省齋에 봉안하기로 결의가 되었고, 2003년에 柳氏五代壇事蹟碑를 경내에 건립하면서 慕省齋를 慕省祠로 格上, 改稱하였으며, 2019년부터 始祖 大丞公의 享祀를 慕省祠에서 올리기로 決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柳氏五代壇事蹟碑

2019년 享祀 당일에는 大丞公 後孫들의 精誠과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가을 날씨라서 모두가 좋아했다.

그동안 우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大丞公의 笏記와 祝文, 陳設圖 등을 기초 근거로 하고, 成均館 등 여러 곳에서 諮問을 받은 事例들을 참고로 하여 數次에 걸친 典禮委員會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이 享祀를 봉행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始祖 大丞公의 位牌는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正位에 배열, 東位에는 2세, 4세, 6세, 8세의 位牌를 배열하고, 西位에는 3세, 5세, 7세, 9세의 位牌를 배열한다.

그리고 享祀는 正位에 모셔진 始祖 大丞公의 祭禮를 먼저 올린 후 그 다음

으로 東位, 西位에 모셔진 先祖님의 祭禮를 同時에 올리기로 한다.



慕省祠 享祀후 祭官 등 記念撮影

이상으로 2019년도 享祀에 관련된 사항들의 대강을 살펴보았으나,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未洽한 面들도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改善하고, 補完해 나가면서 先祖님의 享祀를 精誠껏 모실 것을 다짐하며 2019년도 慕省祠 始祖 享祀 봉행과 관련된 그 대강을 記述한다.



【公 示】

大宗會表彰

第 19-1 號

功 勞 牌

常任副會長 柳 淙 鉉

貴宗께서는 大宗會 創設 이후 大事業인 丙辰大譜·世系譜·寶鑑·戊子大譜의 刊行 實務를 수행하고 柳陵頌祝詩集과 宗報 儒州春秋의 編刊을 主管하여 本會의 基盤 造成과 位相 提高에 크게 貢獻하셨습니다. 이에 그 不朽의 業績을 致賀하고 기리고자 全宗親의 뜻을 담아 이 牌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18일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鉉



第 19-2 號

感 謝 牌

理事 柳 命 順

貴宗께서는 崇祖睦宗과 慕先育英의 투철한 精神으로 大小宗事に 渾身의 努力과 率先垂範함은 물론 大宗會 會議錄을 作成함으로써 本會의 資料保存에도 寄與한 功勞가 지대하셨습니다. 이에 恭儉惟德하는 그의 奉仕精神은 宗親社會의 훌륭한 龜鑑이 되므로 그 事行을 높이 致賀하고 勸勉하는 뜻에서 이 牌를 드립니다.

2019年 4月 18日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鉉



第 19-3 號

善 行 賞

姓 名：柳 光 相

生年月日：1964年 4月 17日

위 賢宗은 大丞公 36世孫으로 同氣間에 友愛和穆하고 崇祖睦宗의 精神으로 大小宗事에 渾身の 努力은 물론 隣近 地域의 어려운 家庭을 돕고 남이 모르게 後援을 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그 善行에 대한 稱讚이 자자하고 他的 模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施人布德하는 그의 奉仕精神과 善行功績은 宗親社會의 龜鑑이 되므로 그 事行을 致賀하고 勸勉하는 뜻에서 全宗親의 뜻을 모아 本賞을 드립니다.

2019年 4月 18日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鉉



第 19-4 號

功 勞 牌

晉州柳氏大宗會長 柳 朝 浩

貴宗께서는 平素 透徹한 崇祖睦宗의 信念으로 大小宗事에 크게 寄與하시고 晉州柳氏大宗會長으로서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시는 한편, 특히 五代壇 慕省祠 享祀에 至大한 關心을 갖고 每年 參祀는 물론 巨額을 獻誠하셨습니다. 이는 道義가 衰頹한 現世에 宗親社會의 훌륭한 龜鑑이 되므로 그 아름다운 事行을 致賀하고 勸勉하는 뜻에서 衆議를 모아 本牌를 贈呈합니다.

2019年 10月 13日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鉉



2019년도 大宗會獎學金 授與式

2019년도 文化柳氏大宗會 獎學生 獎學證書 및 獎學金 授與式을 지난 7월 23일에 대종회 소회의실에서 거행하였다. 대종회 삼현 회장과 문숙공과 재영 회장, 곤산군과 진춘 회장, 문평군과 태기 회장, 김한성공 과 태렬 회장, 광주·전남 종친회 금환 회장, 정숙공과 제구 회장, 판사공과 창현 회장, 충경공과 재관 회장, 충/전사령공종중 지찬 회장, 충/판윤공종중 재광 회장, 충/부령공종중 재증 회장, 서울권 종친회 주선 회장, 대전권 종친회 장렬 회장, 충/천안공종중 재풍 회장, 충/옥천공종중 지렬 회장, 충경공과 근희 사무국장, 좌상공과 복현 고문, 충/부령공종중 재일 사무국장 등 대종회 임원과 장학금 지급학생 12명, 학부형 등 총 50명이 참석하였다.

금년에는 총 17명이 접수되어 7월 23일에 獎學審査委員會에서 文化柳氏大宗會 獎學會 運營規程에 의해 12명(男學生 5명, 女學生 7명)을 선발하여 獎學金을 授與하였다.



獎學生代表 答辭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생명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대승공 38세손 충경공파 류예지 입니다.

오늘 문화류씨대중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수상자들을 대표해서 답사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자라나는 문화류씨 후손들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마련해 주시는 대중회 류삼현 회장님을 비롯한 일가 어른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있어 오늘 이 수상은 그 어느 것보다 일가 어르신들의 관심과 격려로 받은 값진 수상인 만큼 대승공의 후손으로써 책임감과 큰 보람 그리고 긍지를 느끼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류씨 대중회는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대중회의 일원으로서 커다란 자긍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라나는 문화류씨 후손들에게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중회의 배려와 은혜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대승공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욱 더 분발해서 우리 문화류씨 가문을 빛내도록 우리 수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장학생 대표 류 예 지

新年賀禮式



文化柳氏大宗會 事務總長 柳 承 鉉

2019 己亥年 新年賀禮式이 1월 10일 文化柳氏大宗會 3층 大會議室에서 三鉉 大宗會長을 비롯해서 瑒鎭 顧問과 台紀, 台烈, 愚翔副會長, 淸烈理事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事務總長의 司會로 新年賀禮式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三鉉 大宗會長은 人事말을 통해 60年만에 돌아오는 己亥年 黃金돼지의 해를 맞아 宗親 모두가 崇祖穆宗의 精神으로 大宗會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이고 福 많이 받으시고 黃金돼지의 氣運을 받아 所望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면서 健康하시고 幸福한 2019年 한 해가 되시기를 祝願하는 德談의 새해 人事가 있었다.

이어서 瑒鎭 顧問을 비롯하여 副會長 등의 祝辭말씀에 이어 이날 참석한 宗親 모두의 간략한 自己紹介 人事도 이루어졌다.

新年賀禮式場 입구에는 2019 己亥年 新年賀禮式 芳名記가 이날 記念式을 더욱 색다르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곧 이어서 大宗會長의 先唱으로 우리 大韓民國 萬歲, 始祖 大丞公을 비롯한 先祖님 萬歲, 文化柳氏大宗會의 무궁한 發展을 위한 萬歲 三唱이 있었다.

그리고 文化柳氏大宗會의 무궁한 發展을 祝願하는 “至誠떡” 컷팅이 拍手喝采와 함께 이루어졌다.

事務總長으로부터 大東祠와 東鷄祠 享祀에 宗親 모두가 참석해달라는 督勵에 이어 南北分斷이후 오는 10월 13일 抱川 慕省祠에서 처음으로 거행되는 始祖 大丞公(諱

車達) 享祀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는 公知사항에 있었다.

곧 이어서 이날 賀禮式에 참석한 會長團 등 모든 宗親들이 참석한 가운데 新年賀禮 合同記念寫眞 촬영을 마친 후 오찬에 들어가 台紀, 台烈 副會長으로부터 己亥年 黃金 돼지의 해를 맞아 우리 文化柳氏大宗會의 무궁한 발전을 祈願하는 乾杯제의로 自祝과 和合의 雰圍氣속에서 新年賀禮式이 和氣靄靄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고, 元老이신 能菴 (在豐) 전 忠/天安公宗中 會長께서 德談의 故事成語 말씀은 이날 행사를 더욱 정겹게 해주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愚翔 少尹公宗中 會長께서는 지금까지 賀禮式에 많이 참석을 해 왔지만 2019年 文化柳氏大宗會 新年賀禮式은 아주 알차고 멋진 希望을 주는 祝賀 行事가 되었다는 德談人事도 있었다.

己亥年에도 大宗會의 무궁한 發展과 함께 宗親 모두의 健康과 幸福을 祈願한다.



2019己亥年 大東書院 享祀後記



文化柳氏光州·全南宗親會 吳 大東祠保存會長 柳 金 丸

大東書院 任員：院長 申亨澈，掌議 金河培，掌議 崔基昱

大東書院祭官分定記

初獻 柳三鉉 文化柳氏 大宗會長

亞獻 金柱煥 前海南鄉校儒道會長

終獻 徐相燕 綾州 鄉校 典校

陳設 柳在一 夏亭公派 茅崗公後

執禮 文在錫 前光州鄉校 首席掌議

祝 金喜錫 靈巖 王仁學堂 訓長

奉香 柳昌重 中門祇侯使公派靖簡公後

奉爐 柳壯鉉 夏亭公派 茅崗公後

司樽 柳鎮彬 中門祇侯使公派靖簡公後

奉爵 柳鎮昌 中門祇侯使公派靖簡公後

奠爵 柳志世 中門祇侯使公派文陽府院君後

贊引 柳在革 左相公派 西山公後

學生 安基奉 前光州鄉校 評議會議長

原

하늘은 우리시조 대승공을 도왔습니다

1. 불안스럽던 날씨가 극복되다.

전일부터 하늘이 찌뿌리더니 결국 하늘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대동사 뜰에 '텐트' 20여개를 설치하였으나 바람에 나불거리더니 비가 뿌리기 시작했지요. 副會長 在然씨는 본인이 지킬 테니 모두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염체없이 오후 8시경 사무총장 京鉉씨, 부회장 秀榮씨와 재무이사 澤烈씨와 함께 집에 들어와도 좌불안석(坐不安席)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일기예보는 불안스러워서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심이 내 한사람의 몫이었겠습니까? 모두가 선잠으로 긴 밤을 지내셨으리라! 새벽에 창문을 열어보니 여전히 구름이 덩허 있고 안개비가 스치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종친들 역시 몹시 망설였을 것을 너리에 새기며 아침 일찍 京鉉氏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송정리 영광통에서 澤烈氏를 태우고 대동사에 도착하니 '텐트'는 제자리에 서 있었으나 비에 젖은 의자는 贊吉氏와 在然氏가 닦고 있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느끼며 강당에 들어서니 儒林 申亨澈 院長님과 副會長 晏重氏가 벌써 나와 있었고 잇따라 제관들이 속속 도착 향사에 대한 걱정들을 나누고 있는데 뜰에는 임원진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영암 모산 일가분들 20여명이 먼저 도착하여 날씨 때문에 걱정스런 모습으로 위로를 해주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강당 앞 텐트에는 갓 삶은 돈육(수육)과 달걀 주류 커피들이 진열되어 모두가 시장기를 달래며 하늘을 원망하는 대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기예보는 오전 중에 풀린다고 해서 하늘을 믿어 보기로 할 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2. 하늘은 열리고 향사가 시작되다.

9시가 조금 지나 三鉉 大宗會長님이 도착하시고, 해마다 제공해 주신 하정공파 高陽公 '柳民城' 종회장님의 배려로 서울, 경기, 충청, 전북의 종친 30여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사무총장 濟榮씨의 안내로 예상외로 빨리 도착하였고, 서울 釜山 蔚山 大邱 大田 論山 金堤 扶安 順天 麗水 突山 등지에서 원거리임에도 많은 종친들이 연세에 관계하지 않고 도착하시니 대동사 경내가 가득 찼습니다.

11시를 기해 儒林 '文在錫' 집례의 경쾌한 음성에 따라 初獻官 大宗會長 三鉉님과

함께 삼헌관 제관님들이 大丞公 靈前에 경건한 자세로 나열 향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은 대승공을 도와 비를 멈추게 하였고, 대승공 시조님은 200여명 후예들에게 큰 복을 골고루 내려주셨습니다. 꿈같은 순간이 일어나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50여분동안 성심을 바쳐 봉향을 끝내고 계단에 서서 ‘貞勳理事님, ‘朴柱五’專門寫眞作家(우리집안 채객<贅客님>의 수고로 祭官과 후예들의 기념촬영을 마치고 점심식사에 들어갔습니다. ‘텐트’와 강당에 200여명 후손들이 미리 차려 놓은 음식상 앞에 마주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몹시 흐뭇하고 정다워 보였습니다.

식사와 동시에 京鉉 사무총장의 사회로 간략하게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3. 儒林 申亨澈 院長님의 祝辭

대동서원장을 맡으신 신형철옹께서 하얀 수염을 날리며 염려되던 일기가 풀리니 과연 이곳이 명당임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후손여러분의 효성의 보람이라 축 하해주셨습니다.

문화류씨는 삼한시대에서 조선조까지 4대문벌이었음을 역설하시고, 일제(日帝)의 방해로 실현치 못했던 대승공 타령소를 창설 할 준비를 갖추었으나 불행하게도 6,25의 갑작스런 병란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관암 상렬(寬菴 庠烈)선생께서 태학관(성균관)을 위시하여 전국의 종친들을 방문하여 자금을 모아 이곳 신촌의 성지(聖地)를 택하여 대동서원을 창립하였으나 근 80년이 임박함에 건물이 노쇠하여 중수(重修)와 경내의 확장이 불가피하고, 서원(書院)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기에, 동시에 아직까지 시조님의 묘정비(廟庭碑)마저 모시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명실공히 서원(書院)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정화하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단(下壇)하셨습니다.

4. 대동사 보존회장을 맡은 졸손의 인사말씀

이어서 대동사보존회장인 졸손(拙孫)은 날씨도 어수선하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부터 참사(參祀)에 임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신 대종회장님과 종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올리고 변변찮은 소찬(小饌)이지만 성심껏 마련하였으니 맛있게 잡수시고 복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종친여러분 한분 한분마다 음복주(飮福酒)를 나누지 못한 점이 저의 가슴을 때린다고 하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앞서 찬사를 아끼지 않으신 대종회장님의 정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곳에 참례하신 종친여러분과 대동사 임원과 전국종친들은 이 행위가 후손 전체 의무임을 마음에 새기고 전국후예 모두가 효심을 발휘하시어 우선 묘정비(廟庭碑)와 신도비(神道碑)부터 수립(豎立)하자는 저의 말씀에 동조하는 의사를 박수로 동의 하였고 대종회장님의 원대한 계획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자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광주전남 종친회 임원들은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동의를 박수 속에서 공사에 임하고자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여러 종친들의 기원에 용기 백배하여 금년에는 기필코 묘비부터 수립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검한성공과중회 류태열(柳台烈)중회장님의 충경공 중회장님과 여러회장님 들께서는 강당휴게실에서 다음 해 향사 때까지는“廟庭碑를 꼭 수립”하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이 계셨었음을 임원진에 전하니 모두 만면에 웃음 꽃이 만발하고 자신에 가득찬 의지를 간직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祠宇 주변 정화와 확대사업에 임하고 74년 이상 보존유지 해온 대동사를 중수 확장함이 더욱 급선무이고,“문화재”신청의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향사에 임해주신 종친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5. 대동사 기지(奇地)는 성지(聖地)입니다.

대동사의 기지(奇地)는 광산구 본량면 동호리 신촌부락을 애워 짠 월륜산 중턱에 수려한 칠봉산(七峯山)이 병풍처럼 첩첩이 둘러싸인 선경(仙境)을 진작“도선국사(道洗國師)”와“무학대사(無學大師)”가 이곳을 지나시며 [문천무만, 文千武萬]의 [만월괘서滿月掛西]의 명당이자 성지(聖地)라 예언하였던 승지(勝地)입니다. 당시 관암 상열(寬菴庠烈)공께서는 전국을 누비시며 수많은 종친 일가 분들을 방문하시며 1933년 癸酉年 이후 개성 先塋近郊인 長湍郡 津西面 田齋里 鍾開川에 사우를 창설코자 순회하셨으나 일제(日帝)의 방해공작으로 중단되었었으나 전국 종친문중 및 太學館(成均館)등을 두루 방문하시고 특히 구월산(九月山)의 柳陵에까지 수차례 방문하시다가 日帝가 패망(敗亡)하자 남북의 분단으로 장단군은 포기하고, 이곳 聖地 신촌(莘村)의 명당을 택하여 1946년 丙戌年에 宗親과 儒林의 합모(合謀)로 대승공

의 타령소(妥靈所)를 공의 사유지(私有地)인 산록(山麓)을 택하여 족속 월호 류인대(族叔 月湖 柳寅大)공과 여러 친족 및 외손, 유림들의 헌성금으로 창립하시고“대동사”라 칭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기에, 오늘과 같은 풍운(風雲)의 일기에도 대승공의 성려(聖慮)로 쾌청한 날씨가 되어 봉향을 마치게 되었으니“지성이면 감천(至誠之感天)이란 선현(先賢)의 말씀이 실감(實感)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후예들의 성심(誠心)이 하늘에 전하여진 은공이라 사료되어, 당시 관암 선생의 현노(賢勞)가 아니었으면 시조님의 사당을 어느 누가 창건 하였으리요! 이 타령소가 타성(他姓)의 부러움의 명당이라 지금까지도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명소를 소중히 받들어 전국에 하나뿐인 사당을 관계부처(關係部處)를 찾아 영원히 보존 발전되도록“文化財”지정을 받도록 서둘러야 함이 우리 후손의 과제라 재강조 하는 바입니다.

6. 대동사우는 서산공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대동사”근교에는 좌상공의 후손 단종 조 절신(端宗朝節臣)西山公“휘자미(諱自湄)”선조의 후손이 대거 세거하고 있기에 사우 보존에는 아주 적격인 명소(名所)이기도 합니다.

전술한바와 같이 사우 경내의 정화와 확장이 급선무이기에 대동사보존회원은 물론 경향각지에 산거(散居)한 30여만 명의 후손들의 소망에 흡족하도록 실천하는 일만이 후예들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문화류씨 시조대승공 향사 일을 잊지 않으시고 日氣도 고르지 않았음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참사하여 주신 대종회장님과 종친님들에게 우리 광주전남종친들은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경향각지에 세거하신 종친여러분의 가정마다 황금의 돼지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같이하시고 모든 바라는 일이 성사되시기를 진심으로 시조 대승공 할아버님의 영전(靈前)에 엎드려 기원 드립니다.

己亥2019年 大東祠享祀 香燭代 獻誠內譯

	直派別	獻誠者	獻誠額	住 所	番號	備 考
小計	大宗會長	柳三鉉	500,000	문화류씨대종회장, 서울 관악구 봉천로 387, 은천동 두산A111-702	08750	
小計	侍郎公派	柳在殷	100,000	시랑공파종회장,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38 (마-301영동60, 평화아파트)	28544	
小計	文肅公派	柳在英	100,000	문숙공파종회장, (감찰공종회장) 충북 충주시 금성2길14(교현동456-16)	27380	
1	夏亭公派	柳秀澤	100,000	하정공파종회장,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41길13(장양안타운건영122-1203)	04624	
2	"	柳民城	300,000	고양공종회장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463(용천리)	12506	
3	"	柳周永	100,000	안숙공종회장 경기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167(회현리)	13563	
4	"	柳和善	200,000	영암 모강공종회장 영암군 신북면 모산구와리길15	58401	
5	"	柳基東	300,000	(청계공부산종회장)부산시 금정구 식물원로64(장정동SK뷰A 101동2002호)		
6	"	柳金丸	200,000	광주전남총친회장,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46.(삼익1차A 104동1301호)	61685	
7	"	柳等烈	200,000	영암 고양공지회장 영암군 신북면 애향로2374	58401	
8	"	柳秀榮	100,000	영암공파종회장, 광주 남구 방림로31, (휴먼시아110동1404호)	61667	
9	"	柳志洵	200,000	청계공종회장, 전남 여수시 쌍봉로366 (중앙하이츠, 둔덕동5동607호)	59695	
10	"	柳太鉉	100,000	광주전남총친회고문, 광주 남구 금화로 421번길18-1(월산동)	61611	
11	"	柳在燁	100,000	고양공이사, 지우재공도유사 별교읍 조정래길56(엘림A305호)	59423	
12	"	柳基洵	100,000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61-3, 401호	16421	
13	"	柳濟榮	100,000	고양공종회사무총장, 서울 금정구 독산로54길32, (문화류씨시흥센타301호)	08563	
14	"	柳在吉	100,000	청계공호림문중 광주 내방로430(농성A,1동702호)	61933	
15	"	柳鍾洙	100,000	고양공종회사, 울산시 남구 두왕로264번길,6-2	44742	
16	"	柳信一	100,000	남재공종회장, 영암신북면모산1구	58401	
17	"	柳在亮	200,000	남재공재경종회장,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동로34-20(벽산A101동610호)		

18		柳仲善	100,000	남재공정읍승지공중회장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294번지	56149	
19	"	柳壯鉉	100,000	남재공중회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이목동	58403	
20	"	柳泰伍	100,000	여수돌산문중회장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72-2	59772	
21	"	柳根燮	100,000	영암 모현공후, 영암읍 법무사무소장		
22	"	柳錦演	100,000	모강공승지공문중(하정공이사) 목포시 용당로284(용해동)	58648	
23	"	柳斗勳	100,000	모강공판서공중중 나주시 신월길36-10(송월동)	58253	
24	"	柳浩燮	50,000	하정공중친회사무총장 인천시 남구 수봉북로12길58-23	22164	
25	"	柳志濼	50,000	(고양공이사)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1길85	57982	
26	"	柳泳均	50,000	영화당문회장 순천시 저전동 천사큰길44	57958	
27	"	柳贊吉	50,000	하정공광주중회사무장,광산구 풍영로 329번길50.(광주전남중친회간사)	62219	
28	"	柳宗鉉	50,000	남재공중회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이목동	58403	
小計	"		3,450,000			
小計	崑山君派	柳秦春	100,000	곤산군파중회장,대구시 동구 율하서로 85 (선수촌A,103동902호)	41107	
1	文平君派	柳台紀	100,000	문평군파중회장,청주시 흥덕구 직지대 로 635번길80(봉명2동)	28175	
2	"	"	100,000	문평군파 참봉공중회장	"	
小計			200,000			
1	中門祇侯 使公派	柳石鉉	100,000	中門祇侯使公派會長,영등포구 영등포 동 8가91 당사푸르지오A,106동1701호	07226	
2	"	柳志世	100,000	중문지후사공안산중중회장 영등포구 당상로27길23(당상동3가)	07206	
3	"	柳晏重	100,000	광주전남중친회부회장,광산구 임방울 로142-12(운암동 삼성A116-101)	62318	
小計			300,000			
1	左相公派	柳在然	2,000,000	西山公중회장,대중회감사 광주 북구 천변우로79번길25(아텔리움 A.2차202-702호)	61253	

2		柳在傑	200,000	上同, 西山公宗會 판관공문중회장	61253	
3	"	柳在傑	200,000	上同, 西山公宗會 감찰공문중회장	61253	
4	"	柳京鉉	100,000	광주전남중친회사무총장 광주시 동구 제봉로25-2, 명성의료기 상사, 대동사총회대표	61480	
5	"	柳學鉉	100,000	좌상공중친회중손 포천시 자작로4길9-3	11158	
6	"	柳金烈	100,000	좌상공과중친회장, 대중회부회장, 포천시가산면가사로356(마산리)	11164	
7	"	柳在聖	100,000	좌상공과사무총장, 의정부시 신곡2동91-4	11619	
8	"	柳浩德	100,000	서산공후관공후(신호사관리) 광주 북구(신용동주공A103동1304호)	61018	
9	"	柳在弘	100,000	광주시 북구 당매로28번길6-4	61211	
10	"	柳敬烈	100,000	좌상공과 찬성공중회장		
11	"	柳福壽	100,000	울산서산공후 참판공회장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 1로 31		
12	"	柳福鉉	100,000	용인총제공중중고문, 춘청현감공회장		
13	"	樂吾宗中	100,000	좌상공과 다송		
14	"	불 명	100,000	문성군중중 후		
15	"	불 명	100,000	찬성공중중 후		
16	"	불 명	100,000	좌상공 후		
17	"	柳在金	50,000	찬성공중중 후		
18	"	柳富鉉	50,000	광주전남중친회고문 광산구 소촌로152번길5, 205-601	62383	
19	"	柳在冕	50,000	전남 화순읍 덕음로1011-5		
20	"	柳在春	50,000	광주시 북구 우치로27번길 50-11	61217	
21	"	柳聖烈	50,000	광주시 동구 용산동 한국A 101-812호		
22	"	柳承烈	50,000	서산공 후손		
23	"	柳殷相	50,000	문성군 중회		

			4,050,000			
1	檢漢城公派	柳台烈	100,000	검한성공파총회장,대중회부회장,전북 부안군 하서면 운암리65,(석상리494)	56333	
2	"	柳暎烈	100,000	前경기서울권총친회장,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6길11(독산동,도산빌딩4층)	08548	
3	"	柳三永	100,000	검한성공파 회인공종중	54321	
4	"	柳寅滿	100,000	검한성공파 함안공종중회장	54321	
5	"	柳正雄	200,000	검한성공파 영광공종중회장	54321	
6	"	柳在植	100,000	검한성공파 창평공종중 총무님		
7	"	柳興默	100,000	검한성공파영광공요은공 회장		
8	"	柳光烈	100,000	광주전남총친회부회장.화순군총회장 화순군 동면 충의로 439-5	58133	
9	"	柳寅百	100,000	검한성공파 영광공 회현공종중		
10	"	柳基燮	50,000	광주전남총친회監事, 광주시 서구 풍금로24번길19(풍암동954-8)	62051	
小計			1,050,000			
1	貞肅公派	柳濟求	100,000	前大宗會長,정숙공파총회장,옥천군 군북면 옥천로1124-1(이백리346번지)	29000	
2	"	柳濟福	50,000	대전시 중구 어덕마을로10번길31,405호(용두동,동아누리빌리지)	34822	
小計			150,000			
1	忠景公派	柳根春	500,000	(주)삼태특수건설사대표이사. 광주전남총친회부회장	61158	
2	"	柳在滿	150,000	부윤공종중회장.서울 도봉구 덕능로63가길 43 (창동대우A.103동202호)	01465	
3	"	柳在仲	100,000	부령공종중회장.논산시 연산읍 신양1길44-22	32911	
4	"	柳寬烈	100,000	광주전남총친회監事. 순천시 서면 강천안길 13	67926	
5	"	柳浩一	100,000	광주시 남구 화산로75 진아하히빌 202-1406	61711	
6	"	柳志演 (柳銀必)	100,000	(號雲山)류씨부산총친회장 안락로101번길16(충렬A17동107호)	47777	

7		柳在廣	100,000	관운공(대중회부회장) 상당구 장제로133(유인당 한약방)	28738	
8	"	柳강鉉	100,000	소운공후 참방공종중		
9	"	柳浩林	50,000	죽현공 종중		
小計			1,300,000			
小計	蔚山凡柳氏宗會長	柳濟鳳	100,000	울산범류씨중친회장. 중구 남외동 메일링A. 111동 403호	44484	
小計	瑞山柳氏	柳秉圭	200,000	(瑞山柳氏설강공과 Br 6층)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54		
小計	全州柳氏	柳건수	50,000	전주류씨 낙봉공과		
2	直派不明	柳在天 柳在珍	100,000	직납하였으나 주소등 확인불가함		
3	"	柳광영	50,000	송금 확인 불가함		
4	"	柳在春	20,000	직납하였으나 주소 불가함(전년에도 동일 하였음)		
소계			170,000			
1	延安車氏	車得根	100,000	연안차씨부산지부회장.부산시동구조방로48번길(자유시장5층513호)		
2	"	車得根	100,000	연안차씨부산지부종원일동		
3	"	車永奎	100,000	차류종친회부산총회장		
4	"	車永奎	50,000	차능보존협회고문.부산시남구유엔평화로47번길 67(대영동)		
소계			350,000			
합계	瑞山柳氏	柳秉圭	200,000	(瑞山柳氏설강공과 Br 6층)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54		
			합계	12,170,000		

금년 己亥년의 대승공 향사일은 예상치 못하게 날씨가 개운하지 못하여 종친 여러분의 효심(孝心)에 걱정을 끼쳤으나 시조대승공의 은정으로 마침내 향사를 마쳤습니다만 다소 염려됨은 일부 종친께서 헌성 해주신 향족대가 이름과 주소가 불명하신분

이 게시에 죄송하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못하여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주소와 통신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심점이 있으시면 류경현 (전화 010-3641-5688) 사무총장에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直派別 參祀現況

	직 파 별	향축대	참례자 인원		
			향축대 내신분	총참사 종 원	합 계
1	문화류씨 대종회	500,000	1	3	4
2	문숙공파, 곤산군파, 부산류씨종친회, 울산범류씨, 서산공파, 전주류씨, 차씨종친회	1,250,000	13	14	27
3	하정공파 후손	3,450,000	26	29	55
4	문평군파 후손	200,000	2	5	7
5	중문지후사공파 후손	300,000	3	8	11
6	좌상공파 후손	4,050,000	26	26	52
7	검한성공파 후손	1,050,000	11	15	26
8	정숙공파	150,000	2	6	8
9	충경공파 후손	1,300,000	11	7	18
10	직파 및 주소불명	170,000	2		2
합 계 12,170,000			97	113	210

황금의 무술년인 금년에는 경향각지에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종친님들이 참사해 주시어 감사했습니다.

직파별 참사 인원을 보면 매년 참례하신 후손님들이 참사하고 계심을 짐작할 수

가 있었습니다. 정말 흐뭇했습니다. 조상님의 복은 달라고 하는 후손에게만 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내년에도 후 내년에도 시조님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어 복 많이 받아 가지며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화환 등 축전 보내신 분

追慕辭 : 국회의원	柳 成 葉 님 (夏亭公 後)
화 환 : 문화류씨대종회장	柳 三 鉉 님 (左相公 後)
화 환 : 국회사무총장	柳 寅 泰 님 (夏亭公 後)
화 환 : 동대문구청장	柳 德 烈 님 (夏亭公 後)
축 전 : 대종회 고문	柳 暎 烈 님 (檢漢城公 後)
축 전 : 대종회 감사	柳 志 燕 님 (夏亭公 後)
축 전 : 부산류씨종회장	柳 志 演 님 (忠景公 後)
축 전 : 부산류씨부종회장	柳 在 玄 님 (夏亭公 後)
타올선물 : 좌상공파서산공종회	판관공 후손 기증,



하늘을 움직이는 大丞公의 威力



대동서원 보존회장 柳金丸(志瑛)

하늘이 높다 한들 하늘은 하늘이었네
폭우를 내렸어도 대승공은 웃었다오
대동사에 타령소(妥領所)가 계심은
후예들이 모이는 동경(憧憬)의 사우랍니다

하늘인들 대승공을 당할 손가
대승공의 厚德이나 후예들의 孝誠이더나
비 내리는 새벽길 마다 앓고 모여들어
종친끼리 정담 나누며 회포 풀며 반겼네

삼십만 반가운 우리 종친
백번 천 번 뵈들 지루 할 손가
大東祠宇 淨化하여 어느 때 반길거나
오늘도 靈前에 우리 함께 나열 하였다네

떠나는 후예들 헤어지기 아쉬워
광주전남 회원 에이는 마음으로 손 흔드네
내년에도 다시 뵈기 기약 하며
가정마다 행운실어 백년인생 살아 봅시다.

2019년 3월 21일(음력 2월15일)
대승공 향사를 모시고

追慕辭

문화류씨 하정공파
국회의원 柳成葉

먼저 뿌리 천여년의 오랜 종중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 문화류씨 시조이신 대승공 車字 達字 선조님을 기리는 향사를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문화류씨 대종회 발전을 위하여 한 결 같이 성원하시는 류삼현 대종회장님과 류금환 대동사보존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경향 각지에서 대승공 향사일에 참석하신 종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류씨를 세간에서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 일컫는 바, 이는 고려 조선 천여년 동안 대대로 많은 선조께서 충의효열(忠義孝烈)의 도리를 지켜 국가와 휴척(休戚)을 함께 하여왔기 때문입니다. 현세에 이르러서도 손세(孫勢)가 매우 번성하여 전국 각처 및 해외에 거주하는 종친을 합하면 40만을 상회할 뿐 아니라, 더욱이 인성과 학문을 두루 갖춘 많은 후생들이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함으로써 명문거벌(名門巨闕)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무릇 뿌리가 있어 가지와 잎이 있고 근원이 물갈래가 있듯이 인간 역시 조상이 계시어 후손이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로써 세대의 원근을 막론하고 조상의 유업(遺業)을 계승하는 한편 선영(先塋)을 수호하여 향사를 받드는 것인바 후손으로서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공무로 인하여 시조 대승공님의 유일한 단일 사우인 대동사 향사 봉행 행사에 종원 여러분과 함께 참배 하지 못하게 됨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종원분들과 같이 우리 문화류문의 빛나는 전통과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부끄럽지 않은 선량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기를 바라며 종친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서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21일(음 2월 15일)

【先蹟探究】

公州鄉校 柳大丞公 東鷄祠 追配



충경공과 소윤공종중 돈옹공종회 총무
遯翁公 柳 漣 14代孫 柳 大 杰

答 公州鄉校 柳大丞公 東鷄祠 追配推進委員會

伏惟羅朝 觀雪堂 朴忠正公 諱 堤上之立節異域其貞忠大節
 豈徒東土之人 千秋欽慕 固可以華夷見天地知而非 柳大丞公之賢勞
 則東鷄祠之創設 不可必也 其常義之志 彰節之誠 不有素所畜積
 安能容易辨此也 徒可以推尋其 學問之高 踐履之篤耳 大抵崇德報功
 儒紳之常事而 大丞公之尊奉於祠院者 已有他數個處 則當追配於是祠
 今僉執事以其事體之巨重 廣採輿論 博詢公議 彝秉攸在
 孰不同慶而相賀乎 惟願僉座 亟舉褥儀 以扶大義 以副與情 千萬幸甚

* 赤城誌 속지(향교통발 279p)

삼가 생각건대, 신라시대에 관설당(觀雪堂) 충정공(忠正公) 박제상(朴堤上)은 이 국땅에서 절의를 세웠으니 그 우뚝한 충정과 큰 절의는 어찌 우리나라에서만 오랫동안 흠모해 온 일이겠습니까?

진실로 중화와 오랑캐가 목격하고 하늘과 땅이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류 대승공(大丞公)의 고생이 아니었다면 동계사(東鷄祠)의 창건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니, 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절의를 드러내려는 정성을 평소에 축적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토록 쉽게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문의 고명함과 실천의 독실함만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덕을 숭상하고 공을 보답하는 것은 유학자들이 늘 하는 일이지만, 대승공을 사원에 높여 받드는 것은 이미 다른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마땅히 이 사원에 추배하는 것은 늦었다는 탄식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다.

지금 첩 집사들께서 시안이 중요한 것인 만큼 여론을 널리 모으고 공의를 널리 자문하시니 몇몇한 이성이 있는 자라면 그 누가 함께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첩좌께서 서둘러 의식을 거행하시어 대의를 일으키셔서 여론에 부응하신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 赤城誌 속지(향교통발 279p)

** 대승공 류차달(大丞公 柳車達) 추배

- 서기 936년 고려의 개국공신 류차달이 고려태조원당(願堂)인 동학사(東鶴寺)에 와서 신라 충신 박제상(朴堤上)의 충혼을 초혼제사하고 동계사(東雞祠)를 비로소 건립하였다.
- 대한민국 수립후 사림의 헌의(獻議)로 1956년(丙申)에 비로소 동계사가 중건.
- 서기 1958년 동향대제 총회에서 추배 결의하여 추배위원회 발족.
(발기인 李啓哲 등14인)
- 1959년 동계사에서 대승공 추배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문 질의한 결과 중앙유도회 성균관 각 도,군,향교 등140여 기구에서 찬성 통문 접수.
- 1960년에 숙모회(肅慕會)의 유론으로 동계사에 추배하였다
- 1976년 11월 14일 중건하고 낙성함. 숙모회에서 공사주관, 문화류씨대중회에서 공사비 3,491,000원을 조달하고 공사 감독을 함.

** 2016년 발행. 肅慕誌

戊子譜의 大丞公 探究



하정공과광주종친회장
대승공33세 柳 在 均

1. 서론

문화류씨 족보 영락보(1424년 발행)부터 무자보(2008년 발행)에 이르는 동안 문화류씨 시조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종원들은 대승공 아버지 이름(諱)이 확인 되지 않는 현실을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로 문화류씨 시조를 비하하는 일부종원이 있어 대동보인 무자보에 기록된 류차달 家門과 왕건 (이하 선조 존칭 생략함)관련 자료를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想起)해 봅니다.



(1권 자손록 1쪽)

대승공 공적은 태조가 정남(토벌)시 수레와 군량 지원으로 대승 삼한벽상공신이 되셨다는 기록된 사실인데 무자보 편집위원들이 고심하신 부분은 대승공 행적은 고려 개국공신 명단에 기록되어 있기에 공적보다는 정사보(1803년)부터 일회 해, 자는 응통, 호는 아사라 한 것과 병인보(1926년)에부터 대승공 배우자를 신라 김알지 후손 균의 딸이라 하여 정사보 이전 족보인 가정보(1565) 기사보(1689) 경신보(1742) 을유보(1765)에는 대승공 다른 이름, 자, 호, 배우자 기록이 없는 곳을 해당년도의 족보를 보라(見)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승공이 어느해 정남시부터 왕건과 관련이 있었는가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류씨 구전 자료를 문헌상에서 확인하려고 수년 동안 고서와 신간 학술 서적과 해당종중 족보 확인차 종중을 방문하여 비문을 확인하고 남도지방 역사학회 학술 발표에 참여한 학술지를 정리한 대승공 관련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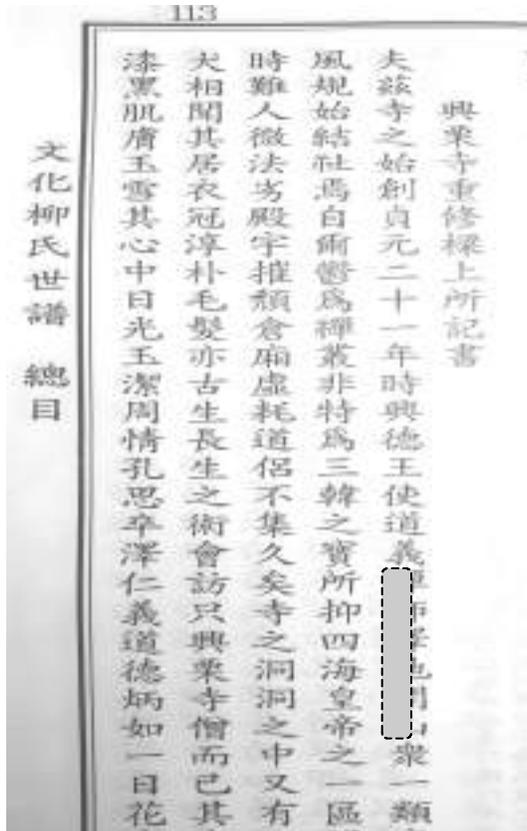
류차달이 왕건에게 수레와 군량미를 제공해서 고려 개국2등공신이 되셨는데 군용할 거 시대에 왕이 아닌 태봉국 궁예왕의 수 많은 장수중에 일개 장수에게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많은 재물을 조건 없이 지원 했는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과정입니다.

世宗實錄地理志 文化縣 편에 柳씨는 來姓(이주한 성씨)이라고 되어 있어 류차달선조(父, 祖父)가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儒州로 왔고 유주가 류차달 8대손이며 고려 고종 최씨무인정권기 때 류경 위사공신의 공으로 문화현으로 승격되었고 고려 초부터 문화 지역의 토착 세력인데 대승공 선조(父, 祖父)는 황해도 어디에서 무역을 하여 부를 축적했는지 유주로 온 기록이 없으나 류차달을 고구려 후손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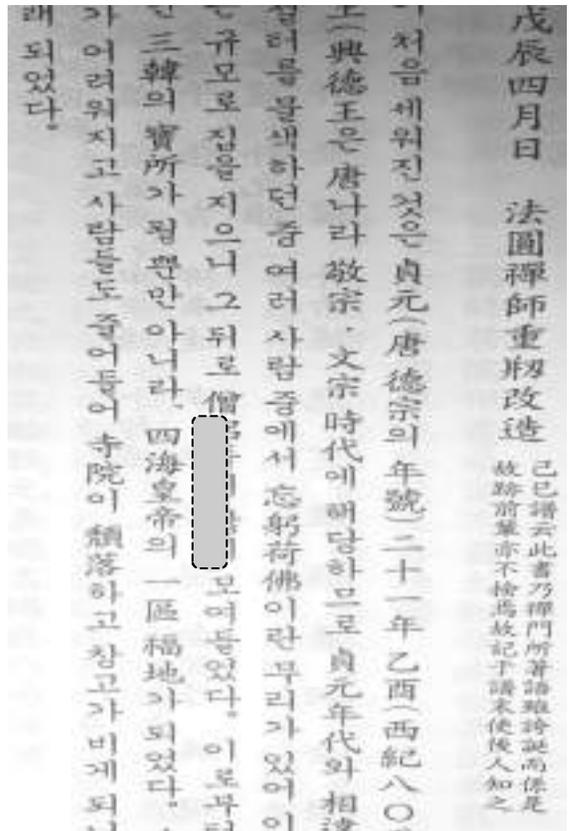
그러나 홍률사 중수 상량문에 류차달家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류차달 시대 해상호족으로 왕건을 도와준 호족중에 왕건이 나주침략에 나설 때 첫째장인 류천궁은 선박수리소에서 군함과 가병의 군사를 지원을 하였고 왕건 둘째장인 오다련은 적군(당시 왕건은 적국 장수임)에게 군사 침투로 안내할 인적자원을 제공한 해상 호족들은 왕건 할아버지 작제건 신혜왕후류천궁할아버지 장화황후할아버지 오부돈(오다련아버지) 류차달할아버지의 사해형제동맹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 해상 호족들은 장보고 이후 君子는 血肉의 親형제만을 兄弟라 하지 않고 敬과 禮로 맺어진 四海同胞를 모두 형제로 생각하라는 논어 구절에 나오는 형제동맹을 맺어 장보고 이후에 스스로 해상호족끼리 뭉치고 함께 해적소탕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자보 총목 113쪽)



(무자보 총목 114쪽)

형제동맹(司馬牛 四海兄弟)은 論語 顏淵篇에 나온 문구이고 문화류씨무자보 총목 113쪽 흥륜사 중수 樑上所記書(상량하는 곳에서 기록한 글 : 상량문)에 “훌륭한 禪道場으로서 삼한의 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해황제의 一區福地(하나의 상서로운 지역)가 되었다”에서 나온 四海兄弟同盟입니다. 고려왕조 개창의 사상적 기반인 선도장인 흥륜사가 세워진 것이 805년이며 신라 흥덕왕(재위: 826~836)이 도의선사(헌덕왕 13, 821년귀국)에게 절터를 잡으라 했고 망궁하불 제자들(輩)이 흥륜사터에 절을 짓고 승려들이 모이니 선도장이 되고 사해황제(호족)의 복지로 이들이 흥륜사에서 자주 모여 서로를 바다의 황제라 칭했고 사해황제(할아버지들 모임)가 흥륜사를 떠나고 수백 년후에 나타난 신인(류차달)이 의자에 졸고 있었는데 청의동자가 왕장군에게 군량이 떨어졌다는 꿈을 꾸었다는 것은 846년 장보고가 피살되고 851년 청해진을 해체된 후에 장보고를 대신해서 해적으로 부터 보호해줄 사해형제동맹에 류차달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말하는 神人이 류차달이라는 것은 1352년(공민왕5) 법원선사가 홍률사를 중창하고 개조할 때 신인을 류차달이라 상량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군인이나 장군이 아니면서 고려 개국공신인 호족은 류차달 이도 윤신달입니다. 윤신달은 왕건에게 군왕의 도리를 조언했고 이도는 금강에 홍수가 났을 때 배를 제공했다는데 류차달은 군량을 지원합니다.

왕건은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지만 류차달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이지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승공 아버지와 할아버지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박은봉저, 책과함께출판사, 2007)에 의하면 왕건은 원래부터 성씨가 없었던 집안으로 할아버지는 작제건 아버지는 용건인데 도선국사가 용건에게 천하를 얻으려면 아들 이름을 왕건으로 하라는 말을 듣고 성씨를 왕씨로 바꾸었으니 왕건家 성씨는 작씨→용씨→왕씨(王家 : 개성왕씨)로 바뀌어집니다.

아자개 아들 견훤은 성씨가 아씨→견씨로 바뀌어지고 백옥삼→배현경(경주배씨시조) 김행→권행(안동권씨시조) 삼능산→신승겸(평산신씨시조) 지중익→어중익(충주어씨시조) 등 왕족이나 호족들의 성씨가 당대에 바뀌어지는 경우가 후삼국시대 사회상입니다.

특별하게 토반 전주류씨 류방헌 묘지명에 의하면 류기후(신라각간, 증조)→류법반(후백제 우장군, 조부)→류윤겸(대감, 부)으로 이어지는 성씨도 있으나 선조 이름이 4대를 넘지 못하던 시대에 류차달 아버지는 류씨인지 다른 성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주 류천궁은 왕건이 나주로 출전할 때 군함과 가병군사를 지원하고 류차달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군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주포구를 중심으로 서해안 무역에 종사하면서 형제의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정청주, 신라말 고려초 호족연구, 일조각, 1996년)

왕건 가문은 강호경→강충→강보육→강보육 딸 진의(증조모)+당 선종→작제건→용건→왕건으로 이어졌고(정인지편저, 고려사세계) 공예의 강씨황후 가문은 강호경→강충→강보전→강순산→강만루→강연창→강씨황후(공예부인)로 이어집니다(신천강씨대종회 자료).

조선 태조가 1392년 정도전 등에게 명하여 1395년(태조 4)에 고려 태조부터 마지막 공양왕까지 37권의 고려사를 편찬한후 정종 태종 세종 문종대에 까지 개수하도록

하여 1454년(단종 2년)에 고려사 간행에 착수 할 때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 왕건 선조를 연구조사하였는데 강보육 국조원덕대왕 추존이 잘 못이다 작제건 용건 왕건 3대가 이름에 건자가 들어간 것이 잘 못이다는 이제헌의 비평을 받지만 4대 이상 선조를 알 수 없는데 일개 호족인 류차달가문을 누가 연구해주어서 황제부터 류차달까지 115세(대) 까지 세계를 안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고려사에 의한 왕건의 4대는 왕건이 왕이 된 후 추존한 국조원덕대왕(손호술) 의조 경강대왕(작제건) 세조위무대왕(용건) 태조(왕건)(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입니다.

일부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류차달 출생년도를 880년으로 추정하는데 류차달을 비롯하여 류천궁이 왕건(877~943)을 처음 지원한 시기가 금성(나주)전투가 있던 903년입니다.

이때 류차달 나이가 23살 정도이며 고려건국 918년에는 38살입니다. 그래서 류차달 아버지 조언이 있었기에 용건의 아들 왕건을 지원했다는 설이 정설입니다.

이흥직(국사대사전, 백만사, 1975)에 의하면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은 청년시절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장사를 하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송악에 돌아온 작제건은 많은 땅을 사들이고 평주 지방의 세력가인 각간 두은점의 딸과 결혼했고 용건은 그의 맏아들이었는데 용건 부인은 한씨이고 용건은 송악군 사찬(沙粲)으로 송악군을 궁예에게 바치고 천하를 얻을 대인이 나온다는 도선의 말을 믿고 왕건 만들기에 실행으로 궁예를 찾아가게 됩니다.

용건이 궁예에게 가서 금성태수가 되고 발어참성 성주로 왕건(877~943)을 요청하였고 903년 궁예장수로 나주 출전할 때 왕건은 26살입니다.

왕건이 궁예의 장수로 903년 금성(나주)에 침투하여 10여개현을 접수하지만 견훤이 모르는 왕건의 일방적인 점령이었고 후백제 견훤과 909년 염해현 전투에서 처음으로 직접 전투를 하였으며 918년 고려를 개국하여 태조왕이 됩니다.

왕건이 왕이 되기 15년전부터 왕건을 지원한 이름이 류차달인데 以車爲達 또는 車運達糧로 차달이란 이름을 왕건이 하사했다면 류차달은 이름 없는 상태로 왕건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류차달 이름을 왕건이 하사(賜名)한 것이 아닙니다.

무역중심지 황해도 호족으로 염주 유공순, 신천 강씨, 정주 류천궁, 황주 황보씨(황주군)신정황후, 류차달家, 작제건을 위해 예성강 하구지역에 영안성과 궁실을 지을 정도로 세력가인 백주(황해도 연안)의 유상희등이 있는데 904년에 궁예에게 항복한

연백지역 유공순을 제외하고 신천군 왕건 외고조인 강씨(강효경) 해상세력으로 부와 무력을 축적하여 유주로 온 류차달 할아버지 등이 해상세력(형제동맹이 4명에서 동맹원이 늘어 남)을 만들어 부와 무력을 축적하여 송악으로 온 작제건 손자인 왕건을 도와주게 됩니다.

2. 왕건의 고려 건국전 전쟁과 대승공 지원

견훤이 889년 서남해에 방수군을 파견하고 892년 무진주(光州) 입성후에 장보고를 죽인 신라 장수인 견훤을 형제라 할 수 없다는 서남해안 호족들 반대로 9년후 900년에 전주로 가서 후백제 건국을 공포합니다.

901년 견훤이 신라 대야성(합천) 공격후 돌아오는 길에 서남해 호족들 저항으로 9년간 백제건국을 방해한 분풀이로 나주에 가서 약탈합니다.(강복룡, 서남해지역에서 벌인 완건과 견훤의 쟁패, 목포대학교수)

류차달이 왕건을 지원하게된 원인이 846년 신라에서 염장을 보내 장보고를 제거한 후 해적 소탕을 위해 王建家 柳車達家 柳天弓家 吳多憐家등 四海兄弟同盟을 맺고 이들 도움으로 나주 전투에서 왕건이 태봉 장수로 903년(1차) 910년(2차) 914년(3차)에 왕건이 나주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해상 호족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고 대표적인 호족은 나주오씨 영암최씨 영광전씨 등이며 맹자 민본사상 서남지역에 전파한 백계산 옥룡사 도선국사와 제자인 곡성 대안사(태안사) 광자대사 윤다 등입니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왕건이 궁예의 군사 지원 없이 903년 주사(舟師=해군)를 이끌고 광주 경계 해안 상륙하여 금성(나주) 10여 개의 군현 점령했고 909년 왕건과 견훤 첫 격돌 왕건이 해군을 이끌고 염해현(무안 해제면)에 상륙하여 중국 오월(吳越)에 파견한 후백제 사신선 나포하며 진도군과 고이도 점령하고 912년 왕건 서남해 공략에 나섰을 때 견훤은 전함을 목포에서 덕진포 배치하였으나 왕건이 바람을 이용한 화공책으로 완승했고 912년 덕진포(전남 영암군 덕진면)대전에서 왕건은 나주는 쉽게 토벌했으나 영암을 토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건은 궁예가 하사한 용천검이 오랜 전투 탓에 칼이 몹시 무디어졌고 영암 지역을 토벌하는 데 고전하자 왕건 부인(오다련 딸)이 매일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고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 발밑에 숫돌이 하나 놓여 있었고 부인은 그 숫돌에 용천검을 갈아서 왕건에게 건네주었는데 다음 날 왕건은 전투에서 대승하였습니다.

그 후로 이 지역(영암 신복 여석산)의 솟들이 좋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고 수년간 솟들을 무한량 파내니 그곳에 못이 생겼고 그 깊이가 무한정 깊어져 중국까지 수출하게 되었습니다.(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자료)

918년 왕건이 고려 개국하기전 까지 903년 909년 910년 912년 914년 큰 전투에 류천궁은 군선과 병사를 류차달은 군량미를 제공합니다.

3. 왕건의 고려 건국후 전쟁과 대승공 지원

919년 왕건(태조) 고려 수도 개경으로 이전한 후에도 18년간 10여회 이상 지금까지는 서남해 전투였다면 견훤과 경상지역에서 전쟁을 합니다.

920년 신라 구원요청에 고려가 응함으로서 고려 건국후 후백제와의 첫 군사적 대립인데 대야성(陝川)과 구사군(창원지역)을 견훤에게 패배하고 924년 제1차 조물성 전투에서 曹物郡(안동 구미 김천 의성 지역) 패배하고 925년 제2차 조물성 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패배하였고 927년 견훤은 근품성(尙州) 고을부(永川)를 습격하고 경주로 진격해 신라경애왕을 죽이고 왕의 족제 김부를 세워 왕(敬順王)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들은 왕건이 군사 5천명을 이끌고 공산에서 견훤과 결전했으나 크게 패해 신승겸과 옷을 바꾸어 입은 왕건은 겨우 달아나 위기를 모면합니다.

928년 제3차 조물성 전투로 청주에서 고려가 승리하고 929년 태조는 백제 대야성을 함락하고 929년 7월과 12월에 견훤은 고창 전투에서 류차달 류천궁에 우호적인 고창호족들 도움으로 승리하고 934년 운주(홍성) 전투에서 견훤이 대패하면서 후백제의 전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935년 신라가 멸망(경순왕 고려에 항복)하고 936년(태조 19)에 지금의 경북 구미 지방에서 고려와 후백제 일리천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는 계기가 됩니다. 후백제 멸망하고 신검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하여 935년 견훤이 왕건에 투항합니다.

4. 류차달 고려 개국공신과 대승공 사투

① 고려 개국공신

“한국의 역사 한국사(조선사연구회역, 한울, 1988)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삼국시대 상황은 수십만 단위의 병력이 움직이는 전쟁이었는데 후삼국 시대의 전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고려와 후백제의 전면전도 동원된 양 측의 병력이 고작 수천인 경우

가 다반사이며 일리천 전투에서 처음으로 만명 단위로 병력이 동원됩니다.

왕건은 고려 개국하고 개국공신을 선정하면서 혼인정책에 의한 29명의 호족은 공신에 배제하였고 궁예를 몰아낸 장수 5명(최웅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은 1등공신으로 하고 호족과 장수들인 2등공신 12명 가운데 경제적 지원을 해준 공신은 류차달 뿐입니다.

② 대동사 대승공사우

문화현에 대승 류차달 서원을 정미년(영조3년,1727) 윤3월에 유생 류이항(柳以恒, 대승공24세 하정공후 효행록)이 주도하여 창건하여 문간공 류공권을 배향한다고 황해도 관찰사 이집(李漬) 문화현령 이태익(李泰楨)이 장계를 올렸는데 1714년(숙종 40) 이후 창건된 향현사(鄉賢祠) 영당(影堂) 생사당(生祠堂)을 모두 철취하라는 명령을 영조17년(1741) 내렸습니다.

유현을 제외하고 고려때 시조를 배출한 성씨들은 서원봉사에서 자손봉사로 전환하였는데 류차달은 1948년 남북이 막히기 이전까지 묘하에서 자손봉사를 합니다.

대승공 묘하에 경사루(敬思樓)가 6.25 화재발생 전까지 존재하였고 문중 재산목록 회의록 장서등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현재 대승공 사우는 대동사뿐입니다.

류차달 향사는 1945년 해방전까지 묘하에서 자손 봉사를 하였으나 북조선 노동당이 창건된 1946년(김준엽 외 편, 북한연구자료집제1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에 인천으로 이주한 九月山大宗齋所 관리한 신천군 文武面 楸陵里 柳厚臣 墨坊宗中(무자보 총목 51쪽, 류후신은 대승공28세, 하정공아들인 만호공묘가 대승공묘우측에 있어 대승공묘를 류후신 집안 종중에서 관리하였음) 종원이 대승공향사 준비를 하려고 곡수(토지 임대료)를 받으려 신천군에 갔는데 종중재산을 공산당에서 접수하여 곡수를 받지 못하고 간단하게 주과포를 올리고 왔으며 그 이후 대승공 묘하에서 향사를 지내지 못 하였으나 1946년 음9월 호남유림과 전국 종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동호동 좌상공과 종재와 유림과 종원의 제원으로 1996년까지 50여년간 향사를 지냈으나 종재 부족으로 1997년 대동사 보존회(회장: 진주인 류근창)에서 20년간 향사를 지내다가 2018년 음 2월 15일 문화류씨 광주전남총친회(회장: 류금환) 주관으로 류차달 대승공 한분의 위패를 모시고 향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광주 대동사는 1933년 전국 문화류씨 각종중에 통문을 보내 1934년 서울 광화문밖 종원집에서 회의를 하여 대승공 사당은 장당군 진서면 전재리 문간공 류공권묘역에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왜경을 방해로 관계자이신 관암 류상열공

이 감금되어 중단되었고 1945년 음력 7월 다시 논의하여 나주 동호리에 건립하기로 하고 통문을 발송하고 나주 유림과 좌상공후 류상열공 주도로 류인대공과 일가 유림과 외손 현성금으로 대동사가 완공됩니다.

③ 나주 동호동에 대송공 사우가 건립된 근거

왕건에게 처음으로 군량을 지원한 903년 나주 전투를 참가할 당시 대동사가 있는 동호동은 나주였고 고려 건국후에도 견훤이 멸망할 때까지 핏박을 받은 지역이었으며 조선조에 문화류씨 후손들이 자리 잡고 이웃에 나주오씨등이 토반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본량면으로 재편된 곳입니다.

5. 결론

① 류차달이 왕건을 도왔다는 처음 기록은 흥률사 상량문에 의하면 4해황제가 왔고 수백년후 류차달이 왔는데 왕장군을 도와주라는 꿈(류차달 아버지가 왕건을 도와주라는 조언)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보에 상량문이 과장되었다고 하니 4해황제 → 4해호족 → 4해형제 → 공자 제자 司馬牛 四海兄弟 → 4해형제동맹으로 수백년 → 수십년으로 연관지으면 20대 약관나이에 왕건을 지원한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② 류차달은 왕이 되기전 궁예부하이며 장수 왕건을 지원했는데 류차달은 태조왕건이 고려 왕이 된 이후 군량을 지원했고 이름을 하사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대송공은 고려 건국전 왕건을 지원한 것이 6회 이상이고 고려 건국후 태조를 지원한 것이 10회 이상입니다. 만약 류차달의 군량 지원이 없었다면 현지에서 군량미를 확보 했을 때 그 지역 호족들이 왕건을 도와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아니면서 고려개국 2등공신이 되신 것입니다.



漢城府判尹 柳公 諱 京生



大丞公33世 柳 在 成

漢城判尹 柳京生은 문화인이다.

고려 말의 신흥 사대부 문화군 의정부贈 영의정 柳繼祖의 손자요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忠景公 柳亮과 정경부인 延安李氏와의 사이에서 5형제 중 3남으로 태어나셨다.

큰형은 佐이며 공조정랑, 전사령을 지냈고 태종 16년(1416년) 3월 부친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며 충숙공 좌의정 류관이 공의 고손이시다.

작은형 謹은 시직(侍直) 군사를 지냈는데 무후하고 동생 江生은 녹사, 남부령, 양구현감(현 강원도 양구군)을 지내시고

막내 漢生은 태종 2년(1402년) 임오 정월 22일 한양에서 태어나 사헌부 감찰 좌랑을 거쳐 사헌부 지평을 지내고 세종 25년(1443년) 남원부사, 그 후 종부시 소윤으로 재직 중 과로로 세종 31년(1449년) 3월에 돌아가셨다.

공(京生)은 어려서부터 효심이 극진하여 벼슬에 큰 뜻을 두지 않고 부친을 대신하여 조모 정경부인 능성구씨를 극진히 봉양하여 부친이 정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 살림을 충실히 하셨다.

태종 16년(1416년) 3월 조모 구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동월 큰형 佐가 돌아가시자 부친께서 태종 임금께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가 내리지 않아 정사에 열중하면서 모친과 장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4월 2일 돌아가시자 공께서 만상주로서 큰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며 3년간의 시묘살이를 하셨다.

부친의 3년상이 끝나고도 죄인이 출사할 수 없다하며 학업에 열중하던 중 세종 10년(14285년) 임금께서 공의 효심과 능력을 인정하여 좌명공신의 자제로서 공신도 감수에 특배하여 홍주목사(현 충남 홍성군)로 임명하였으나 노모를 봉양해야 된다고

고사하다가 부임하여 혜정을 베풀고 청렴결백하게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노모(연안이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였다.

홍주 목사직을 마치고 보직을 사양한 후 노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공부시키셨다.

세종 16년(1434년) 갑인 정월에 모친 정경부인 연안이씨 상을 당하여 묘소 옆에서 3년간의 시묘살이를 했다.

시묘살이가 끝나고 세종 임금 초창기 홍주목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한 공로로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다.

홍주목사 재임 중 축적된 행정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세종 임금께서 부벌개혁, 훈민정음 창제등 정사에 전념할 수 있게 수도 서울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한성판윤 재임 중 장인인 河演이 세종 27년(1445년) 우의정으로 임명되어 장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없다면서 판윤직을 사직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벼슬을 사양하신 분이시다. 세종조의 능력있고 유능한 河演은 좌의정을 거쳐 세종 31년(1449년) 領議政에 올랐다.

배위 정부인 진주하씨께서는 대광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하연의 따님으로 5남 3녀를 두셨다.



同石碑

장남은 송화현감(현 황해도 송화군) 續이며 묘소는 경기도 포천군 금현리에 있고 후손은 경기도 포천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남은 懋이며 세종 8년(1426년) 병오 7월 7일에 태어나 회양부사(현 강원도 회양군)를 역임 후 노년에 충청도 청주로 낙향 후 성종 20년(1489년) 기유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

3남 續은 성종 23년(1492년) 을과(乙科)에 합격 후 성종 25년 경기도 진위 현령(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으로 부임 후 재임 중 연산군 4년(1498년) 무오사화의 부당함을 상소한 후 벼슬을 버리고 경상도 안음으로 낙향하였다.

4남 緝은 형 진위현령 續이 경상도 안음으로 낙향과 같은 시기에 전라도 곡성으로 낙향

시 조부의 회맹록 태종과 좌명공신 류량이 맺은 공신록을 휴대하고 은거하였다. 연산군 8년(1502년) 임술 4월 23일 돌아가셨다. 5남 續은 형 緝을 따라 급하게 낙향하다 전라도 구례에서 정착하였다.

이와같이 공의 후손들은 3남 緝의 戊午士禍 상소사건으로 사망으로 흩어졌다.

공개서는 한 평생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온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한 사대부 이셨다. 젊을 때는 부친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주려고 조모와 노모를 우해 귀한 벼슬자리를 사양했고, 장년이 된 후에는 장인에게 정치적 부담은 안주기 위해 높은 벼슬을 사양한 고결한 학자이시다.



十五世漢城判尹公(諱京生)墓所全景
所在地：京畿道 南楊州市 梧南邑 八賢里 山九七의 一蕃地

부친이 좌면공신에 우의정, 장인이 영의정, 태종, 세종 조 조선 최고의 명문가의 아들이었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망보다는 가족과 주변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선비이셨다.

振威縣令 盤谷柳公(諱 績) 行狀

大丞公33世 柳 在 成

소재 : 안의면 봉산리 석반동

盤溪祠는 文化人 柳績을 모신 사당이다. 공은 문화군 의정부 중 영의정 류계조의 증손이요, 충경공의 정부 우의정 류량의 손이며 한성판윤 류경생과 의정부 영의정 하연의 따님 진주 하씨와의 사이에서 5남 3녀 중 3남으로 태어나셨다.

큰형 績은 송화현감, 작은형 漣는 회양부사 혜, 동생 緝은 사정이고 동생 績은 司直이다.

어려서부터 자품이 온후하고 기우가 총명한 당대 최고의 사대부인 외조부 의정부 영의정 하연의 집에서 기초학문을 배운 후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업에 열중하며 학문이 높은 선비들과 교류하였다.

의정부 좌의정 李居易 손녀요 목사 李佺의 따님과 혼인하여 5형제를 두니 장남은 孝孫, 차남은 孝南, 3남은 孝悌, 4남은 順孫, 5남은 正孫이다.

성종 23년(1492년) 을과에 합격 관리로 입문 후 성종 25년 경기도 진위 현령(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으로 부임하여 정령을 엄정히 하고 명백히 행하여 선정을 베푸니 이속들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백성들은 생업에 즐겁게 종사하여 모두 어진 수령이라 일컫는 목민관이며 사대부요 대학자이셨다.

연산군 4년(1498년) 무오사화 때 동문수학 한 종친 柳洵 대승공 17세손 좌상공과 형조참찬이 파직되고 많은 사대부와 선비들이 화를 당하거나 귀양 가는 것을 보고 무오사화의 부당함을 상소한 후 장차 더 큰 사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벼슬을 버리고 경상도 안음으로 낙향시 많은 진위 백성들이 친부모를 보내는 것과 같이 슬퍼하였다고 한다.

石盤洞에 4자 順孫을 데리고 터를 잡아 살면서 마을 입구에 문화류씨를 상징하는 왕버드나무를 심고 집 좌측에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雙盤松을 심었다.

우측 높은 바위에 앉아 盤谷이라 自號하고 조용히 여생을 즐기며 학문에 열중하던 중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하여 중종반정 후 의정부 영의정 柳洵이 공의 높은 학문과 능력을 인정하여 수차 관직으로 불렀으나 끝까지 고사하여 영의정 류순을 위시한

반정공신들이 큰 인재를 잃었다고 안타까워 하였다.

공의 낙향시 장남 효손은 경상도 합천으로, 차남 효남은 전라도 함열로, 5남 정손은 거창 떡곡으로 각각 낙향하여 후손들이 경남, 전북일대에서 많이 살고 있다. 공의 후손들이 5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수계를 만들어 매년 모임을 하고 있다.

공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심은 반송은 청룡, 황룡이 서로 감아 있는 십자 형상으로 동쪽 즐기는 장남 효손과 5남 정손이 있는 합천 거창 쪽으로 서쪽 즐기는 차남 효남이 있는 전북 함열쪽으로 남쪽 즐기는 동생 집, 진이 있는 전남 곡성쪽으로 북쪽 즐기는 고향인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공은 돌아가실 때까지 반복되는 사화를 보고 후손들에게 높은 벼슬에 나가지 못하도록 유언하셨다. 매년 공을 기리는 春行을 음력 3월 14일 반계사에서 행하고 묘사는 음력 10월 10일 묘전에서 행하고 있다.

공이 심은 반송은 한국 최고의 희귀한 명물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왜정 때 일본인이 일본왕실 정원수로 이식을 추정하다 실패한 후 2차 세계대전 때 송진 채취를 많이하여 상처를 입고 수령 다하여 현재는 밀둥치만 남아있다.

마을 입구 왕버드나무는 1972년 함양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공이 앓아 여생을 보낸 바위 정상에 반송의 수령이 다할 무렵 반송의 씨가 날아와 제 2의 반송이 현재 자라고 있다.

반송 밀 샘물은 공의 입향 시 판 샘으로 지금도 깨끗한 물의 수량이 장마 때나 가뭄 때나 변함이 없으며 현재 후손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고 있다.

반송이 살아 있을 때 샘물을 정안수로 반송 앞에 떠놓고 기도하던 과거다.

공의 사당 앞에는 선조 30년(1597년) 정유재란 시 공의 5대손 柳檀이 황석산성에 서 목숨을 바쳐 나라와 아버지 세흥을 지킨 효행비가 있다.

공의 산소는 반계사 뒤 선산에 있으며 산소 앞뒤에 4남 순손의 후손들의 산소가 위치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안의현지, 함양군지, 진위현지, 문화류씨보감에서



十六世 盤谷公(諱績) 墓所 全景
所在地：慶南 咸陽郡 安義面 鳳山里 山 五九의 一番地



盤谷公 제막식 참석



盤谷公 柳績께서 손수 심은 盤松



반곡공께서 재실 옆에 손수 심은 반송은 수백년 세월을 이기지 못하여 사라지고 그 씨앗이 바람에 날려 신기하게도 큰 바위 틈에서 제2의 반송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우리 후손들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盤谷公 柳績 手植 盤松



와 文城郡夫人(中殿) 文化柳氏忌辰祭 奉行



中門祗候使公派
安山宗親會長 柳 志 世

王妃(35歲)의 冊封이 光海 2년 4월 22일로 늦어 진 것은 선왕(先王)의 부묘일(祔廟日)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左議政 李恒福과 禮曹判書 李廷龜를 보내 옥책(玉冊)과 금인(金印)으로 중궁(中宮) 류씨(柳氏)를 王妃로 冊封하였고, 명부(命婦)의 조알(朝謁)을 받았다.

王妃 류씨(柳氏)는 柔順하고 貞淑하니, 忠孝의 名門에서 東宮으로 시집(1588)왔다.

훌륭한 슬기가 일찍 드러났고, 서쪽에서 어려움 겪을 적에 큰 업적으로 많은 도움 주었다. 몸엔 덕을 닦아 백성이 그 덕화 입을 지 오래 이고, 원사(元嗣) 튼튼히 낳으니 진실로 하늘이 내린 상서이다. 그러므로 즉위한 초기에 즉시 중전 지위 맡겼으니 찬란한 명복(命服)은 하늘이 내린 광영이다.

문과 전시에서 정문익(鄭文翼) 등 15인을 뽑았고, 과거시험에서의 응제문(應製文)을 시행하였으나 임숙영(任叔英)의 應製文은 그 답이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제목을 벗어나 방자하고 거리낌 없이 쾌악한 말을 하였으므로 光海는 任叔英을 방목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在位 15년(1623-1608)인 癸亥年 仁祖反正으로 인하여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10월 8일 문성군부인(文城郡夫人) 류씨(柳氏)가 강화도 위리(圍籬)에서 졸하니, 상이 해조에 하교하기를,

"폐비(류씨)가 병으로 죽었다니 내가 매우 놀랍고 슬프다. 염빈(斂殯)할 때 쓸 의금(衣衾) 및 관판(棺板) 등의 물자를 속히 내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禮曹가 아뢰기를, "이번 초상은 폐비의 초상과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시행해야 할 상례를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도록 하는 한편,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해 보아서 예법대로 시행하여 미진한 데가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초상에 쓸 의금 등의 제구를 해사로 하여금 밤낮을 가리지 말고 속히 내려 보내게 하소서. 또 내일부터 조시(朝市)를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文城郡夫人의 상여가 서울을 지날 적에 치제하라."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29일 文城郡夫人 柳氏를 장사지냈다. 부인이 10월 8일 강화도의 위리(圍籬)에서 졸하였는데, 상이 철조(撤朝) 3일, 소선(素膳) 5일을 명한 다음, 예조의 당상·낭청과 내관 및 경기 관찰사를 보내어 장례를 감호할 것을 명하였다. 지난날의 궁인과 족속 한 사람을 시켜 염습하도록 명하고 염빈(斂殯)에 드는 제반 도구를 모두 유사를 시켜 갖추어 보내고 또 중사(中使)를 시켜 치제(致祭)하였다. 이때 와서 양주(楊州) 땅 적성동(赤城洞)에 장사하였는데 수도(隧道)의 제도를 쓰고 표석을 세워 그 사적을 기록하게 했다. 묘 지킬 사람을 두고 내관·궁인을 정하여 제전(祭奠)을 받들도록 하되, 제수는 관에서 내어 주게 하였다. 반혼 시에는 예관을 보내어 성문 밖에서 맞이하라고 명하였다.

<이상은 朝鮮王朝實錄에서 一部 本人이 拔萃>

1637년 인조는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를 의식하여 光海를 제주도로 이배하였고 4년 후 1641년 제주도의 한 초가집에서 66(1641-1575)歲로 생을 마감하였다.

본인은 1998년부터 종사를 보면서 어느 무엇보다도 문화류씨 선조님들에 대한 자료를 여러 기관(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박물관, 도서관, 고전 연구, 고문헌을 취급하는 경매) 등을 찾고, 돌아다녔으나 예상외로 광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계선조님들의 행적으로만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2007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9 光海主와 文城郡夫人 柳氏 묘역을 몇 년 홀로 찾아뵙다가 2007년도 문화류씨안산중친회 회장을 맡자 제1차로 50여명의 중친을 모시고 늦었으나 중친의 친정 後裔로서 뜻있는 제향을 경건하게 올려 뭔가 가슴이 후련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光海君의 소원이 生母 恭嬪 金氏(光海君 3歲時인 1577年 卒) 成陵의 인근에 잠들게 하여달라는 유언에 따라 마주 바라보는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5 (석물들은 그대로 보존하여 정자각이 없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다른 조선 왕릉과 별 다를 바가 없는 生母 恭嬪 金氏 陵)를 찾아 禮를 올렸다. 지금까지 우리 일가 분들이 적어도 200여명은 찬반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전주이씨 종약원에서 협의 光海君 기신제 봉행 결정(당시 이재천 송모 회장) 하여 본인이 바라던 우리 일가 분들과 지난 6~7년 동안 매년 같은 날 종약원과 남양주 문화원의 주체로 기신제를 봉행하고 있어 기쁘기 그지없다.



貞愼公 諱 陞의 事蹟



忠景公派 部令公宗中
顧問 柳 重 鎬

1. 戊子(2008)년에 간행한 文化柳氏 世譜 내용.

子希元高宗戊申生匡靖大夫知都僉議使司事上護軍參理麗史公容止可觀事
 子희원고종무신생광정대부지도첨의사사상호군참리려사공용지가관사
 親孝居官勤不飲酒不好嬉聲色貨利淡如也善彈丸命必中以筮仕行首累遷承宣久
 친효거관근불음주불호희성색화리담여야선탄환명필중이서사행수루친승선구
 在閣門時禮文散失撰新儀以同知樞密院事如元賀聖節使忠烈王戊戌五月二十七日
 在합문시예문산실찬신의이동지추밀원사여원하성절사충렬왕무술오월이십칠일
 卒享年五十一諡貞愼史傳云以孝旌閭在文化有文集行于世爲東方儒林之名
 졸향년오십일시정신사전운이효정려재문화유문집행우세위동방유림지명
 鑑權菊齋溥輓詩云將相才兼德經綸道此時一心勤翊亮萬姓倚安危星隕仰惟
 감권국재부만시운장상재겸덕경륜도차시일심근익량만성의안위성운앙유
 怪山頽世共悲聊將憂國淚揮洒望乘箕配南陽洪氏父翰林學士縉祖同知樞密院事
 괴산퇴세공비료장우국루휘쇄망승기배남양홍씨父翰林學士縉祖同知樞密院事
 괴산퇴세공비료장우국루휘쇄망승기배남양홍씨부한림학사진조동지추밀원사
 斯胤曾祖軍都監判書元中外祖文參軍崔貺本東州按南陽洪氏世譜若氏族源流
 사윤증조군도감판서원중외조문참군최황본동주안남양홍씨세보약씨족원류
 則洪氏父諱縉官曰同知樞密院事禮部尙書翰林學士承旨配安氏父左右衛保勝別
 칙홍씨부휘진관왈동지추밀원사예부상서한림학사승지배안씨부좌우위보승별
 將珪按墓誌追錄

장규안묘지추록

○墓楊根西終面中臺云而失傳久矣西紀一九三六年丙子後孫漣川世永得墓誌石

○묘양근서종면중대운이실전구의서기일구삼륙년병자후손연천세영득묘지석

於樵夫家與學中基彥等尋封于長湍郡小南面有德里瓦谷卯坐因庚寅事變以爲南北
어초부가여학중기언등심봉우장단군소남면유덕리와곡묘좌인경인사변이위남북
分斷省掃無路二〇〇五年乙酉九月設壇于金堤郡孔德面黃山里後麓自後行壇
분단성소무로이영영오년을유구월설단우김제군공덕면황산리후록자후행단
祀焉后孫暎烈撰碑文
사언후손영렬찬비문

2. 상기 문화류씨 세보 제1권에 등재된 정신공 류 승 보주 번역

자는 회원이니 고종 무신(1248) 생으로 광정대부 지도첨의사사사 상호군 참리에 이르렀다.

고려사에 이르기를, 공은 용지, 즉 행동거지가 훌륭하여 아버이를 섬김에 효도하고 관직에 있어 근실했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유희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노래와 여색 재리에 담담하였으며, 탄환(彈丸 : 彈子)을 잘 던져 겨냥한 대로 반드시 맞추었다.

서사(筮仕 : 初仕)에 행수로 발탁되어 여러 차례 옮겨 승선(승지)에 이르렀다. 그 후 오랫동안 함문(통례문)에 있었는데 당시 예문이 산실되었던 바, 공께서 신의라는 예서를 찬술하였다. 동지추밀원사로서 원나라 황제의 탄일을 하례하는 성절사로 다녀오셨다.

충렬왕 무술(1298) 5월27일에 졸 하니 향년 51세였는데 정신공으로 시호가 내리었다.

사전에 이르기를, 효행으로 그 정려가 문화에 있으며, 문집이 세상에 간행되어 우리나라 유림의 명감이 되었다. 고 하였다.

권국재 부(정신공의 사위)가 만시에 이르기를,

문무의 재주와 덕망을 겸하여, 높은 경륜으로 시대를 이끌었도다.

충성 일념으로 임금 보필하니, 백성들이 안위를 그에 의지했도다.

별 떨어짐이 오직 피이하거니, 삼 무너짐을 온 세상이 슬퍼했도다.

장차 나라 걱정하는 눈물이 앞서, 붓을 던지고 하늘만 바라보도다.

배위는 남양홍씨니 그 부친은 한림학사 진이요, 조부는 동지추밀원사 사운이요, 증조는 군도감판서 원중이며, 외조는 문과 참군 최 황으로 본관은 동주이다. 남양홍씨 세보와 씨족원류를 살펴보건대 홍씨의 부친 휘 진의 관직이 동지추밀원사 예부상서 한림학사 승지로 되어있다. 배위 안씨의 부친은 좌우위보승별장 규이니 묘지를 살펴 추가로 기록한다.

묘소는 양근 서종면 중대라 이르나 실전한지 오래되었더니, 서기 1936년 병자년에

후송 중에 연천 사는 세영이 묘지석을 초부의 집에서 발견하여 학중 기언 등과 함께 장단군 소남면 유덕리 와곡 묘좌 언덕에서 봉분을 찾았는데 그 뒤 경인(1950) 사변으로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성소 할 길이 없는지라, 2005년 을유 9월에 김제군 공덕면 황산리 후록에 단소를 설치하여 그로부터 단사를 행하고 있다. 후손 영렬이 사단비문을 지었다.

3. 공은 고려(高麗) 고종(高宗) 35年 무신(戊申 1248)에 출생하여, 충렬왕(忠烈王) 4年 무술(戊戌 1298) 5월27일 졸하여 향년(享年) 51세이시다. 시호(諡號)는 정신(貞愼), 字는 희원(希元), 충렬왕(忠烈王) 때의 문신이다.

공께서는 고려통합삼한의찬벽상공신 휘 차달(高麗統合三韓翊贊壁上功臣 諱 車達)의 십세손(十世孫)이며, 증조(曾祖)는 정당문학 참지정사 판상서예부사(政當文學 叅知政事 判尙書禮部事) 시 문간공 휘 공권(諡 文簡公 諱 公權)이요, 조(祖)는 좌복야 대제학 승지 한림학사 휘 택(左僕射 大提學 承旨 翰林學士 諱 澤)이요, 선고(先考)는 추성위사일등공신 개부의동삼사 첨의중찬 수문전집정태학사 감수국사 중서문하평장사 세자사(推誠衛社一等功臣 開府儀同三司 僉議中贊 修文殿集政太學士 監修國史 中書門下平章事 世子師) 시 문정공 경(諡 文正公 敬)이시다.

공은 15세 되던 원종(元宗) 3년 임술(壬戌 1262)에 문음(門蔭)으로 산정도감판관(刪正都監判官→5품에서 9품까지의 벼슬)에 보직(補職)되고, 10년 기사(己巳 1269)에 행수(行首→御駕侍從官)로 발탁(拔擢)되었다가 얼마 후 권간(權奸)들의 모함으로 부친 문정공(父親 文正公)과 함께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가, 바로 풀려나 량장(郎將→정6품) 군기장작감(軍器將作監) 공부(工部)와 호부(戶部)의 시랑(侍郎→정4품) 지합문사(知閣門事)등을 역임하고, 원(元)나라에서 일본(日本)을 정벌할 때 접반사(接伴使)로 갔다가 돌아와 광주목사(廣州牧使)를 지내었다. 15년 갑술(甲戌 1274) 27세에 내직으로 들어와 전중윤판장작감(殿中尹判將作監)에 승진되고 지통례문사(知通禮門事)를 겸임하였다. 그로부터 14년 동안 통례문에 재직하면서 다른 관직에 옮기지 않았으니 이는 공께서 예문에 밝았던 때문이었다.

당시 조정에 예문(禮文)이 산실(散失)되었는데, 공께서 조회(朝會)의 의례(儀禮)에 자세한 해설을 붙인 신의(新儀)라는 책을 찬술(撰述)하여 내 놓으니 모두 그 자상(仔詳)함에 감복(感服)하고 쫓아 행하였다.

40세 되던 충렬왕(忠烈王) 13년 정해(丁亥 1287)에 좌부승선(左副承宣→정3

품)에 제수(除授)되어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에 근실(勤實)함으로 왕의 칭찬(稱讚)은 물론 신임(信任)이 두터웠다. 17년 신묘(辛卯 : 1291) 9월, 합단(哈丹)을 격퇴한 후 밀직사사(密直司事→종2품)로 강화도(江華島)에 머무르면서 난리를 겪었던 지역(地域)에 조세(租稅)를 감면(減免)해주고 진(鎭)을 계속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어 판도판서동지사(版圖判書同知事→종2품) 세자원빈(世子元賓) 감찰대부(監察大夫) 도첨의사사(都僉議司事→종2품)등을 두루 역임(歷任)했는데 재직기간(在職其間) 추호(秋毫)도 범법(犯法)이 없었으므로 조야(朝野)에서 모두 그 치적(治績)을 칭송(稱頌)하고 왕으로부터 양대은인 1개(兩臺銀印一介)를 하사 받았다.

47세 되던 20년 갑오(甲午 1294) 7월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使→종2품)로 재직(在職)중 직사관 권한공(直史官 權漢功)과 함께 원(元)나라에 성절사(聖節使)로 다녀왔다. 이듬해 을미(乙未 1295) 정월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종2품)에 제수(除授)되고, 이어 도첨의참리(僉議府參理⇒참지정사를 바꾼 이름 종2품)에 승진(昇進)하였다가 관직(官職)에서 물러났으니 이상(以上)은 공의 재직 36년간의 이력(履歷)이다.

공은 용모(容貌)와 행동(行動)이 바르고 기질(氣質)이 총명(聰明)하여 일찍이 가정교훈(家庭敎訓)을 독실(篤實)히 익힘에 부친 문정공께서 매우 사랑하시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섬김에 효성(孝誠)이 지극(至極)하여 관직(官職)에 있을 때도 질병(疾病)이 아니면 반드시 자기의 거처(居處)를 아뢰고,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일을 처리함에 더욱 치밀(緻密)하고 자상(仔詳)하였으며 성색(聲色)과 재리(財利)에 담담(淡淡)하였다.

공은 무술에도 능하였는데 특히 탄환을 잘 던져 백발백중(百發百中)이었다.

어느 날 손님과 함께 놀면서 멀리 물동이를 이고 가는 부인을 발견하고 공께서 이르기를 『만약 사람을 맞추면 다칠 것이요 동이를 맞추면 깨질 것이니 동이 속에 탄환을 떨어뜨리면 될 것이다.』 하고 탄환을 던지니 과연 동이 속에 탄환이 떨어졌다. 공은 이토록 명궁(名弓)이었다.

51세 되던 24년 무술(戊戌 1298) 여름에 나라에서 거행하는 행사인 장경회(藏經會)에 나갔다가 병을 얻어 동년 5월 27일에 돌아가시니 향년이 51세였다.

충렬왕(忠烈王)이 공의 부음(訃音)을 듣고 크게 슬퍼하시고 부의(賻儀)를 후히 내리고 조회(朝會)를 파함과 동시에 정신공(貞愼公)의 시호(諡號)를 내리시었다.

동년 7월18일 백관(百官)이 회장(會葬)한 가운데 우봉서산(牛峰西山), 지금의 경기도 장단군 소남면 유덕리 와곡(京畿道 長湍郡 小南面 有德里 臥谷)에 장례를 모시었다. 당시 지석(誌石)을 묻었는데, 묘지명(墓誌銘)은 보문각학사 황모(寶文閣學士 黃某)가 짓고, 영동정 이모(領同正 李某)가 글씨를 썼다.

공의 저술(著述)인 신의(新儀)는 당시 유림(儒林)의 보감(寶鑑)이 되었으며, 후에 효행(孝行)으로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이 내렸다.

배위 군부인 남양홍씨(郡夫人 南陽洪氏)는 병부상서 진(兵部尙書 縉)의 따님으로 4남 3녀를 두고 공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후배 안씨(安氏)는 좌우위보승별장 일규(左右衛保勝別將 日珪)의 따님으로 자녀(子女)를 두지 못하였다.

장남(長男) 인수(仁修)는 판도좌랑중문지후사(版圖佐郎中門祗候使)요, 2남 인전(仁全)은 동대비원록사(東大悲院錄事)인데 일찍 죽고, 3남 돈(墩→초휘 仁和)은 도침의 찬성사(都僉議 贊成事)로 증시(贈諡)는 장경공(章敬公)이요, 4남 인기(仁琦)는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증시(贈諡) 온정공(溫靖公)이며, 사위는 좌사의대부 문정공 안동 권부(左司議大夫 文正公 安東 權溥)·국학좌주 광산 김도(國學祭酒 光山 金滔)이며, 한 분은 전하지 않는다.

공의 묘소(墓所)가 실전(失傳)되었는데, 지난 병자(丙子 : 1936) 7월에 후손 세영(世永)이 죽인 화균(華均)의 전언(傳言)을 듣고 장단을 찾아가 수소문 끝에 지석(誌石)을 발견하고 동년11월15일 제족(諸族)과 더불어 묘소를 봉축(封築)하였다.

배위 군부인 남양홍씨(郡夫人 南陽洪氏) 산소도 같은 국내에 있건마는 푸른 산이 말이 없고 푸른 물이 증거가 없으니 어느 곳에 상고하여 산소를 찾으리요.

공의 묘소가 삼팔선 이북에 있는 관계로, 남북분단으로 후손들이 봉심을 못하고 고향하여 오던 중, 2005년 후손들이 전북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분토동(벽성대 입구 앞 300M)에 망배단을 성축하고 매년 음력 9월 5일 향화를 올리고 있다.

4. 匡靖大夫知都僉議使司事上護軍參理(중 2품) 貞愼公

광정대부지도침의사사사상호군참리(중 2품) 정신공

아~ 하늘이여



監察公宗中會長 柳 清 烈

2013년 11월 9일(음력 10월 7일 충경공 시제일)



충경공 시제를 마치고나서 天安으로 내려가 회장이신 재회 씨가 실전되었던 충경공 산소를 찾으신 監察公(匡字宇字) 산소를 참배하시던 날 호우를 퍼부어 우산을 쓰고 산소에 도착하니 천막을 치고 상석에 제물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종원들이 반가이 맞이했다. 천막 속에서 재회 회장님이 첫잔을 올리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부산에서 오신 동명 씨가 두 번째 잔을 올리니 비가 똑 그쳐 천막을 치우고 음복주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하산버스에 오르니 다시 비가 폭우로 내리었다. 거짓말 같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조상님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 하니 하늘이 돌보심이라 믿는다.

柳 匡 宇

< 柳匡宇 : 1738~1823 : 純祖朝 蔭任 大丞公 26世 : 忠景公派 >

자 汝仰 호 晚隱.



宗簿寺少尹 漢生의 11대손이요, 栗峰道察訪 亨長의 9대손이요, 司宰監主簿 守正의 6대손이요, 沔의 장자로 英祖 14년 戊午 10월 28일 天安 木川에서 태어났다.

친성이 어질고 두터워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고, 또한 文學과 行誼가 뛰어나 宗黨은 물론 鄉里에서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僞善心이 독실하여 先祖 忠景公의 묘소 失傳을 항상 애통히 여기더니 나이 59이 넘어 忠景公의 묘소가 계시는 楊洲 時雨峙로 이거, 그 곳에서 書堂을 설치하고 學生들을 가르치는 한편 인근에 사는 樵童 牧豎들의 말을 염탐하여 탐색하기 수년 만에 드디어 忠景公의 묘소를 찾았다.

正祖 21년 丁巳(1797년)에 族人 兵使 文植과 함께 묘소를 개축하고 관청에 山訟을 제기하여 국내의 偷葬을 파내고, 사패의 위토와 산지 수천 평을 추심 還收하였다. 그리고 각처 宗門에 알려 財穀을 수합, 齋室을 건립하였는데 이때 고향에서 장자 世元을 데려다가 함께 제반 役事를 監董하였다.

23년 己未(1799) 가을에 정조께서 獻陵(太宗陵)을 幸行하신 후 佐命功臣의 후예를 등용하라는 특명이 있어 다른 공신의 후예에게는 특전이 있었으나 오직 충경공의 宗孫이 호남으로 이거하여 잔약하게 살았던 때문이다. 후손들이 衆論을 모아 先事에 有功한 공을 추천하여 禮曹와 忠勳府에 通章을 올리니 동년 12월에 禮曹의 判下를 거쳐 忠勳府에서 충의위 柳匡宇를 奉祀孫으로 嗟定한다는 通牒이 내리었다. 이로부터 공께서 묘사를 주관하였다.

이후 조정에서 수차에 걸쳐 관직제수의 특전이 있었으니 純祖 11년 辛未(1811) 8월에 司饗院 奉事, 12월에 典牲署直長, 14년 甲戌(1814) 정월에 通禮院引儀, 司憲府監察, 6월에 齊陵승에 제수되었다.

80세 되던 17년 丁丑(1817) 정월에 壽職으로 通政大夫 折衝將軍 龍驤衛副護軍, 18년 戊寅(1818) 6월에 僉知 中樞府事に 加資되었다.

23년 癸未 5월 21일 돌아가시니 향년 86세로 지금 天原郡 城南面 大峙 先塋下에 모셔졌다.

배위 安東金氏는 錫煥의 따님으로 3남 2녀를 두고 즐하니 합부하였다.

장남은 世元이요, 차남은 世豐이요, 3남은 世恒인데 숙부 光廈의 후로 출계하였으며, 따님은 仁川蔡 櫓, 順興 安廷弼에게 출가하였다.

후손은 天原郡 城南面 石谷里, 大井里, 新沙里, 唐津郡 松岳面 佳橋里, 禮山郡 德山面 邑內里, 公主郡 寺谷面 虎溪里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追善錄，楊洲濟室序。丁巳譜。教旨。



忠景公墓下에 設壇한 3代壇 先祖의 事蹟



忠景公派部令公宗中
會長 柳 在 仲

1. 3대단은 11세 온정공(溫靖公) 인기(仁琦), 12세 대언공(代言公) 보발(甫發), 13세 문화군(文化君) 계조(繼祖)의 묘소가 경인(1950) 사변으로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성소 할 길이 없는지라, 지난 丙寅(1986) 가을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고래산로 451번길 101(시우리 28-1) 문충사 후록에 소재한 증손 충경공 휘 양(忠景公 諱 亮)의 묘소 아래 삼대의 단을 설치하여 매년 10월07일에 단사(壇祀)를 행하고 있다.

2. 戊子(2008)년에 간행한 《11세 온정공(溫靖公) 인기(仁琦)》의 文化柳氏 世譜 내용.

忠烈王癸未生大匡三司使文化君忠肅王甲子二月爲同知密直司事重大匡三司使
충렬왕계미생대광삼사사문화군충숙왕갑자이월위동지밀직사사중대광삼사사
上護軍致仕封文化君諡溫靖配海陽郡夫人光山金氏父僉議中贊匡節公之淑祖金紫
상호군치사봉문화군시온정배해양군부인광산김씨부침의중찬광절공지숙조금자
光祿大夫吏部尙 書司事鍊曾祖大將軍匡靖公龍
광록대부이부상 서삼사련증조대장군광정공용

○西紀一九八六年丙寅秋公以下三代壇設於楊州郡瓦阜面時雨里後錄所在曾孫忠景公墓下

○서기일구팔육년병인추공이하삼대단설어양주군와부면시우리후록소재증손충경공 묘하

① 상기 문화류씨 세보 제1권에 등재된 문화군 류인기 보주 번역.

충렬왕 계미(1283) 생이다. 대광 삼사사로 문화군이다.

충숙왕 갑자(1324) 2월에 동지밀직사사 중대광 삼사사 상호군으로 치사하니 문화

군에 봉하여 시호는 온정이다.

배위는 해양군부인 광산김씨로 부는 첨의중찬 광절공 지숙이요, 조는 금자광록대부 이부상서 삼사사 련이요, 증조는 대장군 광정공 용이다.

서기 1986년 병인 가을에 공 이하 3대의 단을 양주군 외부면 시우리 후록에 있는 증손 충경공 묘하에 설치하였다.

② 세부내용 : 고려 충렬왕(高麗 忠烈王) 9年 계미(癸未 1283)生~충혜왕(忠惠王) 元年 경진(庚辰 1340)卒 享年 58歲. 공께서는 고려통합삼한익찬벽상공신(高麗統合三韓翊贊壁上功臣) 휘 차달(諱 車達)의 십일세손(十一世孫)이시며, 고조(曾祖)는 정당문학 참지정사 판상서예부사 시문간공(政當文學 叅知政事 判尙書禮部事 諡文簡公) 휘 공권(諱 公權)이요, 증조(曾祖)는 좌복야 한림학사승지(左僕射 翰林學士承旨) 휘 택(諱 澤)이요, 조(祖)는 추성위사일등공신 개부의동삼사 첨의중찬 수문전집정태학사 감수국사 중서문하평장사 세자사 시문정공(推誠衛社一等功臣 開府儀同三司 僉議中贊 修文殿集政太學士 監修國史 中書門下平章事 世子師 諡文正公) 휘 경(諱 璈)이요, 선고(先考)는 광정대부지도첨의사사사상호군참리 시정신공(匡靖大夫知都僉議使司事上護軍叅理 諡貞愼公) 휘 승(諱 陞)이시며, 사남으로 태어났다.

공은 문과에 급제하고 문음(門蔭)으로 출사하여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정2품)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중2품)을 거쳐 공의 나이 32세 되던 충숙왕 원년 갑인(甲寅 1314) 2월에 대사헌(大司憲→정2품) 충숙왕 11년 갑자(甲子 1324) 2월 동지밀직사사(密直密直司事→중2품)를 역임(歷任)하셨으며, 그 후 중대광(重大匡→중1품) 삼사사(三司使→정3품) 상호군(上護軍→정3품)에 올라 문화군(文化君)에 봉작된 분으로, 돌아가시니 시호(諡號)는 온정(溫靖)이라 내렸으니 문화류씨에 있어 고려시대 4세 5공(公)의 한 어른이시다.

배위 해양군부인(海陽君夫人) 광산김씨(光山金氏)는 첨의부중찬(僉議府中贊) 광절공(光節公) 지숙(之淑)의 따님으로 1남을 두어 보발(甫發)이시다.

③ 重大匡同知密直司事三司使上護軍封文化君諡溫靖.諱仁琦.

중대광동지밀직사사삼사사상호군'봉문화군'시온정.휘인기

3. 《12세 대언공(代言公) 보발(甫發)》의 文化柳氏 世譜 내용.

字元夫忠烈王甲辰生正順大夫密直司右副代言知版圖司事忠惠王庚辰卒
자원부충렬왕갑진생정순대부밀직사우부대언지판도사사충혜왕경진졸

配成安郡夫人原州元氏父檢校評理善之祖密直司事卿曾祖僉議中贊文純公傅
 배성안군부인 원주원씨부검교평리선지조밀직사사경증조침의중찬문순공부
 外祖都僉議彥陽金聃○墓長湍大德山福星洞稼亭李穀撰碑文○設壇享祀
 외조도침의언양김변○묘장단대덕산복성동가정이곡찬비문○설단향사

① 상기 문화류씨 세보 제 1권에 등재된 대언공 류보발 보주 번역.

자는 원부니 충렬왕 갑진(1304) 생이시다. 정순대부 밀직사우부대언 지판도사사를 지내고 충혜왕 경진(1340)에 졸하시다.

배위는 성안군부인 원주원씨로 부는 검교평리 선지요, 조는 밀직사사 경이요, 증조는 침의중찬 문순공 부이며, 외조는 도침의 언양 김 변이다.

묘소는 장단군 대덕산 복성동에 모셔 있다. 가정 이 곡이 비문을 지었다.

단을 설치하여 향사하고 있다.

② 세부내용 : 고려 충렬왕(高麗 忠烈王) 30年 갑진(甲辰 1304)生~충숙왕(忠肅王) 9年 경진(庚辰 1340)卒 享年 37歲.

공은 문화군(文化君) 인기(仁琦)의 자로서 공의 字는 원부(元夫), 충숙왕(忠肅王) 때의 문신으로, 제 27대 왕 충숙왕 6년 기미(己未 1319) 16歲에 음사(蔭仕)로 홍왕도 감판관(興王都監判官)에 제수되고, 이어 낭장(郎將)을 두 번 지냈으며, 제29대 왕 충숙왕 5년 병자(丙子 1336) 33歲에 소부소감(少府少監)에 옮기고, 다시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에 옮겼다가, 충숙왕 8년 기묘(己卯 1339) 봄 36歲에 밀직사 대언(密直事 代言)에 승진하여 감찰집의(監察執義)를 겸(兼)하셨고, 판도사사(版圖司事)를 역임하셨다. 공께서는 천성이 총명하고 공손하여 일찍이 충숙왕의 지우(知遇)를 받았더니 이때에 이르러 장차 크게 기용하려고 밀직사에 전임시켜 왕명의 출납과 풍속의 교화를 관장토록 하였다.

그러나 바로 충숙왕이 승하(昇遐)하자, 크게 뜻을 펴지 못하고 이듬해 제30대 왕 충혜왕(忠惠王) 원년 경진(庚辰 1340) 6월 을미일(乙未日)에 돌아가시니 향년(享年) 겨우 37歲이시다. 동년 9월 庚申일에 장단부 대덕산 복성동(長湍府 大德山 福星洞) 기슭에 장례를 모셨는데, 공의 묘지명은 가정 이곡(稼亭 李穀)이 지었다.

배위 성안군부인(成安郡夫人) 원주원씨(元州元氏)는 검교평리(檢校評理) 선지(善之)의 따님이니 부덕(婦德)을 심히 갖추어 제사를 갖추어 손님을 접대하는데 한결 공손하고 법도가 있었다. 2남 5녀를 두어 장남 계고(繼高)는 지후(祗侯)로 수사공파조(水使公派祖)이시며, 차남 계조(繼祖)는 선부상서(選部尙書)로 문화군(文化君)

에 봉하였고 부윤공파조(府尹公派祖)이다. 사위는 회원대장군 고가물(愜遠大將軍 高加勿), 판개성부윤 남양홍유구(判開城府尹 南陽洪有龜), 신양군 교화노영(新陽君 交河盧漢), 첨원 박가려(僉院 朴加麗), 상낙백 안동김진(上洛伯 安東金縝)이다.

4. 正順大夫(正3品)密直司右副代言兼監察執義(正3品)知版圖司事(從3品)諱甫發.
정순대부(정3품)밀직사우부대언겸감찰집의(정3품)지판도사사(종3품)휘보발.

① 《13세(十三世) 문화군(文化君) 계조(繼祖)의 文化柳氏 世譜 내용.

忠肅王癸酉六月十五日生選部尙書恭愍己亥紅巾賊毛居敬入平壤公討平之策安社一等勳
충숙왕계유륙월십오일생선부상서공민기해홍건적모거경입평양공토평지책안사일등훈
圖形壁上辛丑毛賊大八中原乘與播遷公奮義進戰又討平之獲璽符金章等物獻天子時年廿
도형벽상신축모적대팔중원승여파천공분의진전우토평지획새부금장등물헌천자시년입
九據鞍二十餘日捫虱一掬於腰下癸卯討賊臣贊成金鏞策安社勳圖形壁上甲寅十二月十七
구거안이십여일문슬일국어요하게묘토적신찬성금용책안사훈도형벽상갑인십이월십칠
日卒贈領議政封文化君配惠順宅主綾城具氏父典理判書沔城君榮儉祖沔城府院君藝曾
일졸증영의정봉문화군배혜순택주능성구씨부전리판서면성군영검조면성부원군예중
祖文科判官珣外祖興寧君慶州金子章○墓長湍大德山福星洞先塋失傳而西紀一九八六年
조문과판관연외조흥녕군경주김자장○묘장단대덕산복성동선영실전이서기일구팔육년
丙寅秋設壇於時雨里忠景公墓下.

병인추설단어시우이충경공묘하.

② 상기 문화류씨 세보 제 1권에 등재된 문화군 류계조 보주 번역.

충숙왕 계유(1333) 6월15일생이다. 선부상서이다.

공민왕 기해(1359)에 홍건적 모거경이 평양을 침범하였는데 공이 토벌 평정하여
안사일등공신에 책록되어 벽상에 도형하다.

신축(1361)에 모적이 중원을 크게 침입하여 어가가 파천하자, 공이 의리에 분발,
전장으로 나가 또 토벌 평정하고 새부와 금장 등을 천자에게 받치니 당시 나이 29세였
다. 말안장에 앉아 20여일에 몸이 가려워 굽다가 허리 아래서 이 한 움큼을 잡아냈다.

계묘(1363)에 적신 찬성 김용을 토벌하여 안사공신에 책록되고 또 벽상에 도형되었
다.

갑인(1374) 12월17일에 졸하다. 증 영의정으로 문화군에 봉작되었다.

배위는 혜순택주로 능성구씨로 부는 전리판서 면성군 영검이요, 조는 면성부원군 예이며, 증조는 문과로 판관인 연이며, 외조는 흥녕군 경주 김자장이다.

묘소는 장단 대덕산 복성동 선영에 계셨는데 실전하였다.

서기 1986년 병인 가을에 시우리 충경공 묘하에 설단 하였다.

③ 세부내용 : 고려(高麗) 제29대 충숙왕(忠肅王) 2年 계유(癸酉 1333) 6월15일생~제32대 공민왕(恭愍王) 23年 갑인(甲寅 1374) 12월17일 卒. 향년(享年) 42세.

공께서는 온정공(溫靖公) 인기(仁琦)의 손이요, 밀직사(密直司) 우부대언(右副代言) 보발(甫發)의 차자(次子)로서, 문음(門蔭)으로 충목왕(忠穆王) 2년 병술(丙戌 1346) 11월에 선은관직(宣恩館直)에 제수되니 당시 14세였다.

공민왕(恭愍王) 3年 갑오(甲午 1354) 4월에 대전보마배행수(大殿寶馬陪行首)로 비순위호군(備巡衛護軍)에 제수되었더니, 5년 병신(丙申 1356) 5월에 우중금지유(右中禁指諭)로 흥위군보승섭호군(興威軍保勝攝護軍)에 임명되고, 7월에 흥위위보승낭장(興威衛保勝郎將)에 승진하여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공민왕 8년 기해(己亥 1359) 12월7일 홍건적(紅巾賊)의 위평장 모거경(僞平章 毛居敬)이 군사 4만명을 거느리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평양(平壤)을 침공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태평하여 군사들이 무예를 익히지 않고 있던 중 홍건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 안팎이 혼란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공이 서경군민만호부 삼령도천호(西京軍民萬戶府 三領都千戶)에 제수되어 시중 경천흥(侍中 慶千興)과 함께 힘을 다하여 적들을 남김없이 무찔렀다.

이로써 안사일등공신(安社一等功臣)에 책록되고 벽상(壁上)에 초상(肖像)을 그려 걸게 하는 은전(恩典)을 입었는데 당시 공의 나이 27세였다.

9년 경자(庚子 1360) 3월에 상서좌승지(尙書左承旨)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12월에 홍건적의 위평장 반성(潘誠)등이 군사 이십만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도성(都城)인 개성(開城)을 함락하였다. 마침내 왕은 피난길에 오르고 국가의 형세가 위태롭기 이를 데가 없었다. 공께서 충의(忠義)를 분발하여 출전, 적병을 크게 쳐부수고 개성을 수복하였다. 그리고 전장에서 습득한 황제(皇帝)의 옥새(玉璽)와 금은동인(金銀銅印)등의 보물을 천자(天子)에게 바치었다. 이로써 다시 안사일등공신(安社一等功臣)에 책록되니 때에 공의 나이 30세였다.

이어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를 거쳐 공주도병마사(公州都兵馬使)로 나갔다.

12년 계묘(癸卯 1363) 3월, 찬성사 김용(贊成事 金鏞)이 역모를 꾀하여 국가의

사직이 위기일발에 처했는데 공께서 최영(崔瑩)과 함께 전장에 다달아 역적들을 소탕하고 종사(宗社)를 다시 편안케 하니 다시 안사일등공신(安社一等功臣)에 책록되고 도형벽상(圖形壁上)의 은전(恩典)을 입음과 아울러 밀직사우부대언 지예부사(密直司右副代言 知禮部事)에 제수되었다.

동년 6월에 순성좌명공신(純誠佐命功臣)에 책록됨과 동시에 전법판서 상호군(典法判書 上護軍)에 승진되었다.

동년 12월,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공이 이르기를 『지난辛丑년 가을, 전장에서 말안장에 앉은지 20여일이 지난 후, 허리 밀이 가려워 손으로 문지르니 이가 한줌 잡히었다, 그때 말 위에서 잠을 자서 냉기로 인하여 고질(痼疾)이 되었으니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이 뜻으로 사직소(辭職疏)를 올리니 왕이 슬퍼하며 허락하였다.

그 뒤 마침 병이 완쾌되어 별장(別庄)에서 지내면서 어머니께 효성을 다하고 조석으로 빠짐없이 문안(問安)을 드렸다.

15년 병오(丙午 1366) 12월 왕이 공의 전공(前功)을 생각하고 전직(前職)을 제수하였다. 그 후 각부의 판서(判書){즉 봉익대부(奉翊大夫) 판도판서상호군(版圖判書 上護軍), 군부판서상호군(軍簿判書上護軍), 전리판서상호군(典理判書上護軍), 영록대부(榮祿大夫)선부판서(選部判書)}를 거쳐 20년 신해(辛亥 1371)에 판개성윤(判開城尹)에 제수되셨다.

공민왕 22년 계축(癸丑 1373)에 집도(執道)하는 내시(內侍)의 모함으로 파직되었으나, 이듬해 공민왕 23년 갑인(甲寅 1374) 9월15일에 복직되어 봉익대부(奉翊大夫) 밀직부사(密直副使) 상호군(上護軍)으로 제수되었으며, 공신호(功臣號)는 전과 같았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공께서 12월17일에 병으로 돌아가시니 때는 공민왕 23년 갑인(甲寅 1374)으로 향년 42세이었다.

이듬해 2월 3일에 장단 대덕산 복성동(長湍 大德山 福星洞)에 안장되었다.

후에 조선 태종조(朝鮮 太宗朝) 공의 차자 휘 량(諱 亮)이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으로 귀히 된 영광으로 정헌대부(靖獻大夫)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됨과 아울러 문화군(文化君)에 추봉(追封)되셨다.

配位 혜순택주(惠順宅主) 능성구씨(綾城具氏)는 전리판서(典理判書) 면성군(沔城君) 영검(榮儉)의 따님으로 3남1녀를 두었다. 장자 신(信)은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

將軍) 내시원사(內侍院事)를 거쳐 부윤에 이르러 부윤공파조(府尹公派祖)이고, 차남 량(亮)은 우의정(右議政)으로 시호 충경공으로 충경공파조(忠景公派祖)이며 그리고 삼남 판사(判事) 순(恂)은 사선직장(司膳直長)을 거쳐 판사(判事)에 이르렀으며 순(恂)은 무후하다. 사위는 장군 안동권정주(將軍 安東權定柱)이다.

- ④ 紅巾賊討平安社一等功臣 奉翊大夫(중2품) 密直司副使(정3품) 上護軍(정3품) 흥건적토평안사일등공신 봉익대부(중2품) 밀직사부사(정3품) 상호군(정3품) 贈正憲大夫 領議政(정1품) 文化君. 증정현대부 영의정(정1품) 문화군.
- ⑤ 安社一等功臣純誠佐命功臣贈靖獻大夫參贊門下議政府事兼判禮曹事行奉안사일등공신순성좌명공신증정현대부참찬문하의정부사검판예조사행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文化君諱繼祖
익대부밀직부사상호군문화군휘계조
- ⑥ 문화군 휘 계조께서는 3회에 걸쳐 안사일등공신에 책록되고 도형벽상(圖形壁上)의 은전(恩典)을 입었으며, 1회 순성좌명공신에 책록된 고려말의 충신으로 자랑스런 조상이시다.



【狀碣譯註】

贈職·壽職·守職·行職 탐구



하정공과광주충친회장
대승공33세 柳 在 均

1. 서론

조선조 관리 임명장인 교지와“입안”문서로 관리가 된 선조의 족보나 묘비에 쓰인 관직명에 대하여 탐구해 봅니다.

족보나 비문에“통정대부 행 공조참의”라 써 놓고 공조참의 직을 수행했다고 말하면 보학자나 역사학과 학생들은 행수법을 알고 있기에 품계와 관직을 비교해 보고 행(行)글자 수(守)글자와 행수글자가 없는 경우 관직명을 경국대전 행수법에 틀리게 기록해 놓으면 선조가 공조참의를 하셨지만 후손의 행자를 추가한 묘비문을 보고 조작된 관직이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수직(守職)과 수직(壽職)을 구별해서 사용해야하며 관직에서 행(行)과 홀기에서 행(行)은 글자는 같으나 의미가 다릅니다. 홀기에서 행참신례(行參神禮, 참신례를 한다)에서“행”은 행한다 뜻이고 관직명에서“행”은 行守法에 의한 것인데 비석 전면에 품계와 관직(先階次司次職)을 쓰고 본관과 성 및 이름을 쓰고 '之墓'를 쓰는데 품계와 관직을 쓸 때는 행수법에 맞게 써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관직명 앞에 行자를 쓰는 줄 알고 무조건 行자를 쓴 묘비를 종종 보면서 묘비 후손을 생각해서 지적을 하지 못하고 후손에게 질문해 보면 行職이기에 行글자를 넣었다고 하는데 “행+관직명”은 행직이 아니며 行職이란 문구도 없습니다.

2. 국조방목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급제와 선조의 음덕에 따라 그 자손을 관리로 서용하던 제도가 있습니다.

① 과거 제도

소과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 하며 급제자는 생원이나 진사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고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생원과(生員科)는 중국의 경적(사서오경)이 과거과목입니다. 四書五經은 유교의 경전인 논어(유교경전으로 공자와 제자들 언행 어록) 맹자(맹자의 언행) 중용(인간 윤리와 결합한 사상) 대학(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조목)과 다섯 가지 경서인 시경(공자의 시) 서경(중국 상고시대 정치 기록) 주역(사물 변화를 상징하는 상황) 예기(예법의 이론과 실제) 춘추(노나라 은공부터 애공까지 12公 242년 사건 인물을 공자의 禮와 명분으로 정치 이념을 비판 평가한 책)를 말합니다.

진사과는 소과초시(小科初試)의 한 분과로서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과거 과목은 시(詩운문글) 부(賦논문) 표(表자기 심중을 황제에게 알리는 글) 전(箋임금이 나 중전에게 올리는 글) 책문(策問정치에 관한 계책에 대한 답을 적는 글) 등입니다.

생원이나 진사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성균관 유생은 문과 대과 응시 자격과 기타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으나 그렇다고 성균관을 거쳐야만 문과의 응시 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대과과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국조방목 중에는 고려 충렬왕에서 조선 정조 때까지 수록한 것이 있고 조선시대에 실시된 최초의 문과 과거인 1392년(태조 1)부터 영조 후반기까지 급제자를 수록한 종합 방목으로 ‘국조방목’ ‘국조문과방목’ ‘등과록(登科錄)’ 등의 이름으로 약 10여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에서 영조 때까지 국조방목에 그 뒤 계속 추가해 19세기초까지 수록한 것도 있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편찬된 것이 있는데 영조이후 국조방목은 국조방목마다 급제자 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급제후 이름을 고친 선조의 행장에 개명한 사유가 있지만 족보명으로 국조방목에서 찾을 수 없어 개명 전 이름을 찾아보지 않고 과거급제를 부정하면 선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② 음직(蔭職)

국조방목에 명단이 없는 음직은 본인 관직이 5품 이상인 경우에는 아들 손자까지 3품 이상인 경우에는 수양자(收養子) 여서(女壻) 생(甥) 질(姪) 제(弟)까지 음직을 주었습니다. 1인 1자가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2명 이상이 음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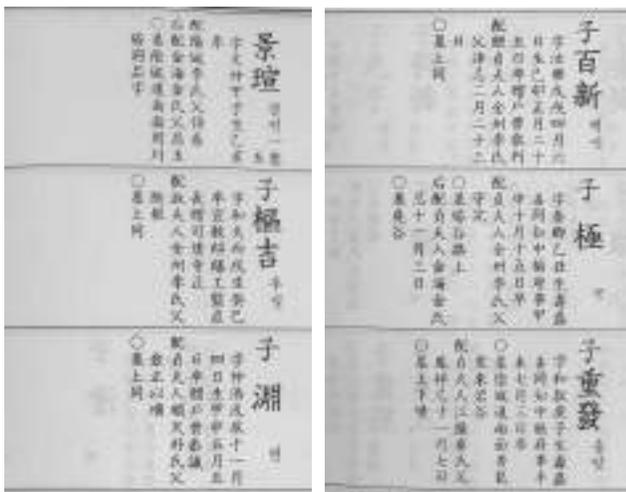
3.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① 증직은 본인이 2품이상 관직일 경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증직교지를 내립니다.

② 진사 생원 또는 음직 없이 학생에서 증직을 받는 경우는 본인이 90세 이상이 되어 2품이상 수직(壽職)으로 교지를 받으면 증조까지 증직교지가 내려지고 80세 이상은 본인만 3품 수직이 내려집니다.

③ 류극(柳極, 하정보 1권 40쪽)과 류중발(柳重發) 父子의 수직(壽職)

하정공 류관(세종조 우의정)선조(이하 선조 존칭 생략함)는 본인이 1품이기에 80살 이상자에게 내리는 3품 수직을 내릴 수 없어 1430년(세종12) 85살에 세종으로부터 어주를 하사 받고 세종14년 87살 때 장피(노루가죽)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정공 장남 맹문(증이조참판)→손자 삼(증부제학)→증손 순행(증이조참판)→고손 희저(부제학)→5대손 용검(도사공)으로 이어지고 도사공 용검 7대손인 극(대승공25세)은 숙종11년(을축, 1685) 출생하여 영조40년(갑신, 1764)년 팔순날 수직(壽職)으로 교지를 받았기에 아버지 백신, 조부 연이 증직을 받고, 증조 추길은 선

교랑선공감직장(종6품)을 역임 하셨는데 증직으로 사복시 정(정3품) 교지를 받은후 극 아들 중발이 숙종46년(경자, 1720) 출생하여 순조11년(신미, 1811) 92세에 돌아가셨기에 족보상 수직 받은 연도 기록이 없는데 90세부터 92세 3년 사이 어느날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종2품) 교지를 받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라 1764년 극의 수직으로 아버지 백신, 조부 연, 증조 추길이 증직을 받았는데 47년후 1811년 중발이 90세가 넘어 종2품 교지를 받기에 아버지 극은 증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종2품)를 조부 백신은 증호조참판(종2품) 증조 연은 증호조참의(정3품) 교지를 받습니다.

보통 증직은 본인이 2품이면 부모는 2품 조부 증조는 3품을 받기에 1764년 수직으로 극의 3품과 백신의 3품에서 1811년 극과 백신은 한 등급 올려 증직을 내렸습니다.

1764년 백신과 연의 수직(壽職) 교지 내용을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1811년 중발에게 수직을 내려 극 중발 부자가 수직을 받아 최종적으로 아래로 5대인 고조 추구(대승공 22세, 증사복시정, 정3품, 극 수직으로 받은 증직)부터 증조 연(대승공 23세, 증호조참의, 정3품) 조부 일신(대승공 24세, 증호조참판, 종2품) 父 극(대승공 25세, 증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 종2품)이 증직교지를 받고 본인 중발(대승공 26세, 증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 종2품)은 수직 교지를 받았습니다. 수직은 본인 나이가 보통 80세 이상은 3품, 90세 이상은 2품, 100세 이상은 1품을 내립니다. 2품 1품 모두 자기선조에게 증직으로 부모는 본인과 같은 품계를 조부와 증조는 본인보다 한 단계 낮은 품계 증직을 내립니다.

수직교지는 예조에서 내리지만 과거 급제자 명단인 국조방목에 없고 예조관청에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기에 자손이 보관하지 않으면 교지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수직교지와 함께 고인이 되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에게는 증직의 분향교지를 내려 산소에서 교지를 선조에게 분향하여 교지 원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조는 분향교지 부분(사본)을 함께 발행합니다.

④ 구천복의 壽職 : 자료 출처(교지연구회 카페)

구천복은 96세에 수직(壽職)으로 학생에서 정3품 통정대부 교지를 받고 6년후 102살에 승정대부(종1품) 행 동지중추부사(종2품) 교지를 받아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증직을 받게 됩니다(이유는 알 수 없으나 96세에 3품을 내렸기에 102세에 2품과 1품을 조절하여 내립니다)

수직(壽職)으로 2품 이상 교지를 받아도 자식들에게 음직 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현감이나 군수가 수직(壽職) 대상자를 관찰사에게 장계를 올리면 관찰사는 예조에 올려 수직(壽職) 교지를 받게 됩니다.

구천복의 경우처럼 몰락한 양반이 80세 이상이 되어 3품 이상 교지를 받으면 그

지역에 사또인 정3품 목사 종4품 군수 종5품 현령 종6품 현감과 아전 등이 명절이나 행사때 인사를 가야하기에 수직(壽職) 장계 올리는 것에 가급적 늦추는 경우가 있으나 류극처럼 원종공신과 우의정 하정공 장손 집안인 후손은 80세 생일날에 바로 3품 교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천복이 96살 때 수직 교지	구천복이 100상 이상일 때 교지
	
<p>해석 : 구천복 통정대부(정3품) 도광21년(1841년, 조선 헌종 7) 96세 생일인자.</p>	<p>해석 : 구천복 승정대부(종1품) 행 동지중추부사(종2품) 100세 인명부에 의하여 도광(道光) 27년(1847년, 조선 헌종 13) 5월</p>

※ 구천복이 1품 교지로 인한 구천복 부모 증직교지



해석 : 학생 구용태 증 가선대부(종2품) 한성부좌윤(종2품) 도광 27년 승정대부동지중추부사 구천복 돌아가신 아버지를 법전에 의하여 수여함
 ※ 진사나 생원이 아닌데 아들 때문에 2품 교지 받음
 ※ 족보에 학생 증가선대부한성부좌윤으로 기록되지만 이 증직은 가짜라 하면 무례한 행동입니다.

구천복 할아버지 구한걸은 증 통정대부(정3품) 공조참의(정3품) 교지를 받고 증조는 증 통훈대부(정3품) 군자감정(정3품) 교지를 받고 구천복 부인과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도 증직교지를 받았습니다.

4. 행수법(行守法)

행수법은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行)이라고 하며 그 직은 행직(行職)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守) 라고 하며 그 직은 수직(守職)이라 합니다.

품계는 관직세계의 위계로서 모든 관리들에게 광범하게 주어지는 데 반해 관직은 일정한 수가 제한되어 있고 관리들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품계와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수법을 실시했습니다.

① 행직(行職)

1449(세종31)년 행수직의 제수범위를 1계(一階)에 국한 했으나 세조의 계유정난으로 공을 세워 갑자기 고위직 승진한 자가 많아지자 당상관(3품)이면서도 8·9품 균직을 행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② 수직(守職)

경국대전에 7품 이하는 2계(二階) 6품 이상은 3계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직(守職)교지

해석 : 교지 윤광안 위 통정대부(정3품) 수(守) 경주 부윤(종2품)자 가정2년 7월11일(1797년 정조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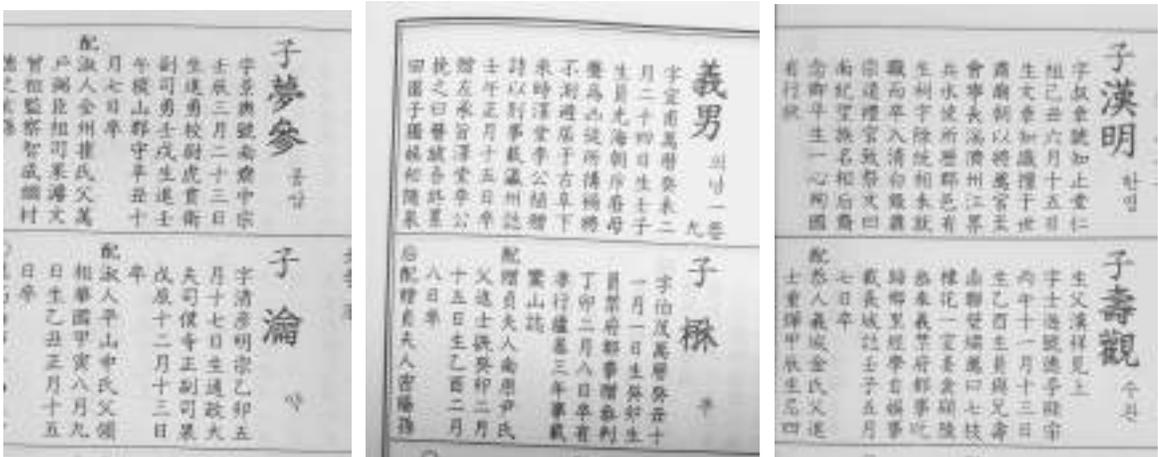
※ 이 교지처럼 행수법에서 직함을 쓸 때 행·수는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썼는데 직함을 표시할 때 먼저 품계를 다음에 행·수를 그 뒤에 관사 (관청)와 직사(직명)를 쓰게 되어 있었으나 종친이나 의빈(왕이나 세자 사위)과 충훈부(공신관리) 당상관은 관사(관청)명을 쓰지 않았으며 문무 당상관 가운데 맡은 일이 없는 지사(同知中樞府事) 영사(領中樞府事) 판사(判中樞府事) 첨사(僉知中樞府事) 등은 지, 영, 판, 첨 자(字)를 관사명 앞에 썼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현직 2품 이상 관리의 선조에 대한 증직과 자손의 음직

兵使公 휘 류한명(柳漢明, 하정파보 1권문헌록 246쪽, 자손록103쪽)은 대승공 22

세로 경기도 장단영(長湍營)에 장단도호부사(장단병마절제사, 종2품)에 이어 1699(숙종25기묘)년 경상좌도(울산)병마절도사(종2품), 1705(숙종31을유)년 강계방어영(江界防禦營) 강계방어사(종2품, 이하 영조41년1765년발행 을유보2권豳쪽참조), 1707(숙종33정해)년 가선대부(統相, 종2품)를 역임하심으로 아버지 무(楸)는 증 병조참판(종2품) 조부 의남(義男)은 증 좌승지(정3품) 증조 약(淪)은 증사복시정(정3품)이 되십니다.

현직이 2품이기에 아들 수관은 음직으로 현릉참봉와 의금부도사가 되십니다.



6. 교지 없는 관직

해당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에서 교지에 의하여 관직을 임명하였는데 관청에서 입안(立案)으로 공무를 담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안은 과거에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청에서 발급한 문서로 내용은 매때나 상속으로 인한 토지 가옥 노비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 이전 재판 결과 양자 입적 등이 있고 하급관리(현재 인턴이나 임시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서로 본인이 원하면 교부해줍니다.

① 교지연구 daum카페 자료(別軍職 免身禮)에서 입안문서

서얼출신으로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정규 무관이 아니지만 국왕호위와 한양경비를 맡는 갑사로 관직에 오른 후에 당상관 이상으로 승차한 선조가 있습니다.

법제적으로 갑사직은 모든 양인에게 개방되어 양인 농민의 의무 균역인 시위패(정병)

영진군 (영군은 병마도절제사가 있는 營의 군사이며 진군은 침절제사의 진을 지키는 군사임) 선군(船軍) 이진(吏典) 백정 등도 감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스스로 기마와 복마(짐말) 군장과 종자까지 거느리고 왕성의 시위와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며 유사시 변방 방어 임무에도 동원되었으므로 웬만한 경제력이 아니고서는 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는데 세종 후반 이후 증가된 병력 숫자를 채우기 위해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입대도 허락하였고 군역을 피하려는 일반 양인들의 입대처로 변화하였습니다.

감사는 국경이나 해안지역에서 일정구간을 맡아 순찰하기에 혼자 할 수 없어 자기가 대리고 간 從者(남에게 종속되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와 말을 관리할 재산이 필요하지만 왕과 접촉할 기회를 노리고 왕릉이나 궁궐 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발(취재) 과목은 편전(片箭) 기보사(騎步射)와 수박(手搏) 등 무예만으로 시험되고 무과에서와 같은 병서에 대한 지식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 무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전관청 면신례 문서(무과 급제 없이 임시직으로 임명되지만 계속근무하면 선전관이 되는데 병조 교지가 아니고 왕의 전령문서임)

◎ 왕의 신변을 측근에서 보호하는 경호군인 별군직 임명은 왕이 직접 사인하는 20-30명 정도이고 왕이 수결한 전령

◎ 해석 : 전령 남행 선전관(음직) 이극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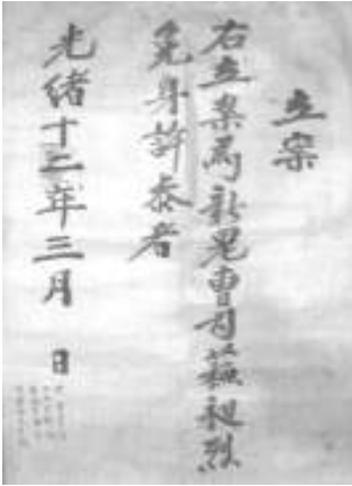
별군직 차하이기대현찰임자 동지10년(고종8년 1871년) 5월 일 국왕 고종 수결 (사인)

② 선전관들이 왕의 수결 없이 별군직 임명한 입안

◎ 해석 : 입안 우입안 위 신귀(신참을 새로운 귀신이라함) 조사(말단) 소창용 면신허참자(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함)

광서(고종23년 1886년) 3월 일(작은 글씨로)

행수(최고직) 최 사인, 공사원(임원) 류 사인, 장무관(사무담당)전 사인, 판조인



(차하위직) 흥효섭

- ◎ 별군직 임무 : 왕 신변보호로 입직(일숙직) 적간 (난잡한일이나 부정한 사실 유무 조사 적발), 아침 저녁 문안인사, 왕이 왕이 가는 곳 군병 배치 등입니다.
- ◎ 왕 아들 딸을 경호한 별군직은 경호한 왕자가 왕이 되면 왕 공식 호위부대인 내금위는 왕 근접경호에서 밀려 나며 왕이 지방 행차시 부족한 수행원을 선전관 청 행수가 보충하는 별군으로 임무 수행후에 계속 근무하면 선전관이 됩니다.

7. 결론

① 대승공16세 자미(서산공)는 사헌부 감찰(정6품)인데 할머니 진주류씨는 증 정경부인(1품)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계가 틀리기에 잘 못 된 것 같지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종 신하이지만 아들 손자들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와 그 후손 왕의 신하이기에 너희들의 존귀로 받은 증직은 묘비에 세가지 말라는 유언 때문입니다.

아들 지(輊)가 우찬성(종1품, 시호평간)이기에 아버지 자미(自湄)는 증우찬성 조부 함은 증이조판서 증조 원지는 증이조판서입니다(참고로 고조는 좌상공 만수 좌의정입니다)

이조참판겸 수 흥문관대제학 이제(李縉)가 1729년(영조5) 撰한 묘갈문에 의하면 “내가 임금을 위하여 죽지 못했으니 선인의 곁에 묻지 말 것이며 너희들이 추은으로 관직을 쓰지 마라 하여 아들들이 그 뜻을 어기지 못하였기에 이조참판 김동규가 찬한 신도비의 정동휘 추기에 의하면 우찬성(종1품)의 증직을 기록하지 않고 그 처에게는 정경부인의 봉호를 기록한다라 기록하였습니다.

② 직계나 방계 선조의 관직과 할머니 품계를 확인할 때 자미선조처럼 특별한 경우와 증손자가 2품이상 관직을 했는지와 당사자가 80세 이상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선조들 관직을 이야기해야하며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관직이 이상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③ 임진왜란 이후 재정 확보가 절실했던 조정이 감사를 늘리거나 공명첩을 발행하면서 중인 상민들도 재산만 있다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고 더욱이 부농과 상인들이 나타나면서 편법으로 양반 족보를 사들였고 공명첩은 1677년(숙종3) 기근을 당해 진휼청에서 매매한 공명첩이 있으며 1793년(정조17) 유점사(楡岾寺)에 100장 공명첩 1851년(철종2) 법주사에 400장 공명첩 1879년(고종16)귀주사(歸州寺)에 500장의 공명첩을 발급하였고 불국사 경복궁 공명첩 등이 있어 관직과 산계(散階)를 주는 고신공명첩(告身空名帖)은 실제의 관직이 아니라 허직(虛職)이기에 그 관직은 자손에게 음직이나 선조에게 증직을 주지 않았으나 족보를 보면 본인이 2품인데 경국대전법에 의한 증직 조건인 부모 조부 증조의 증직이 없으나 그렇다고 부정할 수 없는 관직입니다.

지방관들이 공을 올리기 위해 강제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원하지 않아도 공명첩을 사들이는 사람이 족보 수단 받을 때 교지인 공명첩을 제출하면 譜所에서 족보에 등재해주어야 되고 등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그 족보에 관직명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후손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무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숙종3년 백성이 굶주려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재산을 낸 공명첩은 경복궁과 다르다고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으며 정조가 흥년에 제주 백성을 구한 김만덕에게 내의원 의녀반수(班首) 관직도 같은 허직(虛職)인데 제주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처럼 공명첩에 의한 관직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소문에서 파보 편찬 수단을 받았는데 대승공 22세 증선조 관직이 증 형조참의이며 아들 영환(숙종임오1642-기축1709, 진사)으로 父子와 손자가 나주유림에서 활발한 활동 기록은 있으나 증 본인이나 아들 손자나 후손이 관직은 없는데 증 형조참의로 기존 족보에 기록된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편집위원중 한분이 증직을 삭제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 한 일이 있습니다.

증직 받은 근거가 없지만 선조들이 족보에 기록해 놓은 증직을 삭제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아들 영환의 재산이나 활동연대로 보아 숙종조에 진휼청발행 공명첩을 아버지 증 이름으로 받았다가 돌아가시니 증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란 이후 족보 조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선조들의 족보 기록을 후손이 알파한 보화 지식을 이용하여 삭제한다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文肅公 柳思訥의 墓碑銘



文肅公派宗會長 柳 在 英

恭惟我太祖大王應天順人創業垂統而肇造之初未克一羅麗之習矣逮至世宗大王以聰明有臨之聖承垂可述太平之治召古昔而雅樂尙且未備乃命延臣委制作之任時則有若大提學柳公諱思訥赤與其選博采以成一代之樂用之會而上下豫用之郊廟而神感聖王制作之盛賢臣贊襄之功於祈大矣按公字而行文化柳氏遠有代序至高麗大丞諱車達始顯圭組相承七傳諱公權政糖文學諡文間生諱彥沉禮部尙書在傳諱成庇判禮賓寺事文山君諡忠誠寔公高祖也贈祖湜僉議評理上護軍祖安澤贈領議政考臨判典農正討紅巾賊殉絕贈兵判諡忠壯公妣贈貞夫人安東權氏判典儀寺事肅女公以乙卯生早失古恃零丁孤叔父夏亭公憫其無依契歸養育朝夕訓誨公事之如父一必向學文學大進常曰吾身體髮膚之外皆叔父所賜也及其歿特服哀動一如父喪年十六等上庠太祖癸酉文科內而歷司院正言左司使兵二曹正朗議政府舍人司憲府掌令執議承政院左副代言兼辯正都監提調知申事同知中樞院事副使藝文館大提學外易歷尙州洪州二牧慶尙咸吉江原京畿三道觀察使右軍摠制慶昌仁壽仁順漢城府尹其在兵曹時太宗大王擢親試重試腸田土奴婢蓋異數也在憲府以言事貶安岳尋有還在政院啓請李之崇金貴寶等犯法之罪以知申事閱各道方物請慶尙道觀察使不從教旨用皮編甲之罪啓請閔無悔致庸等不忠之罪又請收稅鑄銅錢分行之策以言事憲府劾之流安岳尋命還牧尙州以前事劾罷上御便殿視事命六曹大練曰柳某忠於我而見惡於人子欲召用命牒在洪州上腸內廐馬一匹爲咸吉道巡問使憲府啓請罷之上曰親臣之人不用何爲有用之才子必用之捨如此之人又用何等人乎上疏陳救民策爲觀察條陳武備肄習事上皆從之赴京畿世宗大王引見遣中官餞干郊以宣慰使往平壤啓請科場講經製述之事又上進賀使如京以大提學兼樂學提調製進歌詩載樂府累疏請正雅定律呂以復古燕享之樂譯雅樂譜序以庚申六月二十日卒享年六十八歲訃聞震悼撤朝致弔賜賻命太常

議諡勤學好問曰熱心決斷曰肅葬于富平毛串面古棧里古烽燧山負辛之原從遺命也公氣宇軒昂不謹小節而觀於其訓子孫書有曰汝等念祖宗成立之艱難慎勿驕奢放縱矜己赦人又曰戎狄荒幻之道至於無父無君逆理亂常余甚不取我死汝等慎勿修七之齊供飯僧一遵朱文公家禮盖當時東俗質質尙子麗氏崇佛之習而公能以禮治家以義教子超脫俗陋其見識之明學問之正改可想矣而詳審縝密又女此也以配贈貞夫人江陵劉氏沃川府院君倣女生一女適文司彌墓祔貞夫人昌寧成氏郡守習女雙兆而祔男喜生上將無嗣偶生郡守更生縣令贈兵參郡守男希祖宗縣令兵參男敬祖文參議敬宗文獻納會玄以下不錄噫夫有大有爲之君契托昭融上之視下若龍之得雲下之視若魚之遇水以成治化若公以經術才猷遭遇聖明歷事四朝焯入中外啓沃弘多數秦切實見樂學之有闕失反覆詳陳作歌詩以被之管絃上自廟堂下至閭巷皆得而誦之轉移風俗其輔聖德道民志功之業豈偉歟法當有桓之文而尙闕顯刻晦堂尹公膺善銘之而未入石後考國朝實錄頗多爽失後承著彥圖所以瑩正乃治貞珉使寅圭範詰要下妄補其闕訂其訛余辭人辭人微其請愈固畧據國史隱括基文而叙次乃敢補其銘曰太祖龍興肇啓邦家聖神相繼德悃勳華爰有盡臣應時而出揜歟文肅天賊魁傑忠壯消子夏亭賢姪早年釋褐昵侍近密爲王股肱文武才全奔內外匡君安民禮攘樂崩聖君制作設與贊者二三同德協贊謨猷敷秦啓沃詩以咏歌被之管籥鳴玉享賓賡頌聖德煌煌褒崇以諡爵海山芬郁天藏佳穴於千百年永祀不絕

檀紀四千三百四年 辛亥 (千九百七十一)年

昌山 成 九 鏞 撰

공손히 생각하건데 太祖大王이 하늘 命을 應하고 사람 마음을 順이하여 나라를 세워 國統을 傳垂할 때 이때에 능히 新羅와 高麗의 폐습을 다 씻지 못했더니 世宗大王에 이르러서 총명하시어 선왕의 창업을 이어 예의와 법도가 찬연히 빛나 기술할 수 있는 太平의 정치가 전보다 초월하되 雅樂이 오히려) 갖추지 못하였거늘 이에 조정의 신하를 명하여 雅樂制作을 하는 임무를 맡기니 이때에 大提學 柳公思訥이 그 責任을 맡아 멀리 상고하고 수집하여 一代의 풍류를 이루니 군신이 기뻐하고 하늘과 宗廟 제사에 씬에 기신이 감응하니 聖王이 제작한 盛함과 賢臣의 찬양한 공이 이에 큼이 되도다.

상고하니 公의 字는 而行이니 文化柳氏가 멀리 代서가 있으니 高麗에 이르러서 大丞公 諱 車達이 비로서 顯達하고, 훌륭한 분이 서로 이어 七世에 諱 公權이 정당문학

으로 諡號는 文簡이오 諱 彥沉을 낳으니 禮部尙書요, 두대에 내려 와서 諱 成庇가 判禮賓寺事 文山君 諡號 忠誠이 곧 公의 高祖요, 贈祖는 湜이니 僉議評理 上護軍이요, 祖는 安澤이니 贈 領議政이요, 考는 臨이니 判典農正이라, 紅巾賊을 討伐하다가 殉絶하니 贈 兵曹判書하고 贈諡 忠壯公이다. 妣는 贈 貞夫人 安東權氏요, 判典儀寺事 肅의 따님이다.

公이 우왕 乙卯年(1375년)에 生하여 早失父母하고 孤獨하게 자라더니 宿부 夏亭公이 그 의지할 곳 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養育할 때 朝夕으로 敎훈하니 公이 父母같이 섬기고 一心으로 向學하여 大성했더라.

공이 항상 말하기를 “나의 身體髮膚 外에는 다 叔父 소라라.” 하고 夏亭公이 돌아가심에 특별히 復을 입고 哀痛함을 父母같이 하였다.

나이 十六에 生員에 오르고 太祖 癸酉 (1393)년에 文科하여 안으로는 司諫院 正言과 左司諫과 吏兵二曹 正郎과 議政府 舍人과 司憲府 掌令과 執義와 承政院 左副大言 兼 辯正都監制調와 知申事와 同知中樞院事와 부사, 藝文館大提學을 歷任하고 外職으로 尙州, 洪州牧使 咸吉, 江原, 京畿道觀察使 右軍摠制, 慶昌, 仁壽, 仁順, 漢城府尹을 歷任 하였다.

兵曹에 있을 때에 太宗大王의 親試 重試에 合格하여 땅과 종을 下賜하니 대개 특별한 일이라. 憲府에 있을 때에는 言事로 安岳에 귀양갔다가 곧 풀려 돌아오고, 承政院에 있을 때에 李之崇과 金貴寶 등의 犯法罪를 여쭙어 청하고 知申事로 各道의 方物을 檢閱할 때 慶尙道 觀察使의 敎旨를 不從하고 가죽 토 갑옷을 엮은 罪를 請하고 閔無悔와 致庸 등의 鈇忠한 罪를 여쭙어 請하고 또 稅金徵收에 銅錢을 만들어 반포하여 행할 계획을 請하더니, 言事로 憲府가 탄핵하여 安岳에 流配하였다가 곧 命還하고, 尙州牧使를 할 때 前事로 탄핵하여 파직하거늘 王이 便殿에 나시어 일을 보 제 六曹大諫을 命하여 말하되 류모는 나에게 忠誠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니 나는 불러 쓰고자 하노라 하고 명하여 職牒을 환급하고 洪州에 있을 때 王이 內廐馬 일필을 下賜하고 咸吉道巡文使를 任命하였더니 憲府가 파직을 請하거늘 임금 이 이르되 親信하는 사람을 不用하면 어느 것이 쓸 수 있는 제목이고 내가 반듯이 登用하리라, 이같은 사람을 빼놓고 어떠한 사람을 登用하리요 하였다.

上疏하여 救民하는 計策을 말하고 觀察이 되었을 때 軍備의 연습할 일을 詳言한데 임금 이 다 쫓다.

京畿監事로 赴任할 적에 世宗大王이 引見하시고 中官을 派遣하여 郊外에 餞送하였

고, 宣尉使로 平壤에 감에 科場에서 經書를 講하고 글을 짓는 일을 왕께 奏請하고 또 進賀使로 중국에 가고 大提學으로 樂學提調를 兼하고 歌詩를 지어서 樂府에 실리고 여러 번 上疏하여 雅樂을 바로 잡고 呂律을 정하여 옛 잔치하는 풍류를 回復함을 請하고 雅樂譜序를 짓다. 庚申六月二十日卒享年六十八

庚申, 1440년 六月 二十日 돌아가시니 享年 六十六이라, 부음이 들리매 왕이 震悼하여 朝會를 중지하여 弔問을 하고 賻儀를 下賜하고, 明太常하여 謚議하고 富平 某串面 高棧里 古烽燧山 負辛의 原에 安葬하니 從遺命이라,

公의 기풍이 높아서 小節에 不動하되 그 子孫을 敎訓한 書에 보면 “너희들은 조상들의 成立한 艱難을 생각하여 교만 사치하고 방탕하여 내물을 자랑하고 남에게 오만하지 말라.” 하고 또 말하되, “오랑캐의 나쁜 법이 無父無君하여 逆理亂常한데 이르니 내가甚히 취하지 아니 하노니,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삼가 하여 修七之齋와 부처에 불공하지 말고 중을 밥 먹이지 말고, 朱文公家禮를 一遵하라.” 하였으니 대개 당시 우리나라 풍속이 質質하여 고려의 불도를 숭상하던 풍습이 오히려 있거늘 공이 능히 예로서 治家하니 그 見識의 밝음과 學問의 바름을 대강 가히 알겠고, 또 詳審緻密함이 이갈더라.

配位가 두 분이니, 贈貞夫人 江陵劉氏니 沃川府院君 徹의 따님이라. 一女를 生하니 文司諫 윤수미에게 出嫁하고 貞夫人 昌寧成氏는 慶守 翊의 女이니, 雙墳으로 모시다.

男에 喜生은 上將이니 無嗣하고, 偶生은 郡守요 更生은 縣令으로 贈兵參하다. 郡守의 男 希祖는 縣監이요 希宗은 縣令이라, 兵參의 男 敬祖는 文參議요, 敬宗은 文獻納이라, 贈玄이하는 다 記錄치 못한다.

슬프다! 대저 크게 有爲한 王을 만나서 임금의 신하를 봄이 龍이 구름을 얻은 것 같고 신하가 임금을 봄을 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아서 정치와 교화를 이르나니 공 같은 이는 공부와 재주가 있어 훌륭한 임금을 만나서 네 임금을 다 섬기고 안 밖으로 드나들며 王을 補佐함이 많고 부주가 切實하여 樂學이 빠지고 잘못됨이 있음을 보고 反覆해 자세히 말하고 노래를 지어 악기에 올리어서 위로는 廟堂에서 아래로는 시골에 이르기까지 다 얻어 노래하여 風俗을 바로 잡았으니, 그 임금의 덕을 높고 백성의 뜻을 인도한 功이 어찌 偉大하지 아니한가?

法에 마땅히 환영의 글이 있어야 하는데, 나타나게 새김이 오히려 없거늘 晦堂 尹公 膺善이 일직 銘을 지었는데 미쳐 비석에 새기지 못하였더니 國朝實錄을 상고하니

잘못됨이 자못 많거늘 後孫 여러 사람이 바로잡을 것을 도모하여 비석을 세울 때 寅圭와 範喆로 하여금 나에게 그 빠진 것을 補充하고 잘못된 것을 정정함을 請하거늘 내 그 사람이 아님을 고사하되 그 請이 더욱 간절한지라 國史를 대강 증거하고 그 글을 추려 모아 차례로 엮어서 이에 敢히 銘을 보충하노니, 太祖가 일어나사 國家를 처음 열고 훌륭한 임금이 서로 이어 德이 堯舜에 비했도다.

이에 忠臣이 있어 때를 應하여 나오니 크다 文肅이여! 천품이 높고 크도다. 忠壯의 소자요 夏亭의 賢姪이라,

어린 나이에 科擧하여 王을 가깝게 모시어 王의 수족이 되니, 문무의 재주를 온전히 하였도다.

안과 밖으로 드나들며 王을 돕고 백성을 편히 하였도다.

禮가 무너지고 樂이 없어졌으니 聖君의 制作을 누가 더불어 도울고?

두서넛 德을 같이 하시니 임금의 일을 돕고, 말로 여쭙어서 詩로 읊어 노래하고, 악기에 울리어 鳴玉으로 賓을 즐겁게 하고, 훌륭한 王의 德을 이어 노래하니, 빛나고 높은 포양으로 시호와 벼슬이로다. 바다와 산의 아름다움이여! 하늘이 감추어 놓은 좋은 곳이로다. 아름답다! 千百年을 길이 祭祀하여 끊기지 않으리라.

檀己四千三百四年 辛亥(1971)년 월 일 세움

創山 鄭 九 鏞 지음



宗簿寺少尹公諱漢生墓道碑 謹豎



충경공과 소윤공종중 회장 柳 愚 翔

청명 한식이 지난 금년 4월 24일 저에게는 18대조이신 종부시 소윤공 (諱 漢生) 할아버지 재실 앞에 묘도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존경하는 三鉉 대종회 회장, 滌鉉 대종회 전상임부회장, 在寬 충경공회장, 志瓚 전사령공 회장, 在仲 부령공 회장, 熒烈 대전권 문화류씨 종친회장, 그리고 전사령공 종중 益鉉 이사, 그리고 우리 소윤공 종중 임원과 후손이 천안, 아산은 물론 멀리 남해, 대구, 부산, 서울, 대전, 장수, 무주, 영동, 옥천, 서천, 부여, 예산 등 전국 각지에서 80여명이 참여를 하여 내리던 비도 모두 그쳐서 種烈 감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明錫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와 會長 人事, 大宗會長 祝辭 순으로 묘도비 제막식을 성대하게 하였습니다.

묘도비를 이제 세우게 됨을 설명하면 소윤공은 1449년 세종 31년에 48세의 젊은 나이로 하세하였으며 이때 관료 동료, 선후배 여러분이 만사를 썼고 애도 속에 장례를 충경공 묘소와 불과 10여리 떨어진 지금의 남양주시 화도면 마석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사를 쓰신 몇 분을 본다면 충절이 길이 빛나는 사육신 成三問, 河緯地, 후에 정승이 되신 鄭昌孫 등 40 여분이며, 1993년 11월에 남양주시의 도시개발로 이곳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공의 큰아드님으로 천안군수를 지내신 천안공(諱 纘) 묘소 위에 읍감과 동시에 재실을 신축하였으나 대문 앞 토지가 남의 토지로 비석을 세우지 못하다가 지난 해에 대문 앞 토지를 종중에서 매입하므로 종중 결의로 묘도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비문은 대종회 전 상임부회장님이 지으셨으며 전면 글은 후손 신천공 회장 熹烈이 쓰셨습니다. 이날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화환을 보내주신 문화류씨 대종회장, 충경공파 종회장, 전사령공 회장, 판윤공 회장, 부령공 회장, 후손 각 소파 회장님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일 행사에 부족한 점을 널리 용서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과

소윤공 후손 가정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소윤공 묘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宗簿寺少尹柳公諱漢生墓道碑

夫今圖豎碑也에取文獻以古爲貴之義하야而採錄公墓碣銘하니是公捐館直後에其庚友
| 集賢殿提學鄭公昌孫所撰으로其於行蹟 | 述之詳而稱之極이라以故로可爲之準用호
대但其子女註엔從史乘書終職者 | 無乃可乎아何諸오墓銘所記上三男은有職銜하고而
下三男與二女 | 皆幼云者는盖公早世然也라厥後에其子與婿 | 各宰府牧郡縣하야而俱
有聲績하니書其官銜者 | 孰云不可哉아恭惟 | 公諱漢生이요柳氏之貫文化니以高麗開
國功臣大丞公諱車達之裔也라曾祖는正順大夫密直司右副代言諱甫發이요祖는贈正憲
大夫叅贊門下議政府事文化君諱繼祖요考는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諱忠景公
諱亮이며妣는弁韓國大夫人延安李氏로工曹判書諱元發之女인데以朝鮮太宗壬午正月
廿二日에生公子于漢陽本第하다丙申四月 | 公年十五에遭外艱하야襄事無憾以服闋하다
世宗卽祚에以勳臣之子弟로拜承仕郎功臣都監丞 | 歷監察佐郎하고陞司憲府持平하야
庚戌九月에以言事罷하다甲寅正月에丁內艱除服하고丙辰에擢都官正郎하야翌年에移
刑曹正郎하고尋陞朝奉大夫濟用監副正하다辛酉에平安道에有久獄未決일새公以敬差
官으로往按得失하고翌年에出平安道經歷하다癸亥에出南原府使하야施惠政하고瓜滿
에移宗簿寺少尹하야戊辰冬에陞奉正大夫하다翌年己巳三月에以疾卒于第하니時年四
十八이라同年十二月十三日에葬于楊州東村馬山里東向原하니卽今南楊州市和道邑倉
峴里內洞後麓也라公이娶折衝將軍行上護軍崔公宇之女하야生六男二女하다本欄의子
與婿之官銜은已如前述以改書하니男長曰縵은天安郡守요次曰綸은陝川郡守요曰綵는
星州牧使요曰緯은信川郡守요曰約은錦山郡守요曰綱은生員이며女長은適府使邊石崙
하고次는適察訪崔延齡하다公이端方明慎하고遇事通敏하야立於朝에燁然爲名士러니
長於吏治하야所至有聲稱일새惟其不永于年하야施不能窮하니惜哉라然 | 若子若孫이
尙能趾美하야而世其家하니余固知慶流之未艾也라余忝姻戚하야略知公之行業이라今
其子縵 | 來請銘하니不敢辭하고銘曰相門有子 | 操履之純이라明達於事 | 忠信於人이
라有蘊未施 | 胡不假壽요天乎杳茫 | 而莫能究라爲善獲報 | 徵于子孫이라夫挽近以時
事之急變으로從俗趨勢하야而爲先若宗事者多하니曰遷墓于牙山과建齋於山下와輓錄
之編刊等也라在其裔孫之地에須可以知之傳之者라附記于後하다噫라料外에因新都市
擴張으로去癸酉冬에公墓를移自楊州하야而遷葬于牙山之排芳面細橋里台峰山南麓子

坐原하다寔公長子天安公壇所之上으로合窆具石儀하니而山勢通暢하고風氣柔順하야可謂之明堂也라翌年에自公墓右之下에新築齋室하야以爲齋宿之所하고而額曰慕先齋하니是思慕祖先之義也라階下左右에各建四間瓦屋하야以用庖廚 | 藏祭器 | 辦祭需 | 行講睦之所하고而有外門三間하야額曰敬仰門하니是敬而仰之之義也라盖輓詞錄은往歲壬申에自扶餘宗中 | 若壬辰에自羅州宗中 | 傳之者有二本이라而翌年癸巳에以宗中公議로此兩本을折衷補完譯解懸註하야而編刊一冊 | 題曰少尹柳公輓詞錄하다는公逝去後에同朝賢類三十七人이哀其早世하야以各撰律絕長句等都合四十首인데而感惜云壽不稱其德其才하다若公不有盛德敦行이면則濟濟名流가奚若是悼之惜之哉아茲可以知其名不虛傳也라噫라公以世家之裔로尤有才望하니想多遺文일새以歲久代遠으로散佚無遺하니莫不歎惜者라然 | 何幸東國輿地勝覽 | 平安道定州牧題詠篇에載公詩一絶하니曰茫茫滄海狂瀾靜하고膾膾田原積雨晴云이라是雖隻句나在其後昆之地에猶勝於拱璧也라終有可告컨대則凡到此先塋而入斯齋室者는進退揖讓에庶不負先祖之遺德하고以爲後孫之道理에勉勵不已焉이라然則在天之英靈 | 曰吾有後矣라而宜乎陟降於斯也리라今役에宗會長愚翔이從衆孫議하야而請文於不佞일새顧以不文累辭나而終不孤以敘如右하니僭濫極矣라 西紀二千十九年己亥清明節에

族後孫 | 大宗會常任副會長淙鉉敬識하고

十七世孫熹烈敬書하고

文化柳氏忠景公派少尹公宗中謹竪하다

종부시소윤 류공 휘한생 묘도비(宗簿寺少尹 柳公 諱漢生 墓道碑)

금번 비(碑)를 세우고자함에 문헌(文獻)은 오래된 것을 귀히 삼는다는 뜻을 취하여 공의 묘갈명(墓碣銘)을 채록(採錄)하는 바, 이 글은 공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그 동갑 친구인 집현전제학 정공창손(集賢殿提學 鄭公昌孫)이 지은 것으로 그 행적에 대해서 기술함이 자상하고 칭송함이 지극하였다. 때문에 가히 준용(準用)하되, 다만 그 자녀의 주(註)에 대해서는 사승(史乘)을 좇아 종직(終職)을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어찌서 그러나하면 묘갈명에 기록된 바, 위로 3남은 직함(職銜)이 있고 아래로 3남과 2녀는 모두 어리다고 이른 것은 공께서 일찍이 세상을 버리신 때문이다. 그 후로 그 아들과 사위들이 각기 부(府)와 목(牧)과 군(郡)과 현(縣)의 수령(守令)으로 모두 명성과 공적이 있었으니 그 관직명을 쓰는 것을 누가 불가하다 이르겠는가?

삼가 이르건대, 공의 휘(諱)는 한생(漢生)이요 류씨(柳氏)로서 관향은 문화(文化)

니 고려(高麗) 개국공신(開國功臣) 대승공(大丞公) 휘 차달(車達)의 후예이다. 증조는 정순대부 밀직사우부대언 휘 보발(甫發)이요, 조는 증정현대부 참찬문하의정부사 문화군 휘 계조(繼祖)요, 선고는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우의정 시호 충경공(忠景公) 휘 량(亮)이며, 선비는 변한국대부인(弁韓國大夫人) 연안이씨(延安李氏)로 공조판서 휘 원발(元發)의 따님인데 조선(朝鮮) 태종(太宗) 임오(壬午: 一四〇二) 정월 二十二일에 공을 한양(漢陽) 본제(本第: 本家)에서 출생하였다.

병신(丙申: 一四一六) 四월, 공의 나이 十五세 되던 해에 외간(外艱: 父親喪)을 당하여 장례를 유감없이 행하고 복(服)을 마쳤다. 세종(世宗)이 즉위하심에 이르러 훈신(勳臣: 功臣)의 자제로서 승사랑 공신도감승에 제수되고, 이어 감찰 좌랑을 거쳐 사헌부지평에 승진되었더니 경술(庚戌: 一四三〇) 九월에 언사(言事)로 파직되었다.

갑인(甲寅: 一四三四) 정월에 내간(內艱: 母親喪)을 당하여 복(服)을 마치고 병진(丙辰: 一四三六)에 도관정랑에 발탁되어 이듬해 형조정랑으로 옮겼더니 곧바로 조봉대부 제용감부정에 승진하였다. 신유(辛酉: 一四四一)에 평안도(平安道)에 오래된 옥사(獄事)를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공이 경차관(敬差官)으로 나가서 득실(得失: 是非)을 가려 처결하고 이듬해 평안도경력으로 나가셨다. 계해(癸亥: 一四四三)에 남원부사(南原府使)로 나가 은혜로운 정사를 베풀고 만기가 차서 종부시소윤(宗簿寺少尹)으로 옮겼더니 무진(戊辰: 一四四八) 겨울에 봉정대부(奉正大夫)에 승진하였다. 이듬해 기사(己巳: 一四四九) 三월에 질병으로 자택에서 졸하니 당시 나이 四十八세이셨다. 동년 十二月 十三일, 양주(楊州) 동촌 마산리 동향(東向)의 언덕에 장례를 모셨는데 곧 지금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내동 후록이었다.

공께서 절충장군(折衝將軍) 최공 우(崔公 宇)의 따님과 결혼하여 六남二녀를 낳으셨다. 본란(本欄)에 아들과 사위의 관함(官銜)은 이미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개서(改書)하니, 아들에 맏이 훈(纁)은 천안군수(天安郡守)요, 다음 룬(綸)은 합천군수(陝川郡守)요, 다음 채(綵)는 성주목사(星州牧使)요, 다음 작(綽)은 신천군수(信川郡守)요, 다음 약(約)은 금산군수(錦山郡守)요, 다음 인(綰)은 생원이며, 따님에 맏이는 부사 변석륜(府使 邊石崙)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찰방 최연령(察訪 崔延齡)에게 출가하였다.

공은 천성이 단정하고 올바르며 분명하고 신중한 한편, 일을 처리함에 민첩하여 조정(朝廷)에 있어서는 훌륭한 명사(名士)로 일컬었고, 관리로서 정사(政事)에 밝아

이르는 곳마다 명성(名聲)을 칭송하였는데 오직 그 수명(壽命)이 길지 못하여 포부를 능히 다 펴지 못한 것이 애석하도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들이 능히 아름다운 행업(行業)을 이어 그 가풍(家風)을 지키니, 내가 짐짓 그 경사(慶事)의 흐름이 길이 전하여 그치지 않음을 알겠도다.

내가 부끄럽게 인척(姻戚)이 되어 대략 공의 행업을 알고 있는 바, 이제 그 아들 훈(勳)이 와서 묘명을 청하니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명사(銘辭)에 이르노니, 정승의 가문에 아들이 있어, 지조와 품행이 순수하였도다.

사물을 밝게 통달하고, 남에게 충성과 신의를 다하였도다.

포부를 다 펴지 못했거늘, 어찌 오래 살지 못했는가?

하늘의 뜻이 아득하고 멀어, 능히 알지 못하겠도다.

선을 행하여 보답이 있으니, 아들 손자로 징험하겠도다.

무릇 근래에 이르러 시사(時事)의 급변으로 풍속을 따르고 형세를 좇아 위선(爲先)과 종사(宗事)가 많았으니 이르되, 아산(牙山)으로 묘를 옮김과, 산소 아래 재실(齋室)을 건립함과, 만사록(輓詞錄)을 편간함 등이다. 그 후손의 처지에 있어 모름지기 알아야하고 전해야 할 일이라서 뒤에 부기(附記)한다.

아아! 뜻밖에 신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지난 계유(癸酉 : 一九九三) 겨울에 공의 묘를 양주로부터 옮겨 아산(牙山)의 배방면 세교리 태봉산 남쪽 자좌(子坐)의 언덕에 천장(遷葬)하였으니 이곳은 공의 장자 천안공(天安公)의 단소 위로서 합평하고 석의(石儀)를 갖추었는데 산세(山勢)가 통창하고 풍기(風氣)가 유순하여 가히 명당(明堂)이라 이르겠다. 이듬해 공의 묘소에서 우측 아래에 재실(齋室)을 신축, 재숙(齋宿)의 장소로 삼고자 현판을 모선재(慕先齋)라 하였으니 이는 조상을 사모한다는 뜻이다. 섬들 아래 좌우로 각각 4간의 와옥(瓦屋)을 지어 포주(庖廚)로 쓰고, 제기(祭器)를 갈무리하고, 제수(祭需)를 장만하고, 강목(講睦)을 행하는 장소로 삼고 있으며, 외문 3칸이 있어 현판을 경양문(敬仰門)이라 하였으니 이는 공경하고 우러른다는 뜻이다.

만사록(輓詞錄)은 지난 임신(壬申 : 一九九二)에 부여(扶餘) 종중과 임진(壬辰 : 二〇一二)에 나주(羅州) 종중에서 전해온 것이 이본(二本)이 있는데 이듬해 계사(癸巳 : 二〇一三)에 종중의 공의(公議)로서 이 양본(兩本 : 二本)을 절충(折衷) 보완(補完)하고 역해(譯解) 현주(懸註)하여 一책으로 편간, 표제를 『少尹柳公輓詞錄』이라 하였다. 이는 공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 조정(朝廷)의 현류(賢類) 三十七인이 그 일찍이 세상을

버리심을 슬퍼하여 각기 지은 율시(律詩) 절구(絶句) 장구(長句) 등 도합 四十수인데 모두 슬퍼하며 이르기를“수명이 그 덕과 그 재주에 걸맞지 못했다”고 하였다. 만약 공께서 훌륭한 덕과 도타운 행실이 있지 않았다면 많은 명류(名流)들이 어찌 이같이 슬퍼하고 아까워했겠는가? 이에 가히 그 명성이 공연히 전해진 것이 아님을 알겠도다.

아아! 공께서 세가(世家 : 名閥)의 후손으로서 더욱이 재주로 명망이 있었으니 생각건대 유문(遺文)이 많았을 것인데 세월이 오래되고 세대가 멀어짐으로써 모두 흩어져 남은 게 없으니 한스럽고 애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다행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평안도 정주목(平安道 定州牧)의 제영편(題詠篇)에 공의 시(詩) 한 절구가 실려 있으니 이르되“아득한 바다에 파도가 잠잠하고 기름진 언덕에 장맛비가 개었도다.”하였다.이 시가 비록 짧은 글귀이지만 그 후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름답리만한 큰 보옥(寶玉)보다 훨씬 낡으리라.

끝으로 아뢰고 싶은 말이 있으니 무릇 이 선영(先塋)에 다다르거나 이 재실에 들어온 이는 진퇴읍양(進退揖讓) 곧, 나아가고 물러남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 무릇 선조의 유덕(遺德)을 저버리지 않고 후손된 도리를 힘써 마지않아야 할 것이다.그럴진대 하늘에 계신 영령(英靈)께서“나의 후손이 있도다.”이르시며 마땅히 이곳에 오르내리시리라.

금번 역사에 종회장(宗會長) 우상(愚翔)이 여러 후손들의 의논을 좇아 불녕(不佞 : 本人의 謙稱)에게 글을 청하니 돌이켜 보건대 글을 잘하지 못하여 누차 사양하였으나 끝내 저버리지 못하고 우와 같이 서술하니 참람(僭濫)함이 지극하도다.

서기 二千十九년 기해(己亥) 청명절(淸明節 : 음三月)에
족후손 대종회상임부회장 종현(淙鉉) 삼가 짓고
십칠대손 희열 삼가 쓰고
문화류씨 충경공파 소윤공종중 삼가 세우다



龍西公(諱 基一) 115年만의 歸鄉



文化柳氏大宗會長/名法博 柳 三 鉉

1. 序

2019년 5월 30일 경기도 抱川文化院 주최로 朝鮮朝의 大思想家이자 儒學者이신 龍西 柳基一선생의 學德과 經倫, 人品을 追慕하는 全國漢詩白日場이 경향 各지의 儒林들을 비롯하여 포천지역 기관장과 내외 귀빈, 후손 등 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詩題는 龍西 柳基一선생 追慕이고, 押韻은 양(楊). 장(長). 강(綱). 방(芳). 양(揚)이었다.

式順에 따른 行事を 마친 일행은 인근에 있는 公의 11代祖이신 領議政 愚伏堂(휘 堧)의 묘소를 참배하고 墓域을 둘러본 후 포천문화원으로 돌아와 고선발표(考選發表

: 壯元 張炳國, 次上 金仁淑, 次下 權承奇. 金榮弼)를 끝으로 성황리에 이 날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公의 고향 포천이 나 는 巨儒이시고 萬人의 존경을 받는 碩學으로 公께서 서거하신 후 全國漢詩白日場의 主人公으로서 115년만의 歸鄉



龍西 柳基一先生 追慕 全國漢詩白日場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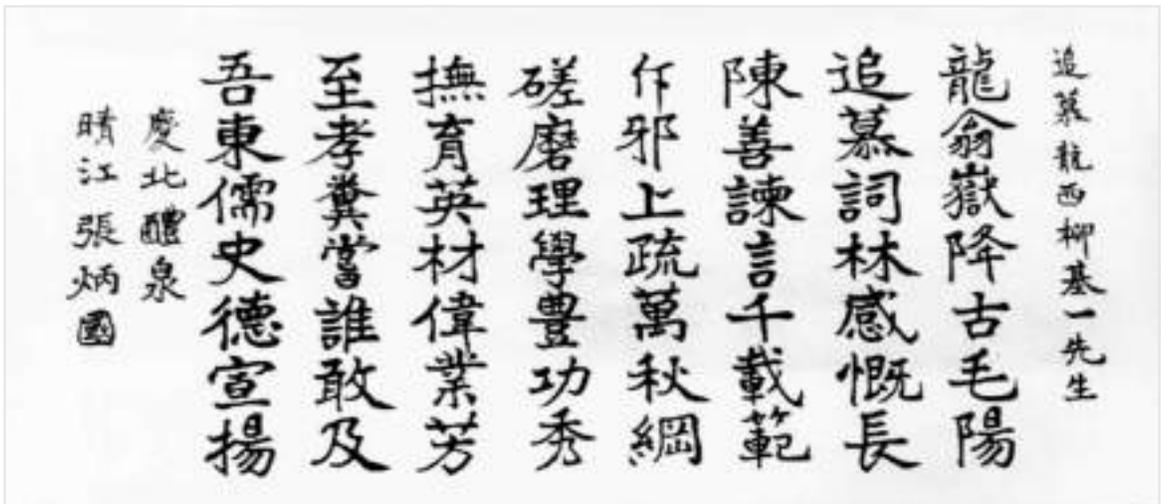


全國漢詩白日場詩集

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후 더욱이나 본 행사를 주최한 抱川文化院에서 追慕 龍西 柳基一先生 全國漢詩白日場詩集을 발행하였는 바, 後孫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당국에 전하고 싶다. 이는 文鄉인 포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림은 물론이고 우리 文化柳氏 후손들에게도 崇祖의 精神을 일깨워 주게 하는 자랑스러운 큰 행사이기도 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전국 儒林들로 하여금 龍西公의 爲業을 홍보하고 公의 높으신 인품을 접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示唆하는 바가 지대하였다고 확신한다.



壯元作 張炳國

2. 公의 家系와 生涯

公의 諱는 基一이요, 字는 聖存이며, 號는 龍西이고 大丞公의 後孫으로서 朝鮮朝의



東海處士 龍西 柳基一先生 影幀

開國功臣으로 左議政을 하신 휘 曼殊의 17대손으로서 宣祖朝의 領議政으로 諡 文貞公 堧의 11대손이요, 文寧君(호 香下, 휘 秉喆)과 貞夫人 完山李氏 사이에서 憲宗 11년(乙巳. 1845년)에 포천군 소흘면 고모리에서 둘째로 출생하셨다.

公께서는 資稟이 뛰어나 영특하고 志氣가 남달리 고상하여 일찌기 科業에 뜻을 두지 않고 求道에만 전념하였다.

華西 李恒老, 重庵 金平默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는 바, 性理의 학문을 체득하여 행의가 독실하고 문장이 탁월함으로 同門은 물론이고 儒林에서 宗師로 崇仰하기도 했다.

公의 初號는 龍溪였으나 晩年에 龍西로 改號하였다.

평생을 오직 학문에 몰두하여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高宗 41년(甲辰. 1904) 9월 7일에 향년 60세를 일기로 타계하시니 門人, 知舊로서 弔喪한 사람들에 數百人에 이르렀다

고 전하고 있다.

配位 全州崔씨는 秀洛의 따님으로 5남 2녀를 두셨는 바, 상세한 내용은 墓表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3. 公의 지극한 孝誠과 文化柳氏 五代壇

公께서는 孝誠과 友愛를 天性으로 타고나 아버지를 섬김에 志體의 봉양을 다하고, 親喪에 여묘(廬墓)로서 종제(終制)하여 얼굴이 검고 뼈만 남을 지경에 이르렀으며, 형제 자매간의 友愛도 지극히 돈독하였다.

公은 爲先의 誠意가 篤실하여 墳墓를 실전한 先祖의 紙榜을 집에 모시고 매년 9월 그믐날 享祀하기를 24년만인 1899년(己亥)에 지금의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방축동 先塋결에 設壇을 하였는 바, 오늘날 文化柳氏五代壇이 바로 그 始初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先賢을 敬모함이 지극하여 일찍이 孔子, 朱子, 尤庵, 華西, 中庵 5위의 영정(影幀)을 집에 봉안하여 매일 아침에 배알(拜謁)하고, 고을 북쪽 三星堂里에 禹王, 周公, 孔子 3위의 壇所를 설치하여 매월 朔望(朔望)으로 분향하고 매년 10월 13일 祭享을 받들어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東海處士 龍西公의 墓表



龍西公의 墓域全景

4. 東海處士 龍西柳先生諱基一墓表

先生諱基一。字聖存。初號龍溪。後改龍西。文化柳氏。高麗壁上功臣大丞公諱車達之後。始入朝鮮朝。開國功臣左議政諱曼殊。十七代孫。宣祖朝領議政策平難功臣勳封始寧府院君諱文貞公諱堧。十一代孫。高祖諱宗錫號寒溪。贈司僕寺正。曾祖諱喜(雨/欽)號觀稼齋。贈吏曹叅議。祖諱學勉。贈吏曹叅判。封寧城君。考諱秉喆。號香下。以學行筮仕同知敦寧府事。襲封文寧君。妣貞夫人完山李氏。趾秀女。先生。憲宗十一年乙巳六月三日。生於抱川蘇屹面古毛里香積山下。生而秀異。天資靈明。志氣高尚。不屑科業。誠心求道。嘗師華西李先生。受性理之學。繼又請益於重菴金先生。丕承兩先生正學之淵源。門路得正。踐履篤實。祖堯學孔。道學崇高。文章卓越。華門正脈。獨得其宗。非徒一世之可稱。實百世儒林之宗師也。嗚呼。聖人遠而異端起。經學壞而邪說行。三綱崩。五倫廢。先生丁此時。剝復之際。後時獨立以持存聖軌。扶植彝倫。興起斯文爲己任。辨異端辟邪說。欲使聖人之道燦然復明於世。上天不佑。時運不幸。當朝鮮朝末葉。朝無賢相。世乏良材。時政日非。朝野混亂。先生素志。無地可伸。痛恨何極。先生。已料世道之不可挽回。隱居香積山下。以講明道義。開發後學爲己任。廣施不倦之教。遠近之士。來學者數百人。仁義道德之說。賴而不絕。達材文章。多出其門。先生。奉享先代失傳諸位。私享本舍二十四年。而終乃封壇于外北坊築洞舊山。每年九月晦日。歲薦一祭。以盡追遠報本之誠。奉五聖位及朱子尤菴華西重菴影幀於家。每朝拜謁。設一治壇于新北面三星堂里。奉禹周孔三聖。配以孟子朱子尤菴華西。以示三聖一治之功。道統之所傳。作朱紫辨證錄及斥洋錄。以正邪說。與勉菴崔益鉉。憂國事之日。非抗削髮令之不可。上疏諫諍。觸忤聖旨。過彈當路時輩之無義放蕩。累被譴責。捉囚至於謫配。而抗義不屈。終身不休。嘆彝倫之頽廢。道學之泯滅。日與弟子講明。平生。常以慕祖慕聖。憂君憂國。尊攘衛道。遏惡揚善。扶植彝倫爲法。明於性理之學。嚴於義理之制。一而講明道義。敦行孝悌忠信。爲終身遵的。高宗甲辰九月七日考終于正寢。葬于抱川新北面溪流里舊山乙向原。則先生之十五代祖贊成公局內也。越一南麓。則先生之所設壇。先代壇位也。門人成服事葬者百有餘人。門人受業者數百人中。最其誠服者。持齋李哲榮。黃齋羅相協。黃齋。當世文章。廉潔謹飭之士。其

事師之誠尤篤。先生之遺稿百有餘卷。親自手抄校正淨書整本。且先生之年譜與行狀。亦自製述。合而爲一百十四卷 未能入梓。藏之家矣。庚寅之亂燬燼。後生之痛恨也。但原本數十卷。現存也。配全州崔氏秀洛女。癸卯八月二十一日生。己巳六月五日卒。墓合祔。育五男一女。曰寅夏寅殷寅周寅昊寅虞。先生之墓碣。今始謀豎。先生之沒。七十年之久矣。世無生存門人。玄孫濬鉉。請余爲文。余雖不文。先生卽余之五代祖考華西先生之門人也。世誼旣篤。不可以不文固辭。謹綴舊聞略記。固不得其百之一二。誠可懼也。惟俟後日能言君子之采焉。

檀紀四千三百六年 癸丑 三月 日

後學 碧珍 李愚必 謹撰

(譯文)

선생의 휘(諱)는 기일(基一)이고 자는 성중(聖存)이며 초호(初號)는 용계(龍溪)인데 뒤에 용서(龍西)로 고치셨다.

문화류씨(文化柳氏)는 고려 벽상공신 대승공 휘 차달(高麗壁上功臣大丞公諱車達)의 후손(後孫)인데 처음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 개국공신(開國功臣) 좌의정(左議政) 휘 만수(曼殊)의 17대손이시고, 선조조(宣祖朝)의 영의정으로 평난공신(平難功臣)으로 책훈(策勳)되고 봉호(封號)가 시령부원군(始寧府院君)이고 시호(諡號)가 문정공(文貞公)이신 휘 전(堧)의 11대손이시다.

고조(高祖) 휘 종석(宗錫)은 호가 상계(寒溪)이신데 벼슬은 증사복시 정(贈司僕寺正)이시고, 증조(曾祖) 휘 흠(雨/欽)은 호가 관가재(觀稼齋)이신데 증이조참의(贈吏曹參議)이시고, 할아버지의 휘는 학면(學勉)이신데 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으로 봉작(封爵)이 영성군(寧城君)이시다. 아버지의 휘는 병철(秉喆)이고 호는 향하(香下)인데 학행(學行)으로 서사(筮仕)하여 벼슬이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이고 문녕군(文寧君)을 습봉(襲封)하셨다.

어머니 정부인(貞夫人) 완산이씨(完山李氏)는 지수(趾秀)의 따님이시다.

선생은 현종 11년 을사(乙巳) 유월 3일에 포천(抱川) 소흘면(蘇屹面) 고모리(古毛里) 향적산(香積山) 아래서 나셨다. 나면서부터 남다르게 빼어나, 천자(天資)가 영명(靈明)하시고 지기(志氣)가 고상(高尚)하시어 과거(科擧) 공부를 달가워하지 않으

시고 성심(誠心)으로 구도(求道)하셨다. 일찍이 화서(華西) 이선생(李先生, 李恒老)을 사사(事師)하여 성리지학(性理之學)을 배우고 계속하여 중암(重菴) 김선생(金先生, 金平默)에게 청익(請益)하여 양선생(兩先生) 정학(正學)의 연원(淵源)을 크게 계승(繼承)하셨으니, 문로(門路)가 올바르고 천리(踐履)가 독실(篤實)하시다. 요순(堯舜)을 조종(祖宗)으로 하고 공맹(孔孟)을 배웠으니 도학(道學)은 높고 높으며 문장(文章)은 탁월(卓越)하시며 화문(華門)의 정맥(正脈)으로 홀로 그 종맥(宗脈)을 얻으셨다. 다만 일세(一世)의 칭송(稱頌)일 뿐만 아니라, 실로 백세(百世) 유림(儒林)의 종사(宗師)이시다.

아아, 성인(聖人)이 가신지 오래되었으며 이단(異端)이 일어나도다. 경학(經學)이 무너졌으며 사설(邪說)이 횡행(橫行)하도다. 삼강(三綱)은 무너지고 오륜(五倫)은 폐(廢)하도다.

선생은 이때를 만나, 박괘(剝卦)¹⁾와 복괘(復卦)²⁾의 중간에서 후시(後時)에 독립(獨立)하여 존성(存聖)의 궤범(軌範)을 부지(扶持)하시고 이룬(彝倫)의 부식(扶植)과 사문(斯文)의 흥기(興起)를 자기의 소임(所任)으로 삼으셨다.

이단벽사설(異端辟邪說)을 변별(辨別)하시어 성인(聖人)의 도(道)로 하여금 찬연(燦然)하게 세상에 다시 밝히려고 하셨는데, 하늘이 돕지 아니하시고, 시운(時運)이 불행(不幸)하여 조선조(朝鮮朝) 말엽(末葉)을 당하여 조정(朝廷)에는 현상(賢相)이 없고 세상에는 양재(良材)가 결핍(缺乏)하여 시정(時政)이 날로 그릇되니, 조야(朝野)가 혼란(混亂)하여 선생의 소지(素志)를 펼 만한 땅이 없었으니 통한(痛恨)이 얼마나 지극(至極)한가.

선생은 이미 세도(世道)를 만회(挽回)할 수 없음을 헤아리시어, 향적산(香積山) 아래 은거(隱居)하시어 도의(道義)의 강명(講明)과 후학(後學)의 개발(開發)을 자기의 소임(所任)으로 삼으시고 널리 지치지 않는 가르침을 베푸시니, 원근(遠近)의 선비로서 와서 배운 자가 수백인(數百人)이다. 인의도덕(仁義道德)의 설(說)이 힘입

1) 박괘(剝卦): 곤(坤)이 아래에 있고 간(艮)이 위에 있는 괘로서 맨 위에 양효가 하나이고 나머지 다섯은 음효로 되어 있음. 박은 할(割)이라는 의미로서 다섯 개의 음효가 하나의 양괘를 깎아내는 형상이므로 박괘라 한다. ‘박(剝)’은 ‘떨어지다(落)’ ‘다하다(盡)’ ‘소멸하다(消)’라는 뜻이다.

2) 복괘(復卦): 주역(周易) 64괘(卦)의 하나. 곤괘(坤卦)가 위에 있고 진괘(震卦)가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땅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함을 형상함. 이는 기운이 다시금 생동하여 순환함을 의미함.

어 끊어지지 않았고 달재(達材) 문장(文章)이 많이 그 문하(門下)에서 나왔다.

선생은 선대(先代)의 실전(失傳)된 제위(諸位)를 봉향(奉享)하셨다. 본사(本舍)에 사향(私享)한 것이 24년인데 종내(終乃)에는 외북면(外北面) 방축동(坊築洞) 구산(舊山)에 봉단(封壇)하여 매년 구월 그믐날에 일 년에 한번 제사를 올려서 추모(追慕) 보본(報本)의 정성(精誠)을 다하셨다.

오성위(五聖位)와 주자(朱子) 우암(尤菴) 화서(華西) 중암(重菴)의 영정(影幀)을 집에 모시고 매일 아침에 배알(拜謁)하셨다.

일치단(一治壇)을 신북면(新北面) 삼성당리(三星堂里)에 설립(設立)하여 우주공(禹周孔) 삼성(三聖)을 모시고 맹자(孟子) 주자(朱子) 우암(尤菴) 화서(華西)를 배향(配享)하여 삼성일치(三聖一治)의 공(功)과 도통(道統)의 전하는 바를 보이셨다.

주자변증록(朱紫辨證錄)과 척양록(斥洋錄)을 지어 사설(邪說)을 바로잡으시고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에게 주셨다.

국사(國事)를 근심하시던 날, 삭발령(削髮令)에 항거(抗拒)하지 않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상소(上疏)를 올려 간쟁(諫諍)하시니 성지(聖旨)에 거슬리시고 당로(當路) 시배(時輩)의 무의(無義)와 방탕(放蕩)을 지나치게 탄핵(彈劾)하여 여러 번 견책(譴責)을 받으셨다. 죄수(罪囚)로 잡혀 적배(謫配)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항의(抗義) 불굴(不屈)하여 종신(終身)토록 그만두지 않으셨다. 이륜(彝倫)의 퇴폐(頹廢)와 도학(道學)의 민멸(泯滅)을 탄식(歎息)하시고 날마다 제자와 더불어 강명(講明)하셨다.

평생(平生) 항상 모조모성(慕祖慕聖) 우군우국(憂君憂國) 존양위도(尊攘衛道) 알 악양선(遏惡揚善) 부식이륜(扶植彝倫)을 법(法)으로 삼으셨다. 성리지학(性理之學)에 밝으셨고, 의리지제(義理之制)에 엄(嚴)하셨다. 한 걸 같이 도의(道義)를 강명(講明)하는 것과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돈행(敦行)을 종신(終身)토록 준적(遵的)으로 삼으셨다.

고종 갑진년 구월 칠일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셨다. 포천 신북면(新北面) 계류리(溪流里) 구산(舊山) 을향(乙向)의 언덕에 장사(葬事)하니, 바로 선생의 15대조 찬성공(贊成公)의 국내(局內)이다. 건너편 남록(南麓)은 선생이 설단(設壇)하신 선대(先代)의 단위(壇位)이다.

문인(門人)으로 성복(成服)하고 사장(事葬)한 자가 백 명이 넘었다.

문인(門人)으로 수업(受業)한 자 수백인(數百人) 가운데 가장 성복(誠服)³⁾한 자는 지재(持齋) 이철영(李哲榮)과 황재(黃齋) 나상협(羅相協)이다.

황재(黃齋)는 당세(當世)의 문장(文章)이며 엄결근칙(廉潔謹飭)한 선비로서 그 스승을 섬기는 정성이 매우 도타웠다. 선생의 유고(遺稿) 백권(百卷)이 넘는 것을 친히 스스로 수초(手抄)하고 교정(校正)하고 정서(淨書)하고 정본(整本)하였고, 또 선생의 연보(年譜)와 행장(行狀)도 또한 스스로 제술(製述)하였다. 합쳐서 114권이 되는데 미처 입재(入梓)를 못하고 집에 간직하였는데 경인년(庚寅年, 1950) 난리(亂離)에 불에 타버렸으니 후생(後生)의 통한(痛恨)이다. 다만 원본(原本) 수십권(數十卷)은 현존(現存)한다.

배위(配位) 전주최씨(全州崔氏)는 수락(秀洛)의 따님이신데 계묘년(癸卯年) 8월 21일에 나시어 기사년(己巳年) 6월 5일에 돌아가셨다. 묘는 합장하였다.

5남 1녀를 기르셨는데 아들을 인하(寅夏) 인은(寅殷) 인주(寅周) 인호(寅昊)인우(寅虞)라고 한다.

선생의 묘갈(墓碣)은 지금 비로소 세우기를 도모(圖謀)하는데 선생이 돌아가신지 70년이나 오래되어서 세상에 생존(生存)하는 문인(門人)이 없다.

현손(玄孫) 시현(澆鉉)이 내게 글을 지으라고 청하는데, 내 비록 글을 잘 못하지만 선생은 내 5대조 화서선생(華西先生)의 문인(門人)이니 세의(世誼)가 이미 돈독(敦篤)하다. 글을 못한다고 고사(固辭)할 수 없어서 삼가 구문(舊聞)을 첩(綴)하여 약기(略記)하였다. 진실로 그 백에 하나나 둘도 얻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두렵다. 오직 후일(後日)의 능언군자(能言君子)가 채택(採擇)하기를 기다린다.

단기 4306년 계축(癸丑, 1973) 3월 일

후학(後學) 벽진(碧珍) 이우필(李愚必)이 삼가 찬(撰)하다.

3) 성복(誠服): 심열성복(心悅誠服)의 준말.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하여 순종함.



文化柳氏左相公派 門中斗 機關長,女性儒道會員 記念寫真

參考文獻

- 東國儒賢錄
- 海東處士 龍西柳先生諱基一墓表(1973)
- 文化柳氏左相公派譜 (1990. 第一社)
- 儒州春秋 (1995. 5집. 中央印刷社)
- 龍西稿 (1997. 信成文化社)
- 文化柳氏譜鑑 (1990. 文化柳氏譜鑑編纂委會)
- 文化柳氏世譜 (2008. 엔코리언)
- 追慕 龍西 柳基一先生
全國漢詩白日場詩集 (2019. 抱川文化院)

龍西 柳基一先生



좌상공과 사무국장 柳 在 金

선생의 자는 聖存, 초호는 龍溪후에 龍西라 하였다. 문화인으로 선조조때 영의정 始寧府院君 柳瑍의 12세손. 同知敦寧府事를 역임한 학자 秉喆의 차남으로 소흘읍 고모리 香積山 아래에서 출생하였다.

선생은 용모가 준수하며 성품이 강직하고 충명이 뛰어났다. 일곱 살 때 아버지가 대문앞에 모란(牧丹)꽃이 만발한 것을 가르키며 시를 지어 보라하니 모란화 다발(牧丹花多發) 부귀우번화(富貴又繁華) “모란꽃이 만발하니 부귀하고 또한 번화하리다” 라고 지어 어른을 놀라게 하였다.

선생은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13세 때 어머니 병환이 위중하시자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小學에 배운 것과 같이 糞을 맛보고 이르되 “분”이 쓴데 환후가 차도가 없으니 어찌된 일이나고 하며 정성을 다하여 侍湯한 효자이었다. 장성하여 같은 고향의 선배이신 重菴 金平默 선생의 주선으로 당대의 대학자 華西 李恒老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性理學을 전수하며 화서 선생의 衛正斥邪사상을 계승 발전시키었다. 동향의 勉菴 崔益鉉 선생도 화서 선생의 문인이었다. 따라서 화서선생의 수제자 세사람 모두 포천 동향이었다.

화서 선생이 간신의 모함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자 용서 선생은 옆에서 모시고 같이 고생을 하니 화서께서 고생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하니 ‘선생님은 부모와 같은데 자식이 되어 어찌 모시지 않겠습니까.’하고 방면되실 때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돌아왔다. 화서선생이 별세하시자 그의 수제자인 김평묵 선생 문하에서 유학을 전승하여 대학자가 되었다. 용서선생은 관직에는 일체 나가지 않고 道議를 밝히고 倫理를 扶植하며 性理學을 개발하면서 후진 교육에만 전념하여 그 제자가 수백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면암 최익현 선생과는 동향 동문으로 우의가 두터워 외세가 침입할 때 衛正斥邪, 陳善閉邪에 뜻을 같이하여 憂國憂民의 誠心으로 上疏, 諫爭하다가 여러번 구금되어

곤욕을 치렀다.

특히 金弘集 내각의 무분별한 개혁에 면암과 같이 많은 투쟁을 하였다.

고향에 돌아와 후진 교육을 하며 학문연구 전심하여 朱子辨證錄, 斥洋錄과 문집 90여권을 저술하여 남기었다.

용서선생은 巨儒로서 제자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국운이 쇠퇴할 때 憂國憂民의 근본이며 崇聖 慕賢과 至孝의 표상이었다.

그는 평생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고 道義의 講明과 彝倫의 扶植, 性理學의 계발과 儀禮를 준수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그리고, 崇祖慕賢의 정이 두터워 선대의 잃어버린 묘소 10위를 추모하기 위하여 계류리에 設壇하였고, 삼성당리에 성현 추모제단을 만들어 매년 壇享을 받들기도 했다. 포천의 巨儒로서 많은 활동을 주도하였는데 그는 몸이 쇠약해 59세에 세상을 마쳤다. 묘소는 신북면 계류리에 있다.

저술로는 [龍西稿] [斥洋錄] [朱紫辨證錄]이 있으며, 1995년 윤 8월에 산양단에 추배하였다.

追慕 龍西柳基一先生

龍翁嶽降古毛陽 용서선생 고모리 양지에서 태어나시어
 追慕詞林感慨長 사림들이 추모하니 감개가 길구나.
 陳善諫言千載範 진선으로 간언하니 천재의 모범이요
 斥邪上訴萬秋綱 척사로 상소하니 만추의 베리일세.
 磋磨理學豐功秀 성리학 연마하니 풍공 뛰어나고
 撫育英材偉業芳 영재를 교육하니 위업이 꽃다울세.
 至孝羹嘗誰敢及 지효로서 분을 맞보니 누가 감히 이에 미칠소가
 吾東儒史德宣揚 우리나라 유림역사의 덕이 선양하리라.

【宗中紹介】

‘ 의 뿌리’始祖 祠宇 聖域化事業 提案



文化柳氏 光州·全南宗親會
財務 柳 濬 烈



뿌리 깊은 버드나무

<‘천년의 뿌리’문화류씨 始祖 祠宇 聖域化事業 提案 >

I. 序言

II. 大東祠

1. 대동사 由來
2. 대동사 現況
3. 當爲性(왜 대동사인가)

III. 聖域化 提案

1. 書院
2. 서원(聖域化) 提案
3. 대동서원의 豫想鳥瞰
4. 豫算
 - 1) 소요 豫算
 - 2) 豫算確保

IV. 聖域化 以後

1. 地方文化財 登錄
2.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3. 문화와 역사 教育場

V. 맺음말

I. 序言

千年記錄의 뿌리를 지닌 우리 문화류문은 도도히 흐르는 長久한 韓半島 歷史의 隆盛과 함께한 값진 傳統의 脈을 이어왔다.

동물도 血統과 族譜를 따지며 가치에 대한 경중을 가늠하는 시대에 최고의 문명인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의 발로인 자신의 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班常의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시대적 사고가 아닌 내가 존재하는 始原은 어느 시대, 어디에서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가.

나의 뿌리의 正體性은 무엇인가.

이제 人類 最高의 文明時代를 관통하고 있는 문명인으로 아날로그적 과거가 아닌 문명의 시각으로 디지털시대와 궤를 같이하는 뿌리에 대한 發想의 轉換이 필요한

이 時代的 要請에 우리는 副應해야 한다.

人類가 胎動한 이래로 文明人은 자신의 뿌리를 존중하고 그 傳統을 잇기 위한 진정성 있는 實踐的 삶을 살았고 사소한 명예일지라도 先祖의 業과 價値를 훼손하지 않고 傳承하려는 노력을 해온 가문은 그 國家와 民族의 主體로 늘 歷史와 文明의 중심에 서 왔다.

大韓民國에 存在하는 성씨 중 가장 오래된 宗中の 記錄을 갖고 있는 우리 류문이 천년이라는 뿌리의 記錄에 견주어 그에 버금할만한 始祖의 祠宇하나 제대로 없음을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후손에게 뿌리의 根源을 이해시키고 값진 文化와 傳統을 계승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義務와 道理가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使命이라 생각한다.

내 뿌리의 根源인 거룩한 시조의 숭고한 섬김을 위한 공간, 천년이 흐른 지금 大宗會 이하 모든 종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섬길 공간을 정하지 못하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不敬과 不遜함에 羞恥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며 가슴깊이 反省해야 할 일이다.

그나마 역사가 있고 선조들이 뜻을 모아 건립된 唯一한 單一祠宇 대동사가 있음에도 充分히 活用하지 못하고 偏見과 지역의 문제를 따지며 外面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大東祠를 書院의 要件을 갖추는 聖域化事業을 함으로써 명실공이 천년의 뿌리에 걸 맞는 祠宇로 또 向後 천년을 가는 우리뿌리의 産室로 자리매김하고 正體性을 定立하는 根幹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따라서 오랜 뿌리의 기록과 역사를 가진 문화류문의 종원으로서 씨족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갖고 文化人으로 근원을 알고 더불어 사는 共同體로 새로운 地平을 열 계기가 지금이 最適의 機會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대동사(大東祠)

1. 대동사 由來

三韓末의 富豪로서 王建을 도와 後三國統一에 공을 세워 고려삼한통합익찬벽상이 등공신으로 勳業이 혁혁하여 大丞의 官爵에 오른 대승공 류차달의 묘소는 황해도 구월산에 모셔져 있어 “柳陵”이라 호칭되고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곳을 지나가는 樵童牧

叟까지도 반드시 공경의 예를 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한다.

이에 朝鮮 英祖 丁未년에 偉勳碩德을 기리고 景慕토록 墓下에 祠宇를 건립하라는 교지(教旨, 業已有立祠墓下之教)를 내렸으나 建祠事業을 실행하지 못했다.

승조정신이 투철한 32세손 寬菴 庠烈公께서 뜻을 세우고 1933년(癸酉)에 경향각지를 순회하며 유림 및 종친들과 협의하여 각처에 建祠設享趣旨의 通文을 발송 대승공의 妥靈所를 건립 향사하고자 成均館은 물론 전국 종친 및 儒林들과 合議하여 모든 종친들에게 적극호응을 얻었다.

1934년(甲戌)10월19일 京畿道 始興에서 사우건립에 대한 論議를 했으나 結論을 못 내리고 서울 광화문 밖 宗人의 집에서 再 論議 끝에 京畿道 長湍郡 津西面 田齋里 鍾開川에 있는 先塋 근교에 사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先代 문간공(諱 公權) 북야공(諱 澤) 문정공(諱 璈) 묘소 인근이고 高麗의 古都인 開城과 구월산 大丞公 墓所가 가까운 이유였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해온 大役事를 시작하려던 차에 日帝의 반대로 줄지에 중지를 당하고 주도했던 寬菴公은 囹圄의 몸이 되어버리고 만다.

관암 庠烈선생은 獨立運動을 해온 전력으로 고문과 獄苦를 치른 경력이 있어 倭政의 감시가 특히 심해 要注意人物임에도 사우건립을 추진한 것이다. 日王이외의 神은 숭배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이를 빌미로 또 다른 獨立運動을 모의할까봐 또 다수가 모이는 群衆의 集會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침략자들의 극심한 탄압이었다.

이후 민족의 念願이자 그토록 갈망하던 光復을 맞이하자 1945 乙酉年 祠宇役事를 다시 施行하고자 靈巖 新北 茅山宗中에서 論議한 후 潭陽 유곡 증문지후사공종중, 和順언도리 김한성공종중, 谷城 대평 충경공종중을 방문하여 祠宇建立 승락을 받고 茅山종중에서 淸原 내수 시랑공종중과 仁川의 문숙공종중, 陝川 장령공종중, 大邱 곤산군공종중, 淸州 문산공종중에 연락하기로 하고 本良 관관공종중에서 沃川 정숙공종중, 漆谷 판사공종중, 唐津의 부윤공종중 등에 연락하여 羅州 本良面 東湖里 莘村을 祠宇地로 정한다.

羅州는 千年의 古都이자 시조 대승공께서 궁에 장수였던 王建이 903년 나주 침공 때 왕건의 장인 류천궁(貞州人)의 요청으로 王建에게 막대한 군량미와 수레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918년 高麗建國에 이어 936년 후삼국 統一時 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견훤에게 勝利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이 바로 이곳 羅州였다는 것과 또 광활한 平野가 있는 고을로 수많은 名賢을 배출하였으며 우리 문화류문의 世居地였기에 名勝地 동호리를

택하여 『어찌 이곳인들 神이 陟降하지 아니 하리오』 하며 祠宇基址로 결정하고 宗親과 儒林들이 列郡鄉校와 全國宗中에 통문을 발송하여, 이를 여러 賢宗들은 矜持와 自負로 생각하며 孝心을 모아 드디어 대승공의 位牌를 모실 祠堂을 創建하기에 이르렀다.

사당의 基址는 寬菴 庠烈公께서 提供하고, 月湖 寅大님께서 率先하여 많은 木材 등 私財를 헌성하였으며 그 밖에 遠近各地에서 외손 및 종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獻誠과 노력으로 다음해 1946 병술년 祠宇가 竣工되고 음력 9월19일에 禮成을 올리게 되었다.

－ 참조 : 大東祠의 由來(柳春洛), 大東祠 沿革 및 淨化事業(柳漢相) －

2. 대동사 現況

1) 位置

光州光城市 光山區 東湖洞 莘村 後麓(광산구 본량신촌동길59-6)

호남의 명산 용진산의 정기가 뿜어내린 月輪山 중턱에 忠勳의 聖祖이신 시조 대승공 사우 대동사가 위치하고 있다.

2) 建築現況

- － 神宮 3칸
- － 內三門 3칸
- － 講堂 5칸
- － 外三門 5칸

3) 位牌 및 享祀

- － 원래 류차달(柳車達)·차효전(車孝全)·류효금(柳孝金)·류공권(柳公權)·차포온(車蒲溫)·차원부(車原頻)·류자미(柳自湄)·류헌(柳軒)의 위패를 모시다가 1997년 柳公權·車蒲溫·車原頻·柳自湄·柳軒 5위를 埋安하고, 세분의 位牌를 모셨으나 2018년 마지막으로 시조 대승공 1위만 모시고 孝金과 孝全 2위를 埋安하였다.
- － 연안차씨들과는 2007년 동족이성이 아님을 확인한 후 訣別하고 2016년 이후로는 대승공 1위만 配享하고 있다.
- － 儒林의 主管으로 향사를 배향하다보니 진정 後孫은 排除될 뿐 아니라 시조의 향사에 후손은 들리리서는 霧圍氣이고, 유림의 자발적 배향이 아닌 후손의 要請에 의해 하는 배향은 格에 맞지 않고 始祖의 享祀는 순수한 후손으로 배향해야 한다는

支配的인 意見으로 인해 充分한 論議와 檢討가 필요한 사안으로 思料된다.

4) 宗財現況

地目	面積	地籍	地目	面積	地籍
垜	473m ² (143坪)	東湖洞592-1	畚		
垜	430m ² (130坪)	東湖洞587	田		
神室三間, 外三門三間, 講堂五間, 外三門 및 庫直舍					

3. 當爲性(왜 대동사인가)

大東祠 由來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동사는 천신만고 끝에 創建된 우리 문화류문의 唯一無二한 單一 祠宇이다.

천년의 뿌리기록을 갖고 悠久한 이 民族 歷史의 중심에 서왔던 그래서 무한한 自矜心을 갖고 있는 우리 류문이 자신의 뿌리의 根源인 시조의 變變한 祠宇하나 없이 좌충우돌하는 것이 종원으로서 羞恥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일찍이 祠宇建立의 當爲성과 必要性을 임금으로부터 認定을 받고도 書院 毀撤이라는 難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연유로 시행을 못했는지 모르나 사려 깊은 종원들로서는 아쉬움과 상실감 그리고 불충과 불효의 마음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누군가는 나서서 祠宇를 建立하고자 하는 艱難한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상당한 세월이 흘러 32世孫 寬菴 庠烈公께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生業을 뒤로하고 私財를 털어 全國에 통문을 놓고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을 묻고 여론을 모아 京畿道 長湍郡 津西面 田齋里 鍾開川 先塋인근에 宗員들과 儒林 등 縱橫의 承諾을 받아 사우건립을 推進하고자 하였으나 祖上崇拜마저 좌절되는 나라 잃은 植民地 民族의 피를 토하는 서러움을 겪게 된다.

光復이 되어 日帝의 壓制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사우건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여 靈巖 茅山 宗中에서 全國會議를 거쳐 현 장소인 당시 羅州 東湖里에 건립하기로 결정을 한다.

기실 이곳 羅州는 王建과 우리 류문의 시조 大丞公께서 確實한 存在感과 恩功이 刻印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이다.

왕건이 궁예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 羅州戰鬪를 자원했고 군사를 거느리고 피폐

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海上貿易을 支配했던 서남해안지역 우호적인 4해 황제동맹의 豪族들을 믿고 출전했을 때 그중 류차달로부터 軍糧米와 수레를 보급 받아 견훤과의 전투에서 勝利를 거둠으로써 실질적인 勢力을 공고히 하는 地政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나주이다.

우리 문화류문으로써는 매우 象徵的인 지역이고 羅州라는 歷史的 事實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高麗時代의 閼族으로서의 位相이 可能했을지 想念에 젖게 한다.

國家의 命運에 의해 京畿道 長湍에 건립하지 못하고 難苦의 旅程 끝에 東湖里에 건립된 大東祠는 東溪祠 추배봉안제(1956년)보다 10년을 먼저 배향했고, 大宗會 創立(1974년)보다도 30여년 먼저 류문 종원들의 宗會를 糾合하는 根幹을 마련했다.

포천 五代壇(1972년)은 처음에는 시조 대승공의 위패는 모시지 않았기에 거론할 사안이 아니었지만 最近에 五代壇에 始祖의 위패를 모시기로 결정했기에 意見을 提示 하고자 한다.

原來 시조는 絶對尊嚴의 象徵이기에 후손들과 함께 배향하는 不敬을 범하지 않았던 것이 常例이고 실제로 류충렬 大宗會회장님의 語錄에도 “대동사와 동계사에서 향사를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후손들과 함께 모실 수 있느냐며 그런 예는 없다”고 단호한 結論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尊嚴한 傳統과 慣例는 지켜져야 한다. 基準과 原則이 무너지면 正體性도 價値觀도 毀損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울러 대동사 터는 風水地理學的으로도 상당히 尊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道誥國師와 無學大師가 “文千武萬, 滿月掛西의 천하의 明堂이자 聖地”라 했다.

文千武萬은 文人이 천 명 나오면 武人이 만 명이 나온다는 喩이고, 滿月掛西는 보름달이 서쪽에 걸려있는 듯 한 형세로 자손만대 繁榮이 約束된 성지이다.

이렇게 우리 문화류문의 시조와 運命的 연관이 있는 지역이고 또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대동사가 다른 곳에 비해 우리 문화류문의 뿌리와 靈魂의 搖籃과 같은 의미가 있고, 자리도 天下明堂이라 일컫는 곳이기에 대동사를 書院의 要件을 갖추는 聖域化 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류문의 시조 祠堂과 함께 후손들에게 講學을 하는 書院으로의 面貌를 갖출 수 있는 가장 妥當性 있는 곳이라 사료된다.

Ⅲ. 성역화 提案

1. 書院

최근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에 등재되어 話題가 되었다.

우리나라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價値를 認定받은 것이다.

서원의 嚆矢는 백운동 서원으로 1542년(중종37) 풍기군수 周世鵬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性理學을 소개한 安珦의 옛 집터에 사당을 짓고 안향을 제사 지내며 선비의 자제들을 敎育하면서 시작 되었다.

서원은 名賢과 忠節 높은 偉人을 모시고 그들의 德望과 節義를 본받고 配享과 함께 배움의 場이었던 朝鮮 500년의 선비정신이 깊게 배어있는 곳이다.

서원의 設立 目的은 이런 先賢의 配享과 後學의 講學에 있었고 서원으로서의 建築的 要件을 갖추어 役割을 隨行하게 된다.

조선시대 政治狀況에 따라 浮沈을 거듭했던 서원의 중요한 機能으로는 본래 배향과 講學 그리고 圖書館의 機能과 研究·書籍 出版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士林黨派의 溫床이 되고 權勢와 돈 있는 문중의 勢 誇示의 手段으로 轉落하기도 하는 狀況이 발생하면서 毀撤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서원은 조선시대의 선비정신과 얼을 이어받아 지역 敎育文化의 場으로 活用되고 있고 21세기의 文明時代에 맞는 實質的 敎育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원의 歷史·文化的 價値와 役割은 特別하다고 볼 수 있다.

서원건축의 空間構成과 配置는 敎育施設인 講堂과 齋室, 祭享施設인 祠堂으로 이루어진다.

서원은 입지와는 관계없이 모두 앞쪽에는 敎育施設 뒤쪽에는 祭享施設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제향구역은 맨 뒤쪽이다.

건물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중심축이 있어 앞에서부터 정문(外三門) 講堂 內三門 祠堂 순으로 배치된다.

강당 전면 좌우에는 齋室을 두어 학생들의 寄宿舍로 이용되었다. 더불어 祭器庫, 藏版庫, 敎職舍, 홍살문 등은 필요에 따라 관련 건물 주변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서원의 건물의 樣式은 소박 簡潔하며 規模는 그리 크지는 않았다.

장소는 배움의 장이자 先賢을 받들어 모시던 곳이다 보니 선비들이 공부하기 좋은 조용하고 선현들과 緣故가 깊은 곳을 選好하였다.

위치는 일반적으로 山水가 뛰어나고 조용한 산기슭이나 溪谷 또는 鄉村에 건립했다. 서원 건물의 基本構成으로는

- 講堂 : 선비들이 모여 學文을 討論하는 곳으로 서원에서 規模가 제일 크고 넓다. 대청과 온돌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 齋室 : 학생들이 잠자는 곳으로 강당 앞 동서 대청으로 자리한다. 東齋와 西齋라고도 하고 각각 고유의 懸板을 작명하여 걸어 놓는다.
- 祠堂 : 선현의 位牌를 모시고 祭享을 모시는 곳이다.
- 外三門 : 書院의 正門에 해당한다.
- 內三門 : 祭享區域인 祠堂의 정문을 일컫는다.
- 敎職舍 : 원 지기들의 居住地이다.
- 藏版庫 : 서책이나 이를 찍어낸 木版을 보관하는 곳.(장판각, 경장각, 서고)
- 祭器庫 : 제향 때 제수를 마련하고 器物을 보관하던 곳이다.
- 樓閣 : 학생들의 휴식 및 餘暇를 즐기는 공간이다.

서원에 따라 홍살문과 하마비가 있는 곳도 있으나 祠堂 講堂 東齋 西齋 內三門 外三門만 갖추어도 서원으로서의 要件은 갖춘 것으로 본다.

2. 서원사업(성역화) 提案

천년의 뿌리記錄을 갖고 있는 우리 文化柳門이 향후 천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時流에 편승하여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흘러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派始祖나 派宗會의 名賢을 모시는 祠堂을 근사하게 짓고 손색없는 配享을 하고 있는 門派들은 많다. 훌륭한 業績을 쌓아 지역 儒林의 尊重과 讚辭를 받으며 千秋에 빛나는 遺業을 자랑스럽게 추모하는 宗원들 또한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그들을 있게 한 始祖 大丞公의 사우는 허술하고 어설피고 부족하다는 느낌은 나만의 생각인가.

非有先祖면 我身曷生(선조가 계시지 않았으면 내 몸이 어디서 생겨났겠는가)일진데 始祖에 대한 追遠報本의 姿勢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무릇 뿌리가 있어 가지와 잎이 있고, 도도히 흐르는 長江도 始原이 있듯이 인간역시 시조가 계시어 後孫이 있는 것이다.

提案한다.

앞서 관련된 여러 설명을 드렸듯이 대동사는 歷史的 地政學的 風水地理學的으로도 우리 柳門을 상징하고 代表하는 시조 祠宇로 손색이 없다.

처음에는 廟庭碑마저 없는 사우에 묘정비정도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후손으로서의 道理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지금의 우리의 役割로는 너무 작다.

時代的 狀況으로 비석하나 세우는 일이 우리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동사를 서원의 요건을 갖추는 聖域化事業을 하는 것이 시대의 使命이자 우리의 役割이다.

단순히 建築物 몇 채 지어 후손의 道理를 다하자는 意圖는 아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無分別한 物質文明의 誘入으로 忠孝의 精神文化가 모호한 세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자신의 根源을 알고 歷史와 傳統을 이어가는 우리 젊은 청년 후손들에게 忠義孝烈과 뿌리의 자긍심을 심는 사업도 함께 進行하자는 것이다.

성역화사업을 계기로 다음의 뿌리의식 鼓吹사업도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다.

－ 無關心을 關心으로 －

- 대동사 성역화사업을 계기로 국내와 세계도처의 40만 문화류씨 종친의 뿌리에 대한 再 認識과 愛族心을 발로시킬 契機
- 사업과 함께 柳·車 解體사실, 北韓정부의 柳陵 성역화 사업과 保存遺跡指定 소식 알림 등을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고취
- 4차 産業革命 시대를 맞는 시기에 새로운 천년을 準備하는 문화류문의 페리다임 轉換을 통해 종친들의 뿌리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參與를 誘導

－ 청년들의 뿌리의식 고취 －

- 情報化時代를 사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통한 崇祖敦睦의 정신과 價値觀을 정립하고 忠孝의 精神文化와 뿌리의식 고취
- 시대를 先導하는 偉人이나 한류를 선도하는 각 分野의 宗親을 찾아 情報交換을 통해 뿌리에 대한 自矜心 향상
- 청년들의 日常生活인 각종 온라인과 SNS를 통한 성역화사업 弘報와 뿌리 찾기 運動을 展開

서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요건은 너무나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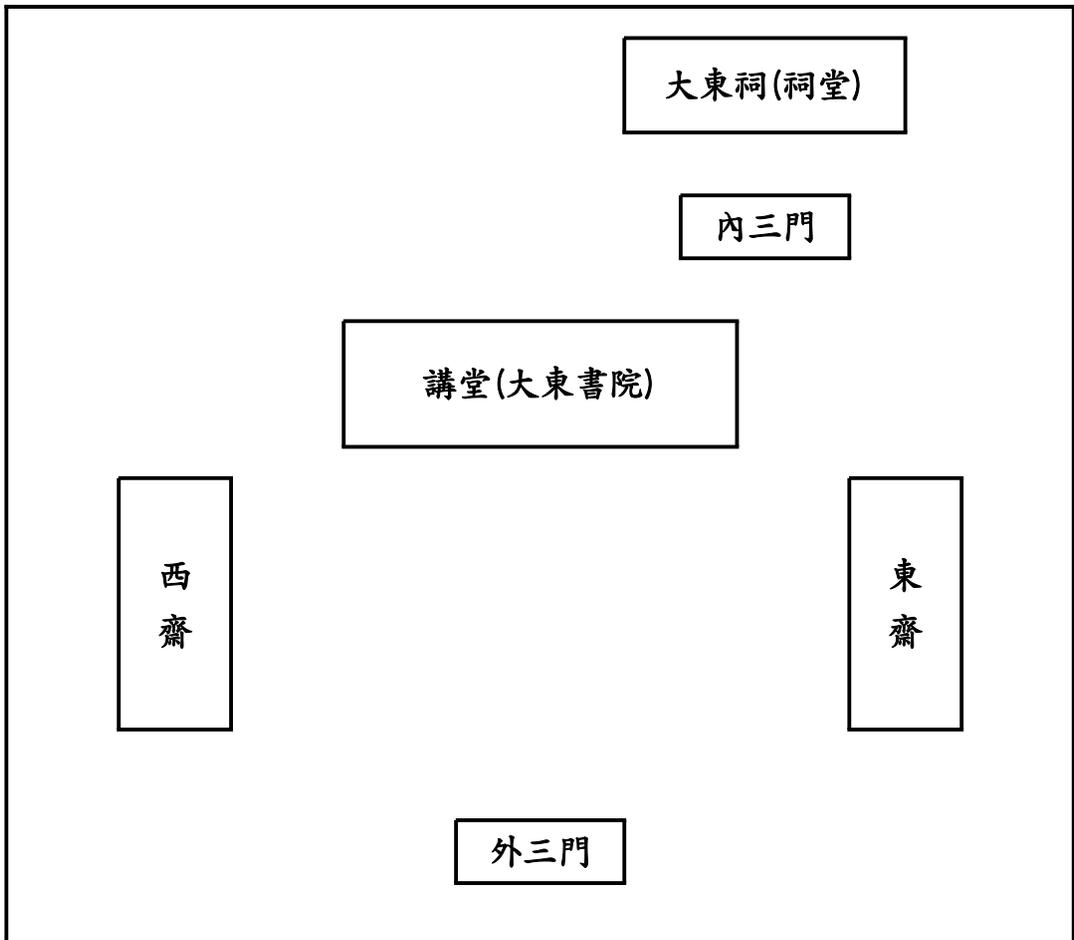
事業推進으로부터 資金問題, 施行主體 등 散在한 걱정은 있지만 관련된 종원들이 관심을 갖고 問題意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의 鼓舞의인 사실이고 時代的狀況

이 지금이 아니면 대동사를 서원으로의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년의 뿌리 이래로 가장 時宜適切한 時機와 與件이 지금이라는 것을 대종회와 문화류문의 종원여러분께 提案 드린다.

3. 대동서원의 豫想鳥瞰

祠堂(대동사)과 內三門, 講堂(대동서원)은 要件을 갖추고 있으나 東齋와 西齋를 新築해야 하고 현재 외삼문인 주방과 창고 화장실은 再建築을 해야 서원으로서 最小限의 要件을 갖추게 된다.



전통 가옥의 기준에 의한 건축을 해야 文化財登錄이 可能하므로 현재 건축물중 이에 符合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해야 한다.

인근에 賜額인 御筆 懸板과 함께 忠賢閣이 있고 寬菴선생이 講學을 했던 講堂도 존재하고 있으며 관암선생을 配享하는 신호사가 위치하고 있어 與件이 된다면 大東書院 내에 配置해서 함께 保全될 수 있도록 하는 方法도 講究해야 할 것이다.

4. 豫算

1) 소요 豫算

예산은 文化財 專門家의 意見을 들어 概括的 예산을 推定한 것으로 문화재 登錄要件을 갖출 수 있는 建築樣式과 보수 예산이고 필요한 敷地 買入費는 고려하지 않았다.

提案段階에서 具體的 豫算을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한 시기에 논의 하고자 한다.

▷ 現在狀態 診斷

- 祠堂 : 기와 解體補修(서까래, 부연교체), 丹青, 基壇整理(石築), 마당정리
- 祠堂入口 內三門 : 解體補修(기와, 단청)
- 階段 : 石築으로 전면교체, 토목작업, 3단 석축 → 성토작업
- 講堂 : 기와교체(전통기와), 基壇整理(석축), 補助丹青(긋기단청), 마당성토작업
- 外三門 : 解體新築
- 東齋, 西齋 : 新築
- 토석담 : 新築

▷ 基本要所

- 東齋·西齋(각 3칸) 新築
- 祠堂 補修
- 講堂 補修
- 外三門 解體新修
- 바닥 및 계단 補修
- 토석담 築造工事 / 100m

2) 豫算確保

가장 重要的 部分이고 조심스러운 分野이다.

優先的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左相公派 瑞山公後 종원들의 意志와 承認이 있어야

하고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可能한지가 관건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종원들의 모금과 협찬 등을 통해 確保하는 방법이다.

대중회에서 議題로 設定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歷史的인 事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한다.

따라서 大宗會事業으로 推進하고 大宗會에서 世紀的인 사업으로 設定을 하여 진행되었을 때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대중회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되고 천년의 역사를 준비한 赫赫한 歷史의 記錄으로 남는 偉大한 大宗會가 될 것으로 確信한다.

IV. 성역화 이후

1. 地方文化財 登錄

書院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建築物이 文化財登錄에 符合하게 건립을 함으로써 지방문화재 등록이 可能하다고 말씀 드렸다.

지금 대동사는 建立한지 칠십년이 넘었기 때문에 文化財登錄이 可能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 문화재로 등록시켜서는 안 된다.

문화재로 등록이 된 이후에는 後孫들이 補修를 비롯한 新·改築이 不可能하므로 서원의 요건을 充分히 갖춘 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서원의 要件을 갖추는 성역화 사업이 지금이 最適의 시기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동사 건너편 지근거리에 그린산업단지가 造成 중에 있어 不動產 價格이 날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 현재 宗事를 맡고 있는 執行部의 意志가 강하게 있을 때 推進하지 않으면 다음세대 後孫들이 이러한 意志가 똑같이 있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 時期에 요건을 갖추어 놓으면 文化財登錄을 위한 社會的 條件이 容易하다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대동사 사우가 더 老朽化 되고 價値를 喪失해가기 전에 종원들의 問題意識과 意氣投合이 되어 의지가 강한 지금 성역화 사업을 施行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2.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문화재로 등록한 이후에는 國家나 地方政府의 公募事業을 推進하여 豫算確保를 통해

지속적인 서원의 外緣擴大와 質的 向上을 위한 종원들의 參與가 필요하다.

정부와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公共豫算을 確保하여 서원의 필요한 教育場 建築과 프로그램 進行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人的資源과 인프라를 積極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산구 관내에 있는 月峰書院과 武陽書院 등은 구청에서 公募事業에 應募하여 수차에 걸쳐 수백억 원의 豫算을 確保하여 傳統教育場 新築과 道路擴充 등 산 教育場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無限한 發展 可能性을 擔保하고 있다.

大東書院도 柳門을 비롯한 인적자원을 最大限 活用하여 역사에 絶對 必要條件이 될 수 있도록 無限한 獻身과 協助가 필요한 部分이다.

3. 文化와 歷史 教育장

인근의 서원에서는 季節과 주말, 낮과 밤의 테마를 別途로 하여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進行하고 있다.

漢學體驗으로부터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는 外國人을 상대로 朝鮮時代의 선비체험과 부채 만들기 등을 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呼應을 얻었다.

조상이 겪은 日常의 삶으로부터 現代와 接木시킨 프로그램 등을 부단히 발굴하고 教育하고 體驗시키는 테마가 있는 生活을 主導 하고 있다.

우리 서원은 뿌리 천년의 記錄을 둔 始祖의 書院을 象徴으로 뿌리에 대한 教育의 場으로 專門化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느 누구나 성씨가 있고 뿌리가 있어 자기 뿌리에 대한 궁금함이나 훌륭한 先祖에 대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場으로 자리매김 하는 方法도 좋을 듯하다.

V. 맺음말

大東書院을 서원의 요건을 갖춘 후에 文化財로 登錄하여 永久히 保全되고 傳統을 繼承하고자 하는 것이 結論이다.

시조의 변변한 사우가 없어 남의사당의 舍配亭이거나 後孫들의 壇에 얹혀 배향하며 억지 參배하는 不敬을 우리는 지금 범하고 있다.

대동사라는 唯一無二한 單一祠宇가 있음에도 理解되지 않는 핑계와 이유로 認定하

지 않고 마지못해 參拜하고 있다.

진정한 崇祖의 精神이 있다면 方法을 찾고 講究해야 할 터인데 現在에 安住하고 時流에 迎合한 듯 보인다.

안타까움을 吐露해도 귀 기울여 고민을 같이 하려는 리더가 안 보인다.

寬菴 선생처럼 熱情과 進取的인 指導者가 없다.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도저히 不可能한 北韓에 가서 始祖 大丞公 柳陵의 聖域化를 成事시킨 柳箕桓 名譽會長 같은 분도 있는데 고민해야 할 지점에 계시는 분들은 觀望하는 듯하다.

1997년 향사 후 擧族的 大東祠 祭享으로 昇華시킬 기틀을 마련했으니 전국 各



宗派系 門中 代表와 유지 宗親으로 대 동사 崇慕會 를 조직하여 거족적 行事 가 되도록 後 援하자고 決 議했던 결기 는 어디로 갔 는가.



대 동사는 문화류문 全 宗親의 오랜 念願을 담아 建立하고자 했으나 일제 의 彈壓으로 창건이 挫折

되고 主導했던 분은 拘束돼 處罰을 감내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추진하여 艱難의 試鍊 을 겪으며 탄생한 唯一한 單一祠宇이다.

崇祖睦宗과 慕先育英의 산실이자 뿌리천년의 傳統을 繼承하는 搖籃이 되어야 한다. 대동서원의 성역화 事業推進은 大東祠를 所有하고 있는 後孫 宗원들의 決意와 承諾이 필요하고 또 豫算의 만만치 않음도 고민이고 난관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劣惡하고 힘든 시절에도 선조님들은 克服하고 實現해왔다.

대동서원의 성역화사업을 계기로 류문의 正體性을 찾고 4次 産業革命時代와 靑을 같이 하는 개념 있는 宗中으로 國內는 물론 世界到處의 宗員과 靑年들이 함께 힘을 모아 聖域化에 동참하고, 글로벌시대의 主役으로 人類共榮에 이바지하는 뿌리천년의 자손으로 각자가 훌륭한 歷史를 만들어가는 문화류문인이기를 所望한다.

아울러 歷史의 變曲點에는 늘 時代의 先覺者나 훌륭한 指導者가 그 時代의 歷史를 開拓해왔듯 지금 지난천년을 整理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을 準備하는 중대한 과도기에 자랑스러운 뿌리의 崇祖理念에 입각한 새천년의 새 歷史를 記錄할 하늘이 준 機會를 放棄하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기록하지 않는 賢明하고 智慧로운 文化柳門이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夏亭公派 夏亭빌딩 懸板式행사



大宗會 理事·夏亭公派 事務局長 柳 浩 燮

문화류씨 하정공파 종중회관으로 자리매김할 하정빌딩 현판식이 2018년 11월 20일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0(용두동 118-98) 하정빌딩 에서 夏亭公派 종중 임원을 비롯한 종원, 외부인 등 15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柳秀澤 총회장은 “오늘 하정빌딩 현판식 행사는 문화류씨 하정공파 종중과 종원들의 수십년래 숙원인 종중회관을 마련함에 있어 지난 2년여 시간 보내주신 모든 임원님들의 성원과 종원님들의 열망에 깊은 감사인사를 올리며 청백정신(淸白精神)을 기리는 유업계승의 현장으로 자리할 것” 이라는 요지의 인사말이 있었다.

懸板式 行事는 현판 테이프 커팅, 참석 임원 종원의 기념사진 촬영, 향후 하정공파 종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告祀行事와 케익커팅 행사로 이어졌다.

2018.9.19. 매입한 이 건물(구 승화빌딩, 하정빌딩으로 명칭변경)은 대지 60평, 연건평 180평(지하 1층, 지상 6층)건물로 종중회관으로는 크다고 할 수 없는 건물이지만, 모든 종원들이 바라던 동대문밖 하정선조님이 사셨던 동대문구에 위치하여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하정선조님은 동대문의 창신동의 작은 초가 삼칸에 사시며 愛民精神으로 모범적 공직자상 보인 곳이기도 하여 동대문구에 위치한 夏亭宗中會館은 더욱 뜻깊은 곳으로 하정선조님의 淸白精神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그간 하정공파 종중은 독자적 종중회관을 보유하지 못하여 崇祖敦睦정신의 많은 종원들이 안타까워하던 차에, 향사시의 종원 총회와 임원들의 토론과 합의에 의한 절대적 지지를 통하여, 경기도 문화재로서의 산소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종토를 매대한 금액과 夏亭公派 宗中을 구성하는 高陽公宗中(柳民城 會長), 安肅公宗中(柳

周永會長), 約齋公宗中(柳民城會長), 茅崗公宗中(柳和善會長), 南齋公宗中(柳在亮會長), 承旨·叅議公宗中(柳長成會長, 柳浩善會長) 靈巖茅軒公宗中(柳富烈會長) 등 여러 종중과 第一建設(株) 柳京烈會長(判書公), 柳浩倓 夏亭公顧問(鶴巖公), 柳仁澤 夏亭公理事(安肅公) 등 비롯한 뜻있는 많은 종원들의 十匙一飯으로 마련한 誠金과 일부 부족자금의 은행차입 등으로 종중회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정선조님은 고려후기인 고려조 충목왕 때인 서기 1346년 탄생하시어 1433년 88세로 별세하신, 鮮初 3淸의 淸白吏(龐村 黃喜, 古佛 孟思誠, 夏亭 柳寬)로 역사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하정의 청백정신은 2009년부터 서울시 夏亭淸白吏賞으로 구현되고 있는 등 지금도 우리 公職社會의 변할 수 없는 價値와 模範이 되고 있다.

하정공의 墓所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산 157로 경기도 기념물 62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전체 임대 중으로 임차인 보호 등 사무실 확보가 여의치 않으나 향후 하정빌딩 공간 확보시 내년말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정종중 회관이 하정의 淸白精神을 높이 받들고 崇祖敦睦과 後世育英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자랑스러운 後孫들의 디딤돌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종회장 인사말씀] (夏亭公派 宗會長, 大宗會 副會長)

문화류씨 하정공과 종중의 수십년래 숙원인 하정빌딩을 마련함에 있 지난 2년여 시간 보내주신 모든 임원님들의 성원과 종원님들의 열망에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하정로, 비우당, 우산각 공원, 비우당교가 있어 옛날 하정선조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동대문구에 하정빌딩(구, 승화빌딩)을 마련하게 됨은 또한 하정할아버지의 크나큰 음덕(陰德)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정빌딩이 있는 이곳 동대문구는 옛날 하정선조님께서 사셨던 곳으로 청백정신(淸白精神)을 기리는 유업계승의 현장이며 하정빌딩은 그 중심의 하나로 자리할 것입니다.

모든 종원님들의 열망과 성원이 바탕이 되어 더욱 선조의 위덕을 받들고 계승하는 하정종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판식행사에 축하화환을 보내주신 大宗會 柳三鉉會長님과 柳德烈 東大門區廳長님, 新韓銀行에 감사드리고, 현판식 행사에 성금을 보내 주신 종원여러분과 전국의 하정공파 종원님, 성원해 주신 문화류씨 전국종원님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문화류씨 하정공파 종중 종회장 류수택



하정빌딩으로 이름을 정함에 있어.....

황희, 맹사성과 더불어 조선초기 3청(三淸)으로 일컬어지는 하정 류관이 사셨던 동대문은 청백정신과 애민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정빌딩이 있는 이곳에는 하정로와 비우당 비우당교, 우산각 어린이공원이 있어 하정(夏亭) 류관(柳寬)의 청백정신(淸白精神)과 애민정신(愛民精神)을 기리고 있습니다.

청백정신과 애민정신은 공직자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유업계승과 후세육영에 헌신하시는 하정공과 종원님들의 발전과 하정빌딩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커다란 성취가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는 하정빌딩이 되고자 합니다.

① 하정빌딩

동대문구 무학로 120 (구, 용두동 118-98) 에 소재하는 문화류씨 하정공과 종종회관 건물로 하정 청백정신과 애민정신을 구현하는 하정빌딩을 기대합니다.



② 하정청백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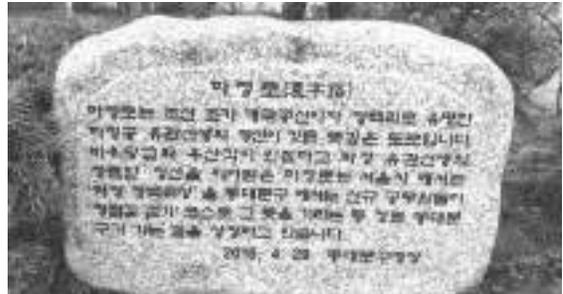
하정 청백리상은 하정의 청백 정신과 보국애민의 정신을 기려 헌신봉사하고 대외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정공파 柳秀澤 회장

③ 하정로

하정로는 동대문에 사신 하정의 호를 기려 비우당교부터 신설동역 4번 출구까지의 1km 의 도로 입니다



④ 비우당 : 서울 종로구 창신동 9-471

하정공께서 살았던 낙산동쪽 상산 아래 집을 오대외손 이희검(李希儉, 선조조 판서)에게 상속되었는데 이희검 아들 이수광이 하정공의 우산각을 “비우당”이라 하였고 아파트단지가 되면서 쌍용아파트 단지 옆 낙산공원으로 복원하여 옮겨졌습니다.



⑤ 비우당교 : 서울 중구 천계천로 447 건물 앞

겨우 비를 피할 정도의 집에서 살았다는 집, 비우당을 이름하여 2005년 완공한 교량으로 상왕십리동과 용두동을 잇고 있습니다



⑥ 우산각어린이공원 :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동대문구 신설동 120다산센터옆“하정청림거리”가 있으며 동대문 도서관 옆에 소재하는 우산각어린이 공원은 낡은 집에 비가 새어 우산을 쓰고 살았다는 우산각을 의미하며 청빈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9년 춘계대중회 참석과 유적지 탐방



판사공파 회장 柳 昌 鉉

금년 초 판사공파 임원회에서 2019년 4월 18일 개최하는 대중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대전 뿌리공원과 계룡산 동계사를 탐방하기로 결의했다.

기다리던 4월 18일 오전 8시에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문중사무실에서 판사공파 임직원 22명이 모여 관광버스로 대전을 향해 출발했다.

추풍령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계속 달려 일행이 탄 관광버스는 10시 30분 대전시 유천동에 있는 대중회회관에 도착했다.

등록을 마치니 총회는 예정대로 11시에 식순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었고 총회에서는 판사공파 류원식, 류성현 두 분이 신임이사로 임명장을 받았다.

3층 대회의실 남쪽 벽면에는 1983년 4월 26일 문화류씨 대중회 종친회관(지하1층~지상4층 연건평 300평) 신축에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판사공파 10여명의 명단 중 생존자는 오늘 동행하신 류병현 이사님 한 분 뿐이었다. 그 분으로부터 회관 신축 당시의 여러 힘든 일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들을 수 있어 안타까운 느낌이 컸다.

유천본가 식당에서 대중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 대전 뿌리공원으로 향했다. 대전시 중구 침산동에 위치한 뿌리공원은 유등천을 건너 아늑한 산기슭에 넓게 자리 잡은 전국 유일의 효(孝) 테마공원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성(姓)씨별 조형물과 사신도(四神圖) 및 12지지(地支)의 형상화가 이채로웠다.

안내소에서 마련해 놓은 문화류씨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고 한국 족보박물관에 들려 해설사로부터 설명과 족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1423년 발행된 영락보(永樂譜)(문화류씨 첫 번째 족보), 1477년 발행된 성화보(成火譜)(안동 권씨 족보), 1562년 발행된 가정보(嘉靖譜)(문화류씨 두 번째 족보)

그러나 현존하는 최초의 족보는 성화보라는 설명을 들으니 54년이나 먼저 발행된 영락보는 서문만이 남아 있어 현존 최초의 족보의 영광에서 제외되었으니 아쉬움이 컸다. 영락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성씨별 조형물 안내도에 따라 먼저 2008년에 건립된 73번 문화류씨 유래비부터 찾아 비문은 읽고 기념촬영을 했다. 나의 뿌리를 생각하고 자손들에게 효의 사상을 잘 가르치고 승조목종의 실천 교육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느꼈다.

이어서 71번 연안(延安) 차(車)씨의 유래비를 찾아 비문을 보았다.

류(柳)씨와 차(車)씨는 동조이성(同祖異姓)이라는 차원부설원기(車原潁雪冤記)와 원파록(源派錄)의 위서(僞書)를 믿고 차류대중회가 35년간(1964~1999) 종친회를 함께 해 왔으나 2001년에 연안차씨 측에서 유래비를 세우면서 대승공 류차달(柳車達)의 자 효금(孝金)을 문화류씨의 시조라하였다. 이에 문화류씨대중회는 14계 파중회장 전체의 명의로 항의하고 차류종친회가 해체되었다.

결론적으로 차씨는 대승공 류차달공의 자손이 아니다. 한미한 차씨가 가계를 높이려는 그릇된 가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씨의 유래비에는 아직도 별로 수정된 곳이 없이 그대로 이었다.



바쁜 일정이라 서둘러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계룡산 동계사로 출발했다. 약

50분간 달려 계룡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해서 동계사까지 40분을 도보로 걸어서 도착했다. 동계사는 신라 19대 눌지왕 때 일본에 인질로 잡혀간 왕의 아우 미사흔을 구출하고 일본에서 순직한 관설당(觀雪堂) 박제상(朴堤上)의 충혼을 모신 곳으로 936년에 고려 개국공신 대승공 류차달 공이 만고 충절 박제상을 이곳에 초혼하여 제사하고 왕명으로 동계사를 건립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되어 1956년 중건되고 류차달 공을 추대하여 두 분을 모시게 되었다.

내일 4월 19일(음 3월 15일)이 숙모전(肅模殿), 삼은각(三隱閣), 동계사(東雞祠)의 추향대제라 먼저와 계신 대중회장 류삼현님과 사무총장 류승현님을 만나 뵙고 동계사에 모신 시조 대승공 류차달공께 공동 참배를 하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같은 경내에 있는 숙모전, 삼은각, 동학사를 둘러보고 주차장으로 오는 길에 토산품 도토리묵, 녹두 빈대떡에 좁쌀 동동주로 목을 축이고 주차장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되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며 대구 문중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끝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판사공파 임직원 22명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사로서 나의 뿌리를 더 깊이 깨달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문화류씨의 종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송조목종의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한 보람을 느꼈다.

秋享大祭 參拜

판사공파 회장 柳昌鉉

2018년 11월 4일 오늘은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에 있는 육신사 추향대제가 있는 날이다.

서울에서 오신 대중회 회장 류삼현(柳三絃)님과 안산중친회장 류지세(柳志世)님을 동대구역에서 만나 8시 30분경 승용차로 목적지 육신사로 향했다.

승용차의 네비게이션과 핸드폰 길안내가 엇갈려 신천대로에서 몇 번을 헤매다 팔달교를 건너 칠곡군 지천면을 지나 번잡한 시가지지를 벗어나니 하빈면에 접어들었다.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에 주변 야산은 단풍이 아름답고 들녘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

한적한 농촌 풍경이 펼쳐졌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충절문(忠節門)을 지나 육신사에 도착했다. 산세와 풍광이 빼어나서 ‘아! 이런 곳이 명당이구나’하는 느낌이 들었다.

육신사는 사육신(死六臣)을 모신 사당이다. 1456년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함께 모의했던 김질(金漬)의 고변으로 그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섯 분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류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사화(士禍)로 역적으로 몰려 사육신의 온 집안은 멸문의 화를 입었다. 그 중 박팽년의 차남 박순의 아내 성주이씨는 임신 중에 있었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하고 딸이면 관비로 삼게 되어있었다. 해산을 하니 아들이었다. 그 무렵의 여섯 가문 가운데 유일하게 대를 이은 박팽년의 손자 박일산이며 그 후손이 이곳에 살아 순천 박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육신사 경내의 중앙에 있는 숭정사(崇正祠)에는 사육신의 위패를 봉안하였고 서쪽에 충의사(忠義祠) 동쪽에 태고정(太古亭)이 있다. 사당 앞에는 1979년 “육선생 사적 건립 위원회”에서 세운 비석이 있다. 높다란 육각기둥의 비석에는 각 면마다 사육신 한 분 한 분의 사적이 명기되어있다.

추향대제는 11시에 경향각지에서 오신 200여명의 참배자가 참석한 가운데 육신사 보존회 주최로 집례자의 홀기에 따라서 초헌, 아헌, 종헌의 순서로 엄숙히 문중의 영광이 되었다. 육신사를 참배하며 여러 생각을 떠올리며 무한한 감개를 느꼈다. 단종(1441~1457)은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어 17세의 나이로 비극의 생을 마쳤다.

세조(수양대군)는 태종(방원)의 “하여가”로 성삼문의 마음을 돌리려 했으나 성삼문은 “충의가”로 화답하고 충절을 지켰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태종의 하여가)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독야청정 하리라.

(상삼문의 충의가)

까마귀 눈비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라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라.

(박팽년의 절의가)

당시 여러 충신들은 임금에 대한 충절을 시로 읊었다.

선조(先祖)인 류성원(柳誠源)은 집현전 학사로 세종의 충애를 받았고 문종 때 대교를 지냈다.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탄로나자 자결하셨다.(1456년)

본관은 문화(文化)요, 자는 태초(太初), 호는 낭간(琅玕), 시호는 충경공(忠景公)이다. 조부는 류호(柳濞)이고 부는 류사근(柳士根)이며 모는 윤임(尹臨)의 딸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의리를 저버린 변절자가 있는가하면 사육신은 죽음으로 의리를 지키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신으로 그 이름을 만고에 길이 남겼다.

육신사 보존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하고 여담을 나누며 왔던 길로 되돌아와서 동대구역에서 두 분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의 육신사 추향대제 참배는 보람되고 뜻 있는 즐거운 하루였다.





【人物紹介】

朝鮮의 功臣



府尹公派會長 柳 在 萬

朝鮮時代 28번의 功臣 책록이 있었는데 年代順으로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번째> 개국공신(開國功臣)은 1392년(태조1년) 8월 태조는 정도전과 권근 등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선 건국에 힘을 쏟은 이들에게 개국공신 칭호를 수여하고 그 공을 치하한 55명에게 수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번째> 정사공신(定社功臣)은 1398년(정종 즉위) 9월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을 승리로 끝낸 방원파(芳遠派)들에게 내린 훈공이다.

<3번째> 좌명공신(佐命功臣)은 1401년(태종1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이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른 다음 공을 세운 47명을 4등급으로 나누어 공신으로 책록한 것이며

<4번째> 정난공신(靖難功臣)은 1453년(단종1년) 11월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 세력이자 원로대신인 황보인 김종서 등 수십 인을 살해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으로 계유정난(癸酉靖難)에 의한 것이며,

<5번째> 좌익공신(左翼공신)은 1455년(세조1년) 9월 제1차 정적을 몰아낸 수양대군(首陽大君)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병마도통사(內外兵馬都統使)를 겸직하면서 정권과 병권을 독점하였다. 그리고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권람(權擘) 등 심복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였다. 1455년 수양대군은 남은 정적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을 비롯해 조유례(趙由禮) 성문치(成文治) 등을 모두 살해하거나 귀양 보내도록 강청해 이를 성사시켜 결국 선양의 형식으로 왕위를 물려받

은 수양대군은 왕위를 잇는데 공을 세운 신하 44명을 책정한 것이며,
 <6번째> 적개공신(敵愾功臣)은 1467(세조13년) 9월 세조의 중앙집권 정책으로 함길도의 특혜가 없어지자 불만과 위기감이 누적된 토호 층이 난을 일으켜 이시애(李施愛)의 선동으로 일어난 이 반란은 조선 초기 최대의 반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반란군 2만여 명은 정부의 토벌군 5만여 명을 상대로 저항하다가 그해 8월 진압됐다. 세조가 병으로 타계하기 한 해 전의 사건이었다,

<7번째> 翊戴功臣은 1468년(예종 즉위) 10월 이시애(李施愛)의 난 이후 정치적으로 비중이 커진 남이 강순(康純) 등 신진세력은 훈신(勳臣)과 정치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그러던 중 훈신계의 류자광(柳子光)은 남이 강순 등이 한명회(韓明澮) 김국광(金國光) 노사신(盧思愼) 등 훈구대신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하여 마침내 남이 강순 등을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사실을 폭로하거나 옥사를 다스려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1등에 류자광 신숙주(申叔舟) 한명회 신운(申雲) 한계순(韓繼純) 등 5명으로 수충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이 내려지고 2등은 밀성군 침(密城君琛) 덕원군 서(德源君曙) 영순군 보(永順君溥) 구성군 준(龜城君浚) 심희(沈澮) 박원형(朴元亨) 이복(李復) 이극중(李克增) 정현조(鄭顯祖) 박지번(朴之蕃) 등 10명으로 수충보사정난익대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이 내려졌다.

3등은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조석문(曹錫文) 한백륜(韓伯倫) 노사신 박중선(朴仲善) 홍응(洪應) 강곤(康袞) 조득림(趙得琳) 신승선(愼承善) 권감(權臧) 어세겸(魚世謙) 윤계겸(尹繼謙) 정효상(鄭孝常) 권찬(權攢) 조익정(趙益貞) 안중경(安仲敬) 서경생(徐敬生) 김효강(金孝江) 이존명(李存命) 류한(柳漢) 한계희(韓繼禧) 등 22명으로 추충정난익대공신(推忠定難翊戴功臣)이 내려졌다.

처음 공신에 책록된 사람은 37명이었으나 이듬해 윤흠(尹欽) 강희맹(姜希孟) 이존(李存)이 추록되어 모두 40명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좌익공신(佐翼功臣 : 1455년 세조 즉위년에 공을 세운 사람)의 예에 따라 포상하도록 한 것이 익대공신(翊戴功臣)이다.

<8번째> 좌리공신(佐理功臣)은 1471년(성종2년) 3월 성종의 즉위 성종이 자신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한 공으로 내린 칭호로 처음에는 74인을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등은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최항(崔恒) 홍윤성(洪允成) 등 9인을 순성명

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으로, 2등은 이정(李婷) 이침(李琛)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등 11인을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3등은 성봉조(成奉祖) 노사신(盧思愼) 강희맹(姜希孟) 임원준(任元濬) 등 18인을 순성명량좌리공신으로, 4등은 김수온(金守溫) 이석형(李石亨) 윤필상(尹弼商) 허종(許琮) 등 36인을 순성좌리공신으로 각각 책봉하였다. 그 뒤 구치관(具致寬)이 2등에 추록(追錄)되어 모두 75인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9번째> 정국공신(靖國功臣) 1506년(중종1년) 9월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에게 중종반정 후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류순정(柳順汀) 등이 공을 논한 결과 1등 병충분의협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協策翊運靖國功臣)에 류자광(柳子光) 신윤무(辛允武) 박영문(朴永文) 장정(張珽) 홍경주(洪景舟) 등 5명, 2등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에 운수군 효성(雲水君孝誠) 심순경(沈順徑) 변수(邊修) 최한홍(崔漢洪) 윤형로(尹衡老) 등 13명, 3등 병충분의정국공신(秉忠奮義靖國功臣)에 고수겸(高守謙) 심정(沈貞) 채수(蔡壽) 등 83명을 뽑아 총 101명을 상계(上啓)하였다.

그 뒤 박원종 류순정 성희안 등이 영의정 류순(柳詢), 우의정 김수동(金壽童)의 천거로 1등 병충분의결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으로 녹공(錄功)되면서 모두 1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3등 83명 가운데 심정 이상 30명을 3등으로, 변준(卞僑) 이하 53명을 4등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권균(權鈞) 김준손(金俊孫) 반우형(潘佑亨) 이곤(李坤) 우정(禹鼎) 김무(金弼) 등 6명과 내관(內官) 문치(文致) 서경생(徐敬生) 김계공(金繼恭) 김숙손(金叔孫) 김은(金銀) 임원산(任元山) 등 모두 12명이 4등에 추가됨으로써 116명으로 늘어났다가 뒤에 윤상로(尹湯老)가 3등 제31번째로 녹공됨으로써 1등 8명, 2등 13명, 3등 31명, 4등 65명 등 모두 117명이 공신에 책록되었다.

<10번째> 정난공신(定難功臣)은 1507년(중종2년) 9월 이과는 연산군의 폐정이 날로 심해지자 유배지에서 류빈(柳濱) 김준손(金駿孫)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진성대군(晋城大君 : 뒤의 중종)을 옹립하려다가 박원종(朴元宗) 류순정(柳順汀) 성희안(成希顔) 등에 의해 반정이 성공했음을 알고 중지한 바 있었다.

이 사실로 인해 반정 직후의 논공행상에서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으로 적록(籍

錄)되고 전산군(全山君)에 봉해졌으며 대사간에 일시 재직하였다. 그러나 정국공신 중심의 지배 체제에 불만을 품은 것이 발단이 되어 1507년 8월 서얼 노영손(盧永孫)에 의해 모역으로 고변되어 이과는 능지처참당하고 그 연루자인 윤구수(尹龜壽) 신희철(申希哲) 등은 원방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옥사 이후 고변자인 노영손과 추국(推鞠 : 죄상을 다스리는 것)에 관계한 추관(推官) 등 21명이 정난공신으로 녹공(錄功)되었다. 원래 1등은 추성보사우세정난공신(推誠保社祐世定難功臣)으로 노영손 류순(柳洵) 박원종 등 5명, 2등은 추성보사정난공신(推誠保社定難功臣)으로 민효중(閔孝曾) 이계남(李季男) 등 5명, 3등은 추성정난공신(推誠定難功臣)으로 설맹손(薛孟孫)·홍숙(洪淑) 등 12명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3등 공신 강홍(姜洪)을 제외한 21명만이 녹공되었다. 이후 대간(臺諫)의 계속되는 상계(上啓)로 노영손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삭훈되었다. 정난공신은 많은 취약점을 지닌 중중반정 주체 세력인 정국공신 집단이 조장한 모반 무고 사건으로 인해 녹공된 공신이었다.

<11번째> 위사공신(衛社功臣)은 1546년(명종1년) 9월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 등 대운 일파를 몰아내는 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칭호

<12번째> 광국공신(光國功臣)은 1590년(선조23년) 2월 조선 선조 때 중국 명나라 역사에 조선 선대의 계통이 잘못 기록 된 것 종계변무(宗系辨誣)을 고친 윤근수 등 19명에게 내린 칭호

<13번째> 평난공신(平難功臣)은 1590년((선조23년) 2월 정여립의 난을 평정한 박충간 등 스물두명의 공신에게 내린 훈호이며

<14번째> 호성공신(扈聖功臣)은 1604년(선조37년) 6월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호종한 공으로 이항복 등 86명에게 내린 훈호

<15번째> 선무공신(宣武功臣)은 1604년(선조37년) 6월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이순신 권율 원균 3명을 1등에 신점(申點) 권응수(權應銖) 김시민(金時敏) 이정암(李廷菴)·이억기(李億祺) 등 5인을 2등으로 정기원(鄭期遠) 권협(權挾) 류사원(柳思瑗) 고언백(高彦伯) 이광악(李光岳) 조경(趙儼) 권준(權俊) 이순신(李純信) 기효근(奇孝謹) 이운룡(李雲龍) 등 10인을 3등으로 모두 18명에 내린 훈공이다. <16번째>

청난공신(淸難功臣)은 1604년(선조37년) 6월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 것임.

<17번째> 위성공신(衛聖功臣)은 1613년(광해군5년) 3월 宣祖 死後 임진왜란 때

光海君을 호종하는데 공을 세운 관원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8번째> 익사공신(翼社功臣)은 1613년(광해군5년) 3월 임해군(臨海君)의 역모 사건에 공을 세운 자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에게 내린 칭호

<19번째> 정운공신(定運功臣)은 1613년(광해군5년) 3월 소북과 류영경(柳永慶) 등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20번째> 형난공신(亨難功臣)은 1613년(광해군5년) 3월 김직재(金直哉)의 옥을 다스리는 데 공이 있던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들 처음에는 무려 170명이 책록되었으나, 뒤에 1등 2명, 2등 12명, 3등 10명으로 모두 24명이 녹훈되었는데, 수공자로는 신율만 기록되었을 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형난공신은 광해군 때 책록된 위성공신(衛聖功臣) 익사공신(翼社功臣) 정운공신(定運功臣)과 더불어 1623년 인조반정으로 대북파(大北派)가 몰락하면서 공신호가 삭탈되었다.

<21번째> 정사공신(靖社功臣)은 1623년(인조1년) 윤10월 1623년에 일어난 인조 반정에서 공을 세운 김류(金瑬) 이귀(李貴) 등을 중심으로 한 서인계열은 1623년(인조 1) 광해군과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 등을 몰아내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 종(綾陽君宗)을 추대하였다. 이 왕이 인조이다.

이 때 공신에 훈록된 사람들을 정사공신이라 하였다. 1등공신은 김류 이귀 김자점(金自點) 심기원(沈器遠) 신경진(申景禎) 이서(李曙) 최명길(崔鳴吉) 이흥립(李興立) 구굉(具宏) 심명세(沈命世) 등 10명, 2등공신은 이괄(李适) 김경징(金慶徵) 신경인(申景禎) 이중로(李重老) 이시백(李時白) 기시방(奇時昉) 장유(張維) 원두표(元斗杓) 이해(李澥) 신경유(申景裕) 박호립(朴好立) 장돈(張墩) 구인후(具仁垆) 장신(張紳) 심기성(沈器成) 등 15명, 3등공신은 박유명(朴惟明) 한교(韓嶠) 송영망(宋英望) 이항(李沆) 최내길(崔來吉) 신경식(申景植) 구인기(具仁璽) 조흠(趙滄) 이후원(李厚源) 홍진도(洪振道) 원우남(元祐男) 김원량(金元亮) 신준(申竣) 노수원(盧守元) 유백증(兪伯曾) 박정(朴炆) 홍서봉(洪瑞鳳) 이의배(李義培) 이기축(李起築) 이원영(李元榮) 송시범(宋時范) 김득(金得) 홍효손(洪孝孫) 김련(金鍊) 류익(柳舜翼) 한여복(韓汝復) 홍진문(洪振文) 류구(柳頤) 등 28명으로 모두 53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이괄은 반란으로 김자점 심기원 등은 역모로 공신에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흥립은 이괄의 난의 책임을 지고 자살했고 김경징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로 사사(賜死)되어 삭탈되었다.

한편 인조반정은 서인 사이에 반정에 참가한 공서(功西)와 김상헌(金尙憲) 등 직접

참여하지 못한 청서(淸西)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류 이괄 등 50명의 공신들에게 내린 훈호이다.

<22번째> 진무공신(振武功臣)은 1624년(인조2년) 3월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장만 정충신 남이홍 등에게 내린 훈호이다.

<23번째> 소무공신(昭武功臣)은 1627년(인조5년) 11월 강원도 횡성에서 일어난 이인거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이다.

<24번째> 영사공신(寧社功臣)은 1628년(인조6년) 3월 류효립(柳孝立) 등의 역모를 고자질한 공으로 허적을 비롯한 11명에게 내린 훈명이고

<25번째> 영국공신(寧國功臣)은 1644년(인조22년) 5월 심기원과 권억의 역모 사건을 평정한 사람들에게 공으로 내린 훈명이다.

<26번째> 보사공신(保社功臣)은 1680년(숙종6년) 5월 경신환국(庚申換局)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27번째> 부사공신(扶社功臣)은 1723년(경종3년) 2월 임인옥사(壬寅獄事)때, 옥사를 밝히고 관련자의 죄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 또는

그 훈호를 받은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이다.

<28번째> 분무공신(奮武功臣)은 1728년(영조4년) 4월 무신난(戊申亂)에 의한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이다.



공신은 크게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 또는 훈호공신(勳號功臣)으로 구분되고, 훈봉공신은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든다면 임진왜란 직후 정공신(正功臣)은 宣祖 扈從功臣 86명, 光海君 扈從 衛聖功臣 80명, 宣武功臣 18명(86+80+18=184명) 등 모두 184명뿐 이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을 합하여 보면 임진왜란 당시 功臣의 數는 20,000名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즉 정공신(正功臣) OO功臣 외 "OO原從功臣"이 생각 외로 많았음을 말하여 준다.

2019年 7月 中순 書

忠景公 柳亮과 武將 柳文植



監察公宗中 會長 柳 清 烈

1. 忠景公 柳亮

(柳亮 : 1355-1415 : 太宗朝 相臣 大丞公 14世 : 忠景公 派祖)

※ 文化柳氏 實鑑 先世編 p55에서



공의 묘소를 실전하였었는데 지난 正祖 21년 丁巳(1797)년간에 후손 匡宇가 수년에 걸쳐 다방면으로 수소문하여 마침내 묘소를 득전 봉축하고 通禦使 文植등과 상의 山訟을 제기하여 局內에 있는 他人의 偷葬을 掘去하고 諸族에게 알려 齋室을 마련하는 한편 賜牌의 位土를 찾아 그 이듬해 戊牛(1798)년부터 墓祀를 행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 柳文植

<류문식 : 1747~1812 : 純祖朝 武將 大丞公 28世 : 忠景公派>

자 子章. 松庵 灌의 9대손이요, 慶常右兵使 濬의 증손이요, 全羅左水使 世復의 손이요, 三陟營將 鏞의 아들이요, 府使 海豐金 浚의 외손이다.

英祖 23년 丁卯 7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나 46년 庚寅(1770)에 武科에 급제, 여러

고을 守丞을 지내고 正祖 14년 庚戌(1790) 4월 忠清水使, 17년 癸丑(1793) 3월 黃海兵使에 제수되고, 純祖 卽位(1800) 8월에 三道統禦使에 승진하고, 이어 咸鏡南道兵使로 있던 중 5년 乙丑(1805) 12월 會寧府使로 교체되고, 이듬해 7월에 咸鏡北道 兵使로 전임하였으니 실로 八郡의 守丞과, 五道の 兵·水使를 지낸 것이다.

※ 朝鮮王朝實錄, 甲子譜.



10년 庚午(1810) 10월, 先妣 金氏를 追喪하여 廬墓로 3년을 追服하던 중 12년 壬申 8월 20일에 졸하니 향년 66세였다.

배위 韓山李氏는 宣傳官 應和의 따님인데 1남 2녀를 두고 졸하니 長湍郡 津西面 新慶川 巢鶴洞 先考墓下 乙坐에 考位와 합부하였다.

1남 滋은 純祖 10년 庚午(1810)에 司馬試에 급제하고, 親患 10여년에 옷에 띠를 풀지 않고 간호했으며, 卒後에 戶曹參判에 증직되었다. 2녀는 副摠管 全州李存敬과 參判 宜寧南履洞에게 출가하였다. 그리고 서녀 2인이 있어 오위장 韓山 李海英과 慶州 李勉奎에게 출가하였다.

후손이 거의 서울에 살고 있다.

名公 柳希亮의 生涯



文化柳氏監司公宗中 朗惠 柳 志 世

1. 始祖 大丞公부터 曾祖父(18世)까지의 系譜

始祖 大丞公⇒中門祇候使公派祖(仁修*11世)⇒密直使監察 代言(靖*12世)
⇒開城尹公(洪*13世)⇒中郎將公(仲宜*14世)⇒兵馬都節制使(紹老*15世)
⇒司憲府監察(承祖*16世)⇒軍器寺僉正(悌根*17世)⇒敦寧府正(壽千*18世)

2. 柳希亮(1575~1628) 家系

祖父(19世)는 暗行御史 嘉靖譜 收單 時 清洪道觀察使 漢城判尹 刑曹 工曹判書를 두루 역임한 文寧府院君 柳潛(1509~1576)이시고 父親(20世)은 光海王 國舅로 漢城判尹 開城留守 輔國領敦寧府使 壬辰倭亂 後 衛聖正功臣 1등에 책록된 文陽府院君 柳自新(1541~1612)과 母親(1541~1620)은 左議政을 역임한 林塘 鄭惟吉의 次女 (本名:鄭楊貞)로 朝鮮中期의 女流詩人 逢原府夫人 東萊鄭氏의 六男四女 中 다섯째 子(1575~1628)로 妹弟인 朝鮮王朝 15代 光海王(1575~1641)과 같은 해 즉 宣祖 乙亥 4月3日에 京에서 태어나셨다.

① 父親 柳自新 作

《秋山이 夕陽을 띠고》

‘추산(秋山)이 석양(夕陽)을 띠고 강심(江心)에 잠겼는데 / 일간죽(一竿竹) 둘러메고 소정(小艇)에 앉았으니 / 천공(天公)이 한가히 여겨 달을 조차 보내더라.’

노을 띠는 가을 산이 강 속에 잠겼는데 낚시 대 드리우고 작은 배에 앉아 있으니 하늘이 한가함 알고 달빛 비춰주는구나

② 母親 逢原府夫人 東萊鄭氏 鄭楊貞 作 二首

《출왕서빙고강사(出往西氷庫江舍)》

②-1. 來訪沙鷗約 江臯木葉飛 園收芋栗富 網學蟹鮮肥

내방사구약 강고목엽비 원수우울부 망거해선비

갈매기와 약속하고 찾아와 보니 / 강 언덕엔 나뭇잎 날리네

동산에서는 토란과 밤을 가득 거두고 / 그물을 건지니 살찐 게가 신선하네

②-2. 褰箔看山翠 開樽對月輝 夜涼清不寐 松露滴羅衣

건박간산취 개준대월휘 야량청불매 송로적라의

발을 걷고 푸른 산 바라보며 / 술동이 열고 달빛을 대하니

밤은 서늘하고 맑아 잠 못 이루는데 / 소나무 이슬이 비단옷 적시네

3. 兄弟姉妹 六男四女는 ①進士公 文陵君 柳希鏗(1561~1583) ②判決事 文原君 柳希聃(1563~1614) ③兵曹判書 文昌府院君 柳希奮(1564~1623) ④副提學 柳希發(1569~1623) ⑥僉正公 柳希安(1581~1638) ⑦女* 左尹, 漢昌君 趙國弼 ⑧女* 郡守 李德一 ⑨女* 光海王 妃 ⑩女* 縣監 金時輔이다.

4. 配位는 貞夫人 綾城 具氏(父 具思誠)이며, 선조(宣祖) 36年(1603年) 癸卯年 生員試을 거쳐 1608年(戊申-光海 卽位年)에 別試乙科 2위로 及第하였다.

5. 行狀

1605年(乙巳-宣祖38) 7月24日 成均館 儒生 時에 정호성, 허실, 최성원 등과 열읍의 향교와 모든 서원에 鄭仁弘이 지은 발남명집설을 비방하는 서찰을 보내게 되었고 1606年(丁亥-宣祖39) 1月18日 柳希亮은 31歲에 王에게 오현의 문묘를 건의하였었고 1月19日 재차 上疏하였다.

1609年(己酉-光1)2月4日 34歲에 藝文館 檢閱로 제수 받고, 史官(4월4일)으로 시사청에 입시하고 設書(7월3일)로 제수 받고 正言(9월6日)으로 제수 받고 吏曹佐郎(9월11日)으로 제수 받았으며 1610年(庚戌-光海 2) 2月8日 35歲에 典籍으로 제수 받고 持平(8月18日)으로 제수 받는 동시 文學(8月18日)으로 제수 받았으며 1611年(辛亥-光海 3) 5月21日 36歲에 校理로 제수 받고 副修撰(8月26日)으로 제수 받았다.

1612年(壬子-光海 4) 2月7日 父親인 文陽府院君 柳自新이 72歲로 卒하시어 지금의 시흥시 능곡동에 장사 지내셨다.

1614年(甲寅-光海 6) 6月20日 39歲에 議政府舍人으로 제수 받고 成均館 直講 신분으로 郎廳에서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에 근무하게 되었고 弘文館 典翰 都廳 稱號 檢學 4째 兄인 柳希發을 吏曹正郎으로 3째 兄인 柳希奮은 三昌의 韓分인 文昌府院君으로 長姪인 柳孝立(希鏗의 長男)은 兵曹正郎으로 다시 같은 해 10月4日에 直提學으로 제수 받고 둘째 姪 柳忠立은 文學으로 제수 받았으며 2째 兄인 柳希聃이 卒하였다.

1615年(乙卯-光海 7) 1月20日 40歲에 司僕 正으로 제수 받았으며 1616年 아들 柳斗立(1601~1628)이 만 14歲 어린 나이에 進士試에 及第되고 교유하던 禮曹判書 任就正이 아들 임흥후(任興後)가 1616년 8月12日 文科에 及第하자 任就正이 준비한 성문(成文)에 柳希亮 許筠 鄭廣成 柳忠立 裴大維 등 13人이 官職과 姓名을 自筆로 쓰고 手決한 古文書가 現在까지 存在하고 있는 것이 4~5年 前 古文獻으로 高價로 競賣物로 나왔던 것을 確認하였다.

같은 해 柳希亮은 5月7日 讀書堂 관원에 선발되어 4째 兄 柳希發과 함께 湖當에 들게 되었고 濟用監 正(5月20日)으로 上疏하였고 執義(6月8日)로 제수 받고 都廳에 弘文館 直提學 신분으로 火器都監 편찬에 참여하여 加資되었다.

아들 柳斗立의 子 柳廣善(母=淑人 朔寧 崔氏)이 10月13日 태어났으며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의 都廳에 司僕侍正 관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의 都廳에 通訓大夫 司僕侍正 知製敎 兼 世子 侍講院 輔德 孫子 柳廣善이 태어나던 해에 둘째 長姪인 柳忠立(1582~1620)과 月沙 李廷龜가 중국으로 주청사로 갈 때 시조 한 首씩 지은 眞迹이 成均館大 博物館에 소장되어있다.

長姪인 柳孝立은 郎廳에서 兵曹正郎 신분으로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에 근무 外 三寸인 右議政 鄭昌衍(逢原府夫人 東萊鄭氏의 弟)은 3人의 都提調 관원으로 함께 관여하였다.

41歲에 禮曹叅議(1月14日)로 姨從인 金尙容이 知敦寧으로 4째 兄인 柳希發을 吏曹叅議으로 계속하여 同副承旨(1月23日)로 작은 아버지 柳德新은 延安府使로 계속하여 右副承旨(4月13日)로 長姪인 柳孝立이 副修撰으로 제수 받았고 계속하여 刑曹叅議(4月20日) 承政院 右副承旨(5月6日) 左副承旨(5月11日)로 제수되었으며 許筠을 刑曹判書로 任就正을 左承旨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이들이 手決하였던 筆迹이 현재 남아있다.

1617年(丁巳=光海 9) 3月26日 42歲에 副提學에 제수되었으며 다시 1617年(丁巳=光海 9) 京畿道觀察使(6月11日)가 되었고 비변사 兵馬節度右道防禦使를 겸직하였다. 文陽府院君 死後 5年 만에 柳根이 撰하고 吳靖이 書하고 金尙容이 篆한 神道碑가 묘역에 건립되었기 본인은 지난 2007년 神道碑 양 음 면을 탁본 표구하여 각각 오동나무 궤에 실크 천에 포장 서울대학교 한국학 연구원인 奎章閣에 연구 보전토록 하였다.

柳希亮 自身은 진원부원군 柳根의 伯兄 柳格 神道碑(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소재)의 篆額을 썼다.

같은 해 작은 아버지 都正公 柳德新이 卒하셨고 1619年(己未=光海11)8月18日 44歲에 禮曹叅判으로 제수되었고 1620年(庚申=光海12)11月25日 母親 蓬原府夫人 東萊鄭氏가 80歲에 卒하셨다.

1621年(辛酉=光海13) 아들 柳斗立이 20歲에 別試 丙科 4위로 합격하였다.(朝鮮王朝實錄.司馬試.文科榜目.東國新續三綱行實儀軌.火器都監儀軌 발췌)

柳希亮은 당대에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金大德의 名公眞蹟에 등재되어 있다.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삼존리(三尊里)라는 地名은 光海君 시대 兵曹判書 文昌부원군(文昌府院君) 류희분(柳希奮 1564~1623) 副提學 류희발(柳希發 1569~1623) 禮曹叅判 京畿觀察使 류희량(柳希亮1575~1628) 三兄弟를 尊敬할만 한 人物이라 하여 붙여진 地名이다.

1623年(癸亥=光海15)3月14日 仁祖反正이 일어나게 되므로 光海王과 妃인 文城郡夫人 世子와 世子嬪이 江華島에 流配된 후 光海主는 또다시 濟州道로 流配地가 옮겨졌고 世子와 世子嬪이 먼저 卒하게 되니 妃인 文城郡夫人은 이 모든 고통을 겪다가 火病으로 48歲로 生을 마쳤다.

셋째 兄 柳希奮과 넷째 兄 柳希發은 誅殺 되었으며 막내 동생 柳希安은 절도에 위리안치 되었고 이로 인하여 柳希亮은 巨濟島로 流配되었다가 5년 후인 1628년 流配地에서 絞殺되었다. 1623年(癸亥=光海15) 3月14日 仁祖反正으로 滅門之禍 時 孫子인 梅墩居士(梅墩遺稿 詩文 2000여首) 柳廣善은 겨우 7歲였다.

1628年(戊辰=仁祖 6) 柳希亮은 54歲에 長姪인 柳孝立이 주축이 되어 27歲된 의 아들 柳斗立 그리고 柳孝立의 子 柳宗善 柳養善 등이 역모사건을 도모하다 허적의 고변으로 좌절 誅殺되었고 柳希亮은 이에 連坐되어 巨濟島 流配地에서 絞殺 生을 마치고 된 것이다.

當時 孫子인 柳廣善은 하루아침에 父親 柳斗立과 祖父 柳希亮이 함께 他界할 時 겨우 12歲였었다.

지금의 시흥시 거모동 도일(石谷)은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돌산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하여 돌고을 돌골 골고지라고 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며 망고개는 원래 낮은 고개였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 柳自新의 다섯째 아들인 柳希亮의 묘를 쓸 때 이곳에 흙을 긁어모아야 좌청룡 우백호가 완연하다 하여 고개를 높이고 이때부터 막은 고개라고 하였다가 변하여 망고개가 되었다. <출처:시흥군지>

6. 眉叟 許穆 卒(1595~1682=88歲) 許穆의 미수기언=記言別集에 <柳希亮事> 柳希亮字龍卿。柳氏敗。連坐絞於巨濟。斯人者素稱良善。韓義禁與書爲訣曰。無相負云。余心善之。追聞之。亦可悲。臨刑。問金吾小吏曰。韓知事有書否。曰。有。出其書見之。歎曰。爲我謝之。當死刑。人情安得不亂。我平日。作室於南郊。因號曰齋郊。今我絞於巨濟。此先讖也。嘗名兒曰斗立。今兒二十七死。天之所定。又何恨。以此復之。遂就刑云。其不亂如此。平日之操。可知。戊申仲夏上旬。

柳希亮의 자는 용경(龍卿)이다. 柳氏는 남의 죄에 연좌(連坐)되어서 거제도(巨濟島)에서 교수형(絞首刑)을 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본래 선량한 사람이라고 남들이 말하여 왔다. 한 의금부사(韓義禁府事)가 편지로 ‘서로 저버리지 말자.’고 영결(永訣)하였다기에 내가 속마음으로 착하게 여겼는데 나중 들으니 심히 슬픈 일이었다. 형(刑)을 당할 때에 금오(金吾 의금부의 별칭)의 아전에게 묻기를,

“한 지사(韓知事 한 의금부사를 말함)의 편지가 없더냐.”하니, 아전이 있다고 하고 그 편지를 내어 주자, 보고는 탄식하기를,

“나를 대신하여 답장해다오. 내가 사형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정신이 어지럽지 않으리요마는 내가 평일에 남교(南郊)에 집을 짓고 인하여 제교(祭郊)라 이름 하였는데 지금 내가 거제도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니 이것은 먼저 참언(讖言)이 된 셈이요, 아이의 이름을 두립(斗立)이라 하였는데 지금 아이가 스물일곱 살에 죽게 되니 이것은 다 하늘이 정한 것이라 또 무엇을 한 하리요. 이러한 뜻으로 답을 써 보내라.” 하고 드디어 형장(刑場)에 나섰다 한다. 그 정신이 어지럽지 않기가 이와 같으니 평일의 조행을 가히 알 수 있다. 무신년 5월 상순에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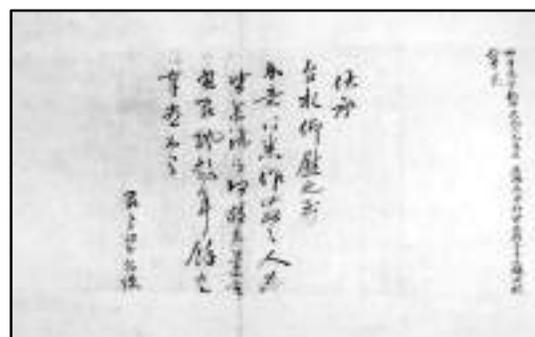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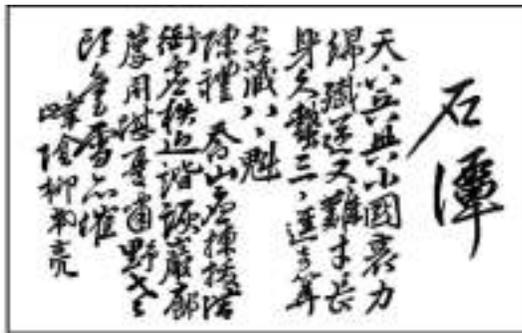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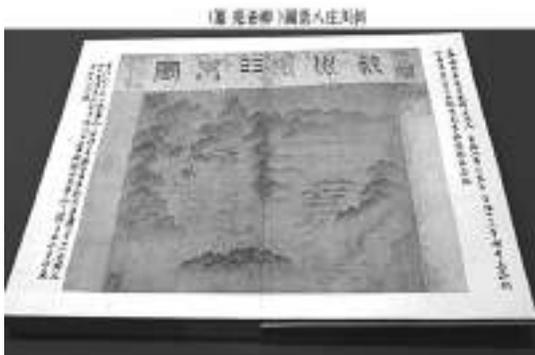
아이의 되니 : 두립(斗立)의 두(斗)는 ‘이(二)’와 ‘십(十)’의 합자(合字)로 20을

말하고, 입(立)은 《논어(論語)》의 “30에 서고[三十而立]”에서 딴 것으로, 20과 30 사이인 27세에 죽은 것이라고 보았다.

7. 柳希亮 製進=梧里先生文集附錄卷之三

峰陰 柳希亮의 필적으로 斜川莊八景圖 篆 作<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

1647년(丁亥=仁祖25) 10월5일 廣善의 2子 應龜 태어나다. 1684년(甲子=肅宗 10) 10월29일 孫 廣善 졸하다.



嘉善大夫禮曹叅判 李沃(1641~1698)이 廣善의 姨從弟이며 廣善의 墓碑銘을 쓰고 1690년(庚午=肅宗16) 사가독서 하던 중 湖當試에 수석하여 肅宗으로부터 상으로 표피를 받았었고 1694년(甲戌=肅宗20) 대사성이 되고 1714년(甲午=肅宗40)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碛산의 佛糧碑文과 영변의 普賢寺 月渚大師碑文을 撰하였던 閔昌道가 梅墩稿의 序文을 썼다.



위의 사실은 인조반정과 류효립 역모사건으로 柳希亮 柳斗立 柳廣善 3대가 滅門之禍 되었으나 柳希亮은 많은 유품을 남기었고 孫인 柳廣善이 8道를 유람하며 2千 餘首의 詩文 梅墩遺稿 20여만 字를 남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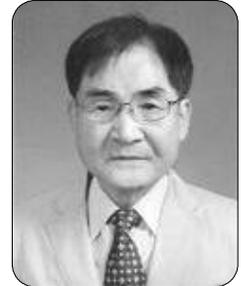
위 내용에서 밝힌 살아 숨 쉬고 있는 많은 유품 중 일부만 올리고 나머지는 여러 곳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어 지면관계로 다음 기회에 올리기로 합니다.

참고 : 필자의 블로그인 "<http://blog.daum.net/ryujise/>"(류지세 블로그)에 대부분 올려져있습니다.

朗惠 柳志世



判事公(諱 廷懋)의 事蹟과 祭享



前 判事公派會長
判事公22世孫 柳 世 鉉

文化柳氏 判事公(諱 廷懋)은 始祖 大丞公의 十三世로서 判事公派의 派祖이다. (高麗 恭愍廟 七年 戊戌(1358年) 三月 五日 出生, 李朝 太宗十八年 戊戌(1418年) 五月 七日 卒하신 公의 事蹟은 다음과 같다.

判事公(諱 廷懋)의 事蹟

崇祿大夫判中樞府事 文化柳公 廷懋之壇(碑文)

公의 諱는 廷懋요, 姓은 柳氏요, 貫鄉은 文化人이다. 鼻祖 大丞公 諱는 車達의 十三世孫이다. 高祖의 諱는 璵이요, 諡號는 文正公 麗朝 平章事이시고, 曾祖의 諱는 陞이요, 諡는 貞愼公 同知樞密院事이시고 祖의 諱는 璵이시니 諡는 章敬公 藝文館大提學이시고 考의 諱는 鎭이시니 大匡文化君 贈領議政이시다.

第一子의 諱는 元顯이시니 太宗朝 檢漢城事이시고 二子의 諱는 云檢이시니 恭儉判이시고 三子의 諡는 貞肅公 諱는 廷顯이시니 太宗朝 領議政이시고 公은 四子이다.

公은 天姿穎悟에 器度弘毅하시고 年甫入歲에 能通詩書孝經하며 接賓交友에 一動一靜이 特出하여 凡人키로 視者皆感嘆言하되 有大人之像이라하더라. 年十八歲에 以文藝로 遊於京洛하여 官官名碩이 莫不嘉賞祿이러니 步玉階에 官至崇祿大夫判中樞府事하여 教民以禮하고 善撫百姓하여 官民知合에 又時知年豐하니 比는 當世에 名人이다.

晩年에 歸于鄉里하여 東勉學業에 育成後裔하고 暫不釋卷而得興儒教하니 世稱名賢焉이더라. 墓는 黃海適九月山許라 하나 未知其祥이라.

第一子의 諱는 斯密이시니 司正이시고 二子의 諱는 斯榮이시니 縣監이시고 孫의 諱는 溟이시니 郡守이시고 次孫의 諱는 沼이시니 內禁이시고 三次孫의 諱는 以蒼니 司直이시고 四次孫의 諱는 以芻이시며 曾孫의 諱는 從源이시니 護軍이시고 玄孫의

諱는 潤이시니 直長이시고 次玄孫의 諱는 淵이시니 通訓大夫 高陽郡守이시고 子는 溫碩이시다.

六世孫 諱는 希春이시니 直長이시다. 七世孫 諱는 之湖이시니 成均進士이시고 次世孫 諱는 之汀이시고 八世孫 諱는 澤이시니 通德郎이시고 九世孫 諱는 以安이시니 宣祖朝通訓大夫禮曹正郎을 하시다. 後孫이 연연하나 餘는 不盡錄하나이다.

日에 公之二十二世 胄孫 圭鉉氏가 來訪하여 以文獻으로 詳說公之業跡하고 嘆墓所之夫傳하여 請余以設壇之文하기로 吾雖不敏이나 辭以不得而受納其言하니 오호라. 巨金公이 五百餘年之久에 上庠蔭이 未替하고 又子孫之追報者如此하니 此可以知公之爲仁人也로다.

今茲設壇于 義城郡 安平面 石塔洞 月明山 子坐之 原面記公 功蹟하니 敢何可言之리오. 曰仁者는 必有後라. 銘日惟公盛德郁郁昌昌文化柳之來遠兮洎公顯設壇其崇兮記公功而又子孫蓁蓁如公之仁

檀紀四三三一年(西紀 一九九八年)著雍攝提格三月初九日清明

儒道會總本部常務委員兼成均館典儀

蔚珍人 林武承 謹撰

儒道會總本部常務委員兼成均館典儀

二十二世孫 時鉉 謹書

제향은 제일기호서 매년 음 십월(첫째주 일요일)에는 후손들이 경비의성의 선산(월명산)에 판사공파 그 이하 칠세(삼세부터 팔세까지)를 모신 입대제단에서 단제를 봉행하고 있다.





判中樞府事公(휘 廷懋) 祀壇

소재지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석담2리 산85-1 月明山



判事公派 8代壇 (義城 月明山)

判府事公 휘 廷懋, 縣監公 휘 新榮, 郡守公 휘 溟, 護軍公 휘 從源,
直長公 휘 潤, 直長公 휘 希春, 進士公 휘 文湖, 通德郎公 휘 澤,
戊寅(1998년) 음3月9日 清明일에 八代壇을 設壇하고 同年 端午日에 告由祭 奉行

贊成公(諱 淙)의 一代記



明倫會長/名法博 柳 三 鉉

1. 序

大丞公의 15世孫이신 贊成公(휘 淙)의 초년시절과 공께서 태어나신 抱川郡에서 발행된 郡誌 人物編에 등재된 자료를 비롯한 墓表와 神道碑文 등에 수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公의 一代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抑忿과 怨恨의 세월속에 묻혔던 초년시절

朝鮮 太祖 7년 (戊寅, 1398) 8월 제1차 王子의 난에 희생된 左相公과 中樞公 父子분의 悽絶한 被禍로 長房 貴孫 4남매는 相公의 배위 寧淑宅主 南陽洪氏의 친가인 楊州 땅으로 피신하여 世宗 元年(1419) 父祖의 伸冤이 頒布되기 까지 무려 21년간을 艱難과 굴욕의 세월 속에 묻혀야 했다.

父祖께서 俱沒하신 戊寅년에 贊成公(휘 淙)께서는 겨우 11세의 소년이였으나 世宗 元年(己亥, 1419)에는 32세의 장년으로 성장하였으니 左相公 父子분의 伸冤이야말로 그 遺孫들에게는 하늘이 내려주신 雪冤이 아니었겠는가!

抱川郡誌에서는 伸冤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世宗朝에 와서 威化島功臣 柳曼殊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즉시 柳曼殊를 伸冤토록 명하였으며 그의 손자들로 하여금 벼슬길에 나오도록 特命하였다. 先王이 저지른 過誤를 주저없이 是正하여 義를 세우신 世宗大王이야말로 萬世에 빛나는 聖君이라 할 것이다.

左贊成公의 出仕는 王命에 의한 것이나 연속된 승진과 내직으로의 발탁은 公의 뛰어난 능력이 公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楊州 땅 陳外家宅 祖母 슬하에서 21년간

臥薪嘗膽 學問과 人格을 깊이 갈고 닦은 力量을 헤아려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公께서는 슬하에 5남 2녀를 두셨는데 7남매 모두가 蕃衍共榮하였을 뿐만 아니라 孫子 洵(世宗 23년 1441-中宗12년. 1517), 玄孫 堧((中宗26년 1531- 宣祖 22년. 1589) 등 領議政이 속출하였음은 公의 處仁畜德하신 蔭德의 餘慶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抱川郡誌에 실린 贊成公의 行蹟과 墓表, 神道碑文을 후손들의 一讀을 권하는 바이다.



贊成公의 墓域全景

3. 抱川郡誌 人物篇

柳公의 휘는 淙이니 高麗 禔王14년(戊辰 1388)에 출생했다. 芳碩의 난에 祖父 曼殊와 父 原之의 慘禍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祖母 洪氏의 보살핌에 힘입어 장성하였다.

世宗朝에 父祖께서 雪原된 후로 內外職을 역임하고 晩年에 포천 自作리에 터를 잡아 정착하니 文化柳氏로서 포천에 처음으로 入郷한 先祖이시다.

世宗朝에 이르러 威化島功臣 柳曼殊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즉시 柳曼殊를

伸冤토록 命하였으며 그의 손자들로 하여금 벼슬길에 나오도록 特命하였다. 이로써



贊成公의 墓表

公께서는 楊口, 稷山縣監, 漢城判官을 거쳐 永柔令을 지냈다.

世宗 27년(乙丑 1445)에 病卒하니 향년 58세이다. 公의 墓는 포천군 신북면 계류리 방축동 戌坐原에 계시는데 石儀가 갖추어 있다.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思溫은 縣令을 지내고, 차남 思恭은 벼슬이 洗馬에 그쳤으나 洗馬公의 둘째아들 洵는 漢城判官,

戶曹參判, 副提學 등을 거쳐 領議政에 이르렀으며, 3남 思忠은 訓導이고, 4남 思問은 中軍司正이며, 5남 思義는 鐵山郡守를 지냈다.

思義의 손자가 5형제인데 仁善, 恩善, 禮善, 智善, 貞善으로서 孝道와 友愛가 극진하여 나라에서 孝友旌閭를 명하였다. 현재 포천 자작리에 孝友碑가 있다.

思義의 曾孫 가운데 또 領議政이 나왔으니 바로 堧으로 湖堂에 選人되고 이어 清宦을 두루 거쳐 領相을 역임하였는데 禮善의 아들이다. 公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은 神道碑銘 등에 상세히 記錄되어 있으므로 一代記에 별도의 기록은 생략한다.

4. 墓表

公諱淙文化人中樞院副使原之之第二子也妣西河任氏洪武戊辰二月己酉公生及長筮仕爲行首職歷任楊口稷山縣監漢城判官永柔縣令正統乙丑三月壬辰病卒七月丁丑安葬公娶大護軍李蔓實之女生五男二女長曰思溫錄事次曰思恭左洗馬次曰思忠直長僕正次曰思問思勇次曰思義郡守二女長適司勇李孝根次適直長司正李之善公歿後三十八年癸卯.以世馬之子洵爲觀察使褒典 贈嘉善戶曹參判 今有內外諸孫凡百三十四人

(譯文)

公의 諱는 淙이니 文化人으로 中樞院副使 原之의 2子이며 妣는 西河任氏이다. 高麗 禔王 14년.(洪武 戊辰 1388) 2월 己酉일에 公께서 태어났는데 장성함에 出仕

하여 行首가 되고 이어 陽口 . 稷山縣監과 漢城判官 영유縣令을 지내시고 世宗27년(正統 乙丑. 1445) 3월 任辰일에 病卒하시니 7월 丁丑일에 安葬하였다.

公이 大護軍 李蔓實의 따님과 결혼하여 5남2녀를 낳았으니 長子는 思濫이니 錄事요, 次는 思恭이니 左洗馬요, 次는 思忠이니 直長 司僕寺正이요, 次는 思問이니 司勇이요, 次는 思義니 郡守이며, 장녀는 司勇 李孝根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直長 司正 李之善에게 출가하였다.

공께서 돌아가신 38년후 成宗 14년((癸卯 1483)에 洗馬의 아들 洵이 觀察使가 되어 그 褒典으로 嘉善大夫 戶曹參判에 贈職되었다.



贊成公의 墓表

지금 內外 諸孫이 무릇 134인이다.

5.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柳公諱淙神道碑銘(譯文)

公의 諱는 淙이요 姓은 柳氏로 文化人이다. 始祖 諱 車達은 高麗 太祖를 도와 三韓을 통합하여 壁上功臣에 策錄되고 官職은 大丞이다. 그 후에 代代로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柳公諱淙神道碑銘

名公과 碩輔가 빛났으니 6世를 전하여 諱 公權은 金紫光祿大夫 政堂文學 參知政事로 諡號가 文簡인데 筆蹟과 詩文이 海東筆苑과 東文選에 실려있고, 이 分의 아들 諱

澤은 官職이 翰林學士 尙書左僕射이며, 이 분의 아들 諱 璵은 匡靖大夫 修文殿 集政太學士 世子師로 諡號는 文正이요, 이 분의 아들 諱 陞은 都僉議司事로 諡號는 貞愼이요, 이 분의 아들 諱 敷은 都僉議 贊成事로 始寧君에 封하고 諡號는 章敬이며, 이 분의 아들 諱 總은 右副代言으로 贈領議政이니 公의 曾祖이다. 祖는 諱 曼殊이니 朝鮮朝에 들어와 太祖를 도와 威化島回軍 一等功臣이 되고 開國功臣에 參錄되어 官職이 左議政인데 迷信을 打破하여 지금까지 무당들의 노래에 먼저 公의 諱를 들치며, 先考는 開國 原從功臣에 策錄되어 贈史曹判書이며, 先妣는 西河任氏로 密直使 毅의 따님이다.

公이 高麗 禔王 14년(洪武 21년. 戊辰 1388) 2월 己酉일에 출생하였는데 天性이 純粹하고 才質이 특출하여 敦厚醇謹하였다. 장성하여 벼슬길에 나가 行首가 되었더니 이어 楊口縣監으로 나갔다가 곧 稷山縣監으로 옮기고 內職으로 들어와 漢城判官이 되었다가 永柔縣令으로 轉補되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事務를 간소화하고 政事를 청렴하게 하니 百姓들이 그 은혜를 칭송하였다.

晩年에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 抱川 王方山 아래에 터를 정하고 살았다. 抱川郡誌에 이르기를 公은 재주와 행실을 겸비하고 德을 쌓음이 깊었으며, 5子를 두었는데 子孫에 宰相과 높은 벼슬이 많고 子孫이 번성하여 스스로 一村을 이루니 그로부터 自作리라 일컬었다. 또 마을에 傳說이 있어 이곳은 三政丞이 날 터라고 하였는데 公의 孫子 領議政 洵과 玄孫 領議政 堧과 堧의 甥姪 領議政 漢陰 李德馨이 다 이곳에서 출생하였으니 아! 장하도다. 公이 德을 닦은 應報과 터를 가려 處仁한 餘慶으로 이 같음이 있음인저.

世宗 27년(乙丑 1445) 3월 壬辰일에 病患으로 졸하니 동년 7월 丁丑일에 고을 북쪽 溪流里 坊築洞 戌坐原에 안장하였다.

公이 돌아가신 38년 후 成宗 14년(癸卯 (1483)에 孫子 洵이 觀察使가 됨으로써 그 褒典으로 嘉善大夫 戶曹參判에 贈職되고 그로부터 또 23년 후 中宗 元年(丙寅 1506)에 洵이 領議政 靖國功臣이 됨으로써 褒典으로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에 贈職되었다.

配位 贈貞敬夫人 鷄林李氏로 大護軍 蔓實의 따님인데 5남 2녀를 두어 長子 思溫은 錄事요, 次子 思恭은 左洗馬로 贈領議政 文川府院君이요, 3子 思忠은 直長으로 贈司僕寺正이요, 4子 思問은 司勇이요, 季子 思義는 鐵山郡守로 贈史曹判書이며, 長女는 思勇 李孝根에게 출가하고, 次女는 直長司正 李之善에게 출가하였다. 長房의 손자는

縣監인 濠와 沂이며, 濠의 아들은 繼金이요, 沂의 아들은 福重이며, 福重의 아들은 聖枝이다. 次房의 손자 渭는 蔚山府使요, 洵은 文科에 급제하여 領議政 靖國功臣 文城府院君으로 諡號는 文僖 號는 老圃堂이다. 沆은 典牲署 參奉이며, 따님은 水軍節度使 李永著에게 출가하였다.

渭의 아들 應禎은 三陟府使요, 金溝縣令 應祥和 應祚이다. 洵의 아들 應龍은 史曹參判인데 靖國勳으로 文原君에 封하고 贈史曹判書이며, 應臺는 軍器寺判官이요, 長女는 僉正 安熟에게 출가하고, 次女는 縣監 李長堅에게 출가하였으며, 沆의 아들은 參奉인 應辰과 應期, 應任이다.

應禎의 아들은 萬戶인 敬宗과 武科宣傳官인 敬福이다. 應祥의 아들 弘文館博士 敬仁은 上疏로써 金安老를 排斥하다가 誣告를 입고 珍島로 流配되어 竊하였다. 敬義는 蔭職으로 從仕郎인데 伯氏 博士公의 被禍를 痛憤히 여기고 扶餘에 隱居自靖하였으며, 敬禮는 羅州判官이요, 敬智는 進士로 號 浦隱인데 仲氏를 따라 扶餘에 隱居하다가 長陵參奉에 薦擧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敬信은 萬戶이다. 應祚의 아들 敬誠은 郡守이다. 應龍의 아들 敬元은 經歷이요, 敬長은 豊基郡守이다. 應辰의 아들 敬忠은 僉使요, 敬孝와 敬梯이다. 應任의 아들은 敬春이다. 3房의 孫子 津은 進士로 贈戶曹參議요, 池는 生員이며, 沆는 參奉이다. 津의 系子 繼胤은 贈戶曹參判이요, 池의 아들 龜壽요 繼胤은 伯父(龜壽)後로 出系하였으며, 長女는 南隣에게 출가하고, 次女는 翰林 李忠佐에게 출가하고 3女는 輔德 李夢尹에게 출가하였다. 沆의 아들은 元宗, 享宗, 興宗, 貞宗이다.

繼胤의 아들 敬先은 嘉善大夫 咸鏡北道 兵馬節度使이다. 龜壽의 아들은 敬德이요, 敬業은 奉事이다. 享宗의 아들은 敬言이요 興宗의 아들은 夏이다.

4房의 孫子 洞은 仁同縣監으로 비로소 晉州 元塘里에 살았으며, 형의 아들 永年은 習讀이요, 添年은 禦侮將軍이다. 永年의 아들 誠은 縣監이요, 誠은 孝行으로 旌門이 내렸다. 添年의 아들은 忠順衛인 玉男과 福男 寶男이다. 誠의 아들 宗智는 號가 潮溪로 曹南冥의 高弟로서 遺逸로 薦擧되어 參奉에 除授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晉州 大覺書院에서 享祀하고 있다.

季房의 손자 潤은 司直이요, 演은 教授로 贈左贊成이며, 溥는 參奉이요, 波는 護軍이요, 淮는 展力副尉이고, 潤은 萬戶이며, 女는 牧使 金淑에게 출가하였다. 회

潤의 아들은 壽永과 壽堅이요, 壽永의 아들은 涑이요, 壽堅의 아들은 胤襄이다. 演의 아들은 仁善, 恩善, 禮善, 智善, 貞善인데 5형제가 한마을에 함께 살며 蓂을

함께 마시면서 孝誠과 友愛가 특이하여 仁善은 行誼로 천거되어 四山監役을 지내고 明宗 4년(己酉 1549)에 孝友로서 旌門이 내리고 孝友旌閭碑가 세워졌으며 그 샘물을 孝友井이라 이르고 碑와 샘이 지금까지 自作里의 遺墟에 전하고 있다. 恩善은 叔父後로 出系하고, 禮善은 金城縣令으로 贈領議政 文城府院君이며, 智善은 文科로 刑曹參判 開城留守를 역임하였으며, 貞善은 南營統制虞候이다.

溥의 孫子 恩善은 文章이 簡古하였으나 자취를 감추고 出仕하지 않았으니 世上에서 處士라 일컬었다. 波의 아들 希元은 生員이요, 淮의 아들은 世光이다.

仁善의 系子 堞은 秉節校尉요, 禮善의 아들 埴은 縣監이요, 堦은 文科로 領議政인데 宣祖 22년(己丑 1589)에 平難功臣에 策錄되어 始寧府院君에 封하고, 諡號는 文貞公이고, 埴, 堦이며, 長女는 許滾에게 출가하고, 次女는 知中樞府事 李民聖에게 출가하였는데 그의 아들 德馨은 宣祖朝에 領議政이다.

智善의 아들 垺은 司憲府監察이요, 堞은 伯父후로 出系하고, 城은 勵絕校尉 別提이며, 埴(한)은 成均生員 察訪이다.

貞善의 아들 坊은 敦勇校尉인데, 孝行으로 旌門이 내렸으며, 恩善의 아들은 壤이요, 壘은 僉使요, 堦와 堦이다.

世光의 아들은 圻이다. 이하는 기록하지 않는다.

삼가 살펴 보건대 公은 벼슬이 비록 顯達하지 못하였으나 德을 쌓음이 깊고 멀어서 子孫이 繁盛하였고, 領議政과 좋은 벼슬이 堂內에서 잇달아 나왔으니 어찌 그렇게 盛하였던가. 생각하건데 朝鮮時代의 政治와 敎化가 世宗時代보다 더 盛況을 이룬적이 없었다. 이때에 어진 官吏들을 가리고 有能한 이를 반드시 任官을 시켰는데 公이 세고을의 守令과 漢城判官을 지냈으니 비록 작게 시험하였다고 이르겠으나 진실로 재주가 높고 行實을 갖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官職에 任用되어 능히 地方官의 責任을 다하였겠는가. 그는 반드시 善을 쌓고 仁을 쌓음이 있어 옛날공렴(龔廉①)의 治化에 비길만 하도다. 이렇게 公을 評함이 무릇 증거 없는 말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光武 6년(己亥 1899)에 15世孫 基一이 朝鮮말엽의 儒學者로서 특히 先祖를 追慕하고 報本하는 精誠을 이루어 左尹公 이하 五代의 壇과 文簡公 貞愼公 章敬公 代言公 中樞公의 壇을 局內에 모셨는데 그 후 얼마 안되어 文簡公 貞愼公 章敬公의 墓를 長湍에서 得傳하여 三位는 撤壇하고 五代壇과 代言公 中樞公의 壇은 그대로 모시었다.

아아! 公이 돌아가신지 500년이 되도록 神道碑를 세우지 못하여 後孫들의 쌓인

恨이 오래되었는데, 一門에서 힘을 모아 神道碑를 세우고자 나에게 碑文을 청하였다.

내가 늙어 눈이 어둡고 精神도 혼란하여 두세번 굳이 사양하였으나 그 청함이 더욱 근심한 바, 氣色을 살펴보니 나의 글을 얻지 못하면 그만 두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뜻이었다. 이에 그 千里 먼 길을 와서 글을 청하는 성의에 감동하여 끝내 사양치 못하고 결국 右와 같이 글을 짓고 이어 銘에 이르노니,

朝鮮時代に 百姓을 다스림에 世宗께서 가장 잘하셨도다.

어진 이를 벼슬 주고 能한 이를 임용하여 人才를 만드시 가렸도다.

公께서 고을의 官印을 차고 内外의 직책을 누차 지냈도다.

百姓을 사랑하고 잘 다스려 教化를 행함에 恩澤이 있었도다.

祖父께서 政丞으로 계셔 높은 벼슬이 代代로 이었도다.

孫子와 玄孫이 領相의 높은 지위에 올랐도다. 仁義로 처신하고 후손에게 전하였도다.

善한 집의 남은 경사로 후손이 크게 번창하였도다.

높다란 저 왕방산 아래에 스스로 한 마을을 이뤘도다.

文翰과 禮儀를 떨어뜨리지 않고 벼슬을 서로 전해왔도다.

오직 공께서 쌓으신 德을 이에 가히 보겠도다.

坊築골 山所 앞길에 事蹟을 드러낸 비석이 없었도다.

子孫들이 이를 두려이 여기고 이에 神道碑를 세웠도다.

後世에 비를 보는 이는 무릇 考徵할 수 있으리라.

檀紀4320年(丁卯 1987) 3月 清明日 立
前成均館長 哲學博士 昌山成樂緒 撰
抱川鄉校 典校 漢陽趙健行 書
成均館 典學 南陽洪永吉 篆

① 龔廉：漢나라 南平人 龔遂의 별칭이니 渤海에 도적이 많았는데 宣帝가 龔遂로 渤海太守를 삼으니 도적이 변하여 良民이 되고 잘 다스려 百姓이 부유하게 됨.

年 譜

年 代			公의 年歲	主 要 內 容	備 考
西 曆	王 朝	干支			
				- 家系 · 曾祖父 : 總(右副代言) · 祖 父 : 曼殊(左議政) · 父 : 原之 (商義中樞院事) · 母 : 豊川任氏 · 子 : 思溫(縣令) 思恭(贈左贊成) 思忠(贈司僕寺正) 思問(中軍司正) 思義((贈吏曹判書)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문화류씨세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1388	高麗 禡王 14년	戊辰	1	5월 漢陽에서 태어남	
1398 1419	太祖 7년 世宗 元년	戊寅 己亥	11 32	王子의 난으로 左相公 父子분 의 처절한 被禍로 左相公의 配位 寧淑宅主 南陽洪氏(祖母) 의 親家인 楊州 땅에 피신, 21년간 艱難과 굴욕의 歲月속 에 묻혀서 지냄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문화류씨제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1419	世宗 元년	己亥	32	世宗大王의 特命으로 左相公 父子분의 伸寃이 頒布됨	"
				32歲의 壯年으로 성장한 公은 伸寃(頒布이후 蔭仕로 行首를 거쳐 楊口縣監命稷山縣監, 奉 直郎漢城判官, 永柔縣令 등 內 外職을 두루 역임하였으나 그 年度는 전해오지 않음	"
1445	世宗 27년	乙卯	58	晩年에 抱川 王方山 아래에 터를 정하고 여생을 이곳에서 보냄	문화류씨세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年代			公의 年歲	主 要 內 容	備 考
西曆	王朝	干支			
1445	"	"	58	3月 壬辰일에 病患으로 별세	문화류씨세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등
1445	""	""	58	7月 丁丑일에 新北面 溪流里 坊築洞 戊座原에 안장	"
1483	成宗 14년	癸卯	.	贈嘉善大夫(戶曹參判)	문화류씨세보 문화류씨좌상공파보 문화류씨보감 포천군지
1506	中宗 원년	丙寅	.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
1987	.	丁卯	.	贈崇大夫議政府左贊成柳公 諱涼神道碑 수립 ·前成均館長哲學博士昌山成樂 緒撰 抱川鄉校典校漢陽趙健行書 ·成均館 典學 南陽洪永吉 篆	.

參考文獻

- 君子亭記(1481. 朝鮮 成宗12년)
- 墓表(1497)
- 抱川郡誌(1984. 抱川郡誌編纂委員會)
- 神道碑銘(1987)
- 文化柳氏左相公派譜(1990. 第一社)
- 文化柳氏譜鑑(1990. 文化柳氏譜鑑編纂委員會)
- 한국머슬사전(1997. 李德載 英智社)
- 南岡叢跡(2004. 淸文閣)
- 文化柳氏世譜(2008. 엔코리언)
- 儒州春秋(2011년 16輯. 沃川印刷社)

壬辰倭亂과 柳仲龍의 義兵活動



대종회고문 柳 瑢 鎭

조선(朝鮮) 초기의 유교정치 전성기가 지나자 지배계급의 부패현상이 깊어졌다. 당쟁(黨爭)과 잇따른 사회로 국론은 분열되고 숭문경무사상(崇文輕武思想)으로 국방은 방치되었으며 모순된 사회구조는 심화 되어 인재를 고루 등용하지 못하고 사대사상으로 인한 중국 편중으로 국제정세에 어두워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풍신수길(豊臣秀吉)이 나타나 군웅할거(群雄割據)의 전국(戰國)을 통일하고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칠 것과 명(明)나라를 정벌(征伐)하려 하니 길을 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우리 조정에서 이를 거절하자 풍신수길은 1592년 4월 13일(선조 25년) 30만 5천의 대군으로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다. 이 전쟁이 임진왜란(壬辰倭亂)이다.

왜적은 부산 상륙 후 파죽지세로 진격 20일 만인 5월 3일 서울을 점령하였으며 선조(宣祖)는 난(亂)을 피해 평양을 거쳐 6월 22일 의주로 몽진(蒙塵)하였다. 이러니 각 지방의 수령방백과 관군은 일시에 무너져 성을 버리고 산간으로 도주하고 백성은 갈팡질팡 온 나라가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시기에 의병(義兵)은 향보(鄉保)의식의‘자전자수(自戰自守)’와 근왕(勤王)이라는 두 가지의 명분으로 각지에서 창의(倡義)하여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구하고 임란(壬亂)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임란(壬亂) 초기 합천(陝川), 고령(高靈), 거창(居昌), 의령(宜寧) 등지에서 명문가(名門家)로, 연륜(年輪)과 명성(名聲)이 높았던 김면(金沔), 정인홍(鄭仁弘), 곽재우(郭再祐)장군 등은 의병(義兵)을 조직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적(功績)을 세워, 3대 의병대장(義兵大將)으로 추앙 받고 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임진왜란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국난 극복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의병운동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들 의병대장들과 함께 창의(倡義)하고, 수많은 전투에 목숨을 걸고 항전(抗戰)한 많은 신진(新進) 의병장(義兵將)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를 위해 충심을 다한 이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역사의 그늘에 묻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에 고려(高麗) 개국공신(開國功臣)이신 벽상공신(壁上功臣) 대승공(大丞公) 류차달(柳車達)의 20세 손인 어적(漁適) 류중룡(柳仲龍) 공(公)의 생애(生涯)와 임란(壬亂) 당시의 의병활동 및 주요 전투를 조명(照明)하여 그 공적(功績)을 기리고자 한다.

류중룡(柳仲龍)공은, 명종 13년(1558년) 12월 26일 거창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여현(汝見)이며 호(號)는 어적(漁適)이다. 어려서부터 학업에 열중하여 17세 때 겨울에 지려부(紙驢賦)를 비롯하여, 18세 때 겨울에 주역을 읽은 후 지은 역학설(易學說)과 19세 때 모부인을 섬김에 있어 지극한 효성을 담은 애일부(愛日賦)가 있다. 20세 때 봄에 진도음(進道吟)을 짓고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하니 주위로부터 그 영특함에 대한 칭송이 많았다. 48세 때 봄에 지은 진희화성덕시(進熙和聖德詩), 49세 때의 진주하씨 족보(晉州 河氏族譜)의 서(序), 53세 가을에 우연정(友蓮亭)의 기문, 58세 때 승지공(承旨公)의 행장(行狀), 59세 5월에 타직당기(妥直堂記), 60세 때의 탄세사(歎世詞), 68세 때의 기우제 축문(祈雨祭祝文)등을 남겼다. 특히 어적집(漁適集)은 3권1책의 목활자본으로 1908년 류중룡 공의 8세손 유훈공(柳煥兢)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 1에 사(詞) 1편·부(賦) 3편·시 41수·서(書) 3편·서(序) 1편·기(記) 3편·제문 2편이 실려 있고, 권 2에 부록으로 만사 20수와 제문·행장·묘갈명 각 1편이 있다. 권 3에는 시 27수, 잡록 7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잡록 중 장악원 동도회록(掌樂院同道會錄)에는 당시 영남 사람으로 장악원에 재직한 26명의 명단과 원운시(原韻詩) 1수가 있다.

속수 삼강록(續修三綱錄)에는 류중룡 공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과 함께 대장 김면 휘하에서 의병을 규합, 우현·상암 등지에서 왜적과 싸웠던 사실과 객재우의 휘하에서 방략(方略)을 도모한 맹세의 기록이 있어, 임진왜란 의병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류중룡 공이 처음으로 과거(科擧)에 응시한 때는 24세 가을이었다. 당시 모계(茅谿) 문위(文緯), 권응거(權應擧) 등이 과거(科擧)는 우리가 유의(留意)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과거를 일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노모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향시(鄕試)에 응하여 합격하였다. 다음해인 25세 때 봄에 진사(進士)에 급제(及第)

하였으며, 임란(壬亂)으로 인하여 뒤늦게 선조 33년(1600년) 문과에 급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정랑(禮曹正郎)에 올랐으며 명종실록(明宗實錄)을 편찬(編纂)하는데 참여하였다.

광해군 4년(1612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지냈으며 이듬해 금산군수(金山郡守)가 되었으나 이후 광해군의 폭정과 정치가 점점 문란해짐을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향리(鄉里)로 돌아갔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다음해인 1624년 문과(文科) 중시(重試)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여 홍문관수찬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弘文館修撰知製敎 兼 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홍문관교리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弘文館校理知製敎 兼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성균관사성 겸 춘추관편수관(成均館司成 兼 春秋館編修官) 등을 두루 역임 하였다.

1592년 류중룡(柳仲龍) 공이 35세 때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勃發)하여, 4월에 왜구(倭寇)가 크게 쳐들어와 동래(東萊), 김해(金海)가 잇달아 함락되면서 열읍(列邑)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이를 개탄하면서 판탕(板蕩)의 때를 맞이하여 '신하 된 자로써 어찌 손팔짱을 끼고 좌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임금에게 보답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문위(文緯), 오장(吳長), 노사상(盧士尙), 박사제(朴思齊), 정유명(鄭惟明), 이대기(李大期), 윤경남(尹景男), 박성(朴惺) 등과 더불어 발문(發文)하고 함께 의병을 일으키자고 약속 하였다. 그리고 명문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서 인근 지방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52세로 연륜을 겸비한 송암(松菴) 김면(金沔)에게 가서 함께 대항하자고 청하였다.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긴 김면은 류중룡(柳仲龍), 곽준(郭遵), 문위(文緯), 윤경남(尹景男), 박정번(朴廷번) 등을 참모장서기(參謀長書記)로 삼고 창의(倡義)하였다. 이후 류중룡 공은 김면과 거창에서 의병 2,000여명을 모아 우현(牛峴)·상암(箱巖) 등지를 지키면서 연강전투, 개산포전투, 2차무계전투(二次茂溪戰鬪), 우척현전투(牛脊峴戰鬪), 지례전투(知禮戰鬪), 사랑암전투에서 큰 전과(戰果)를 올렸으며, 합천(陝川)의 정인홍(鄭仁弘) 군과도 연합하여 1.2차 성주성 전투를 함께하였다. 이들 전투 중 임란(壬亂)의 전개에 영향을 끼친 주요 전투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개산포전투(開山浦戰鬪)와 2차 무계전투(二次 茂溪戰鬪)

개산포전투(開山浦戰鬪)는 1592년 6월 9일~10일에 있었던 전투였다. 6월 9일 묘시(卯時)에 왜군이 현풍(玄風)에서 낙동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오다, 고령 개산

포에 이르렀을 때 물속에 미리 박아둔 목책(木柵)에 배가 좌초되자 30여명이 복병하고 있다가 일시에 배 안으로 화살을 퍼부어 왜군 80여 명을 사살하였다. 배에 타고 있던 왜적들은 2~3명만 남고 모두 몰살됐다. 이어서 6월 10일에도 왜군과 접전(接戰)하여 왜선 한 척을 나포(拿捕) 했다.

2차 무계전투(二次茂溪戰鬪)는 6월 18일경 고령 성산 무계진에서 낙동강을 내려오는 적선 두 척을 나포하여 배에 가득 실은 물건을 노획(鹵獲)하였다. 이때 노획한 물품은 세조의 광묘(光廟) 어휘가 적혀 있는 금지장자(金紙障子)와 제복(祭服) 두 벌, 적석(赤鳥) 두 켤레와 광국공신연회계축도(光國功臣宴會契軸圖), 비단 등 궁중에서 사용되는 진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왜적이 궁중의 내수사(內需司) 물품을 약탈한 후 낙동강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가려 한 듯하다. 노획한 물품은 개산포 전투의 노획품과 함께 초유사(招諭使)에게 보내 행재소(行在所)에 전송해 달라고 하였다.

이즈음 경상도 지역의 왜군은 성주와 개령에 주둔하고 낙동강을 주요 보급로 및 교통로로 이용하면서 호남으로 들어가고자 하였기 때문에 낙동강에 그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김면, 류중룡이 이끄는 의병군이 개산포전투에서 왜선 1척을 나포(拿捕)한 데 이어 2차 무계전투에서 왜선 2척을 나포한 것은 전과(戰果)의 경중(輕重)과는 상관없이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왜군의 영산-창녕-현풍-무계-성주를 잇는 낙동강 수운(水運) 확보 계획이 이들 지역의 의병활동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경상우도 지역의 보전은 물론 경상도를 통해 전라도로 침공하려던 왜군의 작전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개산포전투와 2차무계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대표적 의병전투로 평가 받을만하다.

2. 우척현전투(牛脊峴戰鬪)

1592년 8월 16일 김면, 류중룡 등 고령·거창 지방의 의병과 관군 들이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의 우척현(牛脊峴)에서 왜군을 패퇴시킨 전투이다. 우척현은 ‘우두령(牛頭嶺)’이라고 불리므로 ‘우두령전투’라고도 하며, 조선왕조실록과 조정(趙靖)의 임진란기록(壬辰亂記錄) 등에 기록이 전해진다.

김천의 지례면 지역에 주둔하던 왜군 제6번대의 별동대 1천5백여 명이 8월 15일(음력 7월 9일) 거창을 향해 진격해왔다.

지금은 우두령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우척현은 김천시 지례면에서 거창군 웅양면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두 지역 사이에는 대덕산(大德山, 1,290m)·수도산(修道山, 1,317m) 등 1천 미터가 넘는 높은 산지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580m 높이의 우두령을 넘는 길이 거의 유일한 통로나 마찬가지로였다.

왜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면과 류중룡은 경상우도의 관군과 함께 2천여 명의 병력으로 우두령 일대에 진을 치고 매복을 하였다.

8월 16일(음력 7월 10일) 일본군이 우두령으로 지나려 하자 고개 양쪽에 매복하고 있던 의병과 관군들은 활을 쏘며 기습하였다.

당시 의병군에는 산지에서 사냥 등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백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서 활로 왜적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결국 왜군은 대열이 무너진 채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고, 의병군은 이들을 추격해서 큰 전과를 올렸다.

웅치와 이치 전투에서 왜군의 진격을 막아낸 데 이어서 우척현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김면, 류중룡의 의병군은 왜군 제6번대가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도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 바다에서도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왜군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조선은 곡창 지대인 전라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

3. 지례전투(知禮戰鬥)

왜군들은 교통로를 따라 한양으로 직행하였으나 후방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며 공격을 가하자 1592년 5월 초 한양 함락 후 각 도를 분담하여 공격하는 전술을 택하였다. 이때 고바야가와 부대는 전라도를 맡아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처음 창원에서 남원으로 직행하려다가 의령에서 곽재우(郭再祐)에게 길이 막혀 김산으로 들어와 지례·김산·선산·개령 등지에서 흩어져 주둔하였다.

지례·김산의 왜군이 거창으로 향하다가 우두령에서 김면, 류중룡 등이 이끄는 의병들에게 패하여 지례로 되돌아왔다. 또 왜군의 한 부대가 황간·순양·무주·금산을 거쳐 전주로 가려다가 권율(權慄) 장군에게 금산에서 패하고 무주를 거쳐 대덕·지례로 후퇴하였다.

전라도로 진출하려다 예봉이 꺾여 지례로 후퇴한 왜군들 1,500여 명은 7월 29일 지례 향교에서 행군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때 김면, 류중룡 의병군과 황간(黃澗)·영동(永同)·회덕(懷德) 등지의 충청도 의병들이 연합해 담장을 에워싸고 창고에 장작을 쌓아 불을 질렀다.

순식간에 창고는 불바다가 되었고, 우왕좌왕하는 왜적을 향해 사방에서 화살을

펴부어 거의 전멸시켰다. 그간의 의병전투와 달리 왜적의 거점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임진왜란 초기, 왜군이 한양 함락을 위해 교통로를 따라 빠르게 진격함으로써 왜군이 지나간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의병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이 전후방에서 왜군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한양에 집결한 왜군은 우키다 히데이에(宇喜田秀家)가 총대장이 되어 중앙에 주둔하면서 8도를 분담하여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경상도를 분담한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는 5월 10일에 현풍, 18일에 성주를 침입하였고, 5월 중순에는 3만의 대군으로 대구·선산·개령·상주 등지를 장악하였다. 왜군은 이를 통해 낙동강 수로를 확보함으로써 조령으로 통하는 북방 보급선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경상우도에서 곽재우(郭再祐), 정인홍(鄭仁弘), 김면(金沔)이 의병을 일으켜 각각 의령, 합천 및 초계, 현풍과 고령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왜적의 영산-창녕-현풍-무계-성주를 잇는 낙동강 수운확보 계획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 경상우도 지역의 보전은 물론 경상도를 통해 전라도로 침공하려던 왜군의 작전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는 국가존립의 위기를 타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3월 대장 김면이 진중(陣中)에서 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류중룡 공은 김자(金滋), 김양(金養), 김급(金汲), 윤경남(尹景男)과 함께 고령(高靈) 칠등(七磴)에서 호상고장(護喪藁葬) 하였다. 이후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의 진중(陣中)으로 들어가서 토적(討賊)하였다. 4년 후인 선조 30년(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류중룡 공은 망우당(忘憂堂)과 함께 화왕산성(火旺山城)으로 들어가 군사 방략(方略)을 도모하여 2년 후인 42세 때 비로소 난(亂)이 평정되었다.

류중룡 공은 일찍이 난기(亂記)를 기록하였다고 하였으나 화변(火變)으로 인해 소실되어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 시 지역의 의병장들과 류중룡 공의 행적을 더욱 세세히 파악하여, 추앙(推仰)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7년간의 난(亂)이 끝난 후 류중룡 공은 뒤늦게 출사(出仕)하여 27여 년간의 관직생활 후, 70세 때 가을 무렵에 치사(致仕)하고 옛 집으로 돌아와, 다음해인 71세 때 2월에 어적정(漁適亭)을 중수(重修)하고 소요상양(逍遙徜徉)하면서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였다. 그로부터 7년 후 그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吉孫 後裔



忠景公 6世孫(諱 吉孫) 宗中會長 柳 承 鉉

문화류씨 충경공파 6세손(휘 길손) 종중은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북내면 중암리 일대에 선영을 모시고 도전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 왔다.

여주시는 天與지리로 말미암아 辰國시대부터 평화로운 집단부락을 영위해 왔으며 고구려 장수왕 63년에 骨內近縣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그 후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황요, 고려 天授 23년에 黃麗縣, 고려 고종원년(1214년)에 永義로 개칭했다가 충렬왕 31년에 驪興郡으로 승격했다. 조선 태종 2년에 驪興府로 승격했고 태종 14년에 都護府가 설치됐다. 이 때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됐다. 조선 예종 1년에 여주 목으로 승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주시는 경기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강원도, 원주시 서쪽은 이천시, 광주시 남쪽은 충북 음성군, 충주시 북쪽은 양평군과 각각 접하고 있다. 지형은 구릉과 저지가 뒤섞여 있다. 지질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전체 면적 607.97m²이다. 차령산맥, 광주산맥, 태백산맥 3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주평야가 한강을 끼고 펼쳐져 있다. 여주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한강을 驪江이라고 부르며 여강의 동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강남지역은 전형적인 여주평야로서 넓은 들과 야산이 잘 발달되어 있다.

여기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에 先入하신 할아버지는 大丞公 22世, 忠景公 8세인의 彦信祖이다.(吉孫의 贈孫子) 柳氏 계보를 보면 始祖 柳車達 1세 → 孝金 2세 → 金奐3세 → 盧一 4세 → 寶春 5세 → 寵 6세 → 公權 7세 → 澤 8세 → 璫 9세 → 陞 10세 → 仁琦 11세 → 甫發 12세 → 繼祖 13세 → 亮 14세 → 漢生 15세 → 纁 16세 → 道長 17세 → 子華 18세 → 吉孫 19세 → 日延 20세 → 聖會 21세 → 彦信 22세 → 山立 23세 → 光春 24세 → 命善 25세 → 松伊 26세 → 時泰 27세……在

浩 33세→承鉉 34세→濟一 35세 →智桓 36세 순이다.

吉孫 宗中에서 내려오는 내력을 보면 22세손인 彦信(通訓大夫 司僕寺 正, 정3품) 할아버지를 가리켜 옛어른들은 제일 높으신 조상님이었으므로 先大神 할아버지라고 하였다. 彦信祖의 비석이 세워진 년도가 강희 6년(현종 8년 1667년)으로 제일 오래되었고 그 후 52년, 59년이 지난 후 祖墓 20세 日延(禦侮將軍, 정3품) 와 父묘 21세 聖會(牧使, 정3품)에 비석을 세운 것으로 볼 때 彦信祖의 아들, 손자가 선대묘를 이장하신 것으로 추측되며 吉孫祖의 父가 되시는 18세 子華(忠義衛)의 묘가 광주 광역시 세동에 인점(무자보에 기재) 그 곳에서 옮겨 오신 듯하다. 실제로 옛 어른들이 19세 吉孫, 20세 日延, 21세 聖會祖는 남쪽에서 이장해왔다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길손 종중 부회장 홍현 증언)

광주광역시에서 1667년 즉 500여 년 전에 彦信祖(대승공 22세)께서 이 곳 여주로 오신 것은 현재 여주시의 발달과정을 본 것처럼 선견지명이 있지 않나 한다. 여주시는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릉(유네스코지정), 천년고찰 신흥사(강변에 위치한 유일한 사찰), 고려시대에 받았던 국가가 관장하던 대사찰 왕실의 비호로 국보 4호 고달사지, 보물 고달사 유적지, 비운의 황비 명성황후 생가, 여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파사성의 유적지와 특산물 여주 대왕님 쌀, 도자기, 고구마 등이 유명하며 교통의 요지이다.

500여년에 여주 유일의 집성촌인 문화류씨 충경공파 6세손 길손 종중은 많은 후손들이 사회에 진출하였고 특별히 1900년도에는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실을 신축하여 13위에 위패를 모셔놓고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에 재향을 모셔왔었다.



2016년에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어 재실의 명칭을 당시 문화류씨대중회 상임 부회장이신 翠石 滄鉉께서 작명을 承裕齋 “즉 선업을 계승하고 후생을 여유롭게” 해주시고

전 천안공종중 회장이시고 대중회 이사이신 충경공 19세 만은공의 후예 能菴 在豊님께서 휘호를 해주셔서 현판식을 시제일에 성대히 거행하였다.

휘 길손 종중 후예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도전리는 본래 강원도 원주군 강천면의 지역인데 고종 33년(1885년) 여주군에 편입되고 1914년에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탑전리(전고든리), 원심리를 병합하여 도촌과 전거리의 이름을 따서 도전리라 하였다.

한편 선대 묘를 모시고 있는 중암리는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에 2019년 4월에 문화류씨 대승공 18세 충경공 5세 子華의 단을 새로 조성하였다. 무자보(2008년)墓 광주시 細洞後山으로 기재되어 있어 충경공, 소윤공, 천안공종중 이하 만은공(子華의 父) 子儀(자화의 兄)의 묘는 잘 관리하고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에 성대히 제향을 모시고 있으나 子華祖는 墓조차 행방을 알 수 없어 광주지역에 저명하신 현종님께서 다방면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주시에 세동은 어느 지역인지 조차 알 수 없고 더욱이 子華의 長男 信孫의 후예도 찾을 길이 없어 400~500여 년 동안 후손으로써 도리가 아니기에 길손 종중의 후손들이 뜻을 모아 여주 아들 손자가 계시는 곳에



단을 만들어 모시고 10월 둘째 일요일에 13위 후손 위패에 봉안하여 제향을 모시자는 총회의 의결을 모아 子華의 후손인 능암 在豊 후손께서 다방면으로 자료의 고증을 거취. 비문을 [御侮將軍 忠義衛 文化柳公子華之檀 配淑人昌寧成氏]를 만들어 주어 2019년 4월 5일에 日延(20세) 손자위에 모셔 그동안 객지에서 방황하시던 조상님을 그 후손과 함께 모셔놓고 후손들이 정성을 들여 제향을 모시게 되어 늦게나마 조상님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어 후일 후손에게도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金川 柳世泓先生 行狀



서경 柳瑩奭

공은 문화 류씨로 휘는 세홍(世泓)이요 자는 심원이며 호는 금천이다. 호를 금천이라 함은 집이 금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승공 류차달이 공의 시조이고 우의정 좌명공신 부원군 충경공 량이 공의 6대조이다. 5대조는 충경공의 아들 경생인 바 관직이 한성판윤이며 고조는 그의 아들 반곡공적인데 관직이 호군이요, 조부 인상(麟詳)은 관직이 어모장군이다. 부 희필(希畢)은 관직이 판관이고 모친은 진양 류씨(晉陽柳氏)로 부사직 향정의 따님이다.

공께서 가정병신 1536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나고 성숙하며 의젓한 면모가 있어 사람들의 그의 기량이 우월함을 알았다. 6~7세에 독서와 서예에 능하였고 부모를 섬김에 한결같이 순종하고 지극하였으며 안색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성인이 된 후에는 말씨는 충직하고 행동은 돈독하며 학문은 뛰어나고 준수하여 여러 벗으로부터 추앙과 존중을 받았다. 과거에 여러 번 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현의 학문을 깊이 깨달아 주야로 여러 방면의 서책을 탐독하며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며 제한과 더불어 토론하고 연마하며 쉬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대개 공의 학문은 여사에서 구하고 사숙에서 얻었다고 하겠다.

역양 정유명과 고산 조효박이 칭찬하기를 “마음이 착하고 의지가 강하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다.

공이 58세때(선조 26년 1593년) 부모상을 연달아 당했는데 시종일관 한결같이 예절에 따라 정성을 다해서 손색이 없었다. 상중에는 죽만 먹었는데 죽도 쌀로 쑤

죽은 먹지 않고 잡곡과 나물죽으로 끼니를 때웠으며 맛있는 과일도 먹지 않았다.

아무리 매서운 추위나 삼복더위에도 하루도 성묘를 거르지 않았으며 성묘길에는 우마를 절대 타지 않았고 기력이 쇠약하여 넘어져도 슬피 애고하니 그 정경을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3년상을 마친 후에도 몸이 무탈함을 보고 사람들이 효도에 감복해서 하늘이 건강을 돌봐준 것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 병란에 시달린 사람들이 몹시 곤궁해지고 흉년이 겹쳐서 굶는 자가 많았는데 공이 곡식과 재물을 털어 구원해주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활력을 얻었다.

정유왜란 시 왜구가 침입했는데 이때 공의 나이 62세였다.

임금을 위하는 충성심과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늙어도 더욱 돈독하여 현감 존재 광준공과 함양군수 대소현 조종도 공과 함께 황석산성에 들어가 죽음으로써 굳게 지키기를 맹세하였더니 뜻밖에 김해부사 백사림이 출전대장으로 제나라를 팔아서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왜구와 내통하여 야음을 틈타 성문을 열고 어둠속으로 급하게 공격해오니 막을 수 없었다.

이 때 공의 두 아들 강(樞)과 가(榎)가 공의 뒤에 있었는데 공이 두 아들에게 명하여 “너의 어머니를 업고 성 밖으로 나가라.”하니 두 아들이 공도 함께 나가기를 청하나 공이 말하기를 사세가 시급하니 너희들은 속히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하니 강과가가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울면서 같이 가자고 청했다.

공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 능히 나라를 위해 힘써 오랑캐를 막지 못하고 불행히 역적의 그릇된 바가 되었으니 살아서 또한 무엇하겠는가. 나는 죽기를 이미 결정했노라” 했다.

아들 강이 울부짖으면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이미 나라를 위해 죽을 충심이 있는데 자식이 어찌 아버지를 위해 죽을 뜻이 없겠습니까.”라고 했다. 잠시 후 적군이 쳐들어와 공에게 칼을 겨누니 아들 강이 힘써 아버지를 보호하며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아깝게 부자 다 함께 순절하시었다. 때는 선조 30년(1597년) 8월 18일이다.

둘째 아들 가는 나이 어려서 자력으로 아버지와 형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다가 왜구가 물러간 뒤 지족당 박명부가 공의 부자 시신을 수습하여 석반동 참판에 올랐다.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세상 사람들이 공의 집안에 충효가 쌍전함이 광존재의 집과 같다고 하였다. 이 사실은 동계 문강공 정은 선생의 글과 안의 읍지 외 여러 서적에 기록되어 있다.

아! 공께서 중하게 여긴 것은 의이고, 강이 중하게 여긴 것은 효이다. 아버지는 의에 죽고, 아들은 효에 죽었도다. 또한 죽음에 대한 회한이 없으니 공의 부자는 이른바 정의를 위해 죽고, 죽음을 지키면서 도를 믿는 자가 아니겠는가.

추나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바요, 의도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이니 이 두가지를 겸하지 못할진대 사는 것을 버리고 의를 취하라”라고 하셨으니 사생취(삶을 버리고 의를 취함)의 가르침을 누가 배우지 않았겠느냐마는 죽고 사는 갈림길에 있어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 구차하게 살기를 도모하지 않았으니 이는 평소 학문의 힘과 정의와 의리에 강했기 때문이다.

천년 이래 사람들을 상고해 보면 큰일에 임하여 큰 의를 결정할 때 생사의 이해로서 마음이 꺾이고 빼앗기지 아니한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옛사람의 충과 효는 문헌을 보면 상고할 수 있는데 충과 효가 한집에 쌍으로 겸비한 집은 거의 드물다. 그러므로 왕기의 아버지도 이와 같이 못하였고, 장순과 허원의 아들도 이와 같지 못하였다. 이 어찌 작은 황석산성에서 충효와 의열이 이같이 많이 있을까.

광란의 오랑캐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칼과 창이 삼엄할 때 몸을 던져 처자식을 보호하려 하지 않겠는가마는 공이 홀로 창이 삼엄할 때 몸을 던져 처자식을 보호하려 하지 않겠는가마는 공이 홀로 곽준과 조종도 두 의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굳은 절개로 목숨을 버렸으니 의에 용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공의 평소 학문의 힘과 보고 얻은 그의 지조를 가히 알 수 있겠도다. 아! 공이 세운바 충의는 당시 군자에 못지않았는데 배향하는 것은 유독 다른 사람보다 뒤에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내가 서글픔을 금치 못하겠노라.

일찍이 고을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황암사를 창건하던 날 공의 신주를 모시려고 열읍에 통문이 있었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 당시 공의 논의를 못했다 하니 어찌 후생들이 팔을 걷고 탄식하고 의분했던 바가 아니겠는가.

아! 공의 아름다운 말씀과 보배로운 저술이 병란 중에 소실되고 글 한자 말 한마디도 후세에 전하지 못했으니 애석함을 금할 수 없도다. 공의 배위는 진양류씨이니 부장 희춘의 따님이다. 2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 강은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고, 차남은 가 이고 딸은 유의감의 아내이다. 가가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덕신이고 딸은 사인 이항길의 아내이다.

이하 자손은 다 기록할 수 없다. 미천한 내가 류씨 족보 중에 공의 언행과 의열이 이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고 바람 불고 비오는 밤이면 언제나 그 당시를 상상하며

감동하지 않을 때가 없다. 지난 기해년(숙종 25년, 1719년) 에 고을 선비들이 안의현 북쪽 황산 아래에 학림사를 세우고 공(금천공)을 권삼 괴당(권시민) 조죽현(조숙) 강박약재(강위룡) 광원암(광인) 우난곡(우석일) 다섯 선생과 함께 배향하였으니 이것은 소위 천년토록 공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처음에는 몇몇 분과 함께 황암사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셋 중 두 가지를 능히 다하였다. 아버지를 섬김에 생사장제를 예로써 하였고 임금을 섬김에 비록 가까이서 헌신하는 일은 없었으나 대대로 벼슬하고 받은 은혜가 매우 두터움으로 죽음으로써 다한 것이다.

사는 것에 급급하여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아버지와 임금을 배반하는 자가 공의 충의로운 풍문을 듣는다면 이마에 땀이 나고 부끄러워 낮이 뜨겁지 않겠는가.

공은 또한 백세의 스승이라 할 것이다. 공의 6세손 정화씨는 즉 나의 빙장인데 나에게 행장 짓는 일을 명하니 돌아보건대 식견이 부족한 내가 어찌 그 문헌 빛과 숨겨진 덕을 알아서 하나라도 더 빛나게 선양할 수 있겠는가. 감히 감당키도 어렵거니와 사양하기는 더운 어려워 족보에 기록된 선배들의 믿을만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와 같이 기록하노라.

갑진 1724년 11월 하순 영양 최연중 근장

서기 2017년 1월 서경 류영석 근역

孝子 忠義衛 柳 檀 旌閭

서경 류영석

공의 자는 壽甫요 본관은 문화이며 우의정 충경공 량의 7대손이고 아버지는 世淵이고 호는 金川이며 한림서원(위천면)에 봉향되었다.

공의 지극한 효성은 선천적인 천성을 타고 났으며 어려서부터 향리와 이웃 사람들이 감탄하였다. 문장은 육체(詞, 賦, 表, 策, 論, 疑)를 통달하였다.

조예 즉 학문이 경지에 올라 점차 높아지니 명성이 주위에 떨치고 학문이 경지에 이르렀다.

정유왜란(1597년, 선조 30년) 때 금천공이 안음현감 곽준과 함양군수 조종도와 황석산성으로 들어와 죽음을 맹세하고 성을 지켰으며 공(류강)도 부친과 같이 8월 18일에 죽음을 맹세하고 성을 지켰다.

밤에 김해부사 백사림(황석산 성주) 이 뇌물을 받고 적군을 몰래 끌어 들이니 흉악한 적의 예봉을 막지 못하였다.

공께서 모친 진양 류씨(晉陽柳氏)를 업고 동생(가)을 데리고 성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아버지 세홍께 같이 나가자고 울면서 간청하였으나 아버지 세홍께서는 굳게 앉아 허락을 하지 않고 “나는 이미 죽기를 맹세하였다.”고 말씀하시니 공이 말씀하기를 아버지 마음이 이와 같으니 아들인 나만 홀로 살 수 없다고 하셨다.

이때 적군이 세홍(부)과 강에게 칼을 겨누고 들어와 공이 힘써 아버지 세홍을 보호하며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순절하시니 이때 공의 나이 29세였다.

한집안에서 부자 둘이 나라를 위하고 아버지를 보호하려다 절사함은 곽준(안의현감)과 조종도(함양군수)와 더불어 같다고 정동계 정문의 글과 박참판의 기록에 자세히 나타난다. 3년 후 선조 33년(1600년)에 자랑스런 정려가 내려와 사당을 지었다.

그 후 200여년이 지난 순조 6년 병인(1806년)에 사당에 불이 났다. 다음해 순조 7년 정묘 여름에 사당이 넘어지자 오대손 정화가 여러 종친들과 상의하고 정성을 다 하였다. 주관한 사람은 방여이다 건립자금을 모으고 석공을 초청하여 돌로 집을 짓고 판도 비석으로 합은 장차 화재를 염려해서이다.

비석을 세우고 말하노라. 황석산이 뽑히지 않는 한 금천수(세홍)도 마르지 않을 것이요, 공의 이름이 열렬하여 물도 능히 삼키지 못할 것이요, 불도 능히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슬프게 감탄해야 할 것이다.

승정기원후 3(1807년) 정묘 5월 중건
서경 류영석 조역



三·一運動과 居仁 柳震玉



大丞公33世 柳在澗

巴里長書와 居仁 柳震玉

公의諱는震玉이요字는元振이며號는居仁으로大丞公車達의32世孫이요左相公曼殊의19世孫이요文城君洙의17世孫이요水使愼翁壙의15世孫이요拙翁耆壽의雲(9世)孫으로아버지致永과어머니光山金氏와의사이에서高宗16(1879)年2月26일金海外洞에서태어났다.

天性이寬仁敏達하고文學과操行이고을의推重하는바가되었다.

庚戌(1910)年國恥를당하자榮達을바라지않다가1919年三·一運動이일어나全國의儒林代表가巴里講和會議에獨立請願하는長書を提出할때전국대표137人이서명하였는데金海代表로盧相稷,安孝珍과함께公이그중의한분이다.

그후이사건을연유로日帝의탄압아래公역시검거되어대구감옥에서3개월의獄苦를치르고집행유예2년으로석방되었으나그후로도일본경찰의要監視인물로지목되어행동이제약되었다.

公은승조정신이투철하여선조拙翁公의遺稿를간행하였는데당시嶺南의巨儒들로부터글을받아완성하고조상의유업을널리선양하였다.

公은文學과操行으로임향의추종을받았으며,詩,書,記등遺稿3권을남겨전하고있다.

戊辰(1929)9月7일에享年50歲로별세하시니居昌郡南下面大也里重介川後麓癸坐에안장되었다.

배위昌寧曹氏는四友堂繭樞의후예로落厓昊承의따님이다.一男三女를두니아들은冀烈이며사위는金海許濤,淸州宋斗復,密陽朴基文이다.

아들冀烈은字顯必이요,號는藥山인데역시庭訓을받아종친간에우의를독실히



하고 특히 지난 乙未(1995)년에는 자기 집에 譜所를 차리고 각처에 연락하여 安襄公 派譜를 간행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門中 都有司로써 慕裕亭을 건립 하였다.

선조 慶山縣令 緒宗과 그 아드님 津의 묘소가 일찍 失傳되었는데 弟族과 함께 說壇에 향사를 받드는 등 제반 爲先事業에 심력을 경주하였다.

三男 二女를 두니 아들은 在文 在景 在燮이요 딸들은 출가하였다.

文城世稿 八相圖 萬恩錄등 遺稿가 있다.

을묘(1999)년에 建國褒獎章을 추서 받았다.

乙未(2015)년에 경남 김해시 내외동 연지 공원 內에 巴里長書 기념비를 金海市에서는 건립하여 기리고 있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한국 유럽대표 곽종석 김복한 등 137명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편지인 長書를 쓰고 김창숙 등 10명은 중국 상해에서 편지를 3개 국어로 번역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평화회의장으로 보낸 독립운동을 말한다.

이 장문의 편지에는 일제의 한국 주권 찬탈 과정을 폭로하고 식

민 지배의 불법성과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담아 한국의 모든 계층과 사회집단이 독립을 열망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항일독립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파리장서 사건’을 되새기는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가 김해 연지공원에 세워졌다.

김해문화원은 1919년 김창숙 곽종석 김복한을 중심으로 한 유림 인사 137명이 파리평화회의에 항일 독립탄원를 보낸 일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하거나 고초를 당한 ‘파리장서’사건의 김해대표 4인을 기리는 파리장서 기념비를 연지공원에 세우고 지역인사 유림 후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유림독립운동 파리장서비”제막식을 2017년 3월 2일 거행했다.

파리장서 기념비에는 김해대표로 서명한 애국지사 노상직(1855~1931, 생림면 금곡, 건국포장 추서) 류진옥(1879~1928, 김해시 외동, 건국포장 추서) 안효진(1879~1946, 진례면 곤법, 건국포장 추서) 허평(1882~1929, 건국포장 추서) 등 4위의 공적이 기록돼 있다.



獨立有功者 柳子明



大丞公 33世 夏谷 柳 在 均

1. 류자명 약력

본관은 문화(文化). 충경공 류량(柳亮)의 후손으로 조부는 계원이며 父는 류종근(號洲村,묘갈명 대사성광산金龜洙撰) 형제는 흥수이고 자녀는 기용 기종 기립(일명 展輝, 후난대교수) 득로(북경대교수), 손자녀는 인광 인호 인탁 인상 경자 인각 인문 인국 근식 사천이다.

1894년 충청북도 충주 출생으로 본명은 류흥식(柳興湜, 대승공 29세) 호는 우근(友權)이며 본명보다 ‘류자명’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수원농림학교(1907년 수원농림학교 수원 이전되고 1922년 3월에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를 졸업하고 1914년 서울에서 “청년외교단” 조직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충주 간이농업학교 교사(25세)로 학생 시위를 준비하다가 일본 경찰에 사전 탐지되자 중국상하이(上海) 망명한 후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충청도 대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20년대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이회영 김창숙 신채호 등과 함께 활약했는데 이때부터 무정부주의 노선으로 1923년 신채호의 의열단선언 “조선혁명선언” 기초를 집필하는 등 아나키즘(정치 조직이나 권력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애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 이론가이며 탁월한 어학 실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독립 운동계의 일급 참모였다.

1924년 나석주의 소개로 1919년 발족하여 북경으로 옮긴 의열단장 김원봉의 “비밀 참모”가 되어 국내의 일본인과 친일파 처단 활동(2천명 단원중 1927년까지 체포 처형 당한 단원 700여명 : 2010년 기밀 해제된 영국 비밀문서)하였으며 1927년 “조선혁명 자연맹” 간부로 활동하며 무창 입달학원에서 강의하며 교장을 지냈고 중국 국민당

거물급 인사들과 교류하며 항일 독립투쟁을 위한 연합전선을 떠나가면서 한국 청년 다수를 난징(南京)군관학교에 입교시켜 한국인 장교를 양성하는 일을 하였고 김규식이광제 무광루(睦光錄중국인) 등과 함께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를 조직하여 한국 책임자가 되어 기관지 “동방민족”을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발행하여 발송하고 비밀지부를 설치하는 등 제반 공작을 추진하였다.

1929년 7월 김종진이 무정부주의 운동의 거목인 이회영의 영향을 받아 만주 북부 지역에 결성된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이 상하이로 철수하면서 개편하여 김종진과 신민부 대표 김좌진이 협의한 합작단체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하였다.

1930년1월 김좌진이 피살된후 상해 강만농업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류기석 장도선 정화암 정해리 안공근 등과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하였으며 1931년에는 중국인 이석중 노신 등과 협력하여 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상하이 지부를 조직하여 그 부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무정부주의자 류기석 등과 “불멸구락부”를 조직해 활동했다.

1931년 10월에는 류자명을 의장 겸 대외책임자로 선출하고 산하에 “남화구락부”를 설치하여 선전 작업을 담당했으며 남화한인청년연맹(흑색공포단)은 연구 토론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아나키즘 이론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기념일 격문을 살포하여 재 중국 한국인 청년들에게 아나키즘을 선전하고 국내청소년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하였고 1936년 중국군과 협력해 “전시공작대”의 일원으로 항일전의 제1선에서 전투에 참가하였고 무정부주의자 훈련소인 민단훈련소의 참모 이우관 등과 무정부주의자연맹 상해부에서 친일파 유길명에 대한 처단을 시도하였다.

1942년 약헌개정기초위원회에 이어 1943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 학무부 차장을 지냈고 해방 이전까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고 중국 국민당의 거물급 인사와도 꾸준히 교류하며 항일독립운동 연합전선을 떠나갔으며 1944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제5차 개헌에 앞서 조소앙 최동오 신영삼 등과 7인 헌법기초위원을 맡아 일하였는데 그는 이때를 제외하고는 표면에 나서 활동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제의 수괴급을 암살하거나 일본의 공공기관을 파괴하는 작전의 배후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45년 광복 후 귀국하려고 자유중국(대만)에서 홍콩으로 왔으나 6·25전쟁이 일어나 중국으로 되돌아가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에서 대학 교수생활을 하면서 윈난(雲南) 고원지대에서 최초의 특수 벼 재배에 성공하여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만년에 후난농업대학 원예학과 명예주임으로 중국 원예학회 명예 이사장에 추대되었다.

1978년 북조선에서 3급 국기훈장을 수여받고 1991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

장 애국장을 추서받아 남북 양 체제에서 동시에 인정받은 독립 운동가가 되었다. 유해는 노무현 정부에서 봉환해 왔고 국립대전현충원에 한국인과 중국인 부인이 함께 합장되어 있다.

저서로 자서전 “한 혁명자의 회고록”(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년 료녕인민출판사 간행)이 있고 회고록 “나의 회억”이 있으며, 전기로는 “행동하는 지식인 류자명 평전(원제 “불멸의 지사 류자명 평전”)이 발간되었다.

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성명 : 류자명(柳子明)

계급 : 애국장

신분 : 애국지사

묘소위치 :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2묘역-964

출생/사망 시기 1894. 1. 13/1985. 4. 17

출생/사망 지역 충북 충주/중국 호남성 장사시

1919년 상해에서 의정원(1) 충청도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나석주(2)의 소개로 의열단에 가입하여 항일활동 전개

1927년 김규식(3), 이광제(4), 안재환(5) 등과 함께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를 조직하였고 조선 혁명자연맹에서 간부로 활동

1930년 교사로 재임 중 장도선, 정해리 등과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하였고 류기석(6), 정치화 등과 불멸구락부를 조직하여 활동함(7)

1933년 일제 앞잡이 유길명(8)의 암살공작을 지휘함

1943년 임시정부 학무부차장(9)으로 활동하였고 광복시까지 임시정부 의정원의원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함

1968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대전현충원묘적부」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 676~677」

3. 독립유공자공훈록 주석(註釋)

※주(1) :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국내외 독립운동가 29명이 모여 임시의정원(초

대의장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 현국회)를 개원하고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명하고 헌법제정(임시헌장)과 정부관제와 국무원 선출함.

※주(2) : 나석주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의열단원, 義烈團은 독립운동단체로 1926년 12월 28일 동양척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함.

※주(3) : 김규식 :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함.

※주(4) : 이광제 :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뒤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여 천도교대표부에서 활동하였고 1926년 장제스(蔣介石) 총사령부에 근무함으로써 중국국민당 요인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으며 1927년 2월 김규식 류자명 안재환 및 중국인 무광뤼(陸光錄) 왕타오바오(王條堡)와 인도인 간타싱 비신싱 등과 함께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를 조직하고 한국대표 및 상무위원으로 활동함.

※주(5) : 안재환 :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회장 김규식) 한국부상무 철혈단 단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주(6) : 류기석 : 상하이에서 1930년 4월 류자명 장도선 정해리 안공근 등과 함께 남화한인청년연맹, 을 결성함.

※주(7) : 1931년 만주사변이후 한인애국단에서 1932년 1월 8일 사쿠라다문(櫻田門) 앞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한 이봉창과 4월 29일 윤봉길이 상해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거행된 천장절축하장에 폭탄을 던진 활동과 류자명은 별개로 활동함.

※주(8) : 유길명 : 1933년 3월 17일 주중일 공사 유길명(有吉明 아리요시아키라) 등의 상해 “육삼정” 식당에서 폭살하려다 실패한 해외 3대 의거(윤봉길의거 이봉창의거 육삼정의거) 당시 일본은 이 육삼정 식당 연회를 통해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거액의 뇌물로 주고 만주 일대의 독립군 근거지를 장악하려는 거래를 시도한 정보를 입수한 독립의열단체인 남화한인청년연맹(흑색공포단)은 일본공사를 폭살하려고 준비했지만 밀정에 의해 거사가 발각돼 백정기 이강훈이 체포되어 실패함. 육삼정 의거는 실패로 끝난 작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와 일본과 밀약이 드러나 중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국민당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고 중국내 항일연대전선을 형성하는 등 한국과 중국의 항일투쟁사에 빛나는 사건임. 이 육삼정 의거는 우당 이회영, 백야 김좌진 등 27명이 거사를 지원했고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은 12명으로 이중 충북 출신 분들은 세 명으로 제천 이용준, 충주 류자명, 진천 박기성 선생임.

※주(9) : 임시정부 학무부차장(현교육부차관,1943,3,14-1943,5,24) 대한민국 임

시 정부의 각료 명단은 류홍식으로 기록됨

4. 류자명 의열단 방영

KBS “그날”(2019년 7월 7일 오후 9시 40분)

천하의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의 의열단(義烈團).

그들은 폭탄과 권총을 들고 강도 높은 암살 파괴 활동을 벌이며 일제에 맞섰다.

의열단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의열단장 김원봉이지만 그의 뒤에는 숨은 조력자들 중 한 명이 의열단의 핵심 참모이자 숨은 전략가였으며 실제 일을 한 사람은 아나키스트 류자명이다.

영화 “암살, 밀정”을 통해 ‘의열단’과 그들의 활동기는 많이 알려졌지만 의열단이 아나키즘 계열 단체라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잘 모른다.

조국의 독립만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싸웠던 류자명이 한일은 사상적으로 의열단 투쟁 정당성 확보, 일본 고관암살(7가살)과 기관폭파(5파괴) 직접 기획, 거사 실행에 주체적 역할을 하였다.

의열단의 7가살(可殺)은 조선총독이하 고관, 군부수뇌부, 대만총독, 매국노, 적의 밀정, 친일파 거두, 반민족적 토호열신이며 5파괴(破壞)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왜적 주요기관이다.



상해 의열단 류자명



후난대학 교수 류자명

신채호와 한 달간 합숙하며 조선혁명선언 집필한 류자명의 조선혁명운동은 마르크스주의도, 무정부주의도 아닌 자주독립국가로 정치권력 종교 소유욕으로부터 해방이 아나키즘이고 아나키즘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했다.



대전 현충원 류자명 묘역



후남대학 류자명 흉상

5. 독립유공자 류자명 후손(손자 류인호) 근황

[45회 강원보훈대상 수상자] 특별 부문-류인호씨 2019-6-13(목) 강원일보21면 기사
류인호(81·원주)씨는 항일독립운동원주기념사업회장에 취임한 이후 애국지사 박봉수 선생의 국립묘지 이장을 유족과 함께 추진해 귀감이 됐다. 고령의 광복회원들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회원들을 위한 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 독립운동가의 선양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강원보훈대상 심사위원회는 특별 부문에 전 무공수훈자회 도지부장 류인호(81·원주)씨를 수상자로 확정하고 시상식은 6월 26일 오후 2시이다.

강원일보사는 1975년 강원보훈대상을 제정 강원서부보훈지청과 강원동부보훈지청 등의 후원으로 매년 6월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6. KBS1TV 7월 28일 오후 4시 5분

“ 류자명 영원한 조선인” 방송 내용

의열단의 첫째 척결 대상자가 밀정으로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밀정에 의해 조선의 독립에 저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류자명은 1937년 중일 전쟁이후 좌우로 나누어진 독립운동단체들에게 “조선민족전선” 창간사에서 “우리들의 연합전선은 공고히 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양민족의 연합전선을 완성하자”고 제안하고 추진하여 김구 김원봉이 “동일한 적 앞에서 동일한 정치 강령에서는 한 조직원의 구성이 된다”라고 합의하여 1919년 상하이임시정부에 이어 1940년 중경임시정부에

서 1942년 통일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성과를 올린 류자명입니다.

1940년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임시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도입하여 3월 13일 주석에 김구를 옹립합니다. 5월에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고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9월 17일에 중국 국민당 지원을 얻어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조직했습니다.

1941년 11월 28일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했고 일제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12월 10일 대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942년 사회주의 계열인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총본부를 이끌고 중경으로 와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습니다. 광복군은 이후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 공작 활동을 수행했으며, 미국 OSS(미군 전략 정보처)와 합동으로 국내진 공작전을 실행하려 했으나 일제의 조기 항복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는데 류자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44년 개헌을 통해 이들이 내각과 임시의정원에 진입하여 좌우 동거 정부를 구성합니다.

한편 이강훈이 1933년 3월 17일 상해 “육삼정” 식당에서 폭살하려고 가면서 류자명 자동차에서 죽은후 지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1983년 이강훈이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실무자로 북경에서 조선일보에 류자명 기사를 읽고 보낸 편지가 소개되었고 손자 류인호님께서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것을 대비해서 할머니가 이사를 가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중일전쟁후 좌우로 나누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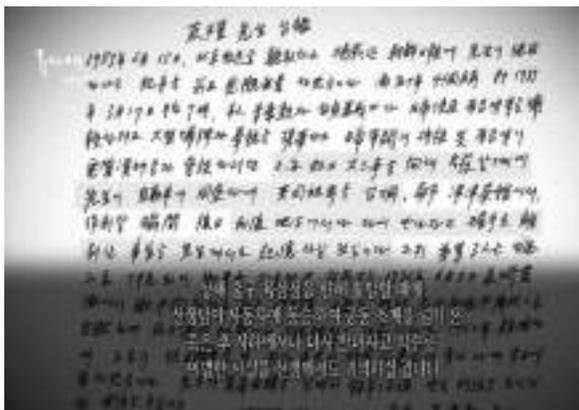
1938년 류자명은 좌우 연합전선을 주장함



1939년 좌우 각진영 수장 합의



1942년 하나의 좌우 정부 탄생



1983년 이강훈이 1933년을 회상하며 보낸 편지



류자명 손자 류인호님

서경 柳瑩奘 약사



문화류씨 서당평종중 회장 柳 采 垠

공은 충북 보은군 회남면 서당평(서탄리 74번지) 조중봉 터에서 서기1934년 갑신 정월 초 3일 진시에 휘 류춘환과 보성오씨 사이에 2남 4녀중 막내인 2남으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곳이 비록 교통이 불편하고 산간벽지 이기는 하나 조상님들께서 대대로 거주하였으며, 그들의 열이 스며있고 공께서 태어나 희망찬 꿈을 품고 자랐으며, 결혼하여 자녀들을 기르며 살던 곳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아늑한 곳이었다.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이 되면서 호수로 둘러싸여 왕래 할 수가 없게 되자 부득이 서당평 류씨들은 정든 터전을 뒤로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고 선조의 묘지는 대부분 분저리로 옮기게 되었다.

당시 대학생은 극히 드물어 1개면에서 1~2명 정도였다.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계에 뜻을 두고 활약하여 국회에 진출하려고 무한히 노력하였다.

거의 소망이 이루어지려 할 때가 가장 희망과 꿈이 많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 무지개 같은 꿈은 5.16혁명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부득이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1956년부터 1966년까지 시골(계머운)에서 거주할 때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못한 청소년 16명을 모아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한문 및 도의 교을 열심히 지도 하였다.

수년간을 쉬지 않고 계속하여 지도하다보니 은연 중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말끝마다 욕설과 거칠던 말씨가 부드럽고 고운 말씨로, 거칠고 사나운 행동이 의적하고 점잖은 태도로, 무질서한 말씨가 조리 있는 언사로 바뀌고, 당시 국·한문 혼용으로 된 신문을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읽을 정도였다.

교육계에 진출하면서 회남초등학교, 보덕중학교, 보은중학교, 회인중학교 등 주로

충북 보은 관내에서 근무하며 다른 반 보다는 공의 담임반이 타 과목보다는 공께서 지도하는 과목 성적이 조금이라도 높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과 후 하루 한시간씩 꾸준히 지도한 결과 충북도내 일제 고사에는 교과목 성적이 4~5점씩 상회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회인중학교 3학년 3반 담임할 때에는 담임반 전원이 고등학교 시험(당시에는 고교 입학시험 경쟁률이 심하였던 시기임)에 합격하여 개교 이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학생지도에 열중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께서 아시고 당시 5년마다 순환 근무토록 되어 있는 것을 8년간이나 유임 근무토록 하여 주었다.

교육계에 근무할 때 연구 논문으로는 소리가 나는 대로 글로 적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발음하는 대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한글로 표기 못할 음가의 개요”를 연구 논문으로 제출하여 수상하기도 하였다. 교육계에 근무하는 동안

표창장 제 1539호 보은군수로부터 수상하였고

표창장 제 210호 보은군 교육장로부터 수상

표창장 제 648호 보은군 교육장로부터 수상

표창장 제 6781호 충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수상

표창장 제 507호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수상하였다.

일신상의 사정으로 교육계를 떠나 1980년 2월 25일자 체신부산하 구즉 우체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오직 구즉 주민과 우체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다는 자세는 21년간을 꾸준히 봉사하며 근무하였다. 결과 전국 780개 별정국 중 모든 성과가 최하위에 맴돌던 구즉 우체국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제 1위로 부상시켰다.

여건이 좋고 쟁쟁한 일반국과도 견주어 추종을 불허할 만큼 단연 선두에서 꾸중이나 채찍 대신 상장과 상금을 타고 칭찬을 받아가며 전진하였다.

1980년대만 해도 전화가 귀해서 급한 일이 발생하면 전보를 쳐서 급함을 알리던 시대이던 만큼 전화 보급이 별로 되지 않았다. 당시 대덕군 구즉면 전체에 전화 설치는 불과 70여대뿐이고, 전화 취급소도 10여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982년부터는 전화 취급소를 40여개소로 늘려서 충청남도 전체중 1개면에서 전화 취급소가 40개인 곳은 구즉면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전화 취급소를 늘려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대전시 변두리 지역 당시 대덕군 동면, 흑석면, 진잠면, 산내면, 탄동면, 구즉면 중 구즉면이 전화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경하는데 제일 먼저 하였고, 전화도 급속도로 보급되어 수십대에서 수백대로, 수천대로, 수만대로 폭증하게 되었다. 이렇

게 되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0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매년 1회씩 구즉관내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여 무료 배부하였다. 지금까지도 당시 발행된 전화번호부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있다.

결과 퇴임할 때까지 장관상을 비롯하여 체신청장상, 감독국장상, 별정국중앙회장상 등 다수 수상하였고 감사패는 부지기수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대충 기록해 보면,

감사장 제260호	1981년 10월 5일	대덕군수상
상 장 제125호	1984년 6월 16일	체신공무원 교육원장상
표창장 제36호	1984년 7월 1일	충청체신청장상
표창장 제1720호	1984년 12월 13일	체신부장관상
표창장 제184호	1985년 10월 30일	충청체신청장상
표창장 제121호	1986년 11월 12일	충청체신청장상
표창장 제8호	1986년 8월 7일	충청체신청장상
표창장 제17호	1988년 8월 25일	충청체신청장상
표창장 제66호	1990년 12월 31일	충청체신청장상
공로패	1995년 10월 30일	별정국 중앙회장상
표창장 제11호	1997년 3월 26일	정보통신부장관상
표창장 제96호	1997년 12월 31일	충청체신청장상
표창장 제13호	1999년 3월 24일	별정국 중앙회장상
표창장 제28호	1999년 8월 1일	충청체신청장상
표창장 제1133호	2000년 4월 22일	정보통신부장관상
표창장 제33호	2000년 5월 1일	유성 우체국장상
공로패	2000년 5월 31일	별정국 중앙회장상
공로패	2000년 5월 31일	대전우체국전직원
공로패	2000년 5월 31일	별정국 충남도회장등이 있고,

이하 공로패는 생략한다.

이렇게 바쁘게 근무하면서도 틈을 내어 도의심이 땅에 떨어지고 영리에 만 눈이 어두워 동분서주하며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살인 등등 이런 세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화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지간에 우애있게, 부부간에 화합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하여 미풍양속

이 되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우체국 운영에도 힘겨웠으나 틈틈이 시간을 내어 송강초등학교, 동사무소(부녀회), 세진학원, 보덕초등학교 70여명과 그 외 50여명이 4,5,6급 한문자격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구즉 우체국은 1966년 9월 1일 충청남도 대덕군 구즉면 소재지인 봉산리에 개설하여 30여년이 지나다보니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체신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구즉면이 대전시로 편입되어 송강동이 개발되면서 구즉동 중심이 봉산리에서 송강동으로 되고 인구도 구즉면 전체 7천여명에 불과 하던 것이 구즉동으로 되면서 4~5만 명으로 급증하여 봉산동 우체국 국사로는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 송강동 공공부지 178평을 매입하여 1995년 1월에 국사를 건축하기 시작하여 9개월여 만에 지상2층, 지하1층 총 150여평 규모로 온라인 등 최신시설과 각종 비품을 고루 갖춘 현대식 건물을 건축하여 준공을 보게 되었다.

1995년 10월 30일 오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구즉 우체국(국장 류영석) 청사 앞에서 배재열 별정 우체국 중앙회장, 이교용 충청체신청장, 송석찬 유성구청장, 유성감독국장, 각급기관장, 내외귀빈 및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즉 우체국 신청사 준공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공은 회남 초등학교 재학시절부터 한문선생을 집에 모셔놓고 한문을 배우게 되었다. 식전 일찍 선생님께 글을 배우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등교를 하는데 서당평에서 금강을 건너 다랑벌 고개를 넘고 영당 냇물을 건너 7km나 되는 학교에 가서 6시간 수업을 마치고 해가 질 무렵 귀가하여 식전에 배운 것을 읽고 쓰고 열심히 배우셨다. 결과 다른 사람 배운 것 까지도 알게 되어 옆에 사람이 통감 초권을 배우면 초권은 남이 배우는 것 보고 알고 통감 둘째권을 배웠다. 이런식으로 몇 년동안 한문을 배웠다. 당시 서당평에서는 류씨들만 거주하는 집성촌이었다. 산간 벽지 중 가장 벽지인지라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우리 서당평에서는 대종계, 소종계 소종계중에서도 각파별로五代조계, 고조 할아버지계, 할아버지계, 상여계, 혼구계 등 수십 개의 조상을 위하고 부락을 위하여 하는 계가 있었다.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종종 어른께서 기록하라는 대로 쓰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종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종사일을 보게 된 것이다.

종중일을 보면서 서당평 문화류씨 선조축문 180부를 발간하여 무료 배부하고(이하

별도 보관) 문화류씨 서당평계보 180부를 발간 배부하고(한글로 현대식 횡으로 전국 최초) 문화류씨 서당평계보(가정보, 기사보, 경신보, 을유보, 정사보, 충경공파보) 300부를 발간 배부하고 서당평의 유래와 성당평 문화류씨의 유래를 정립하고 서당평 문화류씨 세계를 200여부 발행 배부하고(두루마리식) 문화류씨 충경공파보 원고를 작성하여 서울 발행소로 송부하고(원본 보관) 서당평 선조 산소를 분저리 82-2번지로 전체 이장하는데 주관하였고, 서탄리 산 1-1 내의 800여평을 찾아 가난하고 산이 없는 분들이 산소를 쓰게 마련 하였으며, 서당평 문화류씨 유래 입향조, 만필 그 외 7~8건을 회인 향교지에 처음으로 수록하였다.

서당평 우리 문화류씨는 종중 설립이 되지 않아 종토, 종산, 종전을 관리하는데 불편이 많았으나 어렵게 다음과 같이 종중을 설립하였다.

서당평 문화류씨 대종회 설립(언 이하 초형까지)하고 서당평 문화류씨 총광공파종회 설립(충대, 광석)하고 서당평 문화류씨 군성공파종회 설립(봉익)하고 서당평 문화류씨 계화공파종회 설립(만근, 세종)하여 가가호호 분배하였다.

서당평 문화류씨 대종회 회칙을 만들고 서당평 문화류씨 총광공파 회칙을 만들고 서당평 문화류씨 군성공파 회칙을 만들고 서당평 문화류씨 계화공파 회칙을 만들었다.(보은군청에 제출)

대소 종중 임야 및 토지 전체가 개인 명의로 되었던 것을 한 필지도 빠짐없이 전체를 종중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으나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완결되었으며, 특히 서탄리 산 1-1번지는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명의자들의 비협조로 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이전하였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종중명의로 이전에 따른 어려웠음을 알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지번, 지적, 지목 등을 총망아하여 서당평 문화류씨 대종회 부동산집 서당평 문화류씨 총광공파종회 부동산집 서당평 문화류씨 군성공파종회 부동산집 서당평 문화류씨 계화공파종회 부동산집을 편집하여 개개인에 배부하였다.(별도 보관)

서당평 문화류씨의 종산이 서당평내와 군북면 용호리(방개)에 소재하여 이곳이 모두 대청댐 호수로 둘러싸여 왕래할 길이 없어 불편할 뿐 아니라 사방으로 산재해 있고, 자손들은 서당평 한 곳에서 모여 살다가 대청댐 수몰로 인하여 각처로 산재하여 살다보니 상호 연락이나 왕래하며 산소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분저리로 이장 하려니 마땅한 산이 없어 할 수 없이 분저리 82-2 전 군성공파 종토로 이장하게 되었다.

장소는 좁고 이장할 산소는 많아 궁여지책으로 종파를 중심으로 27위를 한 분묘로

모시게 되었고 묘전에 상석과 분묘 내부 위치도를 세워 내부 위치를 짐작하게 하였다.

공께서 자필한 증용, 연주시, 천자문, 문화류씨 총경공파보를 책으로 발간하였고 공의 생애를 수록한 [나의 생애를 돌아보며]란 책을 발간하고 한문을 모르는 세대들을 위하여 역대 족보의 서문 및 발문 등을 유주춘추 및 문화류씨 제보 등을 참고하여 알기 쉽고 보기 쉽게 한글판으로 발간하고 선조의 향사참배를 돕기 위하여 선세향사(先世享祀)를 발간하여 총경공파 후손들에게 고루 분배하였다.

그 외 옥천에 산을 매입하여 선조를 모시었고, 옥천과 영동에 산 5필지, 여산에 전 8,000평, 대전에 가옥 2채를 마련하였으며, 3남 4녀들의 삶의 기틀을 다지는데 지대한 노력을 하였다. 그 외에도 공께서 남긴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께서는 참으로 종사를 보고 집안과 후세를 위하여 일하는 광인이라 할 것이다. 우리 후인 및 후손들은 이 정신을 이어 받아 자자손손 길이길이 빛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가정에 충실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종사에 열중하며 불철주야 뛰었던만
심신이 바스러져도 지칠 줄을 모르네.

옳은 일 앞장서고 의로운 일 찾아가며
어려운 종사일로 평생을 받치면서
그것이 운명이라며 승조목종 외치네.

평생을 살아가며 시종일관 종사일로
후손을 생각하고 한결같이 사는 모습
팔순이 다 지나도록 잊을 줄을 모르네.



류영석 공적비
(충북 보은군 회남면 서당평 앞)

지금이나 백성을 이기는 나라는 없죠



大宗會顧問 柳 濟 求

“탐관오리가 나라 흔들고, 몇몇이 국정농단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123년 전 동학 농민운동 그때와 너무 닮았어요. 결국 백성들 마음을 헤아려야 위기 넘어요. 왜 그럴까요?”

충북 옥천지역 동학농민운동을 재조명한 자료집 <동학농민혁명사>가 나왔다. 자료집은 대를 이어 동학 농민 운동에 헌신한 옥천지역 향토사학자 류제구(82)씨가 냈다. 류씨의 할아버지 류상열씨는 면장을 하며 독립군과 동학군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가 파면됐으며, 아버지 류창현씨는 충청·전라지역 천도교 선전부장 등을 지내는 등 동학 집안이다. 자신도 1995년 옥천군 농촌지도소에서 정년퇴임한 뒤 20여년을 옥천 동학의 발자취를 좇아왔다.

“할아버지·아버지 살아계실 땐 밤마다 사랑방에 동학 손님들이 넘쳐났으니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그보다 흙 속에 묻혀있는 독천 동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어요. 동학군 최후 견적지로 알려진 이웃 보은 동학에 견줘 옥천 동학은 과소평가됐어요.”

그는 옥천 청산면 문바위골에 주목했다. 이곳은 2대 동학 교주 최시형과 지휘부가 훈련한 장소이자 교두보로 삼았던 곳이다. 동학군이 봉기한 뒤 일본이 개입하자 최시형 신사는 1894년 9월18일 전국의 동학 접주



동학농민운동사를 재조명한 「동학농민혁명사」를 낸 류제구씨가 8일 자료집을 보고있다.

들에게 사발통문을 보내 옥천에 집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곳이 문바위골이고, 이 소집령이 ‘기포령’이다. 전국에서 모인 수천명의 동학군이 이곳에서 재봉기를 했고, 그들은 이곳을 ‘새서울’이라고 불렀다. 당시 옥천은 강원, 경상, 전라 등의 동학군이 모이던 중심이자 요새였다.

“당시 재기포령을 내린 문바위골을 중심으로 동학 관련 유적,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옥천이에요. 최시형 교주도 옥천에 뿌리를 내렸고 ‘졸업식의 노래’를 지은 작곡가 정순철 선생이 그의 외손자예요.”

그의 자료집엔 최시형 선생 영정 등 희귀 사진과 보은 최휘, 증약전투, 문바위골 기포 등 충북 동학농민운동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동학농민운동위령 등 동학 뒷얘기도 곁들였다.

“오늘의 위기 극복하는 방법을 동학에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집을 냈어요. 백성을 이기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결국 지금 이 나라도 백성에게 져야 조용해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 제한이 있나요

옥천군 군북면 류제구 옹, 충북도립대 평생교육 수장 화제

大宗會副會長 柳 濟 求

85세의 노인이 충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거주 중인 ‘인지행동심리상담사’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충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류제구 옹은 “수업을 받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에는 인지행동심리 상담사 교육과정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떠나 고독해졌는데, 이번 평생교육 수업을 들으면서 20대 학생들부터 60대까지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다.”며 “수업을 들을수록 웃을 일이 많아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에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류제구 옹은 어떠한 수강생보다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담당 강사

와 수강생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인 1935년생
류제구(85·왼쪽) 옹이

유연자 지인행동심리상담사 교육 강사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충북도립대학교가 지역과 호흡하며 지역민이 원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지행동심리상담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연자 강사는 “처음엔 연세가 많아 수업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수업 발표를 할 때도 가장 먼저 나와 주시고, 수강생들과도 간식을 나눠 드시는 등 누구보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은 “10대 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지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출처 ①한국대학신문 줌 임주연 기자, 승인 2019.01.24. 00:14

충북도립대학교 류제구씨, “수업받는 모든 순간이 행복합니다”

②대전일보 2019-01-23기사, 편집 2019-01-23 15:45:40

충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과정 인지행동심리상담사에 85세 류제구 옹 수업참여 화제



王仁賞 류부열 선정



대승공33세/하정공파 광주종친회장 柳 在 均

2019-04-04 16:36 (목)

전남목포신문 : <http://www.ksngn.net/news/articleView.html?idxno=3654>

영암군, 「2019 왕인문화축제」 왕인 류부열 님 선정

기자 : 강정오

지역사회발전 및 교육발전 선도 공로 인정

영암군에서는 지난 15일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왕인으로 류부열(70세) 님을 선정했다.



류부열 님은 투철한 교육철학과 사명감으로 42년간의 교직생활 동안 황조근정 훈장, 문교부 장관상 등을 수여하였으며, 특히 17여년간은 고향인 영암에서 근무하면서 후진양성에 헌신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신북중학교장 퇴직 후에는 지역유림에 활동하며 전통유교문화 유산으로서의 역사성과 가치를 지켜나가고 지역주민들에게 전통유교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등 지역사회발전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왕인으로 선정되었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류부열씨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공헌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이라며“이 같은 공로로 왕인박사를 기리는 올해의 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2019영암왕인문화축제’는 4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열리며,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영암3대민속놀이, 어린이 왕인스쿨 등 6개 부문 82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남목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漢詩】



文化柳氏大宗會 前 常任副會長 柳淙鉉

思鄉○癸未嘉月

고향 생각, 계미(2003) 음 3월

長城自古稱儒藪	장성은 예로부터 선비의 숲이라 일컬었거니,
約禮崇文世所欽	예의 지키고 글 숭상함 세상에서 흠모했었네.
不惑離鄉今白首	40세에 고향 떠나 이제 머리가 희었는데,
花朝月夕思尤深	꽃피는 아침 달 밝은 저녁 생각이 더욱 깊네.

自遣○戊戌仲秋

스스로 마음을 달랠, 무술(2018) 음8월.

我好平生文與酒	내 평생 좋아한 것이 글과 술이었는데,
痴而愛酒不能文	어리석게 애주할 뿐 글을 잘못했도다.
今來後悔徒虛事	이제 와서 후회한들 한갓 헛된 일인 바,
遠望西天一片雲	멀리 서천의 한 조각구름만 바라보도다.

柳川洞祭求景○戊戌仲冬

유천동 동제를 구경하고, 무술(2018) 음11월.

每年至月初三日	해마다 동짓달 초사흘이면,
一洞安寧祝地神	온 동네의 안녕을 지신에 빌도다.
老舞少歌遊興足	노소간에 가무로 유흥이 만족한 바,
觀茲淳俗脫羈塵	이 순박한 풍속 보니 속세 벗어난 듯.

內患自悶○己亥處暑日

내환을 스스로 변민하며, 기해(2019) 음7월 처서일.

財不富而心則富 재물은 넉넉지 못했지만 마음은 넉넉하여,
同居苦樂自矜如 괴롭고 즐거움 함께 지내며 만족하였도다.
晚來內患何其甚 만년에 아내의 병환이 어찌 그리 심한가?
惟恨平時對話疎 오직 평소 대화 적었던 것이 한스럽도다.

謁高山書院○長城珍原戊申

고산서원을 참알하고, 장성 진원, 무신(1968)

先生道學泰山高 선생의 도학은 태산처럼 높았거니,
化雨當年似鑄陶 교화하신 당년에 주도와 같았도다.
松栢經冬看節操 겨울 지난 송백에서 절조를 보겠고,
芝蘭帶馥滿庭臯 향기 띤 지란이 온 뜰에 가득하도다.
追思處處心惟切 곳곳마다 추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欲效時時夢劇勞 때때로 본받으려는 꿈으로 애쓰도다.
猥筆千秋明理在 외필은 천추에 밝은 이치가 있거니,
橫行異說自然逃 횡행하는 이설은 저절로 도망하리라.

長城湖雅會○丁巳陰四月初八日

장성호에서 아회, 정사(1977) 음4,8.

良辰與友到鰲湖 좋은 때에 벗과 함께 장성호에 다다랐거니,
眼界烟光恰似圖 눈앞에 아름다운 경치 흡사 그림 같도다.
檻外泛舟伴白鷺 난간 밖에 배를 띄워 백로와 동무하고,
磯頭垂釣賞銀魚 여울 앞에 낚시질하며 은어를 구경하도다.
千年綠水流無盡 천년토록 푸른 물은 흐름이 다함없고,
四面青山繞不虛 사면으로 푸른 산이 감싸 허하지 않도다.
今日遨遊如是足 오늘날 즐거운 놀이 이같이 만족하니,
何嫌未覽洞庭乎 어찌 동정호 보지 못한 것을 혐의하라!

祝長城郡民日制定行事○戊午三月

장성군민일 제정 행사를 축하함, 무오(1978) 3.

吾鄉盛典設城東 우리 고을 성대한 행사 성 동쪽에 베풀거니,
 祝祭人波四路同 축제에 다다른 인파 사방 길이 한가지로다.
 屹屹蘆山催淑氣 높고 높은 노령산에 맑은 기운 재촉하고,
 淡淡龍水動和風 맑고 맑은 황룡강에 화창한 바람 일도다.
 歡聲振矣高空外 환호하는 소리는 하늘 높이 진동하고,
 逸興欣然一域中 풍류스런 흥으로 온 지역이 기뻐하도다.
 追古緒餘今復續 예전 일을 좇아 이제 다시 이어 가니,
 惟其崇禮尙文功 오직 예의와 학문을 숭상하는 공이로다.

澹對軒懷古○風詠契己亥陰四月晦日

담대헌 회고, 풍영계, 기해(2019) 음4월 그믐.

蘆翁絳帳振儒風 노사선생께서 강론하며 유풍을 떨쳤는데,
 擬是程門立雪中 이를 정자 문하의 제자들에 비했도다.
 嶺土湖儒同左右 영남과 호남의 선비들이 좌우로 함께하고,
 尊師愛弟共西東 스승 존경 제자 사랑이 동서로 한가지였네.
 珍原淑氣烟凝碧 진원의 맑은 기운이 노을에 영켜 푸르고,
 保道清光日射紅 보도산의 개인 빛이 햇살을 받아 붉도다.
 吾學斯軒多感慨 내가 이 집에서 글을 배워 느낌이 많은데,
 稔聞當世莫爭雄 들은바 당세에는 자웅을 겨루지 못했도다.

高峯奇先生道學思想闡揚○己亥立秋節

고봉기선생 도학사상천양○기해(2019) 입추절.

退高交牘憶當年 퇴계 고봉선생 편지 주고받던 당시 생각건대,
 四七論爭正浩然 사단칠정의 논쟁은 정히 호연한 기운이었네.
 過化時時如泗上 때때로 지나는 곳에 교화됨이 사상과 같았고,
 存神處處似藍田 곳곳마다 머물러 신령함이 남전과 같았도다.
 博通性理生知近 성리를 널리 통달함은 생지에 가까웠고,
 窮究天人道達前 천인을 깊이 연구함은 도달에 앞섰도다.

聖學之功何語盡 성학의 공로를 무슨 말로 다하겠는가?
 偉哉其蹟萬千傳 위대하도다! 그 사적 천만년 전하리라.

頌筆巖書院世界遺産登載兼釋菜○己亥八月中丁
 필암서원의 세계유산등재와 아울러 석채를 송축함.
 기해(2019) 음8월 중정(19일)

筆院聲華世界傳 필암서원의 훌륭한 명성 세계에 전해져,
 闡揚文化我邦先 문화의 천양에 우리나라를 앞세웠도다.
 前修德義無雙卓 선현의 덕의가 견줄 데 없이 뛰어나니,
 後進羹墻豈不專 후진의 추모가 어찌 오롯하지 않으랴.
 清節堂中儀典儼 청절당 중에 의식과 전례가 엄연하고,
 祐東祠內奉香虔 우동사 안에 제향 받들이 경건하도다.
 猥言志學諸君子 지학의 여러 군자에게 외람된 말씀이나,
 篤守儒規益勉然 유규를 독실이 지키는데 더욱 힘씁시다.



【漢詩】



文化柳氏大宗會 顧問 道山 柳 暎 烈

무이산 천유봉에서(武夷山 天遊峰)

운연雲煙이 깊은 날엔 천곡千谷이 구곡九谷되고
 개인 날 다시 보니 구곡九谷 속에 천곡千谷이라
 천유봉 정상 오르니 일곡一谷으로 보인다.
 잔 잡고 청산보면 천봉千峰인지 만봉萬峰인지
 붓 들고 읊기려니 구봉九峰밖에 못 그리네
 구곡九曲에 떼배 매어두고 무릉도원武陵桃源 찾는다.

태호太湖⁴⁾

- 1 호수가 산을 안고 운연雲煙이 접천이라
 청산이 물에 노니 일월도 물속이라
 동객東客이 태호에 놀며 왕발흥王渤興을 즐긴다.
- 2 주위가 팔백리요 넓이가 삼육만경三六萬頃
 칠십이七十二 섬산島山속에 명승지가 얼마드냐
 석양에 신원神巖⁵⁾이 머리들고 승천昇天때를 고른다
- 3 산밖에 산이 있고 물밖에 또 물이라
 청산이 물에 뜨고 산광山光은 물속이라
 이사이 놀이 배 한 척 청산벽수靑山碧水 즐긴다

현장메모;

山外有山요 水外有水로다
 湖外有湖이니 山重水復로다.

4) 지금의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의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담 수호이다. 태호에는 48개의 섬과 72개의 산봉우리가 있다. 호수와 산의 경치가 어우러져 천하제일의 명승지로 일컬어진다.
 5) 신령스런 자라. 태호안에 있는 산 이름

湖光山色이 交相輝映이라

湖山如畫 多佳聯이니 山環水抱自然圖畫로다.

4 바위는 솔을 이고 고송孤松은 바위안고
천길의 절벽사이 구룡폭포九龍瀑布 걸쳐놓고
신선은 백운을 타고 비경秘景을 즐긴다.

현장메모 ;

奇巖戴松 孤松寄岩

千仞絕壁 掛九龍瀑

仙乘白雲 優遊青山

5 연하는 취산聚散하며 청산운취 더하는데
나그네 견차牽車⁶⁾타고 천장비경 굽어본다
신선은 어디 노는가 속안俗眼이라 못 보는가

포은 정선생을 추모함

(圃隱 鄭先生을 追慕함)

문수산 산자락의 포은선생 유택幽宅앞에
전국의 시객 모여 백일장을 열었다
절절節節이 흐르는 정이 시구詩句마다 배었네.

도학道學⁷⁾이 깊으시어 성리性理가 밝았도다
동학東學⁸⁾의 종조宗祖되어 유풍儒風을 일으키니
고려의 사회개혁 큰 꿈을 향교세워 펼치다

부모상 삼년간을 시묘侍墓살이 궁행躬行하니
애례哀禮⁹⁾의 극진함에 나라에서 정려旌閣내려
오늘도 효자리孝子里 빗 돌 일월이 밝구나.
개성에 오부학당 지방에는 향교 세워

6) 케이블가

7) 유학儒學의 한 분파로서 중국의 송대에 발달한 정주학程朱學 또는 주자학朱子學

8) 동국의 유교사상. 고려조는 불교적 예제를 숭상하여 왔다. 포은은 주자가례를 본받아 유교사상의 성리학을 주창하였다. 동학을 창시하여 종조宗祖로 숭배한다. 유학儒學을 처음 세운 사람.

9) 상례. 장사지내는 예법제도.

유술(儒術)을 진작하니 회옹가례(晦翁家禮) 근본일세
부화(浮華)¹⁰⁾의 상문법(桑門法)¹¹⁾ 타파함은 유종(儒宗)¹²⁾의 큰 자취
여진족 토벌하고 흥건적 평정하니
친명교일(親明交日)¹³⁾ 외교펼쳐 승평(昇平)¹⁴⁾을 도모했네
선생의 화이무변(和夷撫邊 天下觀)¹⁵⁾이 큰 정치의 근본을

천시(天時)가 유수(有數)¹⁶⁾런가 세정(世情)을 탓 할 손가
신조(新朝)¹⁷⁾의 큰 기운이 북악(北岳)에 일어나니
슬프다 여천(麗天)¹⁸⁾의 일월은 진봉산(進鳳山)¹⁹⁾에 저물다.

채미(採薇)²⁰⁾로 절의 지킨 이제(夷齊)²¹⁾가 부끄럽다
임 향한 일편단심 죽음으로 지키었네
장하다 만고의 큰 충절은 임뿐인가 하노라

방원의 회유 받고 단심가(丹心歌)²²⁾로 화답하고
조영규 철퇴앞에 선죽교서 절사(節死)²³⁾했다
아직도 천년 한 못 삭이어 핏자국이 저리 붉네
봉수산 석양빛이 고궁뜨락 저물 때에

10) ① 실속 없이 걸만 화려하다. ② 걸치레뿐이다.

11) 고려시대에는 당시의 장사지내는 예법(喪禮)은 불가에서 숭상하는 예법이였다. 이러한 시속(時俗)을 바로 잡고자 주자가례를 모방하여 가묘(家廟)를 세워 옛 조상을 봉사케 하여 송조 사상을 고취한 것을 말함.

12) 유교의 으뜸

13) 명나라와 친히 지내며 일본과도 교류하는 정책

14)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함

15) 오랑개(명나라를 비하하는 말) 나라와 화목하게 변방의 환란을 없게 하는 국가정책.

16) 천시(유수)天時有數: 하늘이 운용하는 때. 유수는 차례가 있다. 수법(數法)

17) 새로 생긴 조정. 즉 조선조

18) 고려의 하늘 즉 고려조.

19) 황해북도 개성시 동남부에 있는 산. '진봉'은 옛날 이 산에서 봉황이 살다가 날아갔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고려양조 망해 감을 비유함

20) 고사리를 캐다. 중국 은나라 말엽, 주나라 초엽에 살았던 절개가 굳은 이름난 선비였다. 백이와 숙제는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형제의 서열과 시호를 합친 것. 녹을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뜯어 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호칭이다. 청백한 삶의 미칭.

21) 백이와 숙제의 줄임말.

22) 조선 제3대 태종이 된 이방원의〈하여가 何如歌〉에 답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하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노래이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일에 가담할 뜻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여가〉를 지어 그의 마음을 떠보았다.

23) 절개를 지켜 죽음을 택함.

천명과 인심사이 포옹^{團翁}의 한이 깊네
신왕조 개창^{開創}의 풍진속에 일편단심 큰 절개

여조^{麗朝}²⁴⁾에 벼슬하고 사거용인^{死居龍仁}²⁵⁾ 택하셨다
학덕이 높으심에 문묘에 배향했고
정종^{鼎鐘}²⁶⁾에 충절 새기어 만고에 현충^{顯忠}했네

김삿갓묘앞에서 시집 서시(序詩)

[죽장에 삿갓 쓰고]

- 1 명벌의 장동김씨 세가의 후손인데
조상에 죄를 얻어 죽장에 삿갓 썼네
동가속 서가식하며 방랑의길 삼천리
- 2 왕조의 풍물들이 한선비의 한이로다
반상은 애초부터 씨가 없다 하였건만
슬프다 장원급제도 유랑시인 씨 일줄
- 3 청운의 꿈을 잃은 선비 한을 뉘가 아라
만사는 정한대로 살아간다 하였던가
뜬구름 따라 놀다가 풍찬노숙 한평생
- 4 삿갓 쓴 사연일랑 그림자에 물어보자
죽장에 배랑 메고 방랑길 삼천리를
한평생 함께 다니던 너는 오직 알겠지
- 5 하늘을 지붕 삼아 초원에 누웠으니
지친 몸 머무른 곳 오늘은 예가내 집
금침 속 일장춘몽을 달을 보며 삭인다.

24) 고려의 조정. 麗天

25) 죽어서 용인에 문함

26) 국가에 큰 공훈^{功勳}이 있으면 종^鐘과 정^鼎에 새겨서 영원히 전한다. =정종명^{鼎鐘銘} 솔과 종

[김립의 해학시를 시조 역]

1 서당의 푸대접

서당은 내조진데 방중은 개좃물에
생도는 재미십에 선생은 내불알을
여보소 훈장놈이여 과객 괘시 말게나.

※주) 원문; 書堂乃早知 房中皆尊物 生徒諸未十 先生來不謁

2 개성에서

골 이름 개성인데 어찌 문을 닫았는가
산명은 송악인데 땀감마저 어이없나
황혼에 손을 쫓으며 예의동방 말 말게

※주) 원문; 邑號開城何閉門 山名松嶽豈無薪 黃昏逐客非人事 禮儀東方子獨秦

3 축객시(逐客詩)

석양에 문 두드려 재워 달라 간청하니
주인은 세 번이나 손을 저어 거절하네
두견은 야박한 정에 불여귀(不如歸)라 우짖네

※주) : 不如歸; 돌아감만 못하다.

4 오밤중 누에올라 五更登樓

하늘이 높다지만 머리들어 못보겠고
대지가 넓다 해도 발 뺨을 곳 없구나
삼일 간 쪼록 굶음은 신선되려 아님을.

※주) 원문; 天高萬里不舉頭 地闊千里不宣足 五更登樓非翫月 三朝辟穀不求仙

5 죽 한 그릇 (粥一器)

사각의 소반위에 덩그런 죽 한그릇
명월과 흰 구름이 함께 비쳐 배회할 제
청산도 함께 비치니 이를 즐겨 하노라

※주) 원문; 四脚松盤粥一器 天光雲影共徘徊 主人莫道無顏色 吾愛青山倒水來

6 쉰밥 (五十食)

이십수 대문 앞에 설음 받는 김삿갓
망할 놈의 마을에서 쉰밥을 주는구나

차라리 집에 돌아가 선 밥 먹니 못하리.

※주) 원문; 二十樹下三十客 四十村中五十食 人間豈有七十事 不如歸家三十食

[詩仙의 歸泉]

- 1 하늘을 지붕 삼아 초원에 누웠으니
지친 몸 머무른 곳 이제는 예가 내집
금침 속 일장춘몽을 달을 보며 삭인다.
- 2 한 잔술 시 한수에 애환을 못 이기면
한잔 더 겨우르며 해학으로 시를 쓴다
달 아래 독배 즐기며 음풍으로 지낸 밤
- 3 화순에 종천하고 육골로 반장했네
문학관 뜨락 아래 유시가 비로서니
나그네 발길 멈추고 백년 한을 읽는다.
- 4 난고정 달빛아래 운연이 피어나면
난간에 홀로 올라 음영을 즐기다가
두고 온 임이 그리워 고향집을 찾는다.
- 5 양백의 깊은 골에 낡은 삿갓 벗어놓고
흰 구름 노송아래 임께서 잠드시니
오늘도 한 서린 피를 일월만이 빗긴다.

※주; 양백(兩白); 양백산=[태백산.소백산의 두 산맥]

追慕 圃隱 鄭先生²⁷⁾

追慕尊公感意生 선생의 추모제에 감의가 새롭구나
今開白戰舊風成 오늘 백일장을 열어 구풍을 이루었네
經營卓越昇平起 경영이 탁월하여 昇平을 이루었고
道學深微性理明 도학이 심오하여 性理가 밝았도다
善竹紅痕當世恨 선죽교 붉은 혈흔 당세에 깊은 한이요

27) 이 한시는 도산이 백일장에서 죽은 성시 한 것임. 제1회 포은문화제 전국한시백일장추모시집 128쪽 등재

丹心一片古時情 일편단심 굳은 절개는 만고의 충정이라
 可憐欲說其功蹟 아! 슬프다 그 위대한 공적을 말할진대
 竹帛垂名海內亨 죽백에 이름 드리워 온 나라에 형통하리

[배율(排律)]

獻 詩 [헌시]

頌松菴金沔將軍忠義 (송 송암 김면장군 충의)

顯忠卓節自成天 현충과 탁절은 본디 하늘로부터 이루어졌나니
 多出金門孰敢先 많이 배출한 김문에 누가 감히 앞서리오.
 倭寇侵隅松老壯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제 송암이 장용했고
 虜蹄犯闕義翁賢 오랑캐발굽이 대궐침범 시 의재가 어질었네.
 地維已盡京鄉嘆 지유가 이미 다함을 경향이 탄식하고
 天步艱難老少憐 천보의 간난을 노소모두 씁어 했네.
 定亂蕩財雄陣勢 정란 위해 탕재하니 진세가 웅장했고
 殲倭倡義拜兵權 왜적섬멸 창의하니 병권을 배수했다
 捨生氣魄千秋赫 사생의 기백은 천추에 혁혁하고
 衛正精神萬古堅 위정의 정신은 만고에 견고했다.
 戍壘孤懷霜月下 수루의 외로운 회포 상월이 비추었고
 棄家壯志尺劍邊 가정 버린 장한 뜻은 단검의 가이어라
 領軍討賊三南奮 군사 거느려 토적할 때 삼남에서 분전했고
 向主丹誠百世連 임 향한 붉은 충성 백세를 이으리라
 推轂蒙恩除大將 추곡의 몽은입어 도대장에 제수됐고
 斥倭勝鎮弄管絃 척왜의 진지에서 관현을 희롱했네
 壬亂未平公殉節 임란은 미평인데 공께서 순절하니
 北辰感淚祭文傳 북신의 선조대왕 눈물젖은 제문을 내리
 原從一等功臣錄 원종공신 일등을 녹권으로 책훈했고
 贈爵夏官資憲懸 천관을 증직하고 자헌대부 더했다오.
 不眷安身惟祖國 안신은 불권하고 오직 조국뿐이었고
 只知有國外黃泉 오로지 구국일 뿐 황천은 저 밖이라

龍蛇之亂幾經載 임지,계사의 난리가 몇 해가 흘렀느냐
 七甲今當慕倍前 칠갑 맞은 지금 사모함이 배전일세
 遺跡收篇明偉業 유적을 책에 수록 위업을 밝게 했고
 九賢列配享香煙 구현을 열배하고 향연을 드리도다.
 禮祠獻爵忠魂仰 인사에 잔 올리며 충혼 앙모하고
 神道銘功卓節鮮 신도비 새긴 공적 탁절이 빛나도다
 若不攘夷扶社稷 만약 양리못해 사직을 잃었다면
 今時國祚孰能詮 오늘의 국조를 누가 능히 말 하리요.
 七年兩亂何忘却 칠년 간 두 난리 어찌 감히 잊을소냐.
 讀史燈前感淚漣 전사 읽는 등불 앞에 감동의 눈물이라
 護國祠壇追配際 호국사 사단위에 추배하니
 貞忠懿蹟燦千年 정충의 의적이 천추에 빛나리

※[주]

※송로(松老);松菴 金沔장군(1541-1593)=고령김씨.*경상우도의병도대장*(의병좌장곽재우.의병우장 정인홍).*1000석사재탕제의병 군량미지원*의병도대장 제수*임란선무원종공신1등서훈.*병부상서,*자헌대부추서.*보령호국사 추배*친족9공신 추배

※의옹(義翁); 義齋 金弘漢장군

※구현[九賢]-호국사에 배향한 9공신

※천보[天步];해·달·별 따위의 천체의 운행이라는 뜻으로, 한 나라의 운명(국운). 또는 한 시대의 운명...

※지유 [地維]; 대지(大地)를 엮어 받들고 있는 동아줄. 지기(地紀). 옛 전설에 천주(天柱, 하늘을 피고 있다는 기둥)와 지유가 있어 천지가 보전된다고 함. 天柱折地維缺

※인사(禮祠); 즉 인사(禮祀): 옛 길례(吉禮)의 하나 * 정결히 하고 제사(祭祀)를 지냄*禮은 연(煙)과 같은 의미로서 제사의 대상은 호천상제(昊天上帝)●일월성신●풍사●우사 등임.

※추곡[推轂];① 수레바퀴를 밀어줌. 장수가 출정할 때 왕이 친히 꿇어 앉아 수레바퀴를 밀며 군중(軍中)의 전권(全權)을 맡기는 의식(儀式).

※병관[兵官] 고려(高麗) 태조(太祖) 원(918)년에 둔 병부를 고친 이름-병부상서.夏官

※용사지란(龍蛇之亂);임진 계사년의 난리

※칠갑(七甲);일곱번의 갑년. 즉 60주년이 1갑이니가 420주년이 됨

※국조(國祚); 국가의 운명.국운

※호국사(護國祠); 충남 보령 성주리에 설단 된 임진왜란의 선조대왕과 1만2천 공신을 제사지내는 사단.

冽上眞源秋色 열상진원추색

涿上登秋勝去年 열상²⁸⁾에 가을 경광 작년보다 아름다운데
 眞源御井映旻天 어정의 맑은 샘물에는 가을 하늘 잠겼네.
 香亭影水漂紅葉 향원정²⁹⁾이 비친 물에 붉은 단풍 떠 흐르고
 串市長江始白泉 도시를 관통한 긴 강은 이 흰 샘이 시원일세.
 輦路鮮苔猶寂靜 연로에 잇기 푸르니 지난일이 쓸쓸하고
 乾宮無主却悽然 건궁³⁰⁾ 주인 안 보이니 문득 처연하구나.
 王朝盛替如春夢 왕조의 흥망성쇠 일장의 춘몽 같은데
 一脈澄流萬古邊 한 줄기 맑은 샘은 예나 없이 흐르네

萬化方暢만화방창

三春到處雨初晴 삼춘도처에 봄비 비로소 개이니
 駘蕩韶光萬里明 태탕한 봄빛 만리에도 밝구나.
 花爛東山潛水溜 만발한 꽃 동산 청담에 잠겨 흐르고
 麥波南壟惠風生 맥과 일렁이는 남릉에 혜풍이 이네
 梨桃爭艷蜂蝶苑 도리가 고움 다투니 봉접의 동산이요
 楊柳凝烟燕鷁城 양류에 이내 영기니 연앵의 성이로다.
 借問武陵何所在 비러 묻노니 무릉도원이 어디드냐.
 求詩勝景難摹聲 시로 좋은 경광 옮겨도 봄 소리 못 옮겨

2019. 4. 9. 기해년

구멍 뚫린 술잔

소양강변을 달리는 기차에서
 구멍 뚫린 술잔에 술을 따른다

한잔 술 모자라서 강물 떠서 잔을 채우고
 어느새 비운 잔에 푸른 하늘 또 따른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28) 한강의 고향 또는 한양

29) 열상진원의 어정에서 흘러 고인 물이 영지를 만들고 영지 안에 지어진 水中 정자

30)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를 당한 비운의 장소이다. (을미사변).고종황제가 기거하던 곳이기도 하다.

붉은 단풍 띄워 놓고 마시는 가을

한잔 두 잔 수 삼배인데
아직도 흰 머리털 붉지 않으니
허무를 마신 건가

잃어버린 허상虛像을 가득 그린 잔
허무虛無를 삭이던 산달이 잔가를 거닌다

※메모; KBS 열상시사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춘천중도로 열차로 3일 문학기행을 떠났다. 회원 중 000여류 시인이 양주 한 병을 가지고 왔다. 양주 한 병으론 20여 명의 회원이 한 순배 돌리기엔 턱 부족이었다. 그런데 가지고 온 술잔은 구멍이 뚫린 술잔이었다. 두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술을 받아야만 했다. 손가락을 떼면 술이 새서 부득이 원샷으로 훌쩍 마셔야만 했다. 당연히 술이 모자랐다. 순간 시상이 떠올랐다. 차창 밖 소양강물을 떠서 잔을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 푸른 하늘로 잔을 채웠다.

기행시 한 수를 지었다.

억새꽃 춤추는 들녘

석양의 햇살이
한라산 중턱을 거닐고 있을 때
억새꽃은 한껏 신바람 난다

풀 뜯는 조랑 말 떼 등에 업혀
초원의 꿈을 즐기던 노을도
어느새
은빛 꽃밭에 뛰어들어 함께 춤을 춘다

우거진 억새풀 새
노란 들국화 끼어들어
수줍게 몸을 흔든다
나도 달리던 차 멈추고
뛰어 내려

덩달아 춤을 춘다

※주). 1999년 가을이었다. 위암 수술 후 투병 중 전국을 유람했다. 제주도 산굼부리의 억새꽃밭 (북제주군 교래리)은 가을이면 장관을 이룬다. 높은 산언덕 하얀 억새꽃이 가을바람에 흔들려 은빛 파도를 일으킬 때면 저녁 햇살도 서산 길 멈추고 은색 갈대꽃밭에 내려앉아 잠시 호흡을 고른다. 이곳 장관을 보고 한편의 시로 써 등단의 영광을 얻었다.

수술실

신음소리 시끄러운 하얀 씨-트는
병마(病魔)의 천국
이승저승 오르내리며
생사의 길을 가르는 사자의 손길은 바쁘다

예리한 칼날로 배를 가르고
암 덩이를 자를 땀
천하 무적(無敵)의 암 세포도 파란 경련을 일으킨다

어머니께서
삼신 할머니께 빌어 주신 귀한 생명
짧은 파장으로 인생을 투영한 검뿌연 필립에
다시 이정표를 그리고
병상 옆
아내의 하얀 기도는 한 뼘씩 태엽을 감는다

어느새
겨울 지난 실개천엔 잔 설 삭이고
안개 핀 애린 봄 언덕
버들강아지 은빛 꿈은
물에 뜬 낙엽을 옮겨 밟으며
허둥 허둥 강을 건넌다

嘉俳迫頭情景

佳節嘉俳萬里秋 가절인 가배가 만리는 맑은 가을
 郊黃雁影白雲頭 들관은 황금색 안영이 백운가라
 旅窓孤枕頻醒睡 객창에 고침가에 자다 깨길 자주하는데
 老鬚多思更躑流 늙은 노인 많은 생각 척류를 거듭하네
 意急筆遲今夜恨 뜻은 급한데 붓이 더디니 이 밤의 한이요
 懷長語訥晚時愁 회포는 긴데 말이 어눌. 만시의 근심일세
 新衣婦勸孫香酒 새 옷을 권하는 며늘아기, 손자들은 향주로다.
 一爵欣然感自收 한잔 술에 기쁨 얻어 감회를 스스로 걷운다.

思故鄉

名節嘉俳想故天 명절가배를 맞으며 옛날은 화상하니
 幼時情景兩親先 유시의 정경엔 양친이 머저 생각난다.
 月明客舍興多恨 달 밝은 객사에 많은 회한 이는구나.
 靖亂獨杯尙曖然 심란하여 독배 즐기나 아직도 애련하구나.

도산 류영렬 약력

住所: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6길 11호(독산동) 도산빌딩 4층
 TEL; 02-859-6853. FAX; 02-838-6853 Hp; 010-3209-3090.

E-mail; ryudosan@hanmail.net

본관; 문화 생년; 1939. 4. 12. 생[무인]

아호; 도산(道山) 당호 청천재(청(聽泉齋))

본적; 경기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36

시인 (2002년 예총 예술세계시단 등단)

*청시회회장(역)

*예술시대작가회회원

*전국중도매인 연합회 명예회장

*KBS열상시사회장(현)

*성균관부관장(역), 현 고문

*향토사학자.

*성균관 남부학당 학장.(현)

*문화류씨대중회 회장(역) 문화류씨서울중친회장 {역} 문화류씨 포럼 대표

*(사) 한국한시협회 이사.

◆달을 놓인 새벽별 출간 : 2018. 6. 26. 도산시문전집 6권 출간



【漢詩】



文化柳氏大宗會 理事 能菴 柳 在 豊

追慕 王仁博士

朗州古色一河清
渡日王仁百世聲
養士齋思深夜讀
鳩林野見早春耕
千年甲寺千宵燭
萬丈皇峯萬幅屏
喝飲聖泉登上浦
接天西海鏡顏平

낭추의 고색이 하수가 한번 맑아서
도일한 왕인 박사 백세의 명성일세.
양사재에서 깊은 밤 독서를 생각하고,
구림들이 이른 봄 밭갈이를 보누나.
천년도 갑사에 천 밤의 촛불이요,
만길 천황봉은 만폭의 병풍일세.
성천에서 물 한잔 마시고 상대포에 오르니,
하늘에 닿은 서해가 거울처럼 평화롭네.

辛卯(二〇一一)年 著

追慕 望菴先生 逝去 四百週年

公逝今迎四百年
彬彬偉業頌連天
尊師篤學崇先聖
愛國揚名效古賢
製箭作車倭賊破
募兵運米戰功全
儒林再現當時史
追慕同參敬軸傳

공의 서거 금년으로 사백년을 맞았는데,
빈빈한 위업의 송이 하늘에 연해있네.
존사 독학하여 선성을 숭앙했고,
애국 양명함을 선현을 본받았지요.
제전하고 작거하여 왜적을 대파했고,
모병하고 운미하여 전공을 세우셨네.
유림이 당시사를 재현하니,
추모에 동참해서 경축을 전합니다.

辛卯仲著 二〇一一年

第 四十六回端 宗文化祭 - 登子規樓有感

子規已去子規樓
追憶冤禽隻影州
月夕幾吞無限恨
花朝應吐莫窮愁
杜鵑舌上哀情發
騷客胸中義淚流
斷續悲歡山水裡
參文化祭感難收

자규는 어미가 버린 자규루에서
원금작 그림자만 추억하는 고을입니다.
월석에 얼마나 끝없는 한을 삼켰으며,
화조에 응당 끝없는 근심을 토했으리.
두견새 혀 위에는 슬픈 정만 발동하고,
소객의 가슴 속에 의로운 눈물 흐르누나.
끊어졌다 이어지는 비환·산수 속에,
문화제에 참석한 감회 거두기 어렵네.

壬辰(二〇一二年) 四月

追慕 高峯 奇大升 先生

追慕高翁紙上詩
開催誕地大名期
精研性理超賢哲
廣讀經書入聖知
壽僅中身人泣早
官登提學孰云遲
月峯雨齊清風洽
全國儒生起敬思

선생을 추모하는 백일장 시를
선생의 탄지에서 개최하니 대명을 기약하겠소.
성리학을 정연하여 현철을 초월했고,
경서를 광독하여 성지에 들었습니다.

수는 겨우 중신이니 사람들이 일찍 하다고 울었고,
관은 제학에 올랐으니 누가 더디다고 하겠는가.
월봉서원에 비가 개었고 청풍이 흡족하니,
전국 유생들 존경하는 생각 일어나네.

壬辰 二〇一二年 十月

追慕 梅軒 尹奉吉 義士 義學

今古男兒孰敢先
早年忠勇動驚天
日王此處千謀散
臨政當時一氣全
講學教民興孝德
筆文會友學良賢

고금의 남아가 누가 앞서겠는가
조년의 충과 용 경천동지했네.
일왕은 여기에서 천모가 부서졌고,
임정은 당시에 일기로 온전했네.
강학으로 교민하여 효덕을 일으켰고,
필문으로 회우하여 현량을 천거했네.

嗚呼出國深深誓
生不還家百世傳

오호라 출국하면서 깊은 맹서.....
“생불환가” 백세에 전하리.

壬辰(二〇一二)年 十一月

追慕 忠敬公 鄭起龍 將軍

戰史由來第一豪
六三勝利孰能高
滅倭氣魄如巍岳
救國精神恰怒濤
宣祖賜名初志貫
明皇除職大恩遭
牧民統使任期殉
仰慕儒林盡讚騷

전사가 있는 후 제일호걸이시니,
육십삼회 전승을 누가 능히 앞서겠는가?
왜구를 쫓는 기백은 높은 산 같고,
나라를 구할 정신은 성난 파도 같으셨네.
선조가 내린 이름으로 초지를 관철하였고,
명황제가 제수한 직책은 큰 은혜를 만남이네.
목민관을 거쳐 통제사 재임시에 순직하시니,
앙모하는 유림들은 모두 칭찬소를 올리시네.

癸巳 二〇一三年 五月



【漢詩】

忠景公派 扶安進士公宗中 會長
如山 柳 永 熙



送年雅會 ○ 丁酉

翰墨村翁永遠豪	글 짓는 촌옹 영원한 호걸이요
儒林騷客古今高	유림 소객 언제나 고상하네
多難此歲江河逐	다사다난했던 금년(丁酉)은 江河에 물리치고
興起明年盛世遭	흥기하여 명년(戊戌)에는 盛世를 만나야지
萬事亨通留處樂	만사형통하니 머무는 곳마다 풍악이요
太平聖代酒筵醪	태평성대하니 주석마다 좋은 술일세.
白頭好學從交友	白頭에 호학을 좇아 서로 벗하여
雅會前途發展勞	아회전도 발전에 힘써야지

晚秋有感 ○ 戊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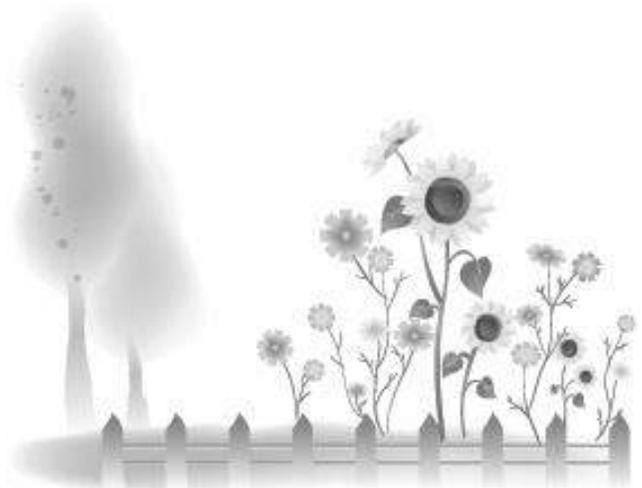
快適潭池月影東	쾌적한 연못에 달그림자요
江河秀麗古今同	江河의 아름다움은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菊香隱隱吾心裕	국화향기 은은하니 마음이 여유롭고
雁陣雙雙作冷風	기러기 떼 지어 날아가니 찬바람이 이는구나
暑退涼生應節候	서퇴양생은 절후변화에 순응함이요
豐饒果穀是農功	풍요로운 과곡은 농부의 공이로다
名勝處處叢遊覽	명승지 곳곳마다 모이는 유람객들
北岳丹楓豈有窮	북악 단풍이 어찌 다함이 있으리오.

閑吟重陽節 ○ 戊戌

騷客吟詩落葉秋 소객이 시를 읊는 落葉지는 가을이요.
 農夫收穫暫無遊 농부들은 收穫하느라 잠시도 틈이 없네.
 煙霞絕妙千尋岳 煙霞가 絶妙한 千尋岳이요.
 風景華奢八角樓 風景이 華奢한 八角樓로세.
 滄海疎疎波浪靜 滄海가 疎疎하여 波浪이 高요하고
 蒼天邈邈白雲頭 蒼天이 멀고머나 白雲이 높네.
 豐饒百果重陽節 百果가 豐饒로운 重陽節에
 祥瑞情分酒味柔 祥瑞로운 情分에 술맛이 부드럽도다.

落葉 滿庭 ○ 戊戌

冷風落葉散階南 찬바람 낙엽이 남쪽 섬들에 흩어지고
 滿庭丹楓季節談 뜰 가득한 단풍은 계절을 희롱하네.
 歲月無常心氣亂 세월이 무상하니 심기가 어지러워
 思量陷沒猶不堪 깊은 생각에 빠져 건디기 어렵구려.
 少時活躍歸追憶 젊은 시절 활약했던 추억을 돌아보니
 白首老翁悔恨慙 백발노인 회한에 부끄럽기만 하구나.
 昔者人生周省察 지난날 인생살이 두루 살펴보며
 昨今交遊瑞光舍 작금 交遊 瑞光舍 함께하는구려.



【漢詩】



문화류씨대중회 이사 柳 鳳 九

多 得 殊 尋 來 如 對 月
 奇 書 讀 勝 看 花
 辛卯年孟夏之節 柳鳳九 書

流 落 水 茫 無 有 情 意 送 隨 落 流 水
 辛卯年孟夏 柳鳳九 書

예서(隸書)

落花有意隨流水
떨어지는 꽃은 뜻이 있어 물 따라 흐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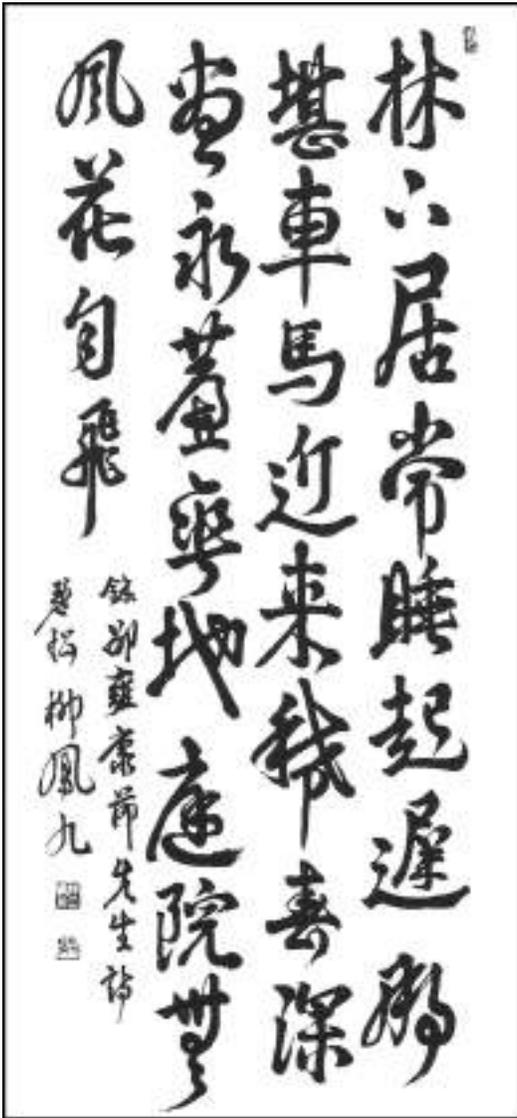
流水無情送落花
흐르는 물은 무정해도 나는 꽃 그리워하며

전서(篆書)

得好友來如對月
좋은 친구를 얻으니 달을 대하는 것 같고

有奇書讀勝看花
기이한 글이 있어 읽으니 꽃보다 좋다

류봉구 붓글씨



류봉구 붓글씨

邵雍 康節 先生 詩

(소용 강절 선생 시)

행초 삼체상 수상

林下居常睡起遲(임하거상수기지)

숲 아래서 기거하니 항상 늦게

일어나고

邦堪車馬近來稀(방감차마근래희)

그래서 찾아오는 이 드물고 차마도 주

렴을 드리우고

春深書永簾垂地(춘심서영염수지)

봄이 깊어 낮이 길어져 땅에 주렴을

드리우고

庭院無風花自飛(정원무풍화자비)

정원에는 바람이 없어도 꽃은 저절로

나부긴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입선
대한민국 서도대전 우수상 수상
한국 동양서예학회 작가상 수상

歐陽修 詩

紅樹青山日欲斜

단풍 든 푸른 산 해 질 무렵

長郊草色綠無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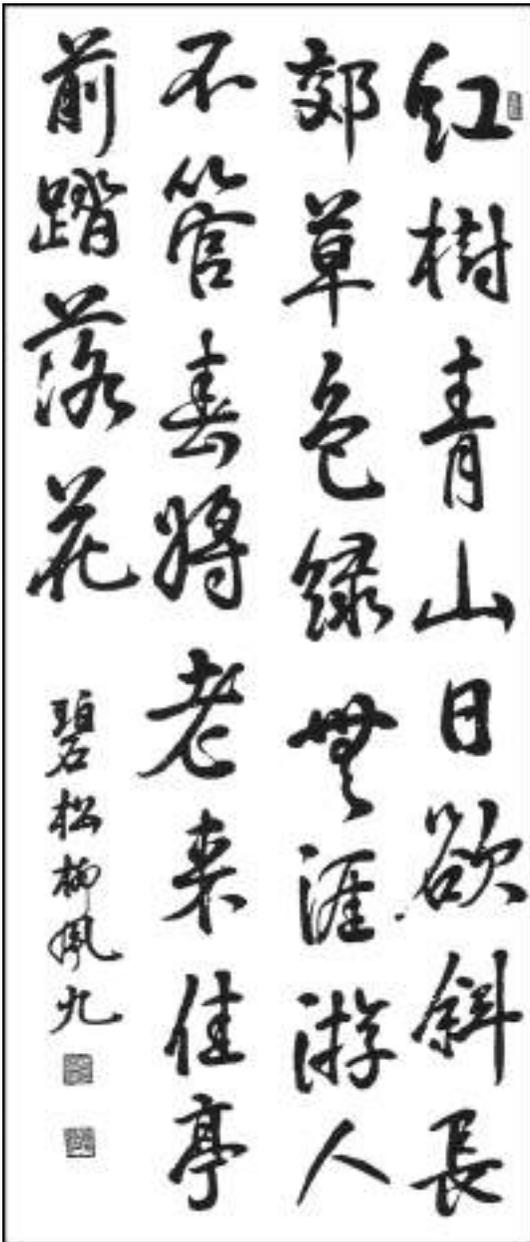
푸른 풀빛 없네

遊人不管春將老

사람이 노는 데 간섭받지 않고

來佳亭前踏落花

아름다운 정자 앞 떨어진 꽃잎 밟네



류봉구 붓글씨

統一 所願 詩

我邦分斷幾何年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수십 년

統一祈求晝夜天
통일 기원을 주야로 빌었는데

民族和侗恒絶叫
분단 민족은 화합을 절하고

達成所願樂相連
소원 이루어지면 서로 즐거우련만

새천년 서예인문화대전 특선
국가유공자 문인협회 23회
2009년 11월 4일



류봉구 붓글씨

梅月堂 詩

有客清平寺

청평사에 들른 나그네

春山任意遊

봄 산에서 뜻대로 노니는데

鳥啼孤塔靜

고요한 탑에서 새가 울고

花落小溪流

꽃은 낙화되어 개울에 흘러가고

佳菜知時秀

좋은 나물은 때를 알아

香菌過雨柔

향긋한 버섯 부드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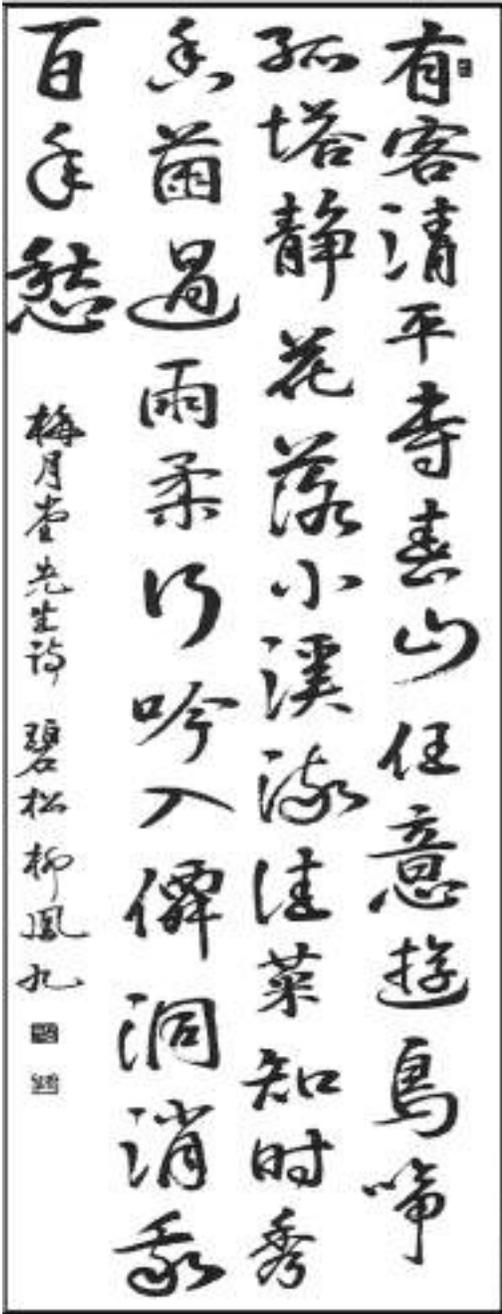
行吟入仙洞

가면서 읊조리며

신선골에 들어서니

消我百年愁

나의 백년 근심이 녹아 버렸네



류봉구 붓글씨

崔奇男 先生 詩

錄樹陰中黃鳥節

녹색 나무 그늘에
피꼬리 울고

靑山影裏白茅家

푸른 산 그림자 속에
띠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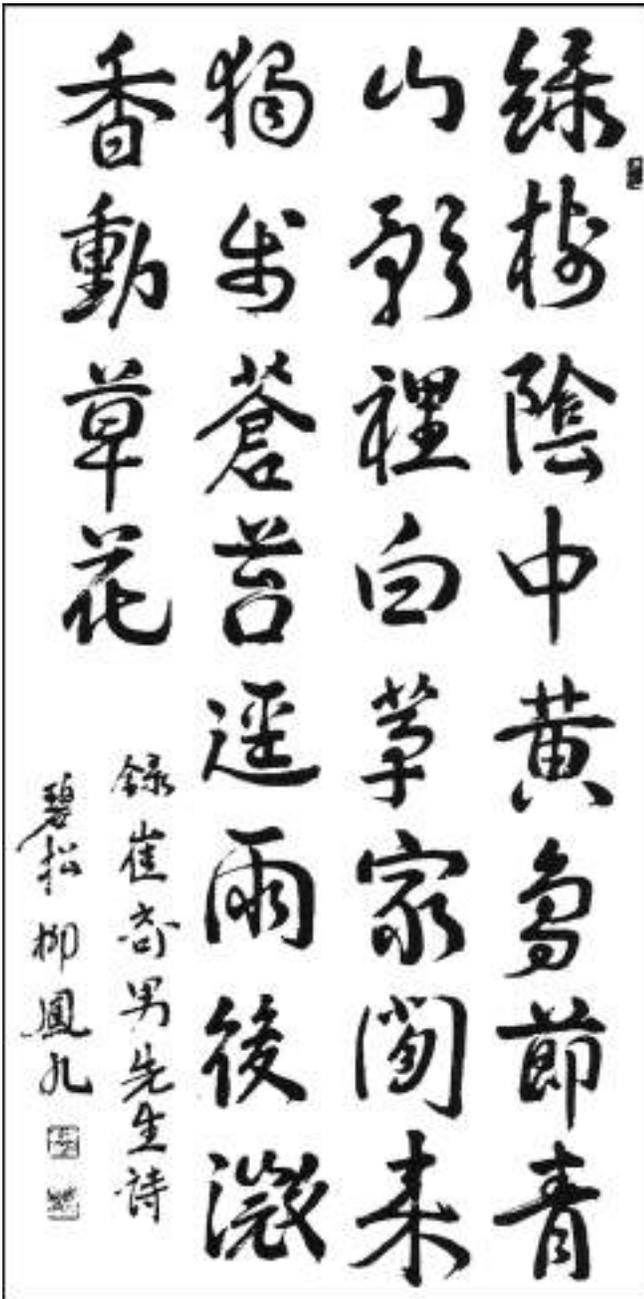
閒來獨步蒼苔逕

한가히 이끼 낀
길거리 나니

雨後微香動草花

비 온 뒤에 풀고 꽃에
향내 진동하네

동양서예학회 초대작가전
출품작



류봉구 붓글씨

【散文詩】

그리운 내고향



태화 柳在珪

그리워라 고향산천 가수동 마을
 가수골 점점골에 태어난 우리
 섬동산 학산위에 신판지면당
 개구쟁이 어린시절 놀이동산
 그곳이 마냥 그리워라

삼성가족 용기종기 모여살든곳
 사백년의 역사를 지켜온고장
 이웃들과 오순도순 살아왔건만
 춘절기 보릿고개 건디다못해

근대화 물결따라 헤어지노라

타향살이 접어두고 가고픈그곳
 흙냄새 풀냄새 그리운고향
 너도나도 돌아가자 향수질은고향
 놀이동산 골목길 뛰어놀든곳
 꿈엔들 잊으랴 그추억들

※ 三姓 文化柳氏, 昌寧曹氏, 昌寧成氏,

※ 고향산천 가수동 마을 가수 골 점점 골에 태어난 우리 섬 동산 학산 위에 신판지 면 당 개구쟁이 어린 시절 놀이동산. 진주시 금곡면 가봉리 가수동 마을 표지석에 새겨진 태화 류재규 시인이 고향을 노래한 시.(출처 : 경남연합신문, 승인 2019.07.23.)

표지석에 대한 설명

가봉리 가수동 마을 표지석은 고인이 된 당질(류인현)의 아들 사형제가 온갖 정성과 뜻을 모아 자연석인 마을 표지석을 기증하게 된 것이다.

표지석 이면에 새겨진 “그리운 내고향” 이라는 시(詩)를 지어 이 돌에 새겨 세세년년 미래에 전하고자 한 것이다.



시(詩)의 내용설명

제 1 절 : 태어나서 어린시절 자랄 때의 고향배경을 담았다.

제 2 절 : 찌들게도 가난하던 보릿고개시절을 보낸 배경과 칠십년대 조국근 대화물결에 따라 젊은이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헤어진 뜻을 담았다.

제 3 절 : 고향을 떠난 젊은이와 옛동무들이 쓸쓸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추동마을



文化柳氏大宗會 理事 柳 濟 福

환산아래 촛대처럼
솟아오른 바위들
고리산 아래 뺨어 나온
열두 폭 병풍바위
기암절벽 펼쳐진 절경이라.
그 아래 서화천

작은 강이 흐르면서
뱀같이 굽이쳐 흘러
바위가 좋고 물이 좋아 부소머리라
아름다운 고장 추동마을
소금강에 비쳐도 손색이 없구나!

추소정

柳 濟 福

붓을 들어 먹물을 튀기며
추소정에 앉아
검은 먹물로 하늘을 병풍삼아
술병에 기대어
고향 향기에 젖을 때
하얀 눈꽃송이
하늘에서 살포시 내려와
추소정 버들가지

흰 눈꽃송이 피어나고
내 님은 꽃 한송이 되어
바람결에 떨어져
서화천 강물위로 흐르니
산새들 버들꽃 사이로 기대어
합창 노래하듯 울려 퍼지니
물안개 피어올라
소복 입은 여인 나를 유혹하네...

30W 전등을 켜다



황혜리

맨 처음 나의 방은 등그런 물속이었지
따스한 선과 선이 날라주는 영양성분
날마다 받아먹느라 단호하게 웅크렸지

아주 가끔씩은 팔다리를 뻗었는데
꼭 감은 눈 속으로 잠이 오듯 별이 뜨자
열 달도 안전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우려 말끔히 걷으라고
온밤 내 출렁이며 받아놓은 빛의 씨앗
우렁찬 울음만 같은 불빛이 쏟아진다

© 중앙일보 편집국 문화부 중앙 시조 백일장 2018년 4월 수상작(장원)

- 황혜리 : 1984년생. 홍익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베이징중앙약학대학수료. 현재 중국어강사.
- 황혜리는 류호정(대승공 35세, 충청공파 소윤공후 옥천공종중) 님 자부임

고향길



文化柳氏大宗會 理事 柳 鳳 九

고향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떠오르지
그 품에 매달려서 주린 배를 채웠네
아련한 어린 시절이 언제인 듯 새롭네

맨발로 골목길을 달음박질하다가
마을 앞 개울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운 소꿉놀이에 해 가는 줄 몰랐지

흐르는 세월처럼 삶만 좇아 달려온 길
어느덧 몸은 늙고 기력도 쇠진하니
어제가 전설만 같은 마령 팔십 백발이네

[청계문학] 18(2017년 2월)



울타리

柳 鳳 九

참나무 가지 엮어 세운 울타리 밑
보랏빛 제비꽃 곱게 피어 있네
가지 안고 소리 없이 자란 호박 덩굴

잎새에 비 맞아 바스락 소리치고
호박잎 따서 밥물에 썰 주시던 어머니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계실까

따스한 그 손길은 주머니 난로 같고
그때 모습 그리워 옛 생각 아련한데
지난날 돌아보니 팔십 성상 되었네

[청계문학], [국제문단](2017년 5월 18일 병원에
서)

쇠똥구리

柳 鳳 九

나는 길 가다 보았지
소똥구리 두 마리

삶의 앞날을 위하여
굴리는 바위 같은 쇠똥

힘에 지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굴리는 삶

금지될 느끼는 사랑의 힘
너에게서 삶의 고난을

끝없는 노력만이 삶의 길
자연의 위대한 가르침을

[청계문학], [국제문단](2017년 10월 11일)



저녁 놀

文化柳氏大宗會 理事 柳 相 議



담황색 빛줄기가 무거운 구름 사이
상공과 가장자리를 헤치고 동쪽 향해 비추니
하늘은 갑자기 노랗고 빨간 빛갈로 불타고
타는 덧 한 진홍빛 빛줄기는 하늘을
갈라놓은 듯 아름다운 저녁 놀

하늘 아래 모든 산은 감색으로 물들고
호숫가 마른 갈대밭 들불 타듯 붉은 빛
떠다가 노란 빛은 사라지고 빨간 빛은
따듯하고 온화하게 사방으로 퍼지며
꿈처럼 부드럽게 감싼 구름의 베일
언저리에 펼쳐진 뒤 둔한 잿빛 벽을 뚫고
붉은 빛은 모세혈관 흐르듯 빨강게 물든다.

잿빛과 빨간빛 천천히 뒤 섞이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라일락 색조 띄고
노을 속의 호수는 질푸르게 검고
기슭 얇은 곳은 담록 색으로 물들면
가슴 아플 정도 아름다운 빛갈의
경련이 이는 저녁 놀

지평선 위에 타는 덧 한 빛갈의
저녁놀의 무상하게 빠른 변화의 모습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분명한 저녁놀의 변화
저녁 기운이 완연하고 냉기 도는
산골짜기 멀리 바라보며 놀란다.
아름다운 저녁놀 보며...

제주항 앞 바다

바닷물이 바람타고 밀려들어
 철썩철썩 파도 부딪치는 용 바위
 주변 생선 장사 좌판 위엔
 전복, 소라, 낙지 꿈틀거리고
 관광객 부르는 아낙들 왁자지껄 웃음소리
 육지 여행객들 부딪친 소주잔 소리
 들려오는 제주항 앞바다

먼 수평선 너머로 숨어버린 태양은
 붉은 노을 빛 뿜어 수채화 그리고
 수평선 멀리 별들과 함께 여기저기
 어선들 불빛 반짝이는 제주항 앞바다

빛나는 태양이 동쪽 하늘 밝힌 아침
 선창가 만선의 즐거운 뱃고동소리
 돛 내린 어선엔 밤샘 그물질로
 잠 못 잔 어부의 피로한 얼굴
 「무사히 만선하여 돌아오라」
 기도하고 마중 나온 어부 아내들
 즐겁게 모여드는 제주항 앞바다

새벽 먼동 트자마자 낚시 대 매고 나와
 방파제에 걸쳐 앉아 미끼 끼어 던진 낚시 줄
 움직이는 찌보고 잡아당기면 은 길치
 반짝이며 끌려나오는 제주항 앞바다

【漫筆】

韓國人 姓氏의 由來



忠景公派 少尹公后 驪州吉孫宗中
副會長 柳濟成

1. 姓氏의 意義

혈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민족은 어느 누구나 父系를 중심으로 한 각기의 성씨를 갖고 있으며, 각 성씨별로 씨족의 역사를 갖고 서로 융화하며 협동 발전하여 왔다. 특히 祖上崇祖思想과 愛族思想이 강한 우리들은 성씨를 통해 선조들의 幽玄한 餘韻을 느끼고 면면히 내려오는 家統의 맥락을 더듬으며 조당의 얼과 채취를 느끼는 동시에 가문에 대한 강한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씨의 成長過程은 문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심리적·정치적 역할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2. 姓氏의 由來

성씨의 발생근원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중국 성씨제도의 영향을 받아 古朝鮮시대의 王族에서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온다.

고대 씨족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집단을 통솔하는 지배자가 나타나는데, 통솔에 필요한 정치적 기능을 부여함에 있어서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 姓으로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지방 세력이 중앙귀족화 되면서 다수의 부족을 통솔하기 위한 칭호이며, 정치적 신분을 표시하는 중요한 의미로 나타났다.

따라서 姓은 초기에 王室이나 貴族에서만 극한되어 사용하다가, 국가에 공이 큰 功臣들이나 歸化人들에게 世居地域이나, 강·산의 명령을 따라 賜姓을 하면서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서민들의 성씨 사용은 科學制度가 발달되는 958년 고려광종 9년 이후에서부터 보편화 되었으며, 常民과 奴婢를 포함한 모두가 성을 갖게 된 것은 조선말 개혁정치가 시행되면서 부터다.

3. 姓氏의 得姓過程

三國史記 第十三卷 高麗本紀一에 고구려 시조 朱蒙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高氏를 자기 성으로 하였으며 建國功臣인 再思에게는 克씨를, 武骨에게는 仲室씨를, 默居에게는 山室씨를 사성한 기록이 있다.

三國史記 二十三卷 百濟本紀에는 백제의 始祖 溫祖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하여 扶餘씨로 하였으며, 신라시조 赫居世는 기원전 57년경 楊山기슭 蘿井옆에 있는 숲속에서 표주박 같은 커다란 알에서 탄생했다하여 표주박씨를 성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김씨의 시조인 金闕智는 65년 탈해왕 9년에 金城 서쪽 始林 숲속에서 金函으로부터 나왔으므로 金씨라 하였으며, 가야국 시조인 首露도 43년(신라 유리왕 19년) 金官國 북쪽 龜旨峰에 떨어진 6개의 황金卵에서 나왔다하여 金씨라 하였다.

三國史記 第一卷 新羅本紀에는 신라3대 유리왕 9년(서기32년)에 6부를 개정하여 闕川 楊山村(양부)장 謁平에게는 李씨를, 突山 高墟村장 蘇伐都利에게는 崔씨를, 武山 大樹村(점량부)장 俱禮馬에게는 孫씨를, 嘴山 珍支村(손리부)장 智伯虎에게는 鄭씨를, 金山 加利村(한기부)장 地陀에게는 裴씨를, 明活山 高耶村장 號珍에게는 薛씨를 사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北史의 百濟列傳에 보면 沙·然·姦·解·直·國·苗씨등 8대 성이 기록되어 있으며 金首露王의 두 아들이 어머니 阿諛他國공주 許黃玉의 성씨를 따라 許씨라 하였고, 고려왕건은 고려건국 개국공신인 弘述에게 洪씨를 白玉에게 裴씨를 三能에게 申씨를, 卜沙貴에게는 卜씨를 사성하여 각각 洪·儒·裴玄慶·申崇謙·知兼으로 개명하였다.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歸化하여 성을 얻었는데 주로 중국계통이 많았다. 槐山 占氏와 金海 金氏 友鹿계에는 일본계통이고 花山 李氏는 安南계통·延安 印氏는 몽고계·德水 張氏는 아랍계이며 太氏의 일부는 潑海계통이고 林川 李氏와 慶州 薛氏는 위구르 계통이다.

흥미있는 사실은 忠州 魚氏 魚重翼은 원래 池氏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體貌가 기이하고 겨드랑이 밑에 비늘 셋이 있어 고려 태조가 친히 불러 보고나서 魚氏로 사성했다고 한다.

東國輿地勝覽의 木川懸姓氏條에 보면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후 목천 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자 태조의 미움을 사서 각기 牛(소)·馬(말)·象(코끼리)·璋(노루)·豚(돼지)씨 등의 짐승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후에 于·尙·頓·張씨 등으로 變姓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4. 姓氏의 社會的 義味

원시 사회에서는 [토테미즘] 으로 인한 특정 동물을 씨족의 先祖로 모시는 종교적인 면이 있었으나 문명이 발달하고 문자가 보급되면서 [토테미즘] 이 점차 사라지고 특정 성씨를 씨족의 상징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중세사회에 이르기까지 성씨는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계급에서만 사용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신분계급의 상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평등한 조건에서 누구나 갖게 됨으로써 인격존중의 사회적 진보가 달성되고 사회적 존중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민족 유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地位意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예컨대 특정 성씨의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는 그 성씨 모두의 사회적 신분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의 각성과 사명의식을 鼓吹시켜준다.

이렇듯 성씨는 신성불가침한 自我成就의 도구로 여겨지며, 성씨를 중심으로 자신의 심리적 세계가 존재하게 되고 개인적인 모든 활동이 성씨 속에 結集되고 表出된다.

따라서 개인의 업적이나 명예가 결국은 성씨에 부착되고 성씨를 통해 계승된다는 사실을 볼 때, 성씨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浮刻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派閥의 근거가 되고 동류의식이 강화됨으로써 폐쇄적인 族閥主義가 나타나며 개인을 한 집단에 떼어놓고 희생시켜 발전과 개혁의 장애물이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5. 姓氏의 成長過程

성씨의 數와 種類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역사의 興亡盛衰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265성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 英祖 때 陶谷 李宜顯이 지은 陶谷叢說에는 298성이 조선 정조 때 雅亭 李德懋가 쓴 蟲葉記에는 486성이 영조 46년에 편찬되어 正祖 6년에 增補를 시작한 增補文獻備考에는 조선 초에 무려 4296성이었던 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289성으로 줄어들었으며 다시

496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성씨에 관한 문헌으로는 東國輿地勝覽과 梁誠之의 海東 姓氏錄, 趙仲耘의 氏族源流, 丁時述의 諸姓譜등이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930년 總督府 國稅調査에는 250성으로 조사됐고, 1934년 中樞院에서 펴낸 (조선의 성명 씨족에 관한 연구조사) 에는 326성으로 나타났다.

1960년 국내 조사에서는 미확인 11성을 포함하여 258성이었으며, 1975년 국내 조사에서는 249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5년 경제계획원에서는 본관별 분류를 처음으로 시도하여 다각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시대별 또는 자료별 차이가 큰 것은 대개 실제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옛 문헌에 산재해 있는 것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며 가구 수와 호적별의 조사 차이로 나타났다.

75년도 인구조사에 의한 성씨 분포도를 살펴보면 김씨가 전체인구의 21.9%, 이씨가 14.9%, 최씨가 4.8%로 5대 성이 총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위 20위 안에 드는 성이 80%를 차지하고 36여개 성이 90%, 90여개 성이 전체의 99%를 차지하여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249성 중에 90여개 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160여개 성은 총인구의 1%도 못 미치는데, 심지어 丕·先·間·應·鮑·房·恩씨 등은 전국을 통하여 1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7월에 조사한 한국의 성씨

- | | | |
|----------|----------|----------|
| 1. 김해김씨 | 2. 밀양박씨 | 3. 전주이씨 |
| 4. 경주김씨 | 5. 경주이씨 | 6. 경주최씨 |
| 7. 진주강씨 | 8. 광산김씨 | 9. 파평윤씨 |
| 10. 청주한씨 | 11. 안동권씨 | 12. 인동장씨 |
- 28 문화류씨 284,083명 순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씨가 점차적으로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系統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同族與否를 가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本貫이다.

본관이란 本, 貫鄉 또는 貫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貫은 錢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한 줄에 꿰어 묶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親族이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뜻(貫錢見之貫)이며 여기에 더 나아가 本籍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始祖나 中始祖의 출신지 혹은 定着世居地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封君(고려 때 중1품, 조선 때 2품 이상의 공로자에게 주는 직위) 칭호를 따라 정하는 경우, 그리고 성씨와 같이 임금이 功臣이나 歸化人들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賜貫이라고 한다.

고려 개국공신 申崇謙은 곡성사람이었지만 고려 태조와 함께 平山으로 놀러가 그곳이 좋았으므로 평산을 본관으로 하사 받았으며 하동 雙溪寺碑文에 眞鑑禪師의 本貫이 皇龍寺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선사가 황룡사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따라서 성씨만이 같다고 해서 전부 같은 혈족이 아니며 본관까지 같아야 같은 血族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를 보면

1. 同族 同本の 同姓 인데 近親婚의 불합리성과 윤리적 가치관 때문에 혼인을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점차 解消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 異族 同本の 同姓 관계인데 이는 姓과 本이 같지만, 그 근원은 전혀 달라 사실상 혈통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南陽 洪氏는 唐洪(당나라로부터 온 洪殷悅을 시조로 함)과 土洪(洪先幸을 시조로 함)으로 구분되어 공통점이 없이 系統을 달리하고 있다.
3. 異族異本の 同姓인데 이는 시조도 다르고 본도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江陵 金氏와 光州 金氏는 시조와 본이 다르지만 같은 金闕智 계통이며 古阜 崔氏와 慶州 崔氏도 마찬가지로 시조와 본을 달리 하지만 같은 崔致遠계통이다.
4. 異族異本の 同姓관계인데 이는 大姓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한 예로 金海 金氏와 慶州 金氏 등과 같이 같은 성을 쓰면서도 조상이 달라 아무런 계통관계가 없는 것이다.
5. 同族의 同本異姓인데 이는 조상과 본을 같이 하면서도 성씨만을 다르게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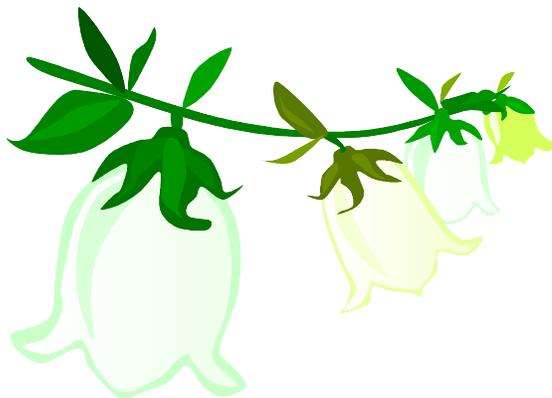
는 것이다. 예로 金海 金氏와 金海 許氏의 경우인데 같은 金首露王의 후손으로서 성만 달리하므로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6. 異族의 同本異姓인데 이런 경우는 허다하다. 예를 들어 慶州 李氏와 慶州 金氏, 慶州 孫氏 그리고 安東 姜氏와 安東 權氏, 安東 金氏 등의 경우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 성씨에 나타난 본관의 수를 살펴보면 東國萬姓譜에는 金氏가 120본, 李氏가 116본, 朴氏가 51본, 崔氏가 43본, 鄭氏가 35본 등으로 나타나 있다.

1930년 국내조사의 기록에 보면 金氏가 85본, 李氏가 103본, 朴氏가 34본, 崔氏가 34본, 鄭氏가 35본 등으로 되어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같은 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同族部落이 있었는데 이들은 門閥을 소중히 여기고 자치적으로 상호 협동하여 집안일을 해결해 나가는 특이한 사회조직의 한 형태를 이룬다. 수많은 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파를 지양하고 한 민족의 핏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족동본 의식으로 오천년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



祭祀의 의미



忠/少 신천공회장 後松 柳 熹 烈

“祭禮라함은 始祖이하 先代, 先祖들을 推仰하는 여러 가지 儀式을 비롯하여 돌아가신 高祖, 曾祖, 祖, 父母, 兄弟와 配偶者 기타 친족을 추모 또는 추도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날에 혹은 四時, 名節에 올리는 의식 節次를 말한다.”라고 했다.

祭祀의 동기와 유래를 살펴보면 먼 옛날 사람이 原始的인 생활을 할 때 天災地變이나 또는 맹수 등의 공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늘과 땅, 沈水, 巨木, 높은 산, 바다, 祖上 등에게 절차를 갖추어서 빌었던 것이니, 이것이 즉 제사로 발전한 根源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人間이 自然變化나 疾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行하여 저 온 제사는 中世와 近世에 와서는 차츰 儒敎의인 조상 숭배의 제도로 변해졌으나 儒敎의인 복잡한 절차와 자연 숭배의 迷信的 의식이 높아지므로 가정마다 年間 제사를 지내는 回數도 많아졌다.

祭禮는 祭祀의 절차로 喪禮와 마찬가지로 그 의식절차가 까다로워서 儒學者나 禮文家 사이에서 論難이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제례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그 種類도 많다.

祠堂에서 초하루, 보름에 올리는 朔望齊를 비롯하여 각종 祠堂의 告由祭, 설날과 秋夕의 茶禮, 重三(三月 三日), 端午(五月 五日), 流頭(六月 十五日), 重陽(七月 七日), 冬至 등 세속 節祀가 있고, 또 墓祭로 寒食, 清明日과 五代 이상의 墓所에 올리는 歲一祀, 그리고 五代 이하의 忌日에 올리는 忌祭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大祭는 春, 夏, 秋, 冬 四時節의 仲月에 올리는 時祭가 있으나 요즘은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시제 다음으로 중요한 祭祀로는 忌祭라 할 수 있다.

기제는 故人이 別世한 날 해마다 한 번씩 올리는 제사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 날을 忌日 또는 諱日이라고 한다.

기제사의 대상은 돌아가신 父母, 祖父母, 曾·高祖父母와 配偶者 및 兄弟 등으로 家族制度의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함께해 왔고 가장 親密한 感情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高·曾祖의 경우 일찍 돌아가시어 記憶이 없다하더라도 이는 祭禮 중 四代奉祀의 原則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忌祭를 “방안제사”라고 한다.

祠堂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서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紙榜을 써서 세워 놓고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방에서 지낸다고 해서 부쳐진 이름이다.

忌祭日은 故人이 돌아가신 전 날을 말한다. 그 전날은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기에 바쁜 날이다. 이 날을 入齋라고 하고 별세한 날을 忌日, 다음날을 罷祭日이라고 한다.

忌祭 시간에 대하여 禮文에는 별세한 날, 子時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厥明祭, 質明祭라고 한다.

厥은 其也요, 質은 成也이니 厥明하면 未明이요, 質明하면 東이 틀 무렵을 말한다. 그러니까 子正(12시) 전부터 寅時(5시) 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禮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에서 볼 때 厥明行祀한다는 것은 핵가족화로 인한 분산 거주하는 가족들의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날 출근과 활동에 지장이 많으므로 家庭儀禮準則에 준하여 별세한 날 日沒 후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지내는 추세다.

墓祭 역시 시대를 넘어설 수는 없다. 10월에 行해지는 歲一祀는 墓所에 직접가서 제사를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제물을 묘소까지 운반하는 사람이 없다.

과거에는 산지기(관리인)가 있어서 운반했으나, 요즘은 관리인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參祀하는 後孫들이 적어서 불가능함으로 할 수 없이 齋室에서 제사를 올리는 門中이 많다. 지금까지 주로 우리 가정에서 行하는 제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어쩌면 제사는 宗教的인 所持가 많다고 보겠다.

제사의 유래를 살펴 볼 때 우리의 생활과 안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 巫俗에서 제사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옛날 나라에서 높은 산, 太白山, 摩尼山에 天祭壇을 축조하고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天祭를 지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外國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고대국가에서도 神殿을 세워 인간과 동물을 제물로 선택하여 천제를 지냈다.

高麗시대에는 影幀閣을 세워 王室과 功臣들의 肖像을 그려 그 분들의 뜻을 기리고 추모했으며 朝鮮時代에 와서는 歷代 王의 位牌를 모셔 놓고 제사를 지냈으니 곧 宗廟가 그것이다. 宗廟祭는 지금도 全州李氏 종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또 조선시대의 三嶽壇 즉 妙香山에 上嶽壇, 鷄龍山에 中嶽壇, 智異山에 下嶽壇을 세워 왕실의 安寧과 國泰民安을 기원했으며 지금도 계룡산 新元寺에서는 中嶽壇이 現存하고 있다. 이상은 개인이 아닌 왕실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成均館의 文廟와 書院, 祠宇에 대하여 살펴 모기로 하자.

성균관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최고학부이다. 성균관에 文廟를 설치하여 孔子를 비롯하여 五聖, 四賢과 我東 十八賢의 位牌를 奉安하고 年 2회 春, 秋로 釋奠大祭를 올리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교육을 儒學精神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균관 내에 문묘를 두어 孔子를 비롯한 聖賢들의 思想과 뜻을 기리며 儒學思想의 人材를 양성했다.

鄉校 또한 그 지방의 公立 中等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으니 중앙의 성균관과 같이 당연히 문묘가 설치되어 그 목적 또한 성균관과 다를 바 없다.

지방에 있는 書院은 私立 中等교육기관이며 서원에서 예외 없이 祠堂이 있어 창립자 또는 先賢들의 위패를 모시고 그 사상을 배우고 있다. 이것 또한 성균관의 목적과 다를 바 없다.

향교의 講學機能과 서원의 敎育機能은 신교육제도의 導入으로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고 祭享機能만 남아 있어 儒林들의 힘으로 存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습은 아니라 日本과 中國, 그리고 전세계에 걸쳐 先史時代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은 神社가 있으며 집안에는 “가미다나”라는 자기 선조의 神을 모시고 있으며 중국에도 孔子廟를 비롯하여 선현들의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종교적 차원으로 제사의 의미를 찾아보면 佛敎에서 부처에게 올리는 祭, 信徒들 가족의 靈魂을 절에 맡기고 올리는 祭 등이 있고, 基督教 역시 예수의 十字苦像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제사와 無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巫俗的인 視覺으로 볼 때 산에는 山神閣이 있어 산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바다에는 海神閣이 있어 제를 올리고 龍王祭 및 豊漁祭를 지내고 있다

명산의 큰 바위를 비롯하여 큰 나무도 木神에게 부락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거리에서도 거리제를 지낸다.

제사의 의미를 크게 나누면 안녕과 소원성취 그리고 先人들의 추모에도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제사의 절차와 방법은 각국 각 민족의 풍습과 제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목적과 의미는 같다고 하겠다.

이런 모든 제사의 대상은 神이다. 그러니 우리는 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神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論理는 有神論과 無神論으로 갈라져 지금까지도 결론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神을 본 일도 없으며 神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한계가 있다.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신이 해결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신에게 의지하고 신을 대상으로 所望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基督敎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忌日이 돌아오면 追慕행사로 대신한다. 그러나 제사도 고인에 대한 추모가 목적이니 다를 바 무엇이랴?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儒敎에서 位牌를 또는 紙榜을 써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佛敎에서 佛像을 만들어 놓고 기원하는 것이나 기독교에서 예수의 十字苦像을 걸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 다르랴? 최종 목표는 같다고 생각할 때 祭祀의 의미는 그 곳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사는 수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朝鮮王朝의 官職과 品階(文·武)



文化柳氏忠景公派 會長 柳 在 寬

1. 조선조 관직과 품계

朝鮮王朝時代의 文武官의 官職 및 品階는 時代에 따라 극히 一部 변동은 있었으나 다음과 같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神道碑나 墓碑의 贈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이해하여주기 바란다.

正一品官

대군(大君), (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 있음) 정공신(正功臣) 및 왕비(王妃)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이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부(師傅=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品 혹은 종一品을 제수한다.)

감사(監事=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從一品官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 사부(師傅=세손강서원의 관직)

正二品官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판서(判書), 대제학(大提學), 지사(知事), 판교(判校=규장각의 관직), 판윤(判尹),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도총관(都摠管).

從二品官

군(君), 참판(參判), 대사헌(大司憲), 동지사(同知事), 관찰사(觀察使=道の監司), 좌윤(左尹), 우윤(右尹), 직제학(直提學=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삼품까지 있음), 유수(留守), 목사(牧使)=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提學),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제조(提調),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삼품까지 있음),

대장(大將=정삼품까지 있음), 부총관(副總管), 중군(中軍=정삼품까지 있음), 사(使=무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중삼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용호령).

正三品官

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중삼품까지 있음), 도정(都正), 대사간(大司諫), 대사정(大司成), 참의(叅議), 부제학(副提學), 도청(都廳), 도정원정(都正院正),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첨지사(僉知事), 직각(直閣=중삼품까지 있음),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주(祭酒),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판결사(判決事), 대장(大將),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등의 관직,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판교(判校),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중삼품까지 있음), 제검(提檢=중삼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중삼품까지 있음), 별장(別將=훈련도감), 천총(千摠=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함), 목사(牧使), 사림위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從三品官

첨위(僉尉), 부정(副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典翰), 사성(司成), 편수관(編修官), 참교(叅校), 상례(相禮), 익례(翼禮), 내승(內乘=중삼품까지 있음), 제거(提擧), 제검(提檢),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사가 겸임함),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정삼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正四品官

수정(守正), 전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관(侍講官), 응교(應校),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봉례(奉禮), 호군(護軍), 별제(別提=수성금화사의관직), 첨정(僉正=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후(虞候), 제검(提檢=종四품까지 있음).

從四品官

경력(經歷), 부응교(副應敎), 서윤(庶尹), 수(守)=사(司), 창(倉)의 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군(副護軍), 군수(郡守),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파총(把摠),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제검(提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正五品官

령(令=종친부의 벼슬), 전부(典簿), 검상(檢詳), 정랑(正郎),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의(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校理),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직강(直講), 기주관(記注官=종五품까지 있음), 찬의(贊儀), 별좌(別坐=종五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전수(典需), 사직(司直).

從五品官

부령(副令=종친부의 벼슬), 판관(判官), 도사(都事=종九품까지 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敎理),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기주관(記注官), 령(令)=서(署), 궁(宮), 고(庫)등의 벼슬, 현령(縣令),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正六品官

감(監=종친부의 벼슬), 좌랑(佐郎), 감찰(監察), 사평(司評), 정언(正言), 검토관(檢討官), 수찬(修撰),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전적(典籍), 기사관(記事官=정九품까지 있음),

교검(校檢), 전악(典樂), 사회(司誨), 별제(別提=종六품까지 있음), 평사(評事), 사과(司果), 장원(掌苑), 사포(司圃),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從六品官

주학교수(籌學教授), 별전수(別典需), 율학교수(律學教授), 별제(別提), 천문학교수(天文學教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教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教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教授), 명과학교수(命課學教授), 교수(教授), 부수찬(副修撰), 좌찬독(左贊讀), 우찬독(右贊讀), 좌위술(左衛率), 우위술(右衛率),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기사관(記事官), 인의(仁儀), 부전악(副典樂), 사축(司畜), 사지(司紙), 의학교수(醫學教授), 한학교수(漢學教授), 선화(善화), 부전수(副典需), 영(令)=능(陵)의 벼슬, 찰방(察訪), 현감(縣監),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 낭청(郎廳=선혜청의 벼슬),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종九품까지 있음).

正七品官

주서(注書), 봉교(奉敎), 대교(待敎=정九품까지 있음), 박사(博士),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경(司經),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전률(典律), 참군(參軍), 좌부술(左副率), 우부술(右副率), 낭청(郎廳), 기사관(記事官), 수문장(守門將).

從七品官

직장(直長),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 벼슬), 명률(明律), 부전률(副典律), 선회(善繪), 부사정(副司正), 별회(別會).

正八品官

사록(司錄), 저작(著作), 설경(說經),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전음(典音), 별검(別檢=종八품까지 있음), 사맹(司猛).

從八品官

계사(計士), 심율(審律), 봉사(奉事), 부전음(副典音), 별검(別檢), 전곡(典穀), 화리(化吏), 부사맹(副司猛).

正九品官

주학훈도(籌學訓導), 율학훈도(律學訓導), 정자(正字), 전경(典經), 검열(檢閱),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학록(學錄), 부봉사(副奉事), 전성(典聲),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의학훈도(醫學

訓導),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사용(司勇).

從九品官

회사(會士), 부정자(副正字), 분교관(分教官), 학유(學諭),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부전성(副典聲), 전화(典貨), 회리(繪吏), 권관(權管),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부사용(副司勇), 초관(哨官).

2. 조선조 교지와 대한제국 임명장(參判 參議 參奉 관직명 참조)



예조참판(參判) 임명장



호조 참판(參判)교지



병조참의 임명장 판서 참판 참의 수결문서



경기전 참봉(參奉)교지

大東祠 享祀를 精誠으로 奉行합시다

광주·전남 종친회 부회장 柳 旻 重

우암(尤庵) 송선생(宋先生)께서 이르시기를 류문(柳門)은 구조(圭組)와 잠영(簪纓)의 성(盛)함이 타족(他族)이 바라지 못 할 바요, 아동(我東)의 류(柳)로써 성(姓)을 삼는 자 대승공(大丞公)의 후손(後孫)아님이 없다. 라 하셨으니 우리 문화류씨(文化柳氏)는 삼산이주(三山二州)의 류문(柳門)은 말할 것 없거니와 고흥(高興) 영광(靈光) 등 적(籍)을 달리하고 있는 종족(宗族)들과도 친절(親切)하게 지내야 하리니 일가(一家)는 백대(百代)라도 지친(至親)이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 몸에서 태어난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신촌(莘村)에 전국유일의 始祖大丞公을 받드는 祠宇(大東祠)가 병술(丙戌:1946)에 창건되어 당초에는 春秋로 享祀를 봉행(奉行)하였고 근년(近年)에는 춘향(春享:陰2月15日)에 세 일제(歲一祭)로 시조 대승공 1위(一位)만을 받들고 있으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손과 유림의 행사로 향화봉행(香火奉行)이 불절(不絶)되고 있습니다.

향사를 奉行하는 절차에 있어서 儒林行事와 門內行事가 크게 다를 것도 없고 권위와 위상이 별로 차이 난 것도 아니지만 관암 상렬 족장(寬菴庠烈族丈)께서 일제의 억압하에서도 구월산 류릉(九月山柳陵)은 물론 태학관(太學館, 現成均館) 및 전국 종친을 찾아 헤매시다가 1945을유(乙酉)년 광복을 맞이하여 이듬해 1946(丙戌)에 大東祠 창건이라는 거역(巨役)을 주 선(周旋) 하였고, 한국전쟁(韓國戰爭)의 와중(渦中)에도 아랑곳없이 三山二州의 종친들이 합세하여 대동사원지(大東祠院誌)를 발간 하셨으니 全國宗親이나 儒林과 他姓間에도 크게 呼應하여 관암 족장의 승조정신을 받들어 지금 까지 한 번도 결함(缺陷)없이 모셔왔고 현재는 교통 통신 경제 모든 면에서 편리 한 세상에 살고 있어 몇 배나 더 호의호식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祠宇創立 이후 선조님들이 行해 왔던 향사를 더욱 정성을 받쳐 봉행하고 있습니다.

광복직 후 그 어려운 시기에도 祠宇를 건립, 강당과 齋室을 건축하였으며 장차

동서재(東西齋)까지 증설(增設), 더욱 더 규모를 확장할 계획을 樹立하고자 합니다.

사우 창립 당시에는 일백이십여두락(一百貳拾餘斗落) 田畝를 마련 할 수 있는 巨額의 誠金支援을 일부 종친들로부터 약속 받았었으나 난리통에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는 記錄이 있으니 이는 경향각처 종원들의 자발적인 呼應도와 和睦團合의 열의가 대단했다고 사료되나 차문의 위선(車門의 僞善) 으로 무산되고 말았으므로 심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院誌에 수록된 내용으로 짐작컨대 전국 종원들은 물론이요 他姓들의 呼應도 지대하였으니 전국 종친간에 찬양답통(讚揚答通)이 수백통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간벽지에서도 送金과 출연약속의 서한(書翰)이 많았고, 당시 북 한에 거주 하는 종친들의 성금 및 서찰(書札)도 더러 수록되었으니 그 어려웠던 시절의 情況을 詳考컨대 존경스럽고 감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 世上은 그때와 비교한다면 꽃가마타고 매일장취(每日長醉) 하여 신선놀음하는 삶이리니 외람((猥濫)되게 한 말씀 올리나이다.

오직 바라옵건데 우리 류문의 始祖님이신 大丞公 享祀에 조금 더 誠意를 가지시고 매년 음2월 15일에는 우리 모두 和睦團結하고 崇조돈종(崇祖敦宗)의 일념으로 더 많은 후손들이 盛況裡(盛況裡)에 始祖님의 享祀가 奉行되 도록 적극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천만양망 하나이다.

歲己亥(2019) 立秋節에 潭陽 昌平에서

大丞公三十五世孫 中門祇候使公派 晏重 謹識



깨어나라 동포여



명예문학박사
野山柳志卓

사계의 봄은 어김없이 왔는데
동방의 해 돋는 나라 대한민국은
어찌다 미세먼지 황사
빨갱이 바람까지 휘몰아 쳐
중중 폐렴을 앓고 있는가

양의 탈을 쓴 하이에나들의
정권탈취 빨간 본색이 들어났다
이제 더 이상 관망하고 망설일 때가 아니다
천손민족 겨레여 동포여 깨어나라 일어서라
그리고 타도하자 빨갱이 하이에나

절망과 낙망은 주사 파 전교조 놈들에
세뇌된 20•40세대 청년들의
무지한 민노총 패거리에게 속아
벼랑 끝에 내몰린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들이 정신 차리고 울곧게 바로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자유 민주국가에서 자유 있고
인민 민주주의에는 노예가 있을 뿐이다
참 배나무에서 돌배 열린다
우리 후손에게
자유 없는 세상에서 노예로 살게 할 수 없다

일어나서 싸우자
자유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족도 없는
노예로 살 뿐이다

家和萬事成

명신보감(治家)편에 나오는 말이다.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부모가 즐거워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조상이 선덕(善德)을 쌓으면 그 집안의 후손에게
틀림없이 경사가 따른다는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 역시 가화만사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柳志卓

孝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뿌리에 대한 예이며 禮는
통속이나 습관으로 형성된 행위준칙의 도덕과 윤리규범이다
忠은 마음의 중심을 수평적으로 유지하여 하나로
도모(圖謀)하는 호혜(互惠)사상이다.
세상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집단이며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생겨 시기(猜忌)와 질투(嫉妬)로 서로 미워하게
된다. 예부터 가정의 화목은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에 사회생활의 근본으로 중요시 하였다.

대학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8조목으로 삼아 집단의 다스림을 강조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격물에서 수신까지는 개인적이고 제가에서
평천하까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밖에도 가정의 화목에 관련된 고사성어나 글 등은
유교경전이나 일반서적에도 많이 등장한다.
효백행지본(孝百行之本)이라 하여 효를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
보는것도 가화만사성이 그만큼 중요함을 말함이다.

千載寶 百年貪物一朝塵



柳志卓

마음을 닦는 것은 천년의 보배요 물건을 탐하면 하루 아침에 티끌과 같이 거덜 난다는 말이다.

유리창을 닦듯이 마음을 닦아 평정심을 이루어 악을 다스리고 선함으로 덕을 쌓으면 반듯이 좋은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을 것이고 재물을 탐하면 욕심이 눈을 흐리게 하여 비겁해 짐은 물론 시기(猜忌)와 질투(嫉妬)가 도를 넘어 사악하게 되어 마음에 악마가 들어앉아 화(禍)를 불러들여 정신과 육신에 병이 생겨 패가망신할 수 있다

속담에 뱀새가 황새 따라 가려다 가리 쟁이 찢어진다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하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아 정심 정도를 바로 세워야한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잡념이 생기게 되어 쾌락에 빠져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마음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여 유비무환(有備無患)으로 불행을 예방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지 않았는가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니 헛된 욕망과 샳된 생각이
 침범치 못하도록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先祖의 祭享日을 잃고 살아가는 後裔들!



清溪公 14대손 柳 金 丸

이 푸념은 문화류씨 후예를 두고 하는 녀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래에 접어들면서 더러 녀 빠진 후예들이 가끔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지 않던 가요! 자기의 게으름은 감춰두고 시대가 변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조상의 기일(忌日)을 그렇게 표현해서야 되겠습니까?

서구 문화가 흘러옴에 분야별로 갖가지 이해 못하는 풍속들이 있다고 하나 우리의 전통을 해치지 않는 과학 분야의 발전적인 첨단문화는 받아야 하나 잡동상이 미개민족의 지속적인 적당주의 문화는 배타해야 옳고, 물론 동양문화(儒學)라고 무조건 시대에 뒤떨어졌다 함은 상하를 모르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무시하는 상민 이하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서구에서도 귀족(卿上)문화도 있고 조상들을 숭배 추모하는 전통은 유지되고 있지 않던가요? 가려서 받아 드리자는 것 입니다.

저는 他姓이나 빗나간 이웃 집안 가정사를 논 하자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 류문 만은 명문의 전통을 보전하고 제물(祭物)을 힘에 맞지 않게 무리한 음식은 형편에 맞추어 간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첨부 제향 일정표와 같이 대승공 7世손 諡號 文簡公 諱 公權의 長子 禮部尙書 언침(彦沉)공의 6世손 휘 관(寬)이 중 시조입니다. 號는 夏亭(諡號는 文簡이나 公權先祖님과 동일하여 呼稱은 略하고, 夏亭이라 稱하고 있음) 이며 세종조 右議政 清白吏로서 공의 네 아드님 중 長子 예조참판 휘 孟聞과 三子 刑曹判書 諱 季聞 등 文科를 하셔 집안을 빛내셨고, 季聞의 후손 礪溪 馨遠이 계십니다) 하정공의 6世손으로 기축사화(1589) 때 西人(松江 鄭澈)에게 희생당하신 호 清溪 諱 夢井(南原府使를 거쳐 光州牧使呈辭不赴)이 나의 14대 조부이시며, 금번 소개 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청계공의 15대 종부(宗婦)이며 竹山 安氏 美子님입니다.

우리 집안의 宗敎는 崇祖敎입니다.

저는 고교 때 아버님을 여이고 친족 어르신 들게 집안의 전통과 법도를 터득했고 직장을 정년 후 조상님들의 문헌을 살폈으며 시제 및 종중회의에 참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계조부님의 행장(行狀)을 탐독 연구하고 宣祖 22年(기축사화1589년)에 西人에 물려 1590년 庚寅 7월13일에 형장(刑場)에서 운명 하셨기에 가슴에 한(恨)이 맺혀 승조정신이 없는 자가 없으며, 매년 시제 때(음력10월15일)면 후손들이 묘소를 가득 채워 종가 댁의 종부 ‘안미자’ 씨와 특히 영석(永錫)조카 종손 注珙의 효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부십니다. 졸손(拙孫)은 후손 중 行列이 높은 편이라 진두지휘함이 예사이고 청계공 이외 다섯 내외분의 제사도 같은 날에 모시기에 오후 3시쯤에야 시제가 끝나는 편입니다. 종부의 연세도 일흔(70세)이 넘어 관절통, 신경통으로 온몸이 성하지가 않아 종친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종부님 옥체 보존하시고 항시 건강 하십시오! 종친 모두가 빌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종부 安美子

날씨가 몹시 차가워지고 있네요
수 일전부터 '메스컴'의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진눈깨비가
억센 바람을 몰고 산야를 뒤덮었었지요
폭풍 비바람도 종부의 정성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부님! 홀몸으로 수고가 많았어요
서울에서 종부의 시동생내외가
내려와 협조 하셨다고 하나
혼자서 그 많은 제물들을 말없이
거뜰히 해 내었음을 알고 보니
그게 종부의 일이라 해야 하나요?

종부님도 벌써 고회가 되었군요.
슬하에 이남삼녀 있다하나 어려움이 풀리나요?
다리가 쭉시고 허리진통이 왔다는데
그 힘든 종가살림 어찌 감당 해 낼래요?
세월이 멈추지 않는 한 종부님 건강
누가 살피며 노년을 보살피 드릴 런지?

매년 청계할아버님 외 다섯분 시제를 모시고 (族叔 金丸 드림)

우리 小門 직계선조 시제 일람표

位次	諱	享祀日	住所(現地名)	備考	
1	始祖 大丞公	車達	음 3월 12일 음 9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신촌길21-1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마산리)	제실
2	左尹公	孝金	음 9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마산리)	제실
3	中尹	金奐			
4	檢校大將軍	盧一			
5	小府少監	寶春			
6	"	寵			
7	文簡公	公權			
8	尙書公	彦沉	음 9월 20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 8-1	壇所
9	密直使公	淳			
10	忠成公	成庇	양 11월 둘째주 월요일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 200-1	묘소
11	僉議公	湜			
12	雲觀公	安澤			
13	夏亭公	寬	양 10월 둘째 토요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산 157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1길 52번길 12	묘소 제실
14	叅判公	孟聞	양 10월 둘째 토요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 3-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 3-1	묘소 제실
15	贈 副提學公	삼	양 10월 둘째 토요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산 3-1(구룡동)	壇所
16	高陽公(高陽郡守) 贈 吏曹叅判	順行	양 10월 둘째 일요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산 138-2	묘소
17	副提學公	希渚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4길 32(시흥동)	제실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산 138-2	묘소
18	司憲府監察居昌縣 監 贈大司憲	用恭	음 10월 15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4길 32 (시흥동)	제실
				전남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산 2-2(서당동) 전남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하평촌(송산서원)	묘소 서원

청계공 휘 몽정 이하 시제일 (淸溪公 宗婦 封祀 19世祖~22世祖까지)

世	位次	諱	享祀日	住所(現地名)	備考
19	淸溪公 府使,牧使(不赴)	夢井	음 10월 15일	전남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산2-2(서당동)	묘소
				전남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상평촌)	서원
20	主簿公	洞	음 10월 15일	전남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산 2-2(서당동)	묘소
21	僉正公	克孝	음 10월 15일		
21	通德郎	克悌	음 10월 15일	전남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산 63 (대밭)	묘소
22	掌樂院僉正	楨	음 10월 15일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251-1 (배밭)	묘소
23	遜菴公(武科) 贈 戶曹叅議	哲臣	음 10월 03일	전남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준마산	묘소
				전남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상평촌)	제실
24	贈 戶曹叅判	壽元	음 10월 03일	전남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묘소
25	件鷗亭公	泰泳		전남 여수시 울촌면 신평리 산곡부락	
26	贈 左贊成	再升		전남 여수시 울촌면 신산리 후동부락	
27	贈 禮曹叅判	孝根		전남 여수시 울촌면 취적리 내동부락	
28	巨堂公, 贈通政 後孫 八位 同塋	文煥 外	음 10월 첫째 일요일	전남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狐岩嶺(貯水池上)	묘소
29					
30					

DNA와 해프로그룹 遺傳子族譜의 分析



충/부령공중중
목원대 교수 공학박사 柳光烈
conan@mwu.ac.kr

요 약

인체세포의 Y염색체와 X염색체의 DNA에서 해프로타입으로 부터 해프로그룹의 해프로트리플 계층구조화하고 분석한다. 충청지방의 경우 부계의 Y-DNA는 O그룹에서 O3a* 및 O2b*의 빈도가 높고, 모계의 mtDNA는 L3그룹의 D*와 M* 빈도가 비교적 높다. 이 들의 각 조합으로 부계와 모계의 유전자계도가 작성된다. 특정한 류씨 성의 검사는 O3a3b*이지만 대표성이 미흡하다. Y-SNP 해프로그룹은 개인 고유의 생체 유전자식별코드가 우수하고, Y-STR은 비교 대상자간의 유전적 거리차가 10%이하이면 밀접한 관계로 본다. DNA 유전자검사는 아직 피검사자가 연구목적이나, 질병, 친자확인, 법의학 등의 필요로 행해지고, 일반인은 높은 검사비용, 검사기피 등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문화류 님의 DNA검사를 확대여 해프로그룹 계층구조를 작성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전통족보는 부계 중심으로 가문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알기 쉽게 계층구조화한 서적으로 가문에 대한 역사 이상의 가치가있기 때문에 유전자족보와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I. 서 론

유전자(gene)는 DNA (Deoxyribon Nucleic Acid)에 저장된 유전정보이다. DNA는 핵산(nucleic acid)의 일종이며, 지놈(genome) 또는 유전염색체는 DNA의 염기서열(base sequence)전체로 유전자와 염색체(chromosome)의 축약어이다. 유전자의 유전정보는 개인의 생화학적 고유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법의학, 친자확인, 유전질환, 개인고유인식코드 및 생체인식(biometrics) 등에 활용된다.[1]

유전자는 1910년 모건(Morgan)의 발견으로 연구가 가속되었다, DNA는 1869년 미셔(Miescher)가 최초로 발견하였고, 1952년 허시(Hershey)와 체이스(Chase)의 허시-체이스 실험으로 확정되었다. 인체의 DNA는 세포(cell) 내에 핵(nucleus)과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기타 등에 있으나 주로 핵속의 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에 있다. 1952년 로절린 프랭크린(Rosalind Franklin)이 DNA 이중나선 모형의 X선

회절 사진이 발표되었다. 1953년 왓슨(Watson)과 크릭(Crick)은 DNA의 이중나선(double helix) 구조를 밝히고, 1961년 니런버그(Nirenberg)와 코라나(Khorana)의 염기서열 해독에 의해 유전암호가 해독되었으며 2003년 지놈 프로젝트(project)에 의해 인간의 유전자정보체계가 99% 완성되었다.[2,3] 또한, 1994년도부터 레오날드 애들먼(Leonard Adleman)의 시작으로 반도체 대신에 DNA를 이용하여 바이오 컴퓨팅(biocomputing)도 연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BT (BioTechnology)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DNA에 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 BME (Biomedical Engineering)에서도 응용되고 있다.[4,5] 또한 DNA 표본검사 확대와 데이터베이스(data base)도 구축되고 있다.[6-9]

DNA유전자가계도는 해프로그룹에 의해 구축되고, 명명은 돌연변이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단일염기다형성) 기반의 UEP (Unique Event Polymorphism)로 정의한다, 또한 1979년에 HGNC (Human Gene Nomenclature Committee)에서 지침이 발표되었다. 1989년에 HUGO (Human Genome Organization) HGNC와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 개정되었다. DNA 해프로그룹은 YCC (Y Chromosome Consortium)와 YCC기반의 ISOGG (International Society of Genetic Genealogy)에서 명명되었다.[10] 따라서 유전자 혈통(genetic ancestry)은 분자유전자 검사(molecular genetic test)로 DNA의 염기서열 분석과 해프로타입 HT (haplotype)에서 해프로그룹(haplogroup)의해 해프로트리(haplotree)가 작성된다. 또한 DNA구조 및 검사, 부계(paternal line) 및 모계(maternal line) 해프로그룹의 계층구조를 분석한다.

II. DNA와 해프로그룹

2.1 염색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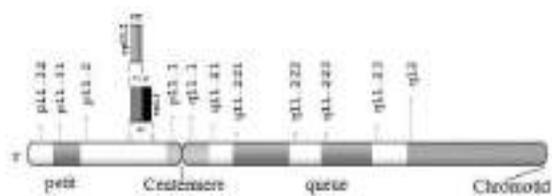
인체의 세포(cell)는 염색체, DNA, 유전자 및 염기서열로 세분하는데, 염색체는 세포 내의 핵, 미토콘드리아, 기타에 존재하고 해프로그룹은 핵의 Y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의 X염색체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염색체는 색(chroma: color)와 체(soma: body)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흰자질(protein)과 핵산으로 구성되고 95%가 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쉽게 염색이 잘되는 이유로 염색체이다. 그리고 23쌍(46)이며 길이에 따라 상염색체(autosome)는 염색체1번부터 22번까지 고유숫자가 지정되고 23번

한 쌍의 성염색체(sex chromosome)는 숫자 대신 XY(남), XX(여)으로 분류한다. 염색체의 유전자 수는 21000 이며, 그 중에 X염색체의 유전자 수는 800 및 150백만 염기쌍(base pair), Y염색체는 200 및 50백만 bp이며 1번 염색체는 2000로 가장 많다.

염색체의 크기는 0.2-20[μm]로 긴 끝부분의 크염색분체(chromotid), 중간부분의 중심연결체(centromere), 짧은 가지모양의 p(petit), 긴 가지의 형태의 q(queue)로 구성된다. 염색체의 각 부분의 위치는 유전자 좌(locus)에 따라 유전학(cytogenetics) 기호로 표시되며 계층구조로 명명된다, 예로 그림 1과 같이 Yp11.2는 Y는 염색체 번호(명), 1:위치영역, p:짧은 가지 1:위치영역 밴드(band), 1:부 밴드(subband)이다.

염색체와 유전자에서 세포분열(mitosis)시 자연적 또는 외부요인 등으로 돌연변이(mutation)가 발생하는데, 3개의 트리플릿(triplet) 셀(set)으로 변이의 기호는 마커(marker)로 표시한다. 마커는 SNP, STR, VNTR, 기타 등이 있고 주로 SNP와 STR (Short Tandem Repeat)이 적용된다. Y-SNP 마커는 Mnnn, SRYnnn (예, M175, SRY465) 등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문자는 연구소명이나 연구팀명이고 숫자는 발견된 순위이다. Y-STR 마커는 DkSnnn, DkSnnn=m 등으로 표기한다. 여기서 D:DNA, k:염색체번호 또는 Y; X 성염색체명, S:세그먼트(segment), n:발견된 순서의 숫자, m=변이 세그먼트의 반복인수이다. 마커는 염색좌와 연관된다. 예로 DYS449는 염색좌 yp11.2에 있다. 그리고 반복요소, 대립유전자(allele), 돌연변이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예로 X성염색체는 DXS10066와 같이 표기한다.

그림 1. 염색체 구조와 영역 위치



2.2 DNA

DNA는 RNA를 만들고 RNA는 흰자질을 만든다. DNA의 염기서열이 유전자이며 정보를 갖은 유전자는 약 33300개이다. 유전자는 흰자질 합성정보를 갖고 있는 엑손(exon)과 관여하지 않는 인트론(intron)부분으로 구성된다. DNA는 1 싸이클이 약 10 염기쌍과 그 길이는 0.34[nm], 직경이 2[nm]이다. 화학적으로 핵산이며 5가지 원소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의 사슬(strand)이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구성 단위로 당(Sugar), 질소염기(Nitrogenous base), 인산(Phosphate)로 구성된다. 또한 인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전

하를 띤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탄수화물(carbohydrate)의 일종인 펜토오스(pentose)와 인산이 각 한 분자씩 결합으로 구성된다. 펜토오스가 디옥시리보오스이면 DNA(디옥시리보핵산)이고 리보스(ribose)이면 RNA(리보핵산, Ribo Nucleic Acid)이다. 리보스는 5개의 카본 원자가 포함된 단당류(monosaccharide)이다.

RNA의 기본단위는 리보뉴클리오타이드(ribo nucleotide)이다. 32억 개의 DNA는 그림 2와 같이 이중나선이며 RNA는 단일나선(single helix)이다. DNA는 유전정보저장이고, RNA는 DNA의 유전정보전달 및 흰자질합성이며 DNA의 일부가 전사(transcription)되어 만들어진다. 흰자질은 아미노산(amino acid)과 암모니아(ammonia)의 합성이다. 대부분 흰자질은 세포 신호전달과정에 관여한다.

그림 2. DNA와 RNA 구조



이중나선은 주로 우방향으로 꼬이는 B-DNA형이 일반적이지만 A-DNA, Z-DNA도 있다. 염기서열은 당(sugar) 인산(phosphate) 줄기에 핵염기(nucleobase)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DNA는 A(adenine), T(thymine), G(guanine), C(cytosine)이 황색, 자색, 적색, 청색 등의 고유색으로 배열된다. 이들의 상보적(complementary) 관계는 A-T, U-A(RNA), C-G이다. DNA 한쪽 사슬의 염기서열이 -A-C-G-T- (순방향) 라면 다른 쪽 사슬의 염기서열은 -T-G-C-A- (역방향)가 된다. RNA 핵염기는 A, U, G, C이며 DNA의 싸이민 대신에 유라실(uracil)로 배열된다. 생명체는 리버섬(ribosome) 흰자질합성기에서 4개의 염기가 3개씩 짝을 이룬 유전암호 코돈(codon: triplet code)으로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흰자질이 합성된다. 이러한 이중나선 DNA가 70억명의 개성이 다른 사람을 창조한다.

2.3 DNA 검사

머리카락, 타액, 혈흔, 손톱, 체액 등에서 DNA를 추출하고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에 의해 DNA가 증폭되어 분석 판독한다. 유전학적 목적으로 DNA검사에는 주로 Y-염색체(Y-DNA), 미토콘드리아 DNA(mtDNA, X-DNA)와 상염색체 DNA(atDNA) 등이 있다. Y-DNA의 Y-STR 마커는 친족관계에 있는 남성간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계혈통의 검사 및 추적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부에서 자로

98% 유전된다. Y-DNA는 성염색체 XY 중 Y염색체로 남성에게만 존재하며 부계 Y염색체를 검사하는 표준 방식이다. 이 염기서열을 검사함으로써 고조부-증조부-조부-부-자로 전달되는 부계중심의 혈연관계가 검사된다..

mtDNA는 싸이토피라즘(cytoplasm, 핵과 세포막 사이의 세포질)에 위치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한다. 이 DNA로 모계(maternal line)혈통을 기반으로 물려받는다. 고조모-증조모-조모-모-녀의 계층구조이다.

atDNA는 부계와 모계의 조상계(ancestral line)로 상염색체(autosome)를 기초한다. 여성의 XX성염색체는 친모와 친부로부터 하나씩 X를 물려받는다. 상염색체는 23쌍 염색체중 성염색체(XY, XX)를 제외한 1-22쌍 염색체 검사이다. 따라서 DNA 유전자를 분석하면 각 고유의 유전적 특성 즉, 유전정보를 판별하여 개인의 디지털 신원코드, 혈통 및 조상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2.4 해프로그룹

해프로그룹은 동일한 해프로타입의 집단이며 주로 SNP 돌연변이의 그룹이므로 어떤 변이를 기준했는가에 따라 다양한 그룹이 형성된다. 염색체상의 패턴은 해프로타입 블록과 태그(tag) SNP를 찾아 작성된다. 해프로타입은 일배체(haploid)와 유전자형(genotype)의 축약어다.

SNP는 DNA 염기서열(A,T,G,C)에서 하나의 염기만 다른 유전적 변이이다. 이것은 한 블록 안에는 많은 수의 SNP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특정 태그(tag) SNP만 사용된다. 이것은 유사한 해프로타입의 집단으로 동일한 염색체내에서 유전되는 경향이 있는 인접한 SNP집합이다. 예로서 염기서열 ACAGTCACGTACGTACG와 ACCGTCACGAACGGACG를 각각 비교하면 SNP는 3, 10, 14번째 위치에서 이상이 보인다. 이 그룹이 유전되는 특성이 있다면 해프로타입은 A T T와 C A G이다.

STR은 반복단위의 크기가 2-5개의 염기쌍이 반복되는 변이이다. 예로 GACTACTACTACTG에서 3개의 염기 C T A가 3번 반복하는 쉼표(STR)이다. C T A는 STR의 해프로타입이 된다. SNP는 STR보다 변이율이 낮지만 부계간에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기 때문에 분별력 문제가 있다. 그래서 SNP는 주로 개인특징인식분석에, STR은 부모형제 친자확인 검사 및 유전자가계보 등에 적용된다.

부계 중심의 Y-DNA 해프로그룹 명은 계층구조화(hierarchy)와 단축형(shorthand)이 있다. 계층구조 그룹명은 표 1과 같이 대문자의 그룹명과 하위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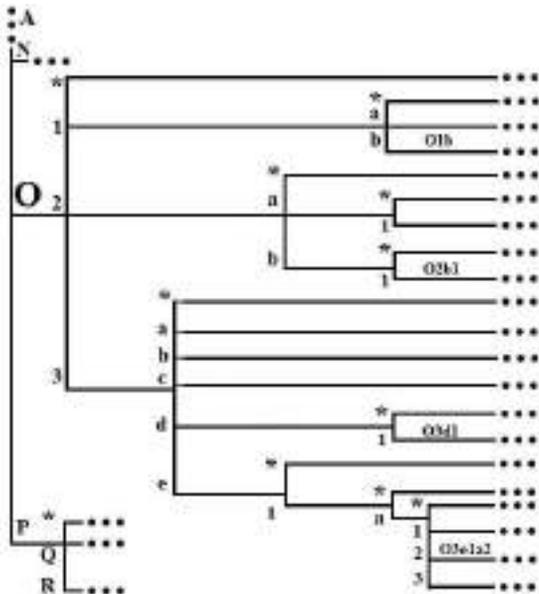
(subclade)로 이루어진다. 하위분기는 숫자와 소문자의 영숫자(alphanumeric)로 조합된다. 즉, O2b1a2와 같이 문자-숫자의 조합이다. 그룹명의 대문자는 서양 인류의 시조인 아담(Adam) A을 시작으로 A0부터 R까지이며, 아프리카(Africa)지역을 원점으로 인류의 이동루트(route)에 따라 Y-DNA그룹명이 정해진다. 아프리카 CR지역으로 부터 서아시아 K지역에서 한국 O 및 미주이역 Q와 동남아시아 C D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한국은 만 년 전 환국의 상고시대 조상의 유골을 발견하고 정밀한 DNA 연구 검사가 가능하다면 달라 질수도 있다.

표 1. 해프로그룹 명명

YCC shorthand	O-M175*	O-M176	O-M47z	O-M121
YCC longhand	O	O2b	O2b1	O3a1
ISOGG	O	O2b	O2b1	O3a1a

해프로그룹이고 M175는 STR 마커(marker)이다. O-M175*에서 *표시는 파생의 분기(branch)가 많아 a b... 또는 1 2... 등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어데

그림 3. Y-DNA 해프로그룹 트리



YCC는 단축형과 일반형(longhand)으로 구분된다. 단축형은 대문자와 -(hyphen) 및 돌연변이 STR 또는 SNP로 작명된다. 예로 O-M175의 경우 영문 대문자 O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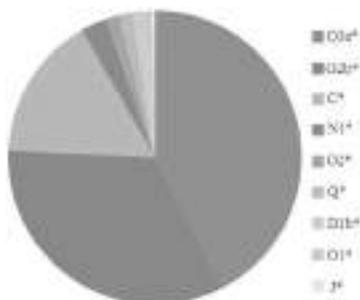
류씨 성의 무슨 파와 세손 및 항렬의 구조와 같다. 주로 한국인에게 많은 O 해프로그룹(haplotree) 그림은 3과 같이 작도되고, 해프로그룹이 모여 계층화 집단을 이루면 부계유전자족보가 작성된다.

그룹 O, N, Q, R은 황인종이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은 주로 O, C, D, N에 속하고 몽골인 C, 일본인 D 등과 공유한다. 충청도 인구의 표본조사[11]에서 해프로그룹은 그림 4의 파이차드와 같이 O3a*(O3a1c, O3a2c1a, O3a2c1), O2b*(O2b1b, O2b1a, O2b1c), C2 순으로 빈도가 높고, 기타 낮은 빈도 D N J Q 등이다. 전국에 문화류 님의 인구는 2015

년 통계 기준 164천여 명이며 충청지방에 약 10%가 거주한다. 특정한 류씨 성의 검사는 O3a3b*이다. 그래서 다수의 유전자도 O3*와 O2*에 속한다고 본다. 또한 비교

대상자간의 STR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유전적 거리차(GD)가 10%이하이면 밀접한 관계로 본다. 이 값이 클수록 혈연관계가 멀다.

그림 4. Y-DNA 분포



모계 mtDNA는 이브(Eve) L을 시조로 그림과 같이 대문자 L0부터 Y까지 표시하여 계통발생분기(phylogenetic tree)로 작도된다. 삼각구조는 그림 1의 Y-DNA와 유사하나 간소화된 해프로그룹은 그림 5와 같고 아프리카를 벗어난 L3 지역을 시작으로 서쪽 N, 동쪽 N과 M지역으로 이주한다. M은 동쪽지역 A B C D F G 등으로 분기한다. 충청지방의 모계는 그림 6과 같이 주로 D*(D4, D5), M*(M8), B*(B4), 기타 등의 빈도로 분포한다. 이 해프로그룹의 트리가 모여 모계유전자계보가 작성된다.

그림 5. mtDNA 해프로그룹 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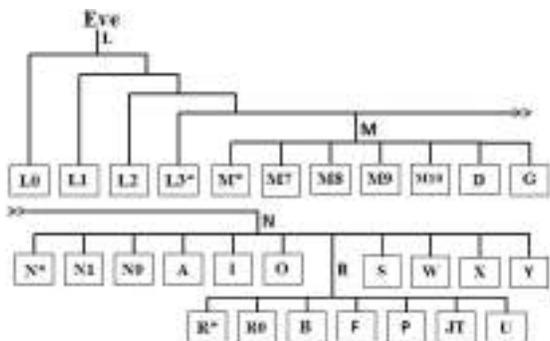


그림 6. mtDNA 분포



따라서 Y-DNA와 mtDNA 검사의 해프로그룹에 의해 유전자족보, 가계족보도 (family tree chart) DNA(FTDNA) 작성과 조상의 연관성 및 이주(migration) 루트가 추정된다.

III. 결 론

Y염색체와 X염색체의 DNA에서 해프로타입으로 부터 해프로그룹의 해프로트리를 계층구조화 하여 유전자족보를 분석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부모 중에서 부계의 Y-DNA는 O그룹에서 O3a* 및 O2b*가 많이 나타나고, 특징인 류씨 성의 검사는

O3a3b*이지만 대표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화류님의 DNA검사를 확대여 해프로그룹을 작성 할 필요가 있다. 모계의 mtDNA는 L3그룹으로 L3D*이 비교적 빈도가 높다. 해프로그룹은 개인 고유의 생체전자식별코드이므로 코드의 집합이 유전자족보로 응용 될 수 있다. 그러나 DNA유전자 피검사자가 관련 연구단체, 질병, 친자확인, 법의학 관련 이유로 검사 받는 경우이다. 더욱이 검사의 기피현상과 높은 검사비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어렵다. 반면에 유전자족보는 수천 년, 수 만년의 과학적 유전정보에 의해 혈통의 조합과 인류 진화 및 이동루트를 추정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전통족보는 부계 중심으로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알기 쉽게 계층구조화한 서적으로 가문에 대한 역사 이상의 가치가있으므로 전자유전자족보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참고문헌

- [1] H. B. Ma, "Paternity Testing", Journal of American Science, vol2 no.4, 2006.
- [2] D. J. Watson, The Double Helix—A Personal Account of the Discovery of the Structure of DNA, Harvard University, 1967.
- [3] The History of DNA Timeline,
<https://www.dna-worldwide.com/resource/160/history-dna-timeline>.
- [4] L. M. Adleman, "Molecular computation of solutions to combinatorial problem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4.
- [5] Kwang Ryol Ryu, "Iris Pattern Positioning with Preserved Edge Detection and Overlay Matching", J. of KIMICS vol.8 no.3, pp.339-342, 2010.
- [6] ISOGG Wiki, Y Chromosome Consortium,
https://isogg.org/wiki/Y_Chromosome_Consortium.
- [7] A. H. Zhang, et al., "Y Haplogroup Distribution in Korean and Other Populations", Korean J Leg Med, pp.34-44, 2012.
- [8] H. J. Jin, et al., "Y-chromosomal DNA haplogroup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dual origins of the Koreans", Human Genetics, vol. 114, Issue 1, pp 27-35, 2003.
- [9] M. A. Jobling and C. T. Smith, "The Human Y Chromosome: An Evolutionary Marker Comes of Age", Nature, Reviews vol. 4, 2003.
- [10] Haplogroup O-M176, https://en.wikipedia.org/wiki/Haplogroup_O-M176.
- [11] 47zM128, <https://qudro.blog.me/221069909028>.

【紀行文】

日本 후지산행과 배낭 旅行



충경공과 전 사무총장 柳 景 化

1.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여행기(1990.7.20.~28)

당시 나는 해외여행을 몇 번 다녀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젊은 직원이 혼자 일본 여행을 준비하다가 1주일 전 쯤에 도저히 혼자 가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나와 동행하자고 부탁한다. 그래서 그 분은 일본어를 더듬더듬(?)하는 정도이었다.

머칠을 생각하다가 가기로 했다. 지금 흔히 말하는 배낭여행인 셈이다. 가이드도 없이 단 둘이서~~ 다른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나는 오직 동행자에 의지하는 것이다.

먼저 JR(일본국철)패스 권을 샀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자유로이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이용해보니 엄청 싸고 편하다. 일본 국내에서는 외국 여행객이라도 구매할 수 없다.

초고속 열차인 신간선(요새 한국의 KTX, SRT에 해당)도 그냥 탈 수 있다. 동행자의 친구인 일본 유학생을 집을 방문했다.

우리 기준으로 10여 평 정도의 공동주택인데 입구에 신발장과 샤워기만 달린 화장실이 있다. 일본인들의 검소함일까? 그 분이 우리가 신간선을 탄다하니 놀란 표정으로 자기는 몇 년 동안 일본 생활인데 못 타 봤다한다. 그만큼 비싸단다. 지하철을 타 보니 제3레일식도 봤다.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 방식이 공중 가공(架空)식이다. 또 지하철 역사驛舍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봤다. 입출구가 전부 계단인 서울 지하철과 비교가 된다. 또 웬 신사(神社)가 그리도 많은지 동경의 최신의 초고속 빌딩의 현관의 한 쪽에

도 어김없이 있다.

시내 고층 빌딩에는 시계도 보이고 일기예보 판도 있다. 또 버스 요금도 승차 거리를 계산해서 한다. 우린 한 정거장이나 종점에서 종점을 가도 같은데 자기 회사 버스의 운행 가격을 본사에서 모니터링해서 간격이 드문 경우에 중간에 차를 끼워 넣는다네요.

후지 산은 일본인들에게 신성시(神聖視)한다. 등산할 때 2m 정도 8각형의 각목을 휴대하면서 휴게소마다 기념으로 각인(刻印)해서 집에다 보관한다. 몇 번을 올랐다가 자랑거리다. 나로서는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인 후지 산(3776m) 등산이다. 록고메(六合目)에서 일박(一泊)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휴대용 산소 캔을 하나씩 샀다. 이 산은 화산으로 형성된 것이라 모래와 자갈들이 쉼 없이 계속 흘러내린다. 등산로(登山路)와 하산로(下山路) 구별돼 있다. 등로는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흘러내린 모래 자갈로 덮여 있다. 길은 지그재그로 경사도를 줄였다. 그런데 이런 등산로를 만들고 관리를 토목사무소(土木事務所)가 한다. 즉 정확한 측량으로 이정표도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 산의 이정표(里程標)는 정확도가 문제다. 중간 중간 뒤 돌아보면 지그재그의 길을 개미떼처럼 또는 피난행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있다. 길가엔 가혹 어린 아이가 힘들어 투정 부리는 모습도 있다.

목이 말라 물을 먹으러 식사 주문하니 물 값은 별도란다. 내 생각이 멍청한 거다. 휴게소(休憩所)에는 눈덩이를 쌓아 두어 서서히 녹는 눈물을 사용하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운 날씨라 눈이 빨리 녹을 것 같은데 어쩐지 천천히 빗물이 떨어지듯 간질 나게 방울방울 떨어진다.

동행한 젊은 분은 카메라랑 짐이 많아 힘들어 하는데 다행히 나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 정상(噴火口)은 150여m 정도 깊이에 다시 또 분화구가 있다. 7월 하순인데도 눈이 쌓여 있다. 듣기에는 이분은 계곡 등산로에 쓰레기가 없었는데 정상에서 의연하게(?) 라면을 끓이는 사람도 봤다. 하산은 등산하는 소요 시간 보다 1/3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해가 간다. 모래가 쌓여 있어 마치 눈이 많이 쌓여 있는 형태라서 다리에 힘만 주고 스키 타는 스타일로 내려왔다. 등산화는 모래에 깔여 허영고 검은 화산재 덕택에 석탄 광부처럼 눈만 말뚱말뚱하고 온 몸은 까맣다. 서로 상대방 얼굴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난다.

하산로 입구에 물 한 바가지를 사서 수건으로 얼굴만 닦고 가장 가까운 바닷가

이따미(熱海)온천장으로 갔다. 미리 준비해 온 버려도 아깝지 않은 헌 옷을 입고 산행했기에 세탁할 필요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짐도 덜고 곳 아이디어이다. 어느 방송에서 대학 여교수의 여행담에서도 자기는 헌옷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이다.

이때는 배낭여행이란 단어도 없는 때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은 경험을 쌓고자 하는 생각이라 민박 유스호텔 여관 capsul 호텔(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큰 도시 역 근처에 사우나탕과 겸한 시설로 타원형의 캡슐 모양의 침실로 에어컨과 TV도 있어서 잠잘 때만 들어와서 잔다. 오히려 자기만 하니 조용하다), 비즈니스호텔 등을 골고루 이용했다. 우리나라와는 가까운 이웃인데도 ‘한글’을 구경을 못했는데 창피하게도 유스호텔에 가서 한글을 봤는데 매직으로 주의 사항만 한글로 쓰여 있는데 ‘10시 이후에 조용히 합시다.’ ‘떠들지 마시오’ 이런 것만 쓰여 있다. 홋카이도 역에 가니 전광판에 ‘어서 오십시오’ ‘삿보르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라 한글을 보았고 꽃박람회 한국관에서 ‘한글’을 본 것이 전부다. 철저히 한국을 멀리한다는 느낌이 든다.

유스호텔에서는 침대를 옆으로 쪽 배치해서 앞 통로는 넓게 여유로운데도 일본 고등학생은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앞을 지날 때 마다 하이하이! 하면서 몸을 굽실굽실하면 지나다닌다. 우리에게 전혀 불편을 주지도 안 하는데도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오사카 꽃박람회 입장하려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장애인 입구는 사람이 없어도 비워둔다. 우리 생각 같으면 장애인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케 할 법도 한데

장애인이 땀땀하게 미안한 마음 없이 이용케 하려는 배려란다. 또 한 번은 오사카 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묻는데, 아주 더운데도 일행을 길에 두고 우리를 데리고 지하 몇 층의 열차를 타는 곳까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동경 오사카 같은 큰 도시의 역은 행선지 마다 출발점이 입체적이어서 잘 못 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부 평면적인데 지금 서울역의 인천 공항철도가 지하에서 출발하듯이

한번은 버스를 탔는데 앞쪽의 좌석이 비어 있어서 무심코 앉았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있는 승객들의 눈에 띠어서 옆을 보니 경로석이어서 얼른 일어섰지만 뒤통수가 부끄러웠다. 또 다음에 버스를 탔는데 일반좌석석이 비어 있어서 앉았다. 그런데 경로석이 다 차서 서 있는 노인께 좌석을 양보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계인을 보듯이 한다.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다른 듯하다. 좌석에 앉아도 자기의 몸을 최대한로 좁혀 옆 사람에게 몸이 접촉 안 되게 한다.

우리는 간혹 먼저 앉은 사람이 특권이나 가진 것처럼 비스듬히 또는 최대한으로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는 듯 두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나중에 앉는 사람을 힐끗힐끗 훑어 본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내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비싸서 모든 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의 경영의 가장 신경을 쓰는데 그때 30년 전의 일본에서는 이런 인건비를 줄이려는 요령이 여기서 느껴진다.

가게가 드물다 우린 도로가며 거의 가게들이 쪽 늘어져 있는데 일본 별로 없다. 물론 대 도시 변화가는 아니겠지만

준비 기간에 안내책자를 보니 여관 구멍가게를 표시해서 책자를 만드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인가? 편견을 가졌는데 실제로 찾기가 힘들 정도다. 가게들도 개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늦으면 구매를 못한다. 우리는 24시 편의점을 생각하면 늦은 야간에 판매 이익과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이익이 얼마나 생길까? 요새 서울에서 야간에 영업을 안 하는 편의점이 늘어난다니 인건비가 부담되기 때문일 게다.

초기에 미국 이민 가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었다가 좀 쉬고 싶어서 문을 닫으니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다. '당신네 가게 만 믿고 미리 구매를 안 했는데'해서 문도 못 닫는다는 말. 그래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에 사는 외국 학생들의 말인즉 밤 어느 때고 치킨 야식 등을 배달해주니 아주 편리하다는 것. 업주들 편에서 인건비와 비교 검토를 안 해 볼 수 없을 게다. 일본은 재래시장도 어느 곳은 조시(朝市)라 해서 9시에 철시하는 시장도 봤고 목욕탕도 우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물을 끓여 놓고 대기하는데 시간대를 달리 해서 영업한다.

여관에서의 식사도 밥을 큰 그릇에 담아 주걱으로 필요한 양을 먹고 남는 것은 활용한다. 많은 사람이 하는 식사도 아니고 단 둘이 하는 식사인데도 또 재활용품 수거 방법도 요일 마다 수거 물품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철 알루미늄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을 수거 날짜를 달리 해서 처리업자가 별도로 분리 작업을 안 하도록 한다. 수거차량이 자기 집 앞을 지날 때 기다렸다가 인계한다. 만약에 늦으면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일주일을 기다린다.

태평양 전쟁 때 원자폭탄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갔다. 평화 공원의 사망자들의 위령탑에 참배객들이 많다. 우리 동포들의 위령탑을 구석진 곳이 초라하게 있다. 당시의 피폭 건물인 은행은 아이러니하게 더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 놓고 보수도 한다. 교훈으

로 삼으려는 뜻이겠지요.

내가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항구 도시인데 하천이 깨끗하여 잉어 떼들이 여기저기에서 등지느러미로 물결을 일으키면서 놀고 있다. 요새 우리나라의 공원이나 양식장의 모습을 연상하면 딱 맞겠다.

우리는 하천이나 바다로 모든 하수를 배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되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본다. 요새는 우리도 하천에 하수 분류관을 부설하니 우리의 하천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당시에는 우리 하천은 부패되어 생물이 못 사는데 청계천을 개량하여 하류에 물고기 몇 마리가 노는 것을 보고 신문에 ‘청계천이 살아났다’는 기사를 봤다. 내가 토목과 측량을 전공했기에 너무 과장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청계천이 얼마나 공해가 컸으면 이런 기사가 보도 될까? 실 날 같은 희망 때문일 게다.

호텔에 숙박할 때 식수(생수)가 없고 컵만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즉 수도물을 정수하지 않고 마실 수 있다. 얼마나 하천을 잘 관리 했으면 이렇게 정수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부럽다.

일본인 산업화가 잘 되었으니 그 만큼 하수도 많이 발생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수로 많은 돈이 든다. 원유값 보다 생수값이 더 비싸다.

우리가 해외 여행할 때 너무 친절해도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여행 중인 우리나라 대학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일 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인즉 부산에서 배를 타는데 조그마한 물건을 아오모리(靑森)까지 전달해 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아오모리까지 가서 전화를 해서 상대를 만났는데 횃집에서 상대가 물건의 어느 부분을 확인하더니 만족해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더라. 즉 최고급인 복회를 공작(孔雀) 모양으로 담았는데 학생한테 먼저 눈 부분을 먹으라고 권하더라는 것이다. 짐작컨대 밀수품(?) 만약에 들통 나면 학생만 곤란과 책임을 져야할 게다. ※아오모리는 일본 최북단의 현으로 아오리 사과와 원산지 임.

일본은 물가가 우리의 10배 정도 돼서 여행하는 한국 대학생들은 처음 이틀 정도는 두 끼를 3일 부터는 한 끼 먹는 훈련을 한다대요.

인건비 땀에 자동판매기는 크게 안 비싸다. 맥주나 음료가 우리 수준보다 약간 비싸다. 초밥을 우리나라에서 비싼 음식인데 일본에서 대중음식이라 우리나라 보다 크게 안 비싸다. 또한 토목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보았는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보해협에 해저터널 공사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 1986년 착공해서 1994.5.6에 개통한

유로터널은 총길이 50.45km이고 해저 구간은 38km이다. 그런데 일본의 혼슈(本州)와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의 쓰가루해협(津軽海峡)의 세이칸(青函) 해저터널은 총길이 53.9km가 1988년에 개통되었다. 유로터널보다 더 긴 터널을 먼저 개통한 것이다.

일본의 토목 기술이 세계의 선두라고 자부한다. 미국 보다 앞선다고 자만하다가 여러 사고로 명성이 퇴색되어버렸다. 이때 우리 기술은 많이 낙후되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펍 자랑스럽다.

일본에서는 9시 이후 운행하는 모든 야간열차는 침대 바뀐대요. 이상은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니 참고해서 읽어 주세요.

2.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들

① 69년도 군대 생활에서 전술 도로를 측량 설계 시공까지 우리 중대가 맡아 하는 중이라 위로(慰勞)의 의미로 어느 때인가 대대(大隊) 회식 자리에 소대장으로서 혼자 참석하여 대대장님 옆자리에 앉았다. 술자리라 대대장님께 술을 권해 드려야 하는데 내가 술을 못하여 잔을 비우지를 못하는데 옆 자석에 이웃 중대장님께서 뜻밖에 테이블 밑으로 자기의 빈 잔을 주시면서 대대장님께 권하라하신다. 그 중대장님은 겉으로 보기에 잔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듯한 털털한 경상도 분인데

군대에서 초임 때 이런 배려를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항상 고마움을 느끼면서 나도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준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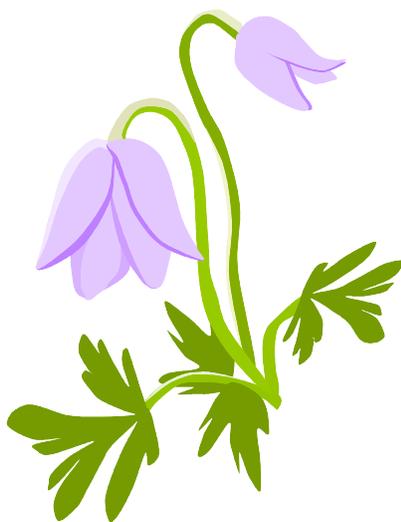
② 인천 영종도(국제공항이 있는) 백운산을 다녀 온 때다. 젊었을 때 가족이 함께 올라가서 코스모스 핀 가을의 정감이 있어서 또 찾았었다. 높지도 않아서 산행도 하고 시골 정취도 느끼려고 일부러 “구뱃터”까지 6km 더 되는 시골길을 걷는다. 새로운 도시 공사 중이라 도로는 4차선이고 버스도 드물다. 한 참을 걸어가는데 자동차 경음기 소리가 난다. 나와는 무관해서 그냥 걷는데 계속 경음기를 울려서 울려서 보니 길 건너 쪽에서 택시 기사 분이 차를 세워 놓고 손짓하신다. “그냥 걷고 싶어서”라고 답을 하니 너무 멀어서 안 된다면서 계속 손짓을 해서 결국에는 탔다.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하신다. 돈을 버려는 택시기사의 뜻밖의 친절에 감동을 받았다. 인천행 여객선의 나루터에 도착해서 몇 가지 음료수를 챙겨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한 적이 있다. 여행자에게 흐뭇한 마음의 여유를 안겨 주신 경우다.

③ 가랑비 수준으로 비가 오는데 이면도로(裏面道路)를 운전 중에 횡단보도에서 초등 학교 저학년쯤의 어린 학생이 길을 건너기에 당연히 차를 멈추었더니 노란 우비를

입은 아주 귀여운 어린이가 나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한다. 마치“공익 광고”의 한 장면을 본 듯했다.

④ 딸네가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기에 어떤 때는 일찍 나가서 가게 문을 열어 놓는다. 양손에 물건을 들고 발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출근하는 20대 쯤의 세련되고 예쁜 아가씨가 주택가 도로의 반대편에서 뛰어 와서 문을 열어주고 간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했지만 호뭇한 느낌은 오래 동안 뇌리에 머문다.

⑤ 서대전역의 후문 쪽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데 복스럽게 생긴 20대 초반 쯤의 아가씨가 다른 사람들과 타고 올라온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멧쩍은 미소를 짓는데 감동적이었다. 간혹 요새 젊은이들의 무례한 모습과 연상을 해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죄책감까지는 느낄 필요도 없고 할텐데



피오르드와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大宗會 副會長, 서울권 宗親會長
忠景公派 典祀令公宗中 事務總長 柳 柱 善

1976년 스위스에서 노르웨이 출신 '악스'와 함께 정밀측지교육을 받은 이후 40년이 훌쩍 흘러간 지난 7월초에야 이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다. 노르웨이 하면 노벨평화상이 수여되는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피오르드와 바이킹의 나라로 알려졌으며 그린란드를 횡단한 난센과 남·북극점을 탐험한 아문센 그리고 소설 인형의 집으로 유명한 입센 정도가 아는 전부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북유럽 변방국에 지나지 않던 노르웨이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경제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은 1971년 북해에서 원유가 생산되면서 부터다.

석유 수출 세계5위로 자유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국가 통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고단위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한 노르웨이는 북유럽 주변 국가들이 놀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사회민주복지국가중의 하나다.

1인당 국민소득은 8만2천달러(2018년)가 넘으며 인구 고령화와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석유를 팔아 번 돈을 차곡차곡 쌓아 국민펀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 나라이므로, 멀지않은 장래에 세계 최대 부강국가가 될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국토는 남한의 4배 정도로 농지는 국토의 3%에 불과하며 70%이상이 호소(湖沼)와 빙하 암석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535만 여명이고 언어는 스웨덴 덴마크어와 유사하나 이 나라만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며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나 국교로 지정되어 있는 루터 복음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제하의 내각책임제이고 국왕은 상징적 존재로 행정권은 내각을 통해 행사(行使)되고 있으며 특히나 여성의 정치참여비율(의회의 40% 정도)이 높은 나라다.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교육기간이 9년이며 초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과 대학 예비 교육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대학교육의 문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다.

노르웨이는 한국전쟁당시 병원선을 파견하여 의료지원을 했으며 수교이전인 1956년에 국립의료원의 전신인 메디칼센터(터)를 설치 운영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양했다.

이 나라는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어 여름에는 백야를 겨울에는 오로라의 아름다움을 즐긴다는데 여행시기가 여름철이라 밤 이슬하도록 백야를 즐기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로맨틱한 플롬 기차로 노르웨이의 가장 높은 지대를 답사 할 수 있었는데 시종일관 펼쳐지는 협곡의 웅장함과 자연의 신비로움 천둥소리를 방불케 하며 떨어지는 폭포수의 요란함과 거친 주위환경은 이곳을 찾은 여행객에게 경외감마저 느끼게 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송내와 게 이랑에르 피오르드는 높은 산 자락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절

벽폭포로 수 백 폭의 병풍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움을 과시했고, 182m의 암벽을 타고 쏟아지는 일곱 줄기의 7자매 폭포는 그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다.

천 년 전 북유럽을 주름잡던 바이킹들이 가장 동경하고 사랑했던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는 다른 유럽국의 수도와는 달리 시골과 같은 한적한 느낌을 주었으며 주위는 산림과 전원으로 둘러싸인 요새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과 줄지어 몰려드는 캠핑카를 목격하면서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그들의 생활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브 비젤란 작품으로 꾸며진 오슬로의 조각공원은 입구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불교의 윤회사상을 재음미해 보는 좋은 기회도 가졌다.

피오르드의 장엄함에 심취되어 넋을 잃고 말았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베르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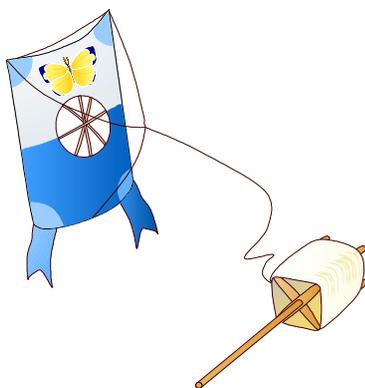
청정의 높은 하늘과 화려하고 눈부신 자연환경을 만끽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크루즈 선들을 바라보며 북유럽 최상의 도시라는 현지인의 자부심도 이해 할 수 있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만나는 한국인들! 노르웨이에서도 상당수의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흠이 있다면 주변의 평화로움을 방해하는 약간의 소란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으니 이러한 점이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정서라면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점쳐 볼 수밖에는...(.....)

노르웨이에 도착하기 전 북유럽의 베니스라 일컫는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들러 300만점이나 소장된 에르미타주 국립박물관을 찾았다.

125개의 전시실을 차지한 서유럽 미술관에서 네델란드 작가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 온 탕자를 접하는 순간 이 성화에 대해 자상한 설명을 해 주었던 성당 신부님 (강화도 소재)과 교우들의 순박한 모습이 여행객의 가슴에 아름답게 와 닿았으며, 내 발걸음은 한결 가볍게 노르웨이로 향할 수 있었다.

특히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며 함께한 이번 가족여행은 나에게 더 없는 즐거움이었으며 교육자로서 정년을 하고 문화류씨 문중(전사령공 종중)에서 근무하는 나에게는 앞으로 더 없는 활력소가 되리라 믿는다.



【年例報告】

大宗會事務總長 柳 承 鉉

大宗會 任員錄

2019. 5. 21

	직 책	성 명	세수	과	생년	주 소	우편 번호
1	고 문		28	검	32	전북 익산시 약촌로 268번지 골든캐슬A 101동 305호	54615
2	"	柳興洙	31	총/판	3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13 (도곡동467-6, 대림아크로빌A동 2303호)	06292
3	"	柳暎烈	32	검	38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6길 11 (독산동,도산빌딩4층)	08548
4	"	柳瑢鎭	33	총/판	37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21길16. 521동601호(목동20,두산A)	02023
5	"	柳來鉉	34	총/전	33	대구시 북구 한강로17, (사수동,금호세한이다음A106동1702호)	41599
6	"	柳三男	34	총/소	41	서울시 성동구 금호산길27 (금호한신휴플러스A102동1406호)	04724
7	"	柳浩煥	35	하	41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3길9 (성수2가, (주)아이템플)	04783
8	"	柳濟求	35	정	34	충북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1124-1 (이백리346번지)	29000
1	자 위 문 원	柳景植	31	판		대구시 북구 매천로220,우방타운101동1309호	41459
2	"	柳在振	33	총/부	35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로445(흘산리)	54526
1	명 회 예 장	柳箕桓	36	정	39	日本東京都大田區南雪谷 2-6-13.F棟	145-0066
1	회 장	柳三鉉	34	좌	40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387 (은천동,두산A111-702)	08750
2	부회장	柳在殷	33	시	35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38, 마-301 (영동60, 평화A)	28544
3	"	柳在英	33	문		충북 충주시 금성2길 14(교현동)	27380
4	"	柳秀澤	32	하	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길13, 장안타운건영122-1203	04624
5	"	柳秉鉉	34	장		경남 합천군 쌍책면 황강옥전로1609	50252
6	"	柳秦春	40	곤		대구시 동구 율하서로85. 103동 902호(율하동,선수촌A)	41107
7	"	柳台紀	32	평	4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635번길80 (봉명2동)	28475

8			34	중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91 당산푸르지오A 106-1701	07226
9	"	柳金烈	32	좌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56(마산리)	11164
10	"	柳台烈	32	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운암길65 (석상리494)	56333
11	"	柳昌鉉	34	관	39	대구시 남구 대명북개로 1길 12-4	
12	"	柳在萬	33	부	39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43. 103동202호(창동,대우A)	01465
13	"	柳在寬	33	충	44	인천시 동구 새천년로38길11 (송림동,동산휴먼시아A208동102호)	22574
14	"	柳志瓚	33	충/전	39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63번길 32	32909
15	"	柳在廣	33	충/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133 (영웅동.유인당한약방)	28738
16	"	柳在仲	33	충/부	46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1길 44-22	32911
17	"	柳愚翔	33	충/소	41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98번길17 (신성동,방현빌라401호)	34116
18	"	柳民城	32	하	47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 463(용천리)	12506
19	"	柳周永	30	하		경기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167 (회현리)	12563
20	"	柳金丸	33	하		광주시 남구 봉선중앙로8 (봉선동,삼익1차A104-1301)	61704
21	"	柳志誠	33	하	46	52-32LeithPL.LittleNeck, NewYork11362 U.S.A	
22	"	柳奘烈	32	충/전		대전시 중구 계룡로852 (오류동삼성아파트28동307호)	34907
23	"	柳益鉉	34	충/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1162 동아솔레시티A106-1504	16903
24	"	柳濟奉	35	충/전	57	42-41191streetFlushing, NewYork11358U.S.A	
25	"	柳柱善	34	충/전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로155번길 27 (건평리)	23056
1	이 사	柳桓植	31	시	48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49 대원A902동302호	28795
2	"	柳在坪	33	시	6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마산3길3 진흥2차A 204-202	28145
3	"	柳鳳九	34	시	40	서울시 마포구 광성로 6길 14	04096
4	"	柳在珪	33	문	42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26길 22(남촌동)	27172
5	"	柳寅培	31	문	43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15길38. 103동1403호(하소동,현대A)	27162
6	"	柳寅培	31	문	41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83-20 고암오네뜨A 103-1205(고암동)	27145

7	사		31	문	48	충북 제천시 고암로 70(청전동)	27146
8	"	柳成烈	32	문	50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국사봉로 21길 121-18	27207
9	"	柳喆鉉	34	하	4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4번길 11 (운천동)	28469
10	"	柳寅澤	31	하	46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49-24	01695
11	"	柳仁吉	33	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종개길 20(조화리)	59602
12	"	柳在均	33	하		광주시 북구 군왕로141번길 24-11 (두암동)	61196
13	"	柳濟榮	35	하	50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4길 32. 301호 (시흥동)	08563
14	"	柳浩燮	35	하	48	인천시 남구 수봉북로 12길 58-23	29165
15	"	柳完赫	30	평	4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94번길12 (용암동) 3층	28766
16	"	柳志元	33	평	56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로 5번길 28-3	28045
17	"	柳在朋	33	평	43	충북 청주시 강내면 월탄 탐연길 95	28172
18	"	柳東烈	32	평	4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9번길 40 (봉명2동)	28475
19	"	柳穆烈	32	평	4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14번길 부영A110-406(산남동)	28628
20	"	柳用鉉	34	중		경기도 구리시장 자호수길77, (수택동,금호베스트빌2차A 501동 806호)	11948
21	"	柳在光	33	중		충북 진천군 진천읍 취적안길 28(행정리)	27828
22	"	柳鎭性	36	중		전남 담양군 창평면 해곡내동길19	57374
23	"	柳永桓	36	중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78번길22-23 (광명동)	14266
24	"	柳貞用	31	중		충남 부여군 장암면 남성로 908번길 19	33181
25	"	柳勝善	34	중		경북 군위군 효령면 오천1길 10-45	39026
26	"	柳志泰	33	중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101번길19 (심곡본1동)	14747
27	"	柳益烈	32	좌	43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123-6(중정리)	33164
28	"	柳点烈	32	좌	45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11길42-15(상동)	42167
29	"	柳在晟	33	좌		경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71번길39. 108동1509호(송내동,뉴서울A)	14721
30	"	柳希烈	32	좌		경기 포천시 중앙로78번길 51(신읍동)	11145

31	사		31	좌	50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284번길12, 5동705호(주례동, 럭키A)	47015
32	"	柳五鉉	34	좌	46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227(태성리)	28018
33	"	柳在聖	33	좌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296번길21-12 (신곡동)	11778
34	"	柳國鉉	34	검	57	인천시 계양구 양지말1길12 신세계드림빌라301호	21018
35	"	柳在憲	33	검	36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535 (온의동,금호1차A4-604)	24429
36	"	柳相議	28	검	40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566의 나길4(방림동)	61679
37	"	柳光烈	32	검	41	전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 439-5(백용리)	58133
38	"	柳寅明	31	검	48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339번길42-4 (호산리2구)	31457
39	"	柳在河	33	검	39	서울시구로구중앙로5길24 (고척동,한호A3동605호)	08224
40	"	柳健永	30	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100,292동1401호 (상현동,현대성우A)	16936
41	"	柳貞勳	32	검		전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441	58133
42	"	柳洪永	30	검		전북 김제시 도작로 33, 부영A 308-1605	54403
43	"	柳正雄	31	검		전북 김제시 공덕면 유강로 185-26(황산리)	54321
44	"	柳濟福	35	정		대전시 중구 어덕마을로10번길31,405호 동아누리빌리지(용두동)	34822
45	"	柳晟鉉	34	판	48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3110, 아이프라이프시지102-1103(시지동)	42254
46	"	柳源植	30	판	44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22길20, 현대맨션 102-1103(지산동)	42214
47	"	柳鶴善	34	부	3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78길 2(불광동)	03351
48	"	柳昌秀	35	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55번길60, 세종 그랑시아A 105-310	16952
49	"	柳志權	33	충/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488	32909
50	"	柳鶴善	34	충/전	40	서울시 종로구 백석동길 159(부암동)	03020
51	"	柳濟元	35	충/판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68길30, 삼성중앙하이츠빌리지 102동 502호	02726
52	"	柳瑩奭	33	충/판	35	대전시 유성구 구죽로52번길25 302호(송강동)	34009
53	"	柳根暢	31	충/판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당산길 26-1	57544
54	"	柳正坤	38	충/판	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34 (행주내동,성실화원)	10439

55	사		31	충/판	5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184, 115-505(문촌마을,주엽동)	10371
56	"	柳在洲	33	충/판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8길20-7 (오지리3구614)	57544
57	"	柳在旭	33	충/판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92길 36,102	08554
58	"	柳在禹	33	충/부	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2094. 104동1401호(평화동,평화그린A)	55126
59	"	柳在日	33	충/부	50	전북 익산시 선화로17,102동1704호 (모현동2가,배산제일오투그란데A)	54653
60	"	柳在洙	33	충/부	60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111-11.502동1216호 (마곡동,마곡엠밸리5단지)	07599
61	"	柳在新	33	충/부	54	전북 익산시 무왕로32길85, 기안파인골드빌A106-806(팔봉동)	54582
62	"	柳在城	33	충/부	43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49길45, 대우A102-312(우이동)	01006
63	"	柳熹烈	32	충/소	32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25-3 (동남리)	33149
64	"	柳玉鉉	34	충/소	37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412-5 (신유리)	31554
65	"	柳命順	34	충/소	44	대전시 동구 산대로1375,103동203호 (낭월동, 오투그란데A)	34698
66	"	柳泰寬	32	충/소	37	대구시 북구 구암로16길 7 (태전동, 현대A 104-807)	41460
67	"	柳寅權	31	충/소	4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관동마을길79 (도장리)	31225
68	"	柳在斗	33	충/소	36	세종시 소정면 대사동길 127(대곡리)	30001
69	"	柳淸烈	32	충/소	4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 (서현동, 삼성A133-1203)	13588
70	"	柳恒輔	32	충/소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125-5 (대정리)	29002
71	"	柳在豊	33	충/소	34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1길 10-5 (원북리)	32925
72	"	柳明俊	32	충/소		충북 영동군 학산면 죽촌리길 28 (황산리)	29165
73	"	柳景化	34	충/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33, 이편한세상A107-1703	06603
1	홍이보사	柳朱桓	36	충/전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448 (전민동, 엑스포A508-1301호)	34049
1	감사	柳志燕	33	하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 131(대조동, 4층)	03393
2	"	柳在佺	33	좌		광주시 북구 천변우로79번길25. 202동701호(임동,한국이텔리움A)	61253
1	사총무장	柳承鉉	34	충/소		대전시 중구 유천로 10-2(유천2동)	34971

慕省會 任員錄

위	성명	과	주소	우편번호
고문		총/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21길 16 두산A 521동 601호 (북동20)	02023
"	柳來鉉	총/소	대구시 북구 한강로 17, (사수동, 금호세한이다음A 106동 1702호)	41493
"	柳濟求	정숙	충북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24-1(이백리)	29000
"	柳浩倓	하정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성수2가, ㈜아이템플)	04783
"	柳朝浩	진주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4번길 16-11 (철산동 428) 삼희빌딩 4층	
회장	柳三鉉	좌상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87 (은천동, 두산A 111-702)	08750
부회장	柳淙鉉	좌상	대전시 중구 유천로 47번길 70(유천동)	34976
"	柳秀澤	하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41번길 13, 장안타운 건영 122-1203	13583
"	柳起衡	진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463-718, 문촌마을A 508-1503	10360
전례위원장	柳金烈	좌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56(마산리)	11164
전례위원	柳台烈	검한성	전북 부안군 하서면 운암길 65 (석상리496)	56333
"	柳在振	총/부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로 445 (흘산리)	54526
"	柳在復	총/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4길 16(석곡리)	31247
이사	柳在殷	시랑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38 (영동, 평화A 마-301)	28544
"	柳在英	문숙	충북 충주시 금성2길 14(교현동)	12956
"	柳志燕	하정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72-1, (4층)	03393
"	柳喆鉉	하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214번길 11 (운천동)	28469
"	柳秉鉉	장령	경남 함천군 쌍책면 황강옥전로1609	50252
"	柳秦春	곤산	대구시 동구 율하서로 85. 103동 902호 (율하동, 선수촌A)	41107
"	柳台紀	문평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5번길 80 (봉명2동)	28475

사		중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91 당산푸르지오A 106-1701	
"	柳福鉉	좌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91. 104동 902호 (삼가동,우남아파트)	17017
"	柳在聖	좌상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296번길 21-12(신곡동)	11778
"	柳健永	검한성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100 현대성우A292동1401호 (상현동)	16936
"	柳昌鉉	판사	대구시 남구 대명북개로 1길 12-4	42477
"	柳在萬	부윤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43.103동202호 (창동,대우A)	01465
"	柳志瓚	충/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63번길 32	32909
"	柳在寬	충/판	인천시 동구 새천년로 38번길 11 동산휴먼시아 208-102	22574
"	柳在廣	충/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33 (영웅동.유인당한약방)	28738
"	柳在仲	충/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1길 44-22	32911
"	柳愚翔	충/소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98번길 17 (신성동, 방현빌라 401호)	34116
"	柳命順	충/소	대전시 동구 산내로1375 오뚜그란데A103동203호 (낭월동)	34698
"	柳載仲	진주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율곡A 349동 1703호	15864
"	柳聖奎	진주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80, 1동 808호 (불광동, 미성A)	06294
유 사	柳在金	좌상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28 복컨걸팅(신읍동)	11142
"	柳訓烈	좌상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145(미아동) 은진스톤하우스 21차 402호	01133
감 사	柳志世	중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23(당산동 3가)	07261
"	柳柱善	충/전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로 155번길 27(건평리)	23056
사무총장	柳承鉉	충/소	대전시 중구 유천로 10-2 (유천2동)	34971

主要宗務報告

2019년

- 1 10일 : 신년하례식 90여명 참석
- 2월 13일 : 대종회 건물 소방점검(주.금호소방 김덕수 과장)
- 2월 15일 : 고문·부회장·감사 등 간담회 20명 참석
- 2월 27일 : 고문·부회장·감사 등 간담회 13명 참석
- 3월 15일 : 대종회 유선전화 교체(KT. 3대 설치)
- 3월 15일 : 법조빌딩(둔산동) 정기 관리단 회의 10명 참석
- 3월 18일 : 대종회 정기감사 10명 참석
- 3월 21일 : 대동사 제향 200여명 참석(류삼현 회장 초헌관 봉행)
- 3월 22일 : 광해주(378 주기) 문성군 부인 문화류씨 제향 50여명 참석(류유상 회장 아헌관 봉행)
- 4월 4일 : 춘계 이사회 42명 참석
- 4월 14일 : 시육신 추모제 563주기 춘향제 30여명 참석(류삼현 회장 초헌관 봉행)
- 4월 15일 : 대종회 건물 정화조 하수라인 보수 및 지하실 방수 공사(대운종합건축 김익덕)
- 4월 18일 : 춘계총회 230여명 참석
- 4월 19일 : 동계사 제향 40~50여명 참석
- 5월 23일 : 파종회장 간담회 21명 참석
- 5월 31일 : 대종회 건물 옥상 방수(대운종합건축 김익덕)
- 7월 9일 :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8명 참석
- 7월 23일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한 학생에 100만원씩 12명에게 총 1,200만원 수여
(학생, 학부모, 파종회장 등 총 50명 참석)
- 8월 8일 : 전례위원회 10명 참석
- 8월 30일 : 파종회장 간담회 19명 참석
- 9월 19일 : 모성회 감사(지세, 주선 감사)
- 9월 26일 : 모성회 이사회
- 9월 28일 : 제11회 뿌리공원호문화축제 문중 퍼레이드 참석
- 10월 3일 : 정신공 향사 참석
- 10월 13일 : 모성사 현판식, 시조대승공(휘 차달) 위패 봉안식 및 5대단 향사, 모성회 정기총회
- 10월18일 : 상서공 향사 참석(충북 청주시 내수면)
- 11월 7일 : 대종회 추계이사회
- 11월19일 : 대종회 추계총회

僞書 氾濫에 대한 警告

10여년 전부터 정체 모르는 사람들이 ‘유주세덕록’·‘종사보감’이란 책을 만들어 문화류씨대중회에서 간행 운운하며 경향 각처에 사는 문화류씨들에게 그 책을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그 실태를 파악, 조치하고자 대중회에서 상당히 힘을 기울여 추적한 바, 부산광역시 소재 모 인쇄소에서 발간한 것까지 파악하고 그 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대중회의 대·소회의 때마다 알리고 또 문화류씨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런 결과인지는 몰라도 종친의 주소를 교묘하게 알아 예전과 같이 책을 판매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회에서는 10년 전 무자대보를 간행한 이후로 매년 종보 「유주춘추」 이외 어떤 책도 간행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암암리에 준동하는 불량한 사기꾼들의 농간에 속지 마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19년 11월 1일

문화류씨대중회



文化柳氏大宗會 沿革

분	주요 내용
74년 3월 22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 소재 종친회 건물에서 文化柳氏大宗會를 창립. 초대 회장에 根榮宗장을 추대하고, 당일 중증규약을 제정함과 아울러 修譜를 결의
76년 8월	대동보 (병진대보 : 17권 1질)를 완간
83년 4월 26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 301-43 소재 신축 文化柳氏宗親會館(지하 1층 지상 4층 건평 300평)에서 800여 종인의 참석리에 회관 준공식 거행
84년 2월	회관건립성금 납입자를 등재한 文化柳氏世系譜(5권 1질)를 완간
86년 3월	文化柳氏寶鑑 편찬 착수
89년 4월 19일	根榮會長 辭任
"	寅範會長 就任
89년 9월	文化柳氏通史 審議確定
90년 3월	文化柳氏寶鑑(3권 1질) 완간
91년 5월	宗報 『儒州春秋』 창간
97년 4월 20일	『文化柳氏大同行列』 還元을 議決 公表
97년 8월 16일	寅範會長 逝去
98년 4월 10일	忠烈會長 就任
03년 8월	文化柳氏大同譜 간행규정 제정, 보사착수
03년 2월 14일	貞肅公派 濟求회장 장학금 1억원 대종회에 출연
04년 2월 4일	韓國氏族總聯合會에 「韓國姓氏總鑑」 文化柳氏 登載資料 제출
04년 8월 11일	車門의 柳氏先系 날조 및 폄훼에 따른 시정촉구문 발송
05년 2월 15일	忠烈會長 辭任
05년 4월 22일	浩倓會長就任
07년 5월 28일	車柳大宗會 해체

분	주요 내용
07년 9월	大法院 戶籍例規에 의하여 성 「류」자 國文表記 認可
08년 5월	大同譜(戊子大譜 23권 1질) 완간
08년 8월 2일	大丞獎學會 재창립
08년 8월	大宗會 홈페이지 개설, 柳朱桓教授에게 委任
08년 9월 26일	在日僑胞 柳箕桓씨 九月山 始祖 墓所 最初省掃
08년 10월	대전시 중구 침산동 소재 뿌리공원에 文化柳氏由來碑 조형물설치
09년 4월 9일	浩俠會長 退任
"	濟求會長 就任
10년 5월 30일	北韓 朝鮮中央通信 『柳陵 保存遺蹟指定』 報道
10년 9월	抱川 慕省祠 (五代壇) 祭享 大宗會에서 主管
11년 3월 25일	中門祇候使公派 兪正公宗中 獎學金 1億원 大宗會에 寄託
12년 4월	柳朱桓教授 『大虎下淚 .. 僞書와 家門史』 刊行
13년 10월	柳陵聖域化事業 完工
14년 4월 13일	濟求會長 退任
"	大賢會長 就任
14년 6월 20일	柳陵聖域化頌祝詩 公募依頼書, 全國 儒林 800 餘處 發送
14년 11월 30일	『柳陵聖域化頌祝詩集』 刊行, 儒林·有數大學·文化機關·後孫 등에 配布
14년 12월 14일	柳箕桓씨에게 崇祖大賞 授與 및 賞與金 3千萬원 傳達
"	大賢會長 退任
"	來鉉會長 就任
15년 7월 10일	忠景公派 獎學金 1億원 大宗會에 寄託
17년 4월 10일	來鉉會長 退任
"	三鉉會長 就任
18년 11월 30일	慕省祠에 始祖 大丞公(諱 車達) 位牌奉安키로 慕省會에서 決議
19년 10월 13일	慕省祠에 始祖 大丞公(諱 車達) 位牌奉安 및 慕省祠 懸板式 舉行

2019年度 春季總會 誠金錄

2019. 4. 28 (단위 : 원)

연번	파	개인 or 단체	금액	비고
1	총/소윤공종중	서울권총친회	200,000	회장 류주선
2	김한성공파	영광공종중	50,000	류지승
3	총/판윤공종중	대중회 고문	200,000	류용진
4	총/소윤공종중	천안 칼방공종중	100,000	회장 류재복
5	총/전사령공종중	대중회 부회장	200,000	회장 류지찬
6	좌/찬성공종중	류경렬	100,000	회장 류경렬
7	좌상공파	찬성공종중	100,000	
8	문숙공파	문숙공종중	200,000	회장 류재영
9	총/소윤공종중	옥천 봉사공종중	100,000	회장 류지한
10	하정공파	류수택	100,000	회장 류수택
11	정숙공파	대중회 이사	50,000	류재복
12	총/판윤공종중	류재창	100,000	회장 류재창
13	김한성공파	참의공문양군종중	100,000	회장 류승휴
14	좌상공파	서산공후영천종중	100,000	
15	김한성공파	대중회 부회장	100,000	회장 류태열
16	김한성공파	류길선	100,000	회장 류길선
17	중문지후사공파	침정공회익후손총친회	100,000	회장 류용현
18	좌상공파	서산공종중	100,000	회장 류재휴
19	좌상공파	관관공종중	100,000	회장 류재휴
20	좌상공파	감찰공종중	100,000	회장 류재휴
21	문평군파	문평군종중	100,000	회장 류대기
22	김한성공파	영광공종중	100,000	회장 류정웅
23	김한성공파	영광요은공종중	100,000	회장 류홍목
24	김한성공파	류홍목	50,000	회장 류홍목
25	김한성공파	류강영	50,000	
26	총경공파	유성 방현종중	100,000	회장 류재성

연번	과목	개인 or 단체	금액	비고
27	판사공과	판사공종중	300,000	회장 류창현
28	좌상공과	문희공종중	100,000	회장 류호창
29	충/소윤공종중	송암공종중	100,000	
30	충/부령공종중	부령공종중	100,000	회장 류재중
31	검한성공과	함안공종중	100,000	회장 류인만
32	검한성공과	회인공종중	100,000	류삼영
33	충/소윤공종중	천안공종중	100,000	회장 류항보
34	충/소윤공과	천안주부종중	100,000	회장 류조현
35	중문지후사공과	안산종중	100,000	
36	부윤공과	부윤공종중	200,000	회장 류재만
37	충경공과	충경공종중	200,000	회장 류재관
38	충/소윤공종중	류인권	300,000	천안
39	충/전사령공종중	논산 사직공종중	100,000	회장 류지찬
40	좌상공과	류원선	100,000	공주
41	좌상공과	용인 총판공종중	100,000	회장 류복현
42	검/판서공과	부천 판서공종중	100,000	류덕영
43	검/판서공과	류건영	100,000	회장 류건영
44	검/판서공과	류인원	50,000	
45	검/판서공과	류한수	50,000	
46	검/판서공과	연천종중	100,000	회장 류법영
47	충/부령공종중	정신공종중	100,000	회장 류재진
48	충/전사령공종중	대전권중친회	100,000	회장 류장열
49	충/소윤공종중	남해합천공종중	100,000	회장 류진규
50	충/소윤공종중	류우상	100,000	회장 류우상
51	정숙공과	대중회 명예회장	1,000,000	회장 류기환
52	검한성공과	양도공종중	100,000	회장 류원영
53	중문지후사공과	류재한	50,000	회장 류창현
54	류봉주	류봉주	100,000	회장 류호창

연번	파	개인 or 단체	금액	비고
55	부윤공파	제주도총친회	100,000	
56	부윤공파	제주도청년회	100,000	
57	시랑공파	류서연	50,000	
58	하정공파	류금연	50,000	
59	좌상공파	류승연	50,000	
60	총/판윤공종중	대중회 고문	200,000	류홍수
61	검한성공파	대중회 고문	100,000	류대현
62	총/소윤공종중	류기현	100,000	
63	검한성공파	가산민영종중	100,000	
64	곤산군파	곤산군종중	50,000	류태주
65	곤산군파	곤산군종중	50,000	류명돌
66	판사공파	류종렬	50,000	
67	총/소윤공종중	류왕선	100,000	
68	검한성공파	류운식	50,000	
69	총/판윤공종중	류세찬	50,000	
70	좌상공파	좌상공파 회장	100,000	회장 류금렬
71	좌상공파	문성군종중	100,000	류재홍
72	총/전사령공종중	대중회 부회장	100,000	류익현
73	하정공파	안숙공종중	50,000	류주영
74	총/소윤공종중	류형선	100,000	
75	좌/찬성공종중	류인홍	100,000	
76	중문지후사공파	류석현	100,000	
77	고양공종중	류민성	100,000	
합 계			8,900,000	

2019年度 貞慎公壇祀 誠金錄

2019.10.3.(단위 : 원)

연번	파/종중	개인 및 종중	금액	비고
1	문화류씨	대중회	100,000	대전시 유천동
2	정신공회장	류재진	100,000	전북 익산 개안
3	좌상공파	문성군종중	100,000	경남 김해
4	좌상공파	충재공종중	100,000	경기 용인
5	충경공파	부령공종중	100,000	전북 익산
6	정숙공파	옥천종중	200,000	충북 옥천
7	정숙공파	옥천추소리종중	100,000	충북 옥천
8	김한성공파	전북 김제	300,000	분담금
9	광주전남종친회	전남 광주	100,000	전남, 광주
10	좌상공파	관관공	100,000	광주
11	좌상공파	분담금	300,000	경기도 포천
12	좌상공파	찬성공종중	100,000	경기도 포천
13	충경공파	소윤공종중	100,000	대전시 노은동
14	관사공파	대구관사공종중	200,000	대구회장 류창현
합 계			2,000,000	

2019年度 慕省祠享祀 誠金錄

2019.10.13. (단위 : 원)

연번	파	개인 or 단체	금액	비고
1	문화류씨대중회	문화류씨대중회	2,000,000	체레비
2	진주류씨대중회	진주류씨대중회	1,000,000	체레비
3	시랑공파	중중	100,000	총무 재평
4	시랑공파	제학공중중	200,000	회장 재육
5	시랑공파	개인	50,000	서연
6	문숙공파	중중	100,000	회장 재영
7	문숙공파	감찰공중중	100,000	회장 재영
8	하정공파	안숙공중중	100,000	회장 주영
9	하정공파	안숙공중중	100,000	회장 인택
10	하정공파	여수감찰공중중	50,000	
11	하정공파	중중	100,000	
12	하정공파	고양공중중	100,000	
13	곤산군파	회장	100,000	회장 진춘
14	곤산군파	개인	50,000	명돌
15	문평군파	종친회회장	100,000	회장 태기
16	문평군파	참봉공중중	100,000	회장 태기
17	문평군파	개인	100,000	지원
18	중문지후사공파	첨정공회회의 후손종친회	100,000	회장 용현
19	중문지후사공파	중중	100,000	회장 석현
20	중문지후사공파	광주(개인)	50,000	근선
21	중문지후사공파	개인	50,000	지세
22	중문지후사공파	개인	100,000	지만
23	좌상공파	중중	200,000	회장 재광
24	좌상공파	총제공중중	100,000	회장 복현
25	좌상공파	중중	200,000	회장 금렬
26	좌상공파	문성군후 명신공중중	100,000	회장 수환

연번	파	개인 or 단체	금액	비고
27	좌상공과	서산공후 참판공종중	100,000	회장 복수
28	좌상공과	찬성공후 장연공종중	50,000	경현
29	좌상공과	찬성공가평종중	50,000	인상
30	좌상공과	찬성공춘천종중	500,000	인홍
31	좌상공과	부정공종중	50,000	치열
32	좌상공과	서산공종중	100,000	회장 재휴
33	좌상공과	서산공후판관공	100,000	회장 재휴
34	좌상공과	서산공후 감찰공	100,000	회장 재휴
35	좌상공과	찬성공후 장연공종친회	100,000	회장 인현
36	좌상공과	서산공후(개인)	50,000	성열
37	좌상공과	서산공후 감찰공종중(개인)	50,000	재삼
38	좌상공과	서산공후 광주(개인)	100,000	근춘
39	좌상공과	찬성공후 문정공종중	100,000	왕현
40	좌상공과	서산공후 감찰공종중	50,000	재춘
41	좌상공과	찬성공종중(서울)	100,000	회장 경렬
42	좌상공과	화순종중	50,000	재선
43	좌상공과	김해재경종친회	100,000	회장 진호
44	좌상공과	찬성공종중	100,000	재등
45	좌상공과	찬성공종중(개인)	50,000	좌열
46	좌/찬성공	찬성공후 사정공종중	100,000	회장 형열
47	좌상공과	찬성공후 개인	50,000	필선
48	좌상공과	찬성공후 우후공과	100,000	회장 충렬
49	좌상공과	찬성공후 문녕공과종중	100,000	재학
50	좌상공과	찬성공후 문녕군	50,000	상현
51	좌상공과	찬성공후 문녕군	50,000	재봉
52	좌상공과	포천부정공과종친회	100,000	회장 희열
53	좌상공과	찬성공후 문희공종중	100,000	회장 호창
54	좌상공과	서산공후 평강공종중	100,000	회장 학현

연번	과	개인 or 단체	금액	비고
55	좌상공과	문원군종중	100,000	회장 철현
56	좌상공과	개인	50,000	재준
57	좌상공과	문성군종중	100,000	회장 재홍
58	좌상공과	서상공후(대전)	100,000	종현
59	좌상공과	찬성공후(포천)	100,000	금렬
60	검한성공과	서산공후 전남화순(개인)	50,000	재면
61	검한성공과	창평공종중	100,000	회장 길선
62	검한성공과	수곡종중	100,000	회장 길선
63	검한성공과	관서공종중(연천)	100,000	회장 범영
64	검한성공과	요은공종중	100,000	회장 홍목
65	검한성공과	영광공종중	100,000	회장 정웅
66	검한성공과	연천 별제공종중	100,000	회장 인원
67	검한성공과	종중	200,000	회장 태열
68	검한성공과	회인공종중	100,000	회장 삼영
69	검한성공과	함안공종중	100,000	회장 인만
70	검한성공과	사직공종중(춘천)	100,000	회장 재덕
71	검한성공과	연천종중	100,000	건영
72	검한성공과	가산민영종중	100,000	
73	정숙공과	개인(대전)	50,000	제복
74	판사공과	대구종중	200,000	회장 창현
75	부윤공과	종중	300,000	회장 재만
76	충경공과	만은공(개인)	50,000	형선
77	충경공과	춘천	100,000	명열(옥현)
78	충경공과	충경공종중	200,000	회장 재관
79	충경공과	개인	50,000	시열
80	충경공과	개인	50,000	영욱
81	충/전사령공	송암공종중	200,000	회장 학선
82	충/전사령공	종중	200,000	회장 지찬
83	충/전사령공	반암종친회	200,000	회장

연번	파	개인 or 단체	금액	비고
84	충/전사령공	사직공종중	100,000	회장 지찬
85	충/전사령공	개인	50,000	지탁
86	충/전사령공	승의랑공종중	100,000	회장 지만
87	충/판윤공	개인	200,000	고문 용진
88	충/판윤공	회장	200,000	회장 재광
89	충/부령공	부령공종중	100,000	회장 재중
90	충경공과	소윤공종중	200,000	회장 우상
91	충/소윤공	찰방공종중	100,000	회장 재복
92	충/소윤공	주부공종중	100,000	회장 조현
93	충/소윤공	개인	100,000	재풍
94	충/소윤공	남해 합천종중	100,000	회장 진규
95	충/소윤공	성곡공 회장(개인)	100,000	회장 명준
96	충/소윤공	성곡공종중	100,000	대걸
97	충/소윤공	봉사공종중(옥천)	100,000	회장 지한
98	충/소윤공	성곡공종중 (대구종회)	100,000	회장 성열
99	충/소윤공	여주종중	100,000	회장 영현
100	충/소윤공종중	개인	100,000	응렬
101	서울종친회	개인	100,000	부회장 기천
102	서울종친회	서울종친회	100,000	회장 주선
103	광주,전남	광주,전남종친회	200,000	회장 금환
104	대전종친회	대전종친회	100,000	회장 장렬
105	정신공종중	정신공종중	100,000	회장 재진
106	인탁	개인	30,000	인탁
합 계			14,080,000	

【編輯後記】

儒州春秋 第22輯 後記



文化柳氏大宗會 事務總長 柳 承 鉉

己亥년도 이제 한 해를 갈무리하는 立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先祖님의 遺德을 讚揚하고 宗親간의 敦睦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宗親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先世의 遺文과 遺筆, 狀碣 그리고 각 宗中の 크고 작은 行事와 紀行, 隨筆, 提言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우리 文化柳氏의 다양한 歷史가 담겨진 儒州春秋 제22집을 발간하면서 玉稿를 보내주신 宗親 여러분께 먼저 祝賀를 드립니다.

특히 儒州春秋에 수록된 崇祖精神이야말로 文化柳氏 뿐만 아니라 現代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崇祖孝親 思想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돌이켜보건데 부족한 저는 2년전부터 事務總長으로서 大宗會 宗務를 맡고 있습니다. 다마는 아직 未熟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大宗會는 물론 관련업무의 向上과 發展을 위해 작은 밑알이 되도록 가일층 心血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覺悟의 일단을 말씀드리면서 宗親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儒州春秋는 우리 文化柳氏의 公器인만큼 많은 宗親들로 하여금 世代의 高下와 事蹟의 古今을 막론하고 先祖의 偉業을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弘報나 擧揚에 중점을 두어 명실 공히 文柳의 公器로써 未洽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萬枝同根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함께 崇祖敦睦하면서 宗親 한분 한분이 宗報의 主幹

이라는 생각으로 族是를 具現하는데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宗論暢達의 關鍵이고 族是具現의 捷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己亥年에는 始祖 大丞公의 位牌를 慕省祠에 奉安하고 享祀를 奉行한 그 첫 해로서 더욱 뜻깊은 己亥年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儒州春秋 제22집 발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주신 大宗會 在均·在復理事님과 李貴永 대리 그리고 瑞進出版 白鐘欽 社長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宗親 여러분의 健康과 家庭의 幸福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編輯後記에 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일



“投稿案内”

『儒州春秋』는 先世의 遺德을 闡揚하고 宗族의 敦睦을 振作하는데 目的을 두고 每年 刊行하는 文化柳氏의 宗報입니다.

宗親 諸位께서는 先世의 遺文, 遺筆, 狀碣과 宗中の 事業, 行事 및 紀行, 隨筆, 提言 등 多様な 記錄을 該當 寫眞과 本人 寫眞을 同封, 每年 六月末日까지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儒州春秋 第二十二輯

二〇一九年陽十一月一〇日印刷

二〇一九年陽十一月一五日發行

發行人 柳 三 鉉

編輯人 柳 承 鉉

發行所 文化柳氏大宗會

大田廣域市中區階伯路

一五六六번길 二四(柳川洞)

電話(〇四二) 五八二一〇七七二

電送(〇四二) 五八二一〇七七九

印刷所 瑞進印刷出版社

代表 白 鐘 欽

大田廣域市 東區 宣化路 一八七(三省

洞)

電話(〇四二) 二五六一九〇三三

複製不許



慕省祠 全景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길 71(계류리)

